

모택동선집

1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

毛泽东选集

第一卷

一九六七年·北京

모택동선집

1

1967년·북경



毛泽东

이 선집 출판에 대하여

이 선집에는 중국 혁명의 각 시기에 있어서의 모택동 동지의 중요한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수년 전에 여러 지방에서 수종의 부동한 판의 《모택동 선집》을 출판한 일이 있으나 모두가 저자의 심열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체제도 딱 탄압하고 문'자 상에도 틀린 것이 있고 또 약간의 중요한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출판하는 이 선집은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후 그가 걸어 온 각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저작의 년대순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 선집은 각 지방에서 과거에 출판한 저작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일부의 중요한 저작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수록하였다. 이 선집 내에 수록된 저작들은 모두 저자의 교열을 받았으며 그 중의 어떤 곳은 저자가 문'자 상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고 개별적 저작은 내용 상 약간의 보충과 수정을 가하였다.

다음에 출판 상의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말하여 둔다.

첫째, 지금 출판하는 이 선집도 아직 그다지 완비하지는 못하다. 국민당 반동파에 의한 혁명 문헌의 훼손과 장기적인 전쟁 기간에 있어서의 혁명 문헌의 산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모택동 동지의 저작 전부를, 특히 모택동 동지가 쓴 허다한 편지와 전보(이러한 것들은 모택동 동지의 저

작 중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를 찾지 못 하고 있다.

둘째, 한때 널리 발행된 일부의 저작 예를 들면 <농촌 조사>는 저자의 의견에 의하여 넣지 않았고 또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도 저자의 의견에 의하여 그 중의 제 1 장(즉 <과거 사업에 관한 기본 총화>)만을 넣었다.

셋째, 선집에는 약간의 주해를 달았다. 그 중 일부분은 해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 저작의 제 2 페이지 끝에 실었고 그 외의 부분은 정치적 성질에 속하는 것과 기술적 성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 끝에 실었다.

넷째, 이 선집에는 두 가지 장정본이 있다. 하나는 각 시기의 저작을 합본한 한 권으로 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네 권으로 된 책이다. 네 권으로 된 책의 제 1 권에는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와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의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고 제 2 권과 제 3 권에는 항일 전쟁 시기의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고 제 4 권에는 제 3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의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모택동 선집 출판 위원회

1951년 8월 25일

목 차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1926년 3월)·····	3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1927년 3월)·····	17
농민 문제의 중대성·····	17
조직되었다·····	18
토호 멸신을 타도하고 모든 권력을 농민 협회어로·····	20
《참 란장판이야》와 《참 잘 됐어》·····	22
소위 《파격하다》는 문제·····	23
소위 《불한당 운동》·····	26
혁명의 선봉·····	27
열 네 가지 큰 사업·····	33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 (1928년 10월 5일)·····	73
1. 국내의 정치 정세·····	73
2. 중국에서 홍색 정권이 산생하고 존재하는 원인·····	75
3.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와 8월의 실패·····	78

4.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 국면이 호남, 호북, 강서 세 성에서 차지하는 지위.....	80
5. 경제 문제.....	81
6. 군사 근거지 문제.....	82
정강산 투쟁(1928년 11월 25일).....	87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와 8월의 실패.....	87
할거 지구의 현 정세.....	95
군사 문제.....	97
토지 문제.....	106
정권 문제.....	111
당 조직 문제.....	114
혁명의 성격 문제.....	121
할거 지구 문제.....	123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 (1929년 12월).....	131
단순한 군사 관점에 대하여.....	132
극단적 민주화에 대하여.....	136
비조직적 관점에 대하여.....	137
절대적 평균주의에 대하여.....	139
주관주의에 대하여.....	140
개인주의에 대하여.....	142
류구 사상에 대하여.....	144
맹동주의의 잔재에 대하여.....	145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 (1930년 1월 5일).....	149
경제 사업에 주의를 돌리자(1933년 8월 20일).....	167
농촌의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1933년 10월).....	179
우리의 경제 정책(1934년 1월 23일).....	183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 방법에 주의를 돌리자(1934년 1월 27일).....	191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1935년 12월 27일).....	201
현 정치 정세의 특성.....	201
민족 통일 전선.....	215
인민 공화국.....	221
국제적 원조.....	228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1936년 12월).....	239
제 1 장 전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239
제 1 절 전쟁의 법칙은 발전한다.....	239
제 2 절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소멸하는 데 있다.....	244
제 3 절 전략 문제란 전쟁의 전반 국면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246
제 4 절 중요한 문제는 학습을 잘 하는 데 있다.....	250
제 2 장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혁명 전쟁.....	258
제 3 장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	262

제 1 절 이 문제의 중요성	262
제 2 절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	264
제 3 절 여기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이 나온다	268
제 4 장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 ——중국 내전의 주요 형태	270
제 5 장 전략적 방어	277
제 1 절 적극적 방어와 소극적 방어	277
제 2 절 반 《포위 토벌》의 준비	282
제 3 절 전략적 퇴각	286
제 4 절 전략적 반공	305
제 5 절 반공 개시 문제	308
제 6 절 병력 집중 문제	318
제 7 절 운동전	328
제 8 절 속결전	335
제 9 절 심밀전	340
장 개석의 성명에 대한 성명(1936년 12월 28일)	349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1937년 5월 3일)	359
민족적 모순과 국내적 모순의 현 발전 단계	359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364
우리의 령도 책임	373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1937년 5월 7일)	387

평화 문제.....	387
민주주의 문제.....	392
혁명의 전망 문제.....	395
간부 문제.....	396
당내 민주주의 문제.....	398
대회의 단결과 전 당의 단결.....	398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399
실천론(1937년 7월).....	403
모순론(1937년 8월).....	427
1. 두 가지 세계관.....	428
2. 모순의 보편성.....	434
3. 모순의 특수성.....	440
4.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456
5. 모순의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466
6. 모순에서 적대가 차지하는 위치.....	476
7. 결 론.....	479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

(1926년 3월)

누가 우리의 적이며 누가 우리의 벗인가? 이 문제는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날 중국의 모든 혁명 투쟁이 성과가 매우 적었던 그 기본 원인은 진정한 벗을 단합하여 진짜 적을 공격하지 못한 데 있다. 혁명 정당은 대중의 향도자이다. 혁명에 있어서 혁명 정당이 길을 잘못 인도하였는데도 실패되지 않은 혁명은 없다. 우리의 혁명을 잘못 인도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자신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진정한 벗을 단합하여 우리의 진짜 적을 공격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적과 진정한 벗을 분별하자면 중국 사회 각 계급의 경제적 지위와 혁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사회 각 계급의 정황은 어떠한가?

* 모택동 동지의 이 글은 당시 당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경향을 반대하여 쓴 것이다. 당시 당내에 존재한 한 가지 경향은 진 독수물 대표자로 한 우경 기회주의로서 국민당과의 합작에만 주의를 돌리고 농민을 망각하고 있었다. 다른 한 가지 경향은 강 국도를 대표자로 한 《좌》경 기회주의로서 토동 운동에만 주의를 돌리고 역시 농민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 두 기회주의는 다 자기 혁명의 부족을 느껴면서도 어디에서 혁명을 찾아야 하며 어디에서 광범한 동맹군을

지주 계급과 매관 계급. 경제적으로 낙후한 반식민지 중국에 있어서 지주 계급과 매관 계급은 완전히 국제 부르주아지의 부속물로 되어 있으며 그 생존과 발전은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이 계급들은 중국에서 가장 타후하고 가장 반동적인 생산 관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들은 중국 혁명의 목적에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대지주 계급과 대매관 계급은 언제나 제국주의 편에서 있으며 따라서 극단적인 반혁명파이다. 그 정치적 대표자는 국가주의파^[1]와 국민당 우파이다.

중부르주아지. 이 계급은 중국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중부르주아지란 주로 민족 부르주아지를 가리킨다. 그들은 중국 혁명에 대하여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그들은 외국 자본의 타격과 균벌의 압박에 고통을 느낄 때에는 혁명을 요구하며 반제, 반균벌 혁명 운동을 찬성하지만 그러나 국내적으로 자국의 프로테타리아트가 혁명에 용맹하게 나서며 국외적으로 국제 프로테타리아트가 혁명에 적극적인 원조를 주고 있어 대부르주아지로 되려는 자기들의 계급적 발전에 위협을 느낄 때에는 또 혁명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다. 그들의 정치적 주

언어야 하는가를 붙잡던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중국 프로테타리아트의 가장 광범하고 가장 충실한 동맹군은 농민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리 하여 중국 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한 동맹군 문제를 해결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또 당시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동요하는 계급으로서 혁명의 양양기에는 분화되어 그 우익은 제국주의 측으로 돌아 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1927년에 발생된 사변은 이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장은 민족 부르조아지 한 계급이 통치하는 국가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대 계도^[2]의 《진실한 신도》로 자칭하는 어떤 자가 북경 《신보》^[3]에 발표한 자기의 론설에서 《너의 왼 손을 들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너의 오른 손을 들어 공산당을 타도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계급의 모순되는, 경황하는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계급 투쟁의 학설로 국민당의 민생주의를 푸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당이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을 용납하고^[4] 좌파 분자를 용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급의 기도——민족 부르조아지가 통치하는 국가를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되지 않을 일이다. 그것은 오늘 세계가 혁명과 반혁명의 2대 세력이 판가리 싸움을 하는 정세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 2대 세력은 두 폭의 큰 기'발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는 혁명의 붉은 기'발로서 제 3 국제당이 이것을 높이 들고 전 세계의 모든 피압박 계급에게 그 기치 밑에 집결하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반혁명의 흰 기'발로서 국제 련맹이 이것을 높이 들고 전 세계 모든 반혁명 분자들에게 그 기치 밑에 집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간 계급들은 반드시 급속히 분화되어 혹은 왼 쪽으로 돌아 서서 혁명과 측어로 달려 오거나 혹은 오른 쪽으로 돌아 서서 반혁명과 측어로 달려 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자립》의 여지라고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계급을 주체로 하여 《자립》적으로 혁명하려는 중국 중부르조아지의 사상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소부르조아지. 레를 들면 자작농^[5], 수공업주, 소지식

계층——학생계, 중소 학교 교원, 하급 관리, 하급 사무원, 하층 변호사——그리고 소상인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 계급은 그 수효로 보나 그 계급성으로 보나 큰 주의를 들릴 필요가 있다. 자작농이나 수공업주들이 경영하는 것은 모두가 소생산적 경리이다. 이 소부르조아지 내의 각 계층은 비록 다 같이 소부르조아지의 경제적 지위에 처하여 있지만 그 안에는 세 개의 상이한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돈과 식량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즉 육체 노동 혹은 정신 노동의 소득으로 자급 자족하고도 매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벌이 관념이 매우 농후하여 조공 원수〔6〕에게 가장 부지런히 빌며 비록 큰돈을 모을 망상은 하지 않지만 언제나 중부르조아지의 지위에 기여 올라 가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남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자그마한 전주(錢主)를 보면 흔히 침을 한 발씩이나 흘린다. 이런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관리도 무서워 하거니와 혁명도 좀 무서워 한다. 그들은 경제적 지위가 중부르조아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부르조아지의 선전을 잘 믿고 혁명에 대하여는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 부분의 사람들은 소부르조아지의 우익으로서 소부르조아지 중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대체 상 경제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부분의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이들 역시 돈을 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공 원수가 전혀 돈'벌이를 시켜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근년에 와서는 제국주의, 군벌, 봉건 지주 및 매판 대부르조아지의 압박과 착취로 하여 이들은 세상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지금 이전과 같은 정도로만 로동하여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로동 시간을 증가하여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직업에 대하여 갑절로 관심을 돌려야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남을 좀 욕하게 까지 되었다. 서양 사람을 보고는 《양코배기》라 욕하고 군벌을 보고는 《강도 사령》이라 욕하고 토호 벌신을 보고는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라 욕한다. 반제, 반군벌 운동에 대하여는 단지 그 성공 여부를 의심하여(그 리유는 서양 사람과 군벌들의 기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뜻 참가하기를 꺼리며 중립적 태도를 취할 뿐이고 결코 혁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효가 매우 많은바 대략 소부르조아지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째 부분은, 생활 형편이 악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전에는 살림이 탁탁하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점차 현상 유지나 겨우 할 정도로 되어 가며 점차 생활 형편이 더 악화되어 간다. 그들은 년말 결산 때마다 《에쿠, 또 밀렸구나!》하고 깜짝 놀라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잘 살았으나 그 후 해마다 생활 형편이 악화되어 빛은 점점 더 늘어 가고 생활은 점점 더 서글퍼져 그야 말로 《앞길을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처지가 과거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신 상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주 심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효가 적지 않은 대중이며 소부르조아지의 좌익으로서 혁명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말

한 소부르쥬아지의 세 개 부분은 혁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각각 다르지만 전시가 되면, 즉 혁명의 조류가 양양되고 승리의 서풍이 보일 때에는 비단 소부르쥬아지의 좌파만이 아니라 중간파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며 우파 분자까지도 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쥬아지 좌파의 혁명의 대조류에 휩싸여 혁명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25년의 5.30 운동^[7]과 각지 농민 운동의 경험으로 보아 이 단정은 틀림이 없다.

반프로레타리아트. 여기에서 말하는 반프로레타리아트에는 (1) 절대 다수의 반자작농^[8], (2) 빈농, (3) 소수공업자, (4) 점원^[9], (5) 행상 등 다섯 가지 부류가 포함된다. 절대 다수의 반자작농과 빈농은 농촌에서 수요가 아주 많은 대중이다. 농민 문제라는 것은 주로 이들에 대한 문제이다. 반자작농, 빈농 및 소수공업자들이 경영하는 것은 모두가 더욱 열세한 소생산적 경리이다. 절대 다수의 반자작농과 빈농은 다 반프로레타리아트에 속하지만 그 경제 형편은 다시 상, 중, 하 세 가지로 세분된다. 반자작농은 그 생활이 자작농보다 곤궁하다. 그들은 식량이 해마다 거의 절반이나 부족되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부치거나 일부 로동력을 팔거나 소소한 장사를 하거나 하여 그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봄과 여름 사이의 보리'고개가 되면 높은 리자로 빚을 내어 비싼 값으로 식량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남에게 빌 것 없는 자작농에 비하면 이들의 형편이 더 어려우나 빈농보다는 낫다. 왜냐 하면 빈농은 자기의 토지가 없

어서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소출의 겨우 절반 혹은 절반 이하 밖에 차지하지 못 하지만 반자작농은 남의 토지를 부치는 부분에서는 비록 소출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 밖에 차지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은 몽땅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자작농의 혁명성은 자작농보다는 강하고 빈농보다는 못 하다. 빈농은 농촌의 소작농으로서 지주의 착취를 받고 있다. 그 경제적 지위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의 빈농은 비교적 충족한 농기구와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농민은 매년 로동의 결과를 절반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 부족되는 부분은 잡곡을 심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닭과 돼지를 치거나 또는 일부의 로동력을 팔거나 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둬지는 고난 속에서 이력저력 그 해를 넘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반자작농보다는 곤궁하나 다른 한 부분의 빈농보다는 나은 편이다. 그들의 혁명성은 반자작농보다는 강하고 다른 한 부분의 빈농보다는 못 하다. 소위 다른 한 부분의 빈농은 충족한 농기구가 없을뿐더러 자금도 없고 비료도 부족하여 토지의 소출이 적기 때문에 소작료를 물고 나면 남는 것이라고는 없다 싶이 되므로 더구나 로동력을 좀 팔지 않으면 안 된다. 흉년이나 들게 되면 친척이나 친구의 집으로 다니며 애걸 복걸한 나머지 쌀 되나 꾸어서 3~4 일씩 연명하게 되다 보니 빛은 쌓이고 또 쌓여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소와 같은 곤경에 빠지고 만다. 이들은 농민 중에서 가장 곤궁한 사람들로써 혁명의 선전을 아주 잘 접수한다. 소수공업자들

반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자기의 간단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는 일이 일종의 자유 직업 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종종 일부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며 그 경제적 지위가 농촌의 빈농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 가정 부담이 과하고 노동 수입과 생활 지출이 맞아 떨어 지지 않아 항상 빈곤의 압박과 실업의 위협을 받는 점도 빈 농과 대체로 같다. 점원은 상점의 고용인으로서 몇 문 안 되는 월급으로 가정 비용을 써 나가는데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월급은 흔히 몇 해만에야 한 번씩 오르다 보니 간혹 이 사 람들과 축을 털어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고통 스러운 사정을 하소연한다. 그 지위는 빈농이나 소수공업자 와 비슷하여 혁명의 선전을 아주 잘 접수한다. 행상은 물건을 메고 웨치며 돌아 다니는 장사'군이냐 거리에 난전을 벌 려 놓고 파는 장사'군이냐를 물론하고 모두가 밀천이 짙고 리익이 박하여 먹고 입기에도 부족하다. 그 지위는 빈농과 비 슷하며 현상 변혁의 혁명을 요구하는 점도 빈농과 동일하다.

프로레타리아트. 현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는 약 200만 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요가 많지 못하다. 200만 가량의 산업 노동자 중에서 주되는 것은 철도, 광산, 해운, 방직, 조선 등 다섯 가지 산업의 노동자이며 그 중 상당한 수요의 노동자들은 외국 자본이 경영하는 산업의 예속 하에 있다. 산업 프로 레타리아트의 수요는 비록 많지 못 하나 이는 중국의 새로운 생산력의 대표자이며 근대 중국의 가장 진보적인 계급이며

혁명 운동의 정도적 역량으로 되어 있다. 지난 4년 동안의 파업 운동에서, 폐물 들면 해원 파업[10], 철도 파업[11], 개란 탄광 파업과 초작 탄광 파업[12], 사면 파업[13] 및 《5.30》 이후의 상해, 향항 두 곳의 대파업[14]에서 표현된 위력만 보더라도 중국 혁명에 있어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처하고 있는 지위의 중요성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첫째 원인은 집중되어 있는 데 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물론하고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만큼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원인은 경제적 지위가 낮은 데 있다. 그들은 생산 수단을 잃고 빈 주먹 밖에 남지 않아 돈을 모을 희망이 끊어졌고 또 제국주의, 군벌, 부르주아지의 극히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전투적이다. 도시의 쿠리 로동자의 역량에 대하여도 많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부두 운반부와 인력거'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변소 청결부와 도로 청소부 등도 이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빈 주먹 밖에는 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 경제적 지위가 산업 로동자와 흡사하며 단지 집중성과 생산 면에서의 중요성이 산업 로동자만 못하다. 중국에는 아직 자본주의적 인식 농업이 적다. 농촌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것은 머슴, 탈머슴, 낱품팔이 등의 고농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농들은 토지도 없고 농기구도 없을뿐더러 자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품팔이를 하여 생활하는 수 밖에 없다. 그 로동 시간이 길고 임금이 적고 대우가 박하고 직업이 불안정한 점은 기타의 로동자들보다 더하다. 이들은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며 농민 운동에서 빈농과 동일하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또 적지 않은 수효의 몸제 프로레타리아가 있는데 그들은 토지를 잃은 농민과 일'자리를 잃은 수공업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각지에 비밀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복건, 광둥 지방의 《삼합회》, 호남, 호북, 귀주, 사천 지방의 《가로회》, 안휘, 하남, 산둥 등 성의 《대도회》, 적예성과 동3성의 《재리회》, 상해 등지의 《청방》 등^[15]은 모두 그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투쟁의 호조 단체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리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파괴성도 있지만 매우 용감하게 투쟁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인도만 한다면 혁명 역량으로 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제국주의와 결합한 일체 군벌, 판료, 매판 계급, 대지주 계급 및 그들에게 예측된 일부 반동적 지식계는 우리의 적이다. 산업 프로레타리아트는 우리 혁명의 명도적 역량이다. 일체 반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조아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동요하고 있는 중부르조아지는 그 우익은 우리의 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좌익은 우리의 벗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그들이 우리 진영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주 해

[1] 국가주의파만 당시 《중국 국가주의 청년단》을 조직하였다가 뒤에 《중국 청년당》이라고 개칭한 한 증도 못 되는 불법지한 파쇼 정객들을 가리켜 말한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각종 반동파와 제국주의에게서 기밀비를 받아 먹고 공산당파 쓰편을 반대하는 것을 자기들의 반혁명적 직업으로 삼았다.

[2] 대 계도는 일찌기 국민당에 참가하였고 또 장 개석파 위인소의 무기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1925년에 쓴 증산이 서거하자 그는 반공적 선동 활동에 종사하면서 장 개석이 1927년에 일으킨 반혁명 정변을 위한 정신적 준비를 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그는 장 개석의 반혁명의 충실한 주구였다. 1949년 2월 그는 장 개석의 동치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권도에 절망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3] 복경 《신보》는 당시 정치적으로 북양 군벌의 동지들 옹호하던 정치 단체의 하나인 연구계의 기관지였다.

[4] 1923년 쓴 증산은 중국 공산당원의 방조 하에 국민당을 제조적하며 국공 합작을 실시하며 공산당원들의 국민당에의 가입을 용인하기로 결정하고 1924년 1월 평주에서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를 소집하여 토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토농을 부조하는 3대 정책을 확정하였다. 당시 모 태동 동지와 리 대소, 펄 텍거, 구 추택 등 동지는 이 대회에 참가하여 국민당을 혁명의 길에 들어 서도록 방조함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들은 또 당시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 또는 후보 집행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5] 모 태동 동지는 여기에서 증농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6] 조공 원수만 중국 민간 전설에 나오는 제부의 신 조공명이다.

[7] 1925년 5월 30일에 상해의 영국 경찰이 중국 인민을 학살한 사건에 항의하여 일어난 전국 인민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가리켜 말한다. 1925년 5월에 청도, 상해 등지의 일본 방적 공장에서 전후하여 일어난 규모가 매우 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북양 군벌에게 탄압 당하였다. 5월 15일에 상해 일본 방적 공장의 자본가는 노동자 고 정홍을 사살하고 노동자 10여 명을 부상시켰다. 28일에는 청도의 노동자 8 명이 반동 정부에 의하여 학살 당하였다. 30일에 상해 학생 2,000여 명은 노동자들을 성원할 것을 조계지 내에서 선전하면서 조계지의 회수를 호소하였으며 뒤를 이어 군중 만여 명이 영

국 조계지 경찰서 문앞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라도하자》, 《권 중국 인민은 단결하자》는 등의 구호를 높이 쳤다. 영 제국주의의 경찰은 즉시 발표하여 많은 학생들을 살상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5.30 참살 사건》이다. 이 대학 살 사건이 발생되자 전국 인민의 격분을 일으켜 각지에서 시위 행진, 파업, 동맹 휴학, 철시 등이 일어 남으로써 극히 큰 규모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형성되었다.

[8] 모택동 동지는 여기에서 자작 절반에 소작 절반을 하는 빈궁한 농민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9] 중국의 점원 중에는 상이한 계층들이 있었다. 모택동 동지가 여기에서 가리킨 것은 점원들 중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밖에 일부분의 하층 점원들은 프로메타리아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10] 1922년 초의 향합 해원 파업과 장강 선원 파업을 가리켜 말한다. 향합의 해원 파업은 8 주일을 견지하면서 격렬한 투쟁적 투쟁을 진행한 결과 향합 영 제국주의 당국은 할 수 없이 임금을 올리고 원래의 공회물 회복하고 체포한 로동자들을 석방하고 살해 당한 로동자들에 대하여 위자모를 내어 줄 것을 승인하게 되었다. 뒤'이어 장강의 선원 로동자들도 파업을 발동하고 2 주일 간 견지하여 역시 승리를 쟁취하였다.

[11]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립되자 즉시로 철도 로동자들이 가운데서 초적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그리 하여 1922년과 1923년에는 각 주요 철도선에서 공산당의 명도 하에 파업 투쟁이 일어났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23년 2월 4일에 경한선(즉 북경으로부터 한구까지의 철도선)의 로동자들이 총공회물 조직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행한 총파업이다. 영 제국주의의 지지 하에 있는 북양 군벌 오 패부, 소 요남은 2월 7일에 파업 로동자들에 대하여 잔혹한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역사 상 유명한 《2.7 참살 사건》이다.

[12] 개관 탄광이란 개평, 만주 두 탄광구의 총칭이다. 이것은 중국 하북성에 있는, 호상 연결된 대탄광구로서 당시 로동자 약 5만여 명이 있었다. 1900년의 화단 운동 때에 영 제국주의가 개평 탄광을 약탈하자 중국 사람은 따로 만주 탄광 공사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개관 광무 중국에 합병되었다. 그리 하여 두 탄광은 결국 영 제국주의가 독점하게 되었다. 개관 파업은 1922년 10~11월의 파업을 가리켜 말한다. 초작 탄광은 하남성 북부에 있는데 당시에 역시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있었다. 초작 파업이란 1925년 7월에 폭발된 파업을 가리켜 말한다. 이 파업은 5.30 운동에 호응하여 단행되었는데 도합 7 개월 이상 견지되었다.

[13] 사면은 광주에 있는데 당시 영 제국주의의 조제지였다. 1924년 7월 사면을 통치하고 있던 영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경찰법을 반포하여 사면의 중국 사람들이 조제지물 출입할 때에는 본인의 사진을 붙인 통행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유로 출입할 수 있었다. 사면 노동자들은 7월 15일에 파업을 선포하고 이 무리한 조치에 항의하였다. 그 결과 영 제국주의자들은 하는 수 없이 새 경찰법을 취소하였다.

[14] 1925년 5월 30일의 상해 사건 후 6월 1일에는 상해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6월 19일에는 항항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전자의 파업 참가자 수는 20여만 명이며 후자는 25만 명이였다. 항항 대파업은 전국 인민의 지원 하에서 1년 4개월이나 견지하였으며 세계 노동 운동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파업이었다.

[15] 삼합회, 가로회, 대도회, 제리회, 청방은 원시적 형태의 민간 비단체제로서 이런 조직의 구성 요소는 주로 명락된 농민, 실업 당한 수공업자, 동계 프로레타리아 등이었다. 중국 봉건 시대에 이러한 성분들은 항상 종교 미신을 그들의 연계의 뉴대로 삼고 가부장제적 조직 형태 하에서 명목이 다른 여러 가지 조직들을 형성하였으며 무기까지 가진 것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직을 리용하여 사회 생활에서의 호상 원조물 도모하였으며 일정한 시기에는 투쟁을 발동하여 자기들을 압박하는 관료와 지주에 반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이런 탁후한 조직으로 자기들의 슬로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이런 탁후한 조직은 또 왕왕 용이하게 지주, 토호들의 세력에 조종되고 리용되며 게다가 명목적인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반동적 역량으로 된 것도 있었다. 1927년에 장 개석은 반혁명적 정변을 일으키면서 근로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며 혁명을 파괴하는 도구로 이런 탁후한 조직들을 리용하였던 것이다. 근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역량이 강대하게 일어난 후 농민이 노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점차적으로 건립하게 되자 이런 원시적인 탁후한 조직들은 그 존재 가치를 잃고 말았다.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

(1927년 3월)

농민 문제의 종대성

이 번에 나는 호남성^[1]에 가서 상담, 상향, 형산, 예릉, 장사 등 5 개 현의 정황을 현지에서 시찰하였다.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32 일 간에 걸쳐 농촌 또는 현 소재지에서 경험 있는 농민과 농민 운동 일'군들을 소집하여 조사회를 열고 그들의 보고를 자세히 들었으며 거기서 적지 않은 자료들을 얻었다. 농민 운동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한구나 장사에

• 모택동 동지의 이 보고는 농민의 혁명 투쟁에 대한 당시 당내외의 비난들에 답변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이러한 비난들에 답변하기 위하여 호남성에 가서 32 일 동안 시찰하고서 이 보고를 썼다. 당시 당내에는 진독수물 비롯한 우경 기회주의자들이 모택동 동지의 의견을 접수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류는 주로 국민당의 반동적 조류에 걸리어 이미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농민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못한 데 있다. 국민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은 가장 주요한 동맹군인 농민을 비림으로써 로동 계급과 공산당을 고립 무력한 처지에 빠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1927년 여름에 국민당이 혁명을 배반하고 《청당 운동》과 반인민적 권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주로 공산당의 이 약점을 났기 때문이다.

서 신사 계급에게서 듣던 바와는 판관 다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던 신기한 일들이 많았다. 나는 이러한 일이 많은 지방들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민 운동을 반대하는 온갖 의론들은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 운동에 대한 혁명 당국의 각종 그릇된 조치들은 속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도에 유익할 것이다. 왜냐 하면 현하 농민 운동의 발흥은 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시일 내에 수억의 농민들이 중국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각 성에서 일어 날 것인바 그 기세는 그야 말로 폭풍우와 같이 급격하고도 맹렬하여 어떠한 힘으로도 억누르지 못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잃매여 놓은 온갖 죄사슬을 끊어 버리고 해방의 길로 출달음 칠 것이다. 제국주의, 군벌, 탐관 오리, 토호 멸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 의하여 모조리 매장되고 말 것이다. 모든 혁명적 당파와 혁명적 동지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검열을 받아 취사가 결정될 것이다.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령도하여 나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뒤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그들을 비판하겠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맞은 편에 서서 그들을 반대하겠는가? 모든 중국 사람은 이 세 가지 길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국은 조속히 선택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조 직 되 었 다

호남성의 농민 운동은 운동이 이미 발전된 호남성 중부

및 남부의 여러 현을 놓고 말한다면 대체 상 두 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가 제 1 시기 즉 조직 시기이다. 이 시기 내에서 1월부터 6월까지가 비밀적 활동기이고 혁명군이 조 항척을 구축한[2] 7월부터 9월까지가 공개적 활동기이다. 이 시기에 농민 협회의 회원 수는 도합 30만~40만 명에 불과하였고 농민 협회가 직접 명도할 수 있는 대중도 100여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농촌에 아직 아무런 투쟁도 없었으므로 각계에서 농민 협회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농민 협회의 회원들이 길안내자나 정찰원이나 짐'군으로 나섰기 때문에 북벌군의 군관들 중에는 칭찬하는 자까지 있었다.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가 제 2 시기 즉 혁명 시기이다. 농민 협회의 회원 수는 200만 명으로 격증되고 농민 협회가 직접 명도할 수 있는 대중은 1,0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농민이 농민 협회에 가입할 때 혼히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리기 때문에 회원이 200만 명이면 대중은 약 1,000만 명이나 된다. 그러므로 호남성 전체 농민 중에서 거의 절반이 조직되었다. 상담, 상향, 류양, 장사, 례릉, 녕향, 평강, 상음, 형산, 형양, 퇴양, 칩현, 안화 등 현에서는 거의 전체 농민이 농민 협회의 조직에 망라되었고 농민 협회의 명도 하에 있게 되었다. 농민들은 광범한 조직을 가지게 되자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리 하여 4 개월 간에 전례 없는 농촌 대혁명이 일어 났다.

토호 혈신을 타도하고 모든 권력을 농민 협회어로

농민들의 주요한 공격 목표는 토호 혈신과 불법 지주이며 그리고 각종 가부장제적인 사상과 제도, 도시의 탐관 오리, 농촌의 악습에도 미치고 있다. 이 공격의 기세는 그야 말로 폭풍우와 같아서 이에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고 반대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그 결과 수천 년 래의 봉건 지주의 특권은 산산이 짓부서지고 말았다. 지주의 체면과 위풍은 여지 없이 납작하여지고 말았다. 지주의 권력이 쓰러지자 농민 협회가 유일한 권력 기관으로 되어 이른바 《모든 권력을 농민 협회어로》가 진정으로 실현되었다. 심지어 내외간의 싸움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농민 협회에 가서 해결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농민 협회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실로 농민 협회는 농촌에서 모든 것을 독재하고 있는바 그야 말로 《말하면 말한 대로 한다》. 외부 사람들은 농민 협회를 좋다고 해야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토호 혈신, 불법 지주들은 발언권을 완전히 박탈 당하였지만 감히 불평을 입 밖에 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농민 협회의 위력 하에 토호 혈신 중에서 1 류는 상해로 도망 치고 2 류는 한구로 도망 치고 3 류는 장사로 도망 치고 4 류는 현 소재지로 도망 치고 5 류 이하의 새끼 토호 혈신들은 그 지방에서 농민 협회에 투항하고 말았다.

《돈 10 원을 내겠으니 제발 농민 협회에 들게 해주십시오

오.》 하고 소멸신이 간청하면

《흥! 누가 너의 그까짓 더러운 돈을 받겠다더냐!》 하고 농민은 대답한다.

이전에는 많은 중소 지주와 부농들이, 지어는 중농까지도 농민 협회를 반대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농민 협회에 들려고 애를 써도 들지 못 하고 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성에서 오신 위원께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자들을 자주 만났다.

청조 시대에 지방에서 호적부를 만들 때 정책과 별책을 만들어 좋은 사람은 정책에 올리고 비적이나 도적 같은 나쁜 자는 별책에 올렸다. 지금 일부 지방의 농민들은 그것을 리용하여 《저것들을 별책에 올리자!》는 말로 이전에 농민 협회를 반대하던 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별책에 오를가 봐 겁이 나서 농민 협회에 들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름을 농민 협회의 명부에 올려 놓아야 마음을 놓는다. 그러나 그들은 흔히 농민 협회로부터 여지 없는 거절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 가고 있다. 농민 협회의 문밖에 배척 당하여 갈 곳 없어 헤매는듯 한 그 꼴을 농촌 말로 《외토리》라고 한다. 하여튼 4 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일반 사람들에게 멸시 받던 소위 《농군들의 회》가 지금에 와서는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되었다. 이전에는 신사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농민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누구를 물론하고 작년 10월 이전과 10

월 이후는 먼 세상이라는 것을 모두다 품인하고 있다.

〈참 란장판이야〉와 〈참 잘 됐어〉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반란은 신사들의 단꿈을 깨뜨려 버렸다. 농촌의 소식이 도시에 전하여지자 도시의 신사들은 당장 야단 법석하였다. 처음 장사에 갔을 때 나는 각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평판들을 들었다. 중류 이상의 사회층으로부터 국민당 우파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참 란장판이야》하고 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꼭 혁명적인 사람이라 해도 《참 란장판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파들의 자자한 의론에 놀리어 눈을 감고 농촌의 정황을 꼼꼼히 생각하여 보고는 역시 기가 죽어서 이 《란장판》이라는 말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매우 진보적인 사람까지도 《이것은 혁명 과정에 의례히 있을 일이야, 비록 란장판이기는 하지만.》하고 말할 따름이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누구를 물론하고 이 《란장판》이라는 말을 아주 부인하지는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범한 농민 대중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며 농촌의 민주 세력이 일어나서 농촌의 봉건 세력을 두드려 엮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봉건적 토호 멸신과 불법 지주 계급은 수천 년래의 전제 정치의 토대이며 제국주의, 군벌, 탐관 오리의 발판인 것이다. 이 봉건 세력을 뒤집어 엮는 것이 바로 국민혁명의 진정한 목표이다. 손 중산 선생이 40 년 간이나 국민

혁명에 힘 쓰면서 하려고 하다가 성취하지 못한 일을 농민들은 몇 달 동안에 해 냈다. 이것은 40 년이 아니라 수천 년 간에도 성취하지 못 하였던 뛰어난 공적이다. 이것은 참 잘 된 일이다. 조금도 《관장판》일 것이 없으며 결코 《참 관장판》인 것이 아니다. 《참 관장판이야》라는 것은 분명히 지주들의 리익 편에 서서, 쫓겨난 농민을 타격하려는 리론이며 분명히 봉건적인 낡은 질서를 보존하고 민주주의적인 새 질서의 수립을 방해하려는 지주 계급의 리론이며 분명히 반혁명적인 리론이다. 혁명적 동지들은 누구나 그들을 따라 허튼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 만일 혁명적 견해가 확립된 사람이고 또 농촌에 한 번 가 본 사람이라면 틀림 없이 종래로 없은 통쾌감을 느낄 것이다. 때를 지은 수천만의 노예들——농민들이 자기들의 피를 빨아 먹던 원썩들을 때려 엎고 있다. 농민들의 행동은 완전히 옳은 것이며 참 잘 된 것이다! 《참 잘 됐어》라는 것은 농민과 기타 혁명파들의 리론이다. 국민 혁명은 농촌에서의 대변혁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든 혁명 동지들은 알아야 한다. 신해 혁명^[3]은 이러한 변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지금 이러한 변혁이 생긴 것은 혁명 완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모든 혁명 동지들은 이 변혁을 지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혁명적 럽장에 서게 될 것이다.

소위 <과격하다>는 문제

또 《농민 협회는 있어야 하지만 지금 농민 협회의 행동

은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중간파의 의론이다. 실재는 어떠한가? 확실히 농민들은 농촌에서 좀 《함부로 한다》. 무상의 권력을 가진 농민 협회는 지주에게 언권을 주지 않으며 지주의 위풍을 깨끗이 쓸어 버렸다. 이것은 지주를 땅'바닥에 두드려 엷고서 발로 짹 밟고 서 있는 격이다. 《너를 별책에 올린다!》고 하며 토호 열신들에게서 벌금과 기부금을 받아 내며 타고 다니는 가마를 때려 부신다. 농민 협회를 반대하는 토호 열신의 집에 떼를 지어 밀고 들어 가 돼지를 잡게 하고 쌀을 내게 한다. 토호 열신의 젊음 따님과 아씨의 화려한 침상에 뛰어 올라 가 덩굴기도 한다. 걸핏하면 잡아다가 높은 고깔을 씌워 가지고 《열신들아, 이제야 우리를 알았겠지!》라고 하면서 온 마을로 끌고 다닌다. 이와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서 마침내 일종의 공포 현상이 농촌에 조성되었다. 이것이 즉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과격하다》는 것이며 소위 《잘못을 고치는 데 너무 지나친다》는 것이며 소위 《너무나 어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파들의 의론이 얼핏 듣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기실은 역시 그릇된 것이다. 첫째로, 상술한 사실들은 죄다 토호 열신과 불법 지주들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토호 열신과 불법 지주가 여태까지 자기의 세력을 믿고 횡행하며 농민을 짓밟아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와 같이 큰 반항을 하게 된 것이다. 반항이 제일 심하고 소동이 가장 큰 지방은 모두 토호 열신과 불법 지주들이 가장 포악하였던 지방들이다. 농민의 눈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누가 나빴고 누

가 나쁘지 않았고, 누가 가장 심하였고 누가 좀 덜 심하였
고, 누구는 엄중히 징벌하여야 하고 누구는 처벌을 경하게
하여도 좋은가를 농민들은 매우 명백하게 알고 있으므로 부
당한 처벌을 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둘째로, 혁명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아니며 글을 짓는 일도 아니며 그림을 그리거
나 수놓이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찬찬하고 점잖게, 그렇게 온순하고 겸손하게 될 수는 없다.
혁명은 폭동이며 이 계급이 저 계급을 전복하는 냉철한 행동
이다. 농촌 혁명은 농민 계급이 봉건적 지주 계급의 권력을
뒤집어 엮는 혁명이다. 만약 그렇게 큰 힘을 기울이지 않는
다면 농민들은 몇 천 년을 두고 깊이 뿌리 박은 지주의 권력
을 도저히 뒤집어 엮을 수 없다. 농촌에서 일대 혁명의 격류
가 일어 나아가만 수천 수만의 대중을 불러 일으켜 거대한 력
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소위 《파격하다》
는 행동들은 모두 농촌의 커다란 혁명적 격류가 불러 일으킨
농민의 력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행동은 농민 운
동의 제 2 시기(혁명 시기)에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제 2 시
기에는 반드시 농민의 절대적 권력을 확립하여야 한다. 농
민 협회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반드시 금지하여야 한다. 반
드시 신사의 권력을 쪼다 타도하고 신사들을 땅'바닥에 두드
려 엮어야 하며 심지어는 발로 툭 밟고 있어야 한다. 제 2
시기에 있어서 소위 《파격하다》는 행동들은 모두다 혁명적
의의를 가진다.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농촌에서든지 한동안
공포 현상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

촌에서 반혁명파의 활동을 도저히 진압할 수 없으며 또 신사의 권력을 도저히 타도할 수 없다. 잘못을 고치는 데는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지나치게 하지 않고서는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4〕. 이런 파의 의론은 표면 상으로는 앞서 말한 파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앞서 말한 파와 똑 같은 견지에 서 있는 것으로서 역시 특권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지주의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농민 운동의 발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혁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견결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불한당 운동>

국민당 우파는 《농민 운동은 불한당 운동이며 게으른 농군들의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론은 장사에서 펴 성행되고 있다. 나는 농촌에 갔을 때 신사들이 《농민 협회는 있어도 좋지만 지금 일 보는 사람들이 나쁘니 사람을 갈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의론은 우파의 말과 동일한 뜻이다. 즉 농민 운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농민 운동이 이미 일어났으니 못 한다고 감히 말할 사람은 없다) 지금 농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며 특히는 초급 농민 협회 일'군들을 몹시 미워 하여 이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전에 신사들에게 멸시 받던 모든 사람들과 신사들에 의하여 구렁텅이에 처박히여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발언권도 없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버젓이 머리를 쳐들었다. 머리를 쳐들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쥐게 되었다. 그들은 향농민 협회(농민 협회의 최하급 조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며 향농민 협회를 매우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그 투박하고도 거무튀튀한 손을 쳐들어 신사들의 대가리를 내리누르고 있다. 그들은 열신을 뚫어서 높은 고깔을 씌워 가지고 온 마을로 끌고 다닌다(이것을 상담, 상향에서는 거리로 끌고 다닌다고 하고 폐룡에서는 들로 끌고 다닌다고 한다). 사정 없이 꾸짖는 그들의 무뚝뚝한 목소리는 매일과 같이 신사들의 귀청을 두드린다. 그들은 호령을 하며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우에서 있다——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밑에서 있던 것이. 그래서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혁명의 선봉

한 사건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론이 생기게 된다. 《참관장판이야》와 《참 잘 됐어》, 《불한당》과 《혁명의 선봉》 같은 것은 모두 그 적절한 실례들이다.

다년간 성취 못 하였던 혁명 위업을 농민들이 성취하였다는 것, 국민 혁명의 중요한 일을 농민들이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면 이런 혁명의 위업, 혁명의 중요한 일은 농민 전체가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농민 가운데는 부농, 중농, 빈농의 세 부분이 있다. 이 세 부분의 농민들은 그 처지가 같지 않으므로 혁명에 대한 느낌도 각기 다르다. 제 1 시기에 부농의 귀에 들어 간 것은 북벌군이 강서성에서 여지 없이 패전 당하고 장 개석은 다리를 다쳐[5] 비행기로 광둥[6]에 돌아 가 버렸다, 오 패부[7]가 악주를 재차 점령하였다, 농민 협회와 삼민주의[8]는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농민 협회는 반드시 오래 못 갈 것이며 삼민주의도 흥하지 못 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소문들이었다. 향 농민 협회의 일'군들(대부분은 소위 《불한당》류에 속한다)이 농민 협회의 명부를 들고 부농의 집에 가서 《농민 협회에 드시오.》 하면 부농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농민 협회라구? 나는 이 고장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농민 협회니 뭐니 하는 것이 없어도 밥만 잘 먹었소. 그런 것은 걷어 치우는 것이 좋을듯 하오!》——부농 중에서 태도가 약간 나은 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농민 협회라는 게 다 뭐야, 모가지나 달아 나는 회이지. 풍연히 사람 죽이지 말어!》——부농 중에서 태도가 나쁜 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농민 협회가 이미 여러 달 존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들을 반대하기까지 하였다. 부근의 신사들은 아편'대를 바치지 않으려다가 그만 농민 협회에 잡혀 가서 고갈을 쓰고 온 마을로 끌려 다녔다. 현 소재지들에서는 또 대 신사들, 례를 들면 상담의 안 용추, 녕향의 양 치택 같은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10월 혁명 기념 대회, 반영 대회, 북벌 승리 대경축 등에서는 향마다 델'대와 호미물 멘 사람까지

쉬인 만여 명의 농민들이 크고 작은 기'발들을 들고 대렬을 지어 호호 탕탕하게 시위하였다. 이 때에야 부농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북벌 승리 대경축에서 그들은 구강도 함락되었고 장 개석도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며 결국 오 패부가 패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삼민주의 만세》, 《농민 협회 만세》, 《농민 만세》 등등이 《붉고 푸른 고시》(표어)에 명백하게 쓰여 있었다. 《농민 만세라니?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만세 축에 든단 말인가?》—부농들은 이렇게 몹시 당황해하였다. 이리 하여 농민 협회는 기세 당당하게 되었다. 농민 협회 사람들은 부농더러 《너희들을 별책에 올리겠다!》 혹은 《한 달만 지나면 한 사람에 입회금 10 원씩 받겠다!》고 말하였다. 형세가 이렇게 되자 부농들은 그제야 싫은 대로 농민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⁹⁾. 어떤 자들은 입회금 50 전 혹은 1 원을 바치고(원래는 단 3 전이면 된다) 가입하였고 어떤 자들은 사 람을 내세워 사정하고서야 겨우 농민 협회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완고 분자들은 아직도 농민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부농들은 언제나 《병정에 뽐히는 것》이 두려워서 입회할 때 대부분은 룻칠십 세나 되는 늙은이가 농민 협회에 가서 이름이나 올렸다. 가입한 후에도 농민 협회의 일을 열 성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태도는 일관적으로 소극적이다.

중농은 어떠한가? 그들은 주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이 자기들에게 그다지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뒤주에는 언제나 쌀이

떨어지지 않으며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빛받이'군도 없다. 그들도 역시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던가 없었던가에 비추어 혼자서 람미간을 찌프리며 생각한다. <농민 협회가 과연 지탱되어 나갈 수 있을까?> <삼민주의가 과연 흥할 수 있을까?> 그들의 결론은 이러하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농민 협회란 것이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 1 시기에 농민 협회 사람들이 명부를 들고 중농을 찾아 가서 <농민 협회에 드시오!> 하고 말하면 중농은 <성급히 굴지들 마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제 2 시기에 이르러 농민 협회의 세력이 커지자 중농은 그제야 농민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농민 협회 내에서의 그들의 표현은 부농보다 좋은 편이나 아직 그다지 적극적으로 못 되며 형세를 좀더 두고 보려 한다. 중농을 농민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농민 협회는 그들에게 많이 해설하여 주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농촌에서 이전부터 악전 고투하여 온 주요한 력량은 빈농이다. 비밀적 활동기에 있어서나 공개적 활동기에 있어서나 빈농은 줄곧 적극적으로 분투하여 왔다. 그들은 공산당의 명도를 누구보다도 잘 받는다. 그들과 토호 멸신파는 불구대천의 원수여서 그들은 조금도 주저 없이 토호 멸신의 아성을 진공한다. 그들이 부농들을 보고 <우리는 벌써 농민 협회에 들었는데 당신네들은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소?> 하고 말하면 부농은 비웃는 어조로 <당신네들이야 머리 우에 기와 한 장 없을 곳이 없고 발 밑에 바늘 한 개 찌를 땅이 없으니 농민

협회에 안 들 리가 있겠소!》라고 말한다. 확실히 빈농들은 아무 것도 잃어 버릴 걱정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머리 우에 기와 한 장 없을 곳이 없고 발 밑에 바늘 한 개 꿸 땅이 없다》. 그러니 농민 협회에 안 들 리가 있겠는가? 장사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 인구 중에서 빈농이 70%를 차지하고 중농이 20%를 차지하고 지주와 부농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 빈농은 또 적빈과 차빈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즉 토지도 없고 자금도 없어서 살아 나갈 길이 아주 막혀하는 수 없이 외지로 나가 병정이 되거나 품팔이를 하거나 혹은 거지가 되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적빈》^[10]으로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무산자, 즉 토지가 좀 있거나 자금이 좀 있지만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 1년 내내 고된 노동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공업 노동자, 소작인(여유 있는 소작인은 제외), 반자작농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차빈》^[11]으로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인구 중에서 도합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광범한 빈농 대중은 농민 협회의 중견이며 봉건 세력을 타도하는 선봉이며 다년간 이루지 못한 혁명 위업을 성취한 대공로자들이다. 빈농 계급이 없었다면(신사들의 말을 빌어 《불한당》이 없었다면) 결코 농촌에서 지금과 같은 혁명적 상태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며 도저히 토호 열신들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빈농은 가장 혁명적이기 때문에 농민 협회의 령도권을 쥐게 되었다. 제 1, 제 2 두

시기에 최하급 농민 협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거의 전부가 그들이었다(형산현의 향 농민 협회 직원은 적빈 계층이 50%, 차빈 계층이 40%, 빈궁한 지식인이 10%를 차지하였다). 빈농의 명도,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빈농이 없으면 혁명도 없다.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들을 타격하는 것은 혁명을 타격하는 것이다. 그들이 취한 혁명의 총적 방향은 일관적으로 틀림이 없었다. 그들은 토호 멸신의 체면에 손상을 주었다. 그들은 크고 작은 토호 멸신들을 땅'바닥에 두드려 엎고서 발로 꺾 밟고 있다. 그들이 혁명기에 취한 소위 《파격하다》는 많은 행동들은 혁명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호남성의 일부 현의 현 정부, 현 당부[12]와 현 농민 협회들에서는 일을 좀 잘못 처리하였다. 심지어 지주의 청을 들어서 군대를 파견하여 하급 농민 협회 직원들을 체포한 일까지 있었다. 형산현과 상향현의 감옥에는 향 농민 협회 위원장과 위원 여럿이 갇혔다. 이 파오는 매우 큰 것으로서 반동들의 기업을 조장하여 주었다. 농민 협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체포되자 당지의 불법 지주들이 기뻐 날뛰고 반동적인 풍기가 농후하여진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파오인가 아닌가를 가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소위 《불한당 운동》이요, 《계으른 농군들의 운동》이요 하는 반혁명적인 의론들을 반대하여야 하며 더우기는 토호 멸신들을 도와 빈농 계급에 타격을 주는 그릇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실 상 빈농 지도자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는 확실히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수가 개변되

었다. 지금은 그들 자신이 도박의 금지와 도적의 숙청에 노력하고 있다. 농민 협회의 세력이 커지면 그 지방에는 도박이 없어지고 도적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문'자 그 대로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줏지 않고 밤에도 문을 걸지 않게 되었다. 형산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빈농 지도자 100 명 중에서 85 명은 아주 훌륭하고 일을 잘 하며 노력하는 사람으로 전변되었다. 나머지 15%가 아직도 약간의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수의 불량 분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토호 별신의 입버릇을 따라 덮어 놓고 《불한당》이라고 욕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소수의 불량 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농민 협회의 규율을 정돈하자는 구호 하에서 대중에게 선전하며 그들 자신을 교양함으로써 농민 협회의 규율을 정돈하여야 할 것이요, 함부로 군대를 파견하여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빈농 계급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토호 별신들의 기세를 조장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열 네 가지 큰 사업

일반적으로 농민 협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농민 협회가 나쁜 일을 많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우에서 이미 말하였거니와 농민이 토호 별신을 타도한 것은 완전히 혁명적인 행동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비난할 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한 일은 매우 많으므로 사람들의 비난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농민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들이 한 행동이 대체 어떤가를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난 수개월 간의 농민들의 행동을 종합 분류하여 보았는데 농민들은 농민 협회의 지도 밑에 다음과 같은 열 네 가지 큰 사업을 하였다.

1. 농민을 농민 협회로 조직

이것은 농민들이 이룩한 첫째 큰 사업이다. 상담, 상향, 형산과 같은 현들에서는 거의 전체 농민들이 조직되었으며 어느 모퉁이든지 농민들이 일어 나지 않은 곳이라고는 거의 없다. 이런 지방은 제 1 류이다. 일부 현들, 예를 들면 익양, 화용 등 현들에서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조직되었고 소부분이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이런 지방은 제 2 류이다. 일부 현들, 예를 들면 성보, 평릉 등 현들에서는 농민들의 소부분이 조직되었을 뿐 대부분이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이런 지방은 제 3 류이다. 원 조명^[13]의 세력 하에 있는 호남성 서부 일대는 농민 협회의 선전이 미치지 못 하여 많은 현들에서 농민들이 아직 전연 조직되지 못 하였다. 이런 지방은 제 4 류이다. 대체로 보아 장사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성 중부 지방 각 현들에서 가장 발전되고 호남성 남부 지방 각 현들이 그 다음이고 호남성 서부 지방에서는 조직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성 농민 협회의 작년 11월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성 75 개 현 중 37 개 현에 조직이 있고 회원 수는 136만 7,727 명이다. 그 가운데서 약 100만 명은 농민 협회

의 세력이 크게 발전된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 조직된 것이며 9월 이전까지는 30만~40만 명에 불과하였다. 지금도 12월과 1월 두 달을 거쳐 농민 운동은 크게 발전되고 있다. 1월 말 현재로 회원 수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입회할 때 흔히 한 집에서 한 사람만 올리기 때문에 매호 평균 다섯 식구로 계산하면 대중은 약 1,00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가속도적 발전으로 하여 모든 토호 열신과 탐관 오리가 고립되게 되었고 세인들이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놀라게 되었고 농촌에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농민 협회의 지도 밑에서 농민들이 이룩한 첫째 큰 사업이다.

2. 정치적으로 지주를 타격

조직을 가지게 된 후 농민들의 첫 행동은 정치적으로 지주 계급의 위풍, 특히는 토호 열신들의 위풍을 때려 부시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농촌의 사회적 지위에서 지주의 권력을 때려 엷고 농민의 권력을 장성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극히 중대하고도 긴요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제 2 시기, 즉 혁명 시기의 중심적인 투쟁이다. 이 투쟁에 승리하지 못 한다면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를 위한, 그리고 토지 및 기타 생산 수단 등을 위한 모든 경제 투쟁은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호남성의 많은 지방들, 폐컨대 삼향, 형산, 상담 등 현에서는 지주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어 엷이고 농민의 유일 권

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물론 문제 없다. 그러나 췌롱 등 현에는 겉으로 볼 때 지주의 권력이 농민의 권력보다 못한 것 같으나 실상은 정치 투쟁이 격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지주의 권력이 암암리에 농민의 권력과 대항하고 있는 지방(예를 들면 췌롱현의 서구와 남구)이 아직도 일부 있다. 이러한 지방에서는 아직 농민이 정치적 승리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지주의 권력이 농민에 의하여 완전히 타도될 때까지 정치 투쟁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이 정치적으로 지주를 타격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산: 토호 멸신들은 지방 공금을 취급하면서 태반이 공금을 뜯어 먹었으며 장부도 똑똑히 하여 놓지 않았다. 이번에 농민들은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토호 멸신들을 쫓아내려 었었다. 많은 지방들에서는 전문적으로 토호 멸신들을 청산하기 위한 청산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토호 멸신들은 이러한 기관을 보기만 하면 그만 벌벌 떠다. 이러한 청산 운동은 농민 운동이 일어난 각 현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의의는 뜯어 먹은 공금을 받아 내는 것보다도 토호 멸신들의 죄상을 선포하여 토호 멸신들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때려 었는 데 있다.

벌금: 청산한 결과 협잡 행위며 이전에 농민의 고혈을 몹시 짜 낸 죄악이며 지금 농민 협회를 파괴하고 있는 행위며 도박 금령을 위반한 사실이며 아편'대를 바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농민들은 이러한 죄명으로 어느

토호에게는 벌금이 얼마, 어느 열신에게는 벌금이 얼마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금액은 수십 원으로부터 수천 원까지이다. 농민들에게 처벌을 받은 자는 자연 체면이 여지 없이 떨어지게 된다.

기부금: 돈 밖에 모르는 지주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 내여 그 돈으로 빈민을 구제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농민자금 대부소를 세우거나 혹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 기부금을 받는 것도 징벌의 하나이지만 벌금을 받는 것보다 경한 것이다. 봉변을 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농민 협회에 기부금을 내는 지주도 적지 않다.

경한 힐문: 농민 협회를 파괴하는 언행이 있는 자로서 그 죄상이 비교적 경한 자에 대하여서는 술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에 밀고 들어 가 그다지 엄하지 않은 힐문을 한다. 그 결과 대개는 다시는 농민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를 받고서야 그만 둔다.

대시위: 농민 협회에 원수 진 토호 열신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명솔하여 가지고 가서 시위를 하며 그들의 집에서 한바탕 먹어 주는데 의례 돼지를 잡고 쌀을 내게 한다. 이런 일은 꽤 많다. 최근 상당현의 마가하에서는 1만 5,000명의 군중이 모여 가서 6명의 열신을 연 4 일 간 문죄하면서 돼지 130여 마리나 잡아 먹은 일이 있다. 시위의 결과는 태반은 벌금을 받아 내게 된다.

높은 고깔을 씌워 온 마을로 끌고 다니기: 이런 일은 각지에서 많이 하고 있다. 토호 열신에게 토호 아무개 혹은 열

신 아무개라고 쓴 종이로 만든 높은 고깔을 씌워서는 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끌고 다닌다. 어떤 데서는 징을 치고 기'발을 휘날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한다. 이러한 처벌은 토호 련신들을 가장 몸서리치게 한다. 한 번 높은 고깔을 쓰고 나면 낮을 들지 못 하며 사람 속에 들지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돈 있는 자들은 대개 벌금은 낼지언정 고깔은 쓰기 싫어 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들어 주지 않을 때에는 싫어도 써야 한다. 어느 향 농민 협회에서는 아주 모르게 하였다. 련신 한 명을 잡아다가 그 날로 높은 고깔을 씌운다고 울러 댔다. 련신은 겁이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농민 협회에서 그 날은 고깔을 씌우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 리유는 그 날 고깔을 씌우면 그 련신은 억지 배'심이 생겨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되므로 일단 석방하여 집에 돌려 보냈다가 다른 날 씌우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그 련신은 어느 날 고깔을 쓰게 될지 몰라서 집에 있으면서도 매일과 같이 불안에 싸여 자나 깨나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현 감옥에 가두기: 이것은 높은 고깔을 씌우는 것보다 더 엄한 처벌이다. 토호 련신을 잡아서 지사 풍서의 감옥에 가두고 지사더러 처벌하게 한다. 지금은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것도 이전과 달라졌다. 이전에는 신사들이 농민을 잡아 가두었지만 지금은 농민들이 신사를 잡아 가둔다.

추방: 농민들은 토호 련신 가운데서 최악이 큰 자는 추방하려 하지 않고 붙잡거나 죽이려고 한다. 그들은 붙잡히거

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외지로 도망 친다. 농민 운동이 발전된 현들에서는 주요한 토호 멸신들은 거의 다 도망쳐 버려 결국 추방 당한 것과 같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1 류는 상해로 도망쳤고 2 류는 한구로 도망쳤고 3 류는 장사로 도망쳤고 4 류는 현 소재지로 도망쳤다. 도망친 토호 멸신들 가운데서도 상해로 도망친 자들이 가장 안전하다. 한구로 도망친 자들은 화용의 멸신 3 명처럼 결국 붙잡혀 오게 된다. 장사로 도망친 자들은 더구나 성 소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 현 학생들의 손에 수시로 붙잡힐 우려가 있다. 나는 장사에서 2 명이 이렇게 붙잡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현 소재지로 도망친 자는 자격만 해도 벌써 4 류 밖에 못 되는 데다가 농민들의 이목이 매우 많으므로 용이하게 발각된다. 호남성 정부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부자들을 추방하였기 때문에 돈 마련하기가 곤란하다고 재정 당국이 농민들을 타한 것만 보더라도 토호 멸신들이 얼마나 시골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의 일단을 가히 알 수 있다.

총살, 이것은 오직 대토호 멸신에 국한되며 농민과 각계 민중이 공동으로 처리한다. 폐를 들면 녕향의 양 치택, 악양의 주 가감, 화용의 부 도남, 손 백조는 농민과 각계 인민이 정부를 독촉하여 총살하게 한 것이다. 상담의 안 용추는 농민과 각계 인민이 현장에게 강요하여 동의를 얻은 후 감옥에서 끌어 내다가 농민 자신의 손으로 총살한 것이다. 녕향의 류 소는 농민이 직접 때려 죽인 것이다. 례릉의 팽 지번, 익양의 주 천작, 조 운은 지금 《토호 멸신 재판 특별 법징》의

판결을 거쳐 사형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렬신, 대토호는 한 명만 총살하여도 전 현이 진동되어 봉건 잔재를 숙청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대토호렬신은 한 현에 많으면 수십 명, 적더라도 몇 명은 된다. 매개 현에서 죄가 가장 많은 극악한 자를 적어도 몇 명씩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동파를 진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토호렬신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컸을 때 농민을 죽이고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장사현 신강진의 단방국 국장 하 매천은 단의 일을 보는 10년 동안에 《비적을 죽인다》는 미명으로 빈궁한 농민을 근 1,000명이나 죽이였다. 나의 고향인 상담현 은전진 단방국 국장 탕 준암과 라 숙림은 민국 2년부터 14년 동안 50여 명을 죽였고 네 사람을 생매장하였다. 피살된 50여 명 중에서 제일 먼저 피살된 두 사람은 전혀 죄 없는 거지였다. 탕 준암은 《우선 마수걸이로 거지 두 놈을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 두 명의 거지는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전에 토호렬신들은 이렇게도 잔인하였고 농촌에서의 그들의 백색 공포는 이렇게도 심하였는데 지금 농민들이 일떠나 토호렬신 몇 째를 총살함으로써 반혁명파를 진압하는 약간의 공포 현상을 자아냈다고 하여 어찌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3. 경제적으로 지주를 타격

량곡 반출 금지, 곡가 인상 금지, 매점 투기 금지: 이것

은 최근 수개월 동안 호남성 농민들이 경제 투쟁에서 한 큰 사업의 하나이다. 작년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농은 지주, 부농의 랑곡 반출을 막고 목가 인상과 매점 투기도 금지하였다. 그 결과 빈농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랑곡 반출은 물 썰 틈 없이 막히었고 목가는 대폭적으로 인하되었고 매점 투기는 근절되었다.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 인상에 대한 금지,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 인하를 위한 선전, 농민 협회의 세력이 아직 약하였던 작년 7~8월 경에는 지주들이 착취를 흑심히 하던 관례대로 여전히 소작농에게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계속 통지하여 왔다. 그러나 10월에 들어 서면서 농민 협회의 세력이 크게 장성하고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의 인상을 일치하게 반대하자 지주들은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되었다. 11월 후에 와서 농민의 세력이 지주의 세력을 압도하게 되자 농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작료와 소작 보증금 인하를 선전하였다. 농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작년 가을에 소작료를 바칠 때 농민 협회의 힘이 아직 약하였으니 그랬지 그렇지만 았았더라면 작년 가을에 벌써 소작료를 인하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년 가을의 소작료 인하에 대하여 농민들은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지주들도 소작료 인하 방법을 묻고 있다. 소작 보증금 인하는 형산 등 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소작지 회수 금지: 작년 7~8월 경까지도 지주들이 소작지를 회수하여 소작인을 가는 일이 많았다. 10월 후부터는

소작지를 감히 회수하려고 하는 지주가 없다. 지금 소작지를 회수하여 소작인을 가는 일은 전혀 없어졌으며 단지 소작지를 회수하여 자작하겠다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주가 소작지를 회수하여 자작하겠다고 하여도 농민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주가 자작하겠다고 할 때에는 소작지 회수를 허락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작농의 실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일치한 해결책이 없다.

리자 인하, 안화에서는 보편적으로 리자를 인하하였으며 다른 현에서도 인하한 일이 있다. 그러나 농민 협회의 세력이 큰 지방에서는 지주들이 《공산》이 겁 나서 완전히 《빛농이를 중지》하고 있으므로 농촌에서는 변농이가 거의 없다 싶이 되었다. 지금 리자의 인하라고 말하는 것은 묵은 빛에 한한 것이다. 묵은 빛은 리자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본진까지도 채권자가 무리하게 받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빈농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안하지만 올해도 다 지나 가니 명년쯤 가서 다시 봅시다!》

4. 토호 혈신의 봉건적 통치를 전복——도, 단⁽¹⁴⁾을 타도

구식의 도, 단(즉 구, 향) 정권 기관, 특히 현급에 가까운 도급은 거의 전부가 토호 혈신들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도》는 관할하는 인구가 만 명 내지 5만~6만 명이나 되며 단

방국과 같은 독자적인 무장력과 토지 부가세[15] 등과 같은 독자적인 재정 징수권과 농민을 마음 대로 체포, 감금, 심문, 처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관에 있는 열신들은 그야말로 농촌의 왕이었다. 농민들은 정부, 이를테면 총통, 독군[16], 현장 등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조심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농촌의 왕들이야말로 정말 자기들의 《웃사람》이어서 그들이 《홍!》하고 코'방귀만 끼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농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결과 지주 계급의 위풍이 도처에서 추풍 락엽으로 되었으며 토호 열신이 틀어 쥐었던 농촌 정권 기관들도 자연히 무너지고 말았다. 도총이나 단총들은 숨어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지방의 모든 일은 농민 협회에 밀어 비렸다. 그들의 핑계는 이렇다.

《그런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

농민들은 서로 이야기하다가도 도총이나 단총의 말만 나오면 그만 분개하여 말한다.

《그 따위들은 쓸 데 없어!》

《쓸 데 없어》라는 이 말은 혁명의 불'길이 일어난 지방의 구식 농촌 정권 기관의 모습을 여실히 묘사한 것이다.

5. 지주의 무장력을 전복하고 농민의 무장력을 건립

호남성은 지주 계급의 무장력이 중부에는 비교적 적고

서부와 남부에는 비교적 많다. 평균 매 현에 보통 600 정이 있다고 한다면 75 개 현에 도합 4만 5,000 정이 있는 것으로 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농민 운동이 발전된 지역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농민들이 일어 나는 기세가 하도 맹렬하여 지주 계급은 당해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리 하여 그 무장력이 대부분은 농민 협회에 투항하여 농민의 이익을 위하는 편으로 넘어 섰다. 켈을 들면 녕향, 평강, 류양, 장사, 켈릉, 상담, 상향, 안화, 형산, 형양 등 현이 그러하다. 그 소부분은 중립적 상태에 있으나 그것도 투항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켈을 들면 보경 등 현이 그러하다. 그 나머지의 소부분은 농민 협회와 적대되는 상태에 있다. 켈을 들면 의장, 립무, 가화 등 현이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이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 그 세력도 소멸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반동 지주의 수중으로부터 탈취하여 온 무장력은 일몰로 《애호단 상비대》(17)로 개편하여 새로운 농촌 자치 기관——농민 정권인 농촌 자치 기관의 관리 하에 두게 될 것이다. 이런 낡은 무장력을 탈취하여 오는 것은 농민 무장력 건설의 한 면이다. 농민 무장력 건설의 또 하나의 새로운 면은 곧 농민 협회의 날창대이다. 날창——긴 자루에다가 끝이 뾰족하고 량쪽에 날이 선 칼을 박은 것——은 상향현 한 현만 하여도 10만 자루나 된다. 다른 현들, 켈을 들면 상담, 형산, 켈릉, 장사 등 현들에는 각각 7만~8만 자루, 5만~6만 자루, 3만~4만 자루가 있다. 농민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들에서는 날창대가 급속

히 발전되고 있다. 날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농민들은 《애호단 비상비대》로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낡은 무장력보다 세력이 더 큰 이런 광범한 날창대는 토호 멸신들이 보기만 하여도 벌벌 떠는 새로 일어난 무장력이다. 호남성 혁명 당국에서는 이러한 무장력을 75 개 현 2,000여만 농민 속에 잘 보급시켜 청장년마다 날창 한 자루씩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날창대에 걸집을 한다면 그야말로 비겁쟁이인 것이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 할 자는 토호 멸신 뿐이다. 혁명당은 이것을 절대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현감 나으리와 관속들의 정권을 전복

농민들이 일어 나야만 현의 정치가 밝아진다는 것이 광동성 해풍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특히 이 번에 호남성에서 충분히 실증되었다. 토호 멸신들이 권력을 틀어 쥐고 있는 현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지사로 되든지 간에 거의 전부가 탐관 오리이다. 농민들이 일어 선 현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지사로 오든지 간에 모두 럽결한 정부로 된다. 내가 가 본 현들에서는 무슨 일이나 지사가 먼저 농민 협회에 문의한다. 농민들의 세력이 매우 큰 현들에서는 농민 협회의 말이 《아주 령험하다》. 농민 협회에서 토호 멸신을 아침에 잡을 것을 요구하면 지사는 감히 점심때까지 끌지 못 하고 점심때에 잡을 것을 요구하면 감히 저녁때까지 끌지 못 한다. 농촌에서 농

민들의 권력이 처음 자라 나고 있을 때 현 지사와 토호 멸신은 결탁하여 공동으로 농민들에게 대항하였다. 농민들의 권력이 지주의 권력과 대등한 정도로 자라 났을 때 현 지사는 지주와 농민 쌍방에 두루 좋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여 농민 협회의 의견을 더러는 접수하고 더러는 거부하였다. 우에서 농민 협회의 말이 아주 명험하다고 한 그것은 지주의 권력이 농민들의 권력에 의하여 완전히 타도된 후의 일이다. 지금 상항, 상담, 례릉, 형산 등 현의 정치 정세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일이 현장과 혁명적 민중 단체의 련석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회의는 현장이 소집하고 현 공서에서 연다. 어떤 현들에서는 이를 《공법단 련석 회의》라고 부르고 어떤 현들에서는 이를 《현무 회의》라고 부르고 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현장 외에 또 현 농민 협회, 현 총공회, 현 상인 협회, 현 부녀계 련합회, 현 교직원 련합회, 현 학생 련합회 그리고 국민당 현 당부^[18]의 대표들이다. 이러한 회의에서는 민중 단체들의 의견이 현장을 좌우하며 현장은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러므로 호남성에서는 현의 정치 조직에 민주주의적인 위원제를 채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현 정부는 그 형태로 보나 본질로 보나 벌써 상당히 민주주의화하였다. 이러한 정세가 조성된 것은 최근 2~3 개월 간의 일이다. 즉 농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토호 멸신의 권력을 타도한 이후의 일이다. 지사는 지금까지 믿어 오던 의지가 넘어지자 새 의지를 찾지 않으면 그 벼슬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 단체에 잘 보이려고 달라붙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상술한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2) 판사가 처리할 사건이 없어졌다. 호남성의 사법 제도는 지금도 지사가 사법을 겸하여 처리하고 판사는 지사를 도와 사건을 심리한다. 지사와 그의 료속들은 세금을 부과하며 병역 사무를 취급하며 민사, 형사 소송에서 사실을 전도하여 협잡하는 등 몇 가지에 의하여 횡재하여 왔으며 더우기 마지막의 것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횡재의 믿음직한 원천으로 되고 있었다. 최근 수개월 간에 토호 련신들이 타도되어 악질 대소업자(代訴業者)가 없어졌다. 농민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또 일몰로 각급 농민 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공서의 판사는 할 일이 전혀 없다 싶이 되었다. 상항의 판사는 나에게 《농민 협회가 생기기 전에는 현 공서에서 매일 평균 60 건의 민사, 형사 소송장을 접수하였는데 농민 협회가 생긴 후부터는 매일 평균 4~5 건 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지사와 그 료속들의 주머니가 텅 빌 수 밖에 없다.

(3) 경비대, 경찰, 관속들은 모두가 더는 횡행하지 못하며 감히 농촌에 가서 협잡하지 못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촌'사람이 거리 사람을 무서워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거리 사람이 촌'사람을 무서워 하게 되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기르는 경찰, 경비대, 관속 따위의 개들이 촌에 가기를 무서워하며 촌에 간다 하더라도 다시는 협잡을 하지 못 하게 되었다. 그들은 농민들의 날창을 보기만 하여도 그만 벌벌 떤다.

7. 사당, 문장의 족권과 서낭신, 지신의 신권 및 남편의 남편을 전복

중국에서 남자들은 보통 세 가지 계통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1) 나라, 성, 현으로부터 향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계통(정권), (2) 종사(宗祠), 지사(支祠)로부터 가장에 이르기까지의 종족 계통(족권), (3) 염라 대왕, 서낭신으로부터 지신에 이르기까지의 저승 계통과 옥황 상제로부터 각종 신과 요귀에 이르기까지의 신선 계통——총칭하여 귀신 계통(신권)이다. 여자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외에도 남자의 지배(부권)를 더 받고 있다. 이 네 가지 권력——정권, 족권, 신권, 부권은 봉건적, 가부장제적 사상과 제도의 전부를 대표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 특히는 농민들을 얽어 매고 있는 네 개의 굵은 바'줄로 되어 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지주의 정권을 어떻게 전복하였는가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지주의 정권은 모든 권력의 기본이다. 지주의 정권이 뒤집혀지면 족권, 신권, 부권도 이에 따라 같이 동요하게 된다. 농민 협회의 세력이 강대한 데서는 문장이나 사당의 돈을 취급하는 자들이 다시는 문중 자손들을 압박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사당의 돈을 헐잡하여 먹지도 못 하게 되었다. 악질 문장과 사당의 돈을 취급하는 자들은 토호 열신으로 간주하여 타도하여 버렸다. 이전에 사당에서 하던 《곤장》, 《물 속에 처넣기》,

《생매장》 등의 잔혹한 체형과 사형도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녀자와 가난한 사람은 사당에 들어 가 술을 마시지 못하던 관제도 타파되었다. 형산현 백과 지방의 녀자들은 때를 지어 사당에 밀고 들어 가서 털썩 주저앉아 술을 마셨으나 문장 어른들도 녀자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는 수 밖에 없었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빈농이 사당에 들어 가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빈농들은 때를 지어 밀고 들어 가 한바탕 마시고 먹어 대었다. 그랬더니 점잖은 옷차림을 한 토호 멸신 나으리들은 그만 겁을 집어 먹고 도망 쳐 버렸다. 신권도 농민 운동의 발전에 따라 보편적으로 동요되었다. 많은 지방들에서 농민 협회는 사원을 차지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지방의 농민 협회에서는 사원의 재산을 가져다가 농민 학교와 농민 협회의 경비로 쓸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재산을 《미신 공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계룡에서는 미신을 금지하며 부처를 쳐 부시는 풍이 매우 성행되고 있다. 계룡 북부 각 구의 농민들은 가신(돌림'병을 쫓는다는 신)을 메고 돌아 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다. 록구 북파령의 묘에는 부처가 많았는데 국민당 구 당부에서 쓸 집이 좁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처들을 모조리 한 쪽 구석에 쌓아 놓았으나 농민들은 별말이 없었다. 그 후부터는 사람이 죽어도 신을 위하거나 법석을 차리거나 등명을 울리거나 하는 일이 매우 적어졌다. 이것은 농민 협회 위원장 손 소산의 창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지의 도사들은 손 소산을 대단히 미워하고 있다. 북삼구 룡봉암의 농민들과 소학교 교원들은 나무

로 만든 부처를 깨어서 고기를 끓여 먹었다. 남구 동부사에 있던 30여 개의 부처는 모두 학생과 농민들이 불 살라 버렸고 그 중에서 《포공 로야》라고 부르는 두 개의 작은 부처만은 어떤 늙은 농민이 《제발 죄 받을 짓을 말라!》고 하면서 빼앗아 갔다. 농민들의 세력이 지배적인 지방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이 늙은 농민과 부녀들 뿐이며 청장년 농민들은 믿지 않게 되었다. 농민 협회의 권력을 청장년 농민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신권 타도, 미신 타파가 각처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 부권이란 것은 본래부터 빈농들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약하였다. 경제 면에 있어서 빈농 부녀들은 부유한 계급의 여자들보다 로동에 더 많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 나아가서는 결정권이 비교적 컸다. 근년에 와서 농촌 경리가 더욱 심하게 령락되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기본적 조건은 이미 파탄되고 말았다. 최근에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지방에서 부녀들이 농촌 부녀계 련합회를 조직하였으며 부녀들이 머리를 쳐들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부권도 날로 동요되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봉건적, 가부장제적 사상과 제도는 농민 권력의 장성에 따라 동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기에 있어서 농민들의 정력은 지주의 정치적 권력을 타도하는 면에 집중되고 있다. 지주의 정치적 권력이 완전히 타도된 지방들에서는 농민들이 종족, 신도, 남녀 간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공격은 아직 《시작》일 따름이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타도하려면

농민들의 경제 투쟁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 온 뒤에라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주의 권력을 철저히 전복하기 위하여 정치 투쟁에 힘을 다하도록 농민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빈농의 토지 및 기타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뒤'이어 경제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종족주의, 미신 관념, 남녀 간의 불합리한 관계 등의 타파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승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나치게 큰 힘을 들여 무리하게 억지로 이런 것들을 타파한다면 기필코 토호 렬신들에게 《농민 협회는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 《농민 협회는 신령을 모욕한다》, 《농민 협회는 풍처를 주장한다》는 등의 반혁명적 선전 구호로 농민 운동을 파괴할 구실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호남성의 상항과 호북성의 양신에서 농민들이 부처 파괴를 반대하는 것을 지주들이 리용하였던 사실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부처는 농민들이 세운 것이고 매가 되면 농민들 자신이 그것을 내던져 버릴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앞질러 나서서 쳐 부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일에 대한 공산당의 선전 정책은 《활시위를 힘껏 당기고서 쓰지는 않고 금시 쓸듯 한 자세를 취한다.》^[19]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는 농민들 자신이 없애야 하고 렬너사, 효부문도 농민들 자신이 쳐 부셔야 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도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미신 타파를 선전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팔자를 믿어 행운을 바라고 풍수를 믿어 산소에 서기가 편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와 몇 달

사이에 토호 멸신, 탐관 오리들이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그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수가 좋았고 산소에 서기가 뻗치던 토호 멸신, 탐관 오리들이 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액운이 들고 산소의 서기도 일제히 사라졌겠습니까? 토호 멸신들은 당신들의 농민 협회를 비꼬아 말하기를 <참 별'일도 있지! 지금 세상은 위원의 세상이라니까, 글썄, 오줌 누러 가도 위원을 만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도시, 농촌, 공회, 농민 협회, 국민당, 공산당 할 것 없이 집행 위원이 없는 데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틀림 없이 위원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팔자나 산소 덕분이겠습니까? 참 묘한 일입니다. 촌 가난뱅이들이 팔자가 갑자기 좋아지고 산소도 갑자기 서기를 내뿜기 시작하였으니 말입니다! 신령님을 놓고 말하면 거야 공경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농민 협회가 없이 관성제나 관음 보살만으로써 토호 멸신을 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제, 보살들도 참 한심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빌어 왔는데 당신들을 위하여 단 하나의 토호 멸신도 타도해 준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소작료를 낮추려 하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신을 믿어 하겠습니까, 농민 협회를 믿어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 농민들은 다 웃었다.

8. 정치적 선전을 보급

1만 개소의 법정 학교를 설립한다 한들 지금 농민 협회

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시일 내에 벽촌의 남녀 로소에게까지 정치 교양을 보급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군벌을 타도하자, 탐관오리를 타도하자, 토호 멸신을 타도하자는 이 몇 개의 정치적 구호는 그야 말로 날개가 돋친듯이 농촌의 무수한 청년, 장년, 로인, 아동, 부녀들에게로 날아 가서 그들의 머리 속에 파고 들어 갔고 다시 그들의 머리 속으로부터 입으로 흘러 나왔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에게 눈을 부릅뜨고 발을 구르며 주먹을 휘두르며 성을 낼 때이면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웨치는 맵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상당 일대의 아이들은 소를 먹이면서 싸움놀이를 하는데 하나는 당 생지가 되고 하나는 엽 개흙이 된다^[20]. 이러다가 한 아이가 싸움에서 패주하면 다른 한 아이는 그 아이를 쫓는다. 쫓는 아이는 당 생지이고 쫓기는 아이는 엽 개흙이다. 《멸강을 타도하자……》라는 노래를 시가지의 아이들은 물론 거의 다 부를 줄 알거니와 농촌의 아이들 중에도 부를 줄 아는 아이가 많아졌다.

손 중산 선생의 유촉을 농촌의 농민들도 더러 외울 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유촉에서 《자유》, 《평등》, 《삼민주의》, 《불평등 조약》 등의 말을 뽑아다가 자기들의 생활에서 펴 어색하게 쓰고 있다. 신사 차림을 한 어떤 사람이 길에서 한 농민과 마주쳤는데 그 신사는 잘 난 체 하며 길을 비켜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농민은 화가 나서 《이 토호 멸신 같

으니! 삼민주의를 물라!》하고 소리를 질렀다. 장사 근교에서 채소 짓는 농민들이 채소를 팔러 거리에 들어가면 경찰들은 언제나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이 무기를 얻었다. 그 무기는 바로 삼민주의이다. 경찰이 채소를 팔러 온 농민을 때리거나 욕하면 농민은 즉시 삼민주의를 들고 나와 대항한다. 그러면 경찰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만다. 상담현 어느 구의 농민 협회가 어떤 일로 어느 향의 농민 협회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그 향 농민 협회의 위원장은 《구 농민 협회의 불평등 조약을 반대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정치 선전이 농촌에 보급된 것은 전'적으로 공산당과 농민 협회의 공로이다. 간단한 표어, 그림, 강연들은 매개 농민들을 정치 학교에서 공부시킨 것처럼 넓은 범위에서 아주 빠른 효과를 거두었다. 농촌에서 사업하고 있는 동지들의 보고에 의하면 반영 시위, 10월 혁명 기념, 북벌 승리 대경축 등 3 차의 군중 대집회 때에 정치 선전이 펴 보편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농민 협회가 있는 지방에서는 이런 집회들에서 보편적으로 정치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전 농촌을 발동되게 하였으며 그 효과가 매우 컸다. 금후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점차 상술한 간단한 구호들의 내용을 충실히 하며 그 의의를 명백히 하도록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9. 농민들의 여러 가지 금령

공산당의 령도 하에 농민 협회가 농촌에서 권위를 수립

하게 되자 농민은 자기들이 싫어 하는 일들을 금지 혹은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금하는 것은 패놀이, 도박, 아편 등 세 가지이다.

패놀이: 농민 협회의 세력이 큰 지방에서는 마작, 골패, 투전이 전부 금지되었다.

상향 십사도 지방의 어느 구 농민 협회에서는 마작패를 한 짐이나 불 살라 버렸다.

농촌에 가 보면 아무런 패놀이도 하지 않는다. 금령을 위반한 자는 용서 없이 당장 처벌한다.

도박: 이전의 《도박군》들도 지금에 와서는 그 자신이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민 협회의 세력이 큰 지방에서는 패놀이와 마찬가지로 도박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편: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다. 농민 협회에서 아편'대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면 조금도 항거하지 못 한다. 례룽에서 한 련신이 아편'대를 바치지 않았다가 잡혀 가서 높은 고깔을 쓰고 온 마을로 끌려 다녔다.

농민들의 이 《아편'대 몰수 운동》은 그 성세가 복벌군이 오 패부, 손 전방^[21]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던 것보다 못지 않다. 혁명군의 많은 군관 가정의 로인들은 아편 중독이 매우 심하여 그 아편'대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여 왔었는데 모두 《만세》(렬신들이 농민을 비웃는 말)들에게 몰수 당하고 말았다. 《만세》들은 아편 재배와 아편 피우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아편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귀주성으로부터 보경, 상향, 유현, 례룽을 지나 강서성으로 가

는 아편이 도중에서 몰수되어 불 속으로 들어 간 것도 적지 않다. 이리 하여 정부의 재정과 충돌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성 농민 협회에서 북벌군의 군비를 고려하여 하급 농민 협회에 《운반 금지를 잠시 그만 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불평이 가득하다.

이상의 세 가지 외에도 농민들이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이 매우 많다. 그것을 대략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화고(花鼓): 소형 창극의 하나인데 많은 지방에서 그 공연을 금지하였다.

가마: 많은 현에서 가마를 때려 부시는 일이 생겼으며 상향에서 특히 심하였다. 농민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 하여 가마를 보기만 하면 두드려 부시려 하였다. 그러나 농민 협회에서 그것을 말리었다. 농민 협회 사람들은 농민들에게 《당신들이 가마를 쳐 부신다면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남기게 되고 교군'군은 실업 당하게 되니 결국 손해 볼 건 자기 밖에 더 있는가?》고 말하였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어 교군'군의 품'값을 잔뜩 올림으로써 부자들을 징벌하였다.

술빚기와 엿달이기: 곡식으로 술을 빚거나 엿을 달이는 것을 어디에서나 다 금지하였으므로 술'도가와 엿방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 형산현 북전포 지방에서는 술 빚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술'값을 아주 낮게 매었으므로 술'도가들은 리익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다.

돼지: 돼지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매호에서 기르는 수를

제한하였다.

닭과 오리: 상향에서는 닭과 오리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부녀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형산현 양당 지방에서는 한 집에서 세 마리 이상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북전포 지방에서는 다섯 마리 이하로 제한하였다. 오리는 닭보다 더욱 쓸모 없는 것으로서 곡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벼'모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지방들에서는 오리를 전혀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연회: 풍성한 연회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상담현 소산 지방에서는 손님이 와도 닭고기, 물'고기, 돼지고기 등 세 가지 고기 밖에 대접하지 않기로 하였다. 죽순, 다시마, 분탕 등은 먹지 못하게 하였다. 형산현에서는 료리를 여덟 가지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한 가지도 더 하지 못하게 하였다. 례룡현 동삼구에서는 료리를 다섯 가지로, 북이구에서는 육찬 세 가지와 소찬 세 가지로 제한하였고 서삼구에서는 설에 손님 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상향현에서는 《설고연》이라고 부르는 그닥지 않은 연회까지도 금지하였다. 상향 이도의 어느 집에서 며느리를 보는 날 설고연을 베풀었는데 농민들은 그들이 금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뼈를 지어 물려들어 가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았다. 상향의 가모진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였고 제사 때에도 과일만 쓰기로 하였다.

소: 이것은 농민의 보배이다. 《소를 잡은 자는 태생에 소로 태어난다》는 말은 종교 신조나 다름 없이 되어 소를 잡

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민들이 아직 권력을 잡지 못 하였을 때에는 다만 종교적인 관념에 의하여 소 잡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 그것을 금지할 힘은 없었다. 농민 협회가 생긴 후에는 권력이 소를 관할하는 데까지 미치여 시가지에서 소 잡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었다. 상담 시가지에 푸주 여섯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집이 문을 닫고 한 집이 남아서 병든 소나 부리지 못 할 소를 잡고 있다. 형산현에서는 전 현적으로 소 잡는 일이 없어졌다. 어느 농민이 다리 부러진 소를 잡는 데도 농민 협회에 물어 보고서야 잡았다. 주주의 상인 협회에서 경솔히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농민들은 시가지에 들어 가서 문죄한 후 벌금을 내게 한 외에 또 사죄의 뜻으로 폭죽을 더뜨리게 하였다.

몸펜 생활, 영춘가를 부르며 토지신을 찬미하며 소악기에 맞춰 노래를 하는 등으로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돈을 받아 가는 풍습을 례릉에서는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금지한 현들도 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자연히 없어진 현들도 있다. 평소에는 매우 사납던 《매거지》 또는 《몸펜》이라고 불리던 자들도 지금에 와서는 농민 협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평소에 상담현 소산 지방의 우신묘에 모여 들어 아무도 겁 내지 않던 몸펜들도 농민 협회가 일어나자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그 지방 호세향 농민 협회에서는 이런 몸펜 세 명을 붙잡아서 흙을 파다가 벽돌을 굽게 하였다. 세배하는 낡은 풍속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도 각지에는 소소한 금령이 매우 많다. 례를 들면

례룡현에서는 가신을 메고 돌아 다니는 것을 금지하였고 남방에서 들어 온 해산물 등과 제물을 사서 선사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백중날에 종이옷을 불 사르는 것을 금지하였고 설에 복을 비는 글'귀를 써서 집에다 붙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상항현의 목수 지방에서는 수연까지도 금지하였다. 이도에서는 폭죽을 더뜨리거나 삼련발 딱총을 더뜨리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폭죽을 더뜨리면 벌금 1 원 20 전이고 삼련발 딱총을 더뜨리면 벌금 2 원 40 전이다. 칠도와 이십도에서는 법석을 차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십팔도에서는 초상'집에 부의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것을 하나 하나 털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것을 통털어 농민들의 여러 가지 금령이라 한다.

이러한 금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사회의 악습에 대한 반항이다. 패놀이, 도박, 아편 등의 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주 계급의 악렬한 정치에 의하여 산생된 것이므로 지주의 권력이 타도된 이상 이러한 것들도 따라서 일소된다. 둘째는 도시 상인들의 착취에 대한 자위이다. 연회를 금지하며 남방에서 들어 온 해산물 등과 제물을 사서 선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업 제품은 너무 비싸고 농산물은 너무 헐하여 농민들은 극도로 빈곤하여지고 상인의 착취는 혹심하므로 자위를 위하여서는 절약을 강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에서 이미 말한바 농민들이 량곡의 반출을 금지한 것은 빈농들 자신이 식량이 부족하여 시장에 가서 사지 않으면 안 되므로 목가가 오르지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러한 것은 모두가 농민들의 빈궁 및 도시, 농촌 간의 모순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농민들이 공업 제품 및 도시, 농촌 간의 교역을 거절하고 소위 동방 문화주의^[22]를 실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자위를 위하여 농민들은 합작사를 조직하고 공동 구입과 공동 소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농민 협회가 신용(대부) 합작사를 조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원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농민들은 양곡의 반출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곡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일부의 공업 제품이 농촌에 들어 오는 것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자위를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10. 비적을 숙청

우, 탕, 문, 무로부터 청조 황제, 민국 총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시대의 통치자도 도적과 비적의 숙청에 있어서 지금의 농민 협회처럼 위력을 가져 본 적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떠한 도적과 비적도 농민 협회의 세력이 큰 지방에서는 그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회한하게도 많은 지방에서는 채소를 훔치는 좀'도적까지 없어졌다. 일부 지방에는 아직 좀'도적이 있다. 토비는 내가 다녀 본 여러 현들에서는, 심지어 이전에 토비가 매우 많던 지방에서도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원인은 첫째로, 농민 협회의 회원들이 온 산과 들에 널리어 있어 한 번 소리만 치면 날창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호응하므로 토비들이 몸 감출

곳이 없게 된 것, 둘째로, 농민 운동이 일어난 후에 쌀 값이 떨어져 작년 봄까지도 100 근에 6 원 하던 것이 작년 겨울에는 2 원 밖에 하지 않으므로 인민의 식량 문제가 이전처럼 그렇게 엄중하지 않게 된 것, 셋째로, 민간 비밀 단체[23] 사람들이 농민 협회에 가입하여 농민 협회 내에서 공개적이고도 합법적으로 위풍을 떨치며 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산, 당, 향, 수》[24] 등의 비밀 조직이 이미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농민들은 자기들을 압박하던 토호 멸신 계급에 대하여 돼지와 양을 잡게 하고 거액의 기부금과 중벌을 가하여 속 시원하게 분풀이를 한 것, 비째로, 각 부대에서 대량적으로 병사를 모집하였으므로 많은 《불령지도》들이 가 버린 것 등이다. 그러므로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비적의 화단은 근절되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신사나 부자들도 농민 협회에 공명하고 있다. 그들은 《농민 협회 말인가? 량심적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어.》라고들 말한다.

패놀이, 도박, 아편의 금지와 비적의 숙청에 있어서 농민 협회는 일반 사람들의 찬동을 받고 있다.

11. 가렴 잡세를 폐지

전국이 통일되고 제국주의와 군벌 세력이 타도되기 전에는 정부의 세금에 대한 농민들의 무거운 부담, 다시 말하면 혁명군의 군사비에 대한 부담을 면제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토호 멸신들이 농촌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농민들에게 부

파하던 가렴 잡세, 즉 토지 부가세 같은 것은 농민 운동이 일어 나고 토호 멸신이 타도됨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적어도 경감되었다. 이것도 농민 협회의 공적의 하나로 처야 할 것이다.

12. 문화 운동

중국에 있어서 문화는 예로부터 지주에게 독점되어 있었고 농민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지주의 문화는 농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왜냐 하면 지주의 문화는 다름 아닌 바로 농민들의 몸에서 짜 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90%나 되는 인민이 아직 문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다. 농촌에서 지주의 세력이 타도되자 농민의 문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보라, 지금까지 학교를 몹시 중오하던 농민들이 이제는 야학교 설립에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신식 학교》는 지금까지 농민들의 눈에 거슬리었다. 나는 학생 시절에 고향에 돌아 갔을 때 농민들이 《신식 학교》를 반대하는 것을 보았다. 일반 《신식 학생》, 《신식 교원》들과 한 패가 되어 신식 학교의 리익을 수호하는 편에 서 있던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농민들이 좀 옳지 못한 것 같았다. 민국 14년에 나는 반년 동안 농촌에 가 있었는데 당시 나는 공산당원이요 맑스주의적 견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에야 비로소 나의 생각이 잘못이었고 농민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촌 소학교의 교재는

전부 도시에 대한 것만 취급되어 농촌에는 맞지 않았다. 소학교 선생들의 농민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나빴다. 그들은 농민의 방조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농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사숙(그들은 《구학》이라고 불렀다)을 환영할지언정 학교(그들은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환영하지 않았으며 사숙의 훈장을 환영할지언정 소학교 교원은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민들이 야학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농민 학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설립된 곳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는데 평균 매 향에 1 개소씩은 된다. 그들은 이러한 학교야 말로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학교 설립에 아주 열성적이다. 야학의 경비는 미신 공금, 사당의 공금 및 기타 유휴 공금과 유휴 공유 재산 등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금을 현 교육국에서는 국민 학교에, 즉 농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신식 학교》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농민들은 농민 학교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쟁론한 결과 얼마씩 서로 나눠 쓰기로 되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농민이 전액을 다 쓰게 되었다. 농민 운동이 발전된 결과 농민들의 문화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고 있다. 불원한 장래에 수만 개소의 학교가 전 성의 농촌들에 설립될 것이다. 이것은 지식 계급과 소위 《교육가》라는 자들이 《교육 보급》을 아무리 웨치고 돌아 다너도 결국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13. 합작사 운동

합작사, 특히 소비, 판매, 신용 등 세 종류의 합작사는 확실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물품을 사면 상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농산물을 팔면 상인에게 값을 깎이고 돈이나 쌀을 꾸면 고리대의 착취를 당하므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을 아주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작년 겨울 장강에서 전쟁이 일어나 장사'길이 막혔기 때문에 호남성의 소금 값이 비싸지자 농민들은 소금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합작사를 조직하였다. 지주가 《빛농이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금 대부소》를 조직하려 하는 곳도 많다. 세밀하고 정규적인 조직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다. 각지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들은 왕왕 합작사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농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지들은 언제나 《규약》에 대하여 열심히 문의하고 있다. 적당한 지도가 있다면 합작사 운동은 농민 협회의 발전에 따라 각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14. 길담이와 저수지 수축

이것도 농민 협회의 공적의 하나이다. 농민 협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촌의 길이 아주 나빴다. 돈이 없이는 길을 닦을 수 없고 돈 있는 자들은 돈을 내려 하지 않으므로 나빠

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수 밖에 없었다. 혹 닭는다 하더라도 기껏 해야 자선 사업 삼아 《음먹을 쌓으려는》 자들에게서 얼마씩 거두어 줍고도 보잘 것 없는 길을 닦아 낼 뿐이었다. 농민 협회가 나오자 필요에 따라 길 너비를 석 자, 다섯 자, 일곱 자, 열 자 등으로 등급을 정하고 명령을 내려 그 부근의 지주들에게 한 구역씩 뜯어 맡겨 닦게 하였다. 이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하라? 얼마 가지 않아 좋은 길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선 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만한 강박은 사실 꽤 많은 일이다. 저수지도 마찬가지이다. 맹목한 지주들은 언제나 소작농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낼 궁리만 하고 저수지 수축에는 동전 한 푼 내려 하지 않으며 저수지가 말라 소작인이 굶어 죽어도 그들은 소작료를 받아 가는 것 밖에 모른다. 농민 협회가 생긴 후부터는 조금도 사정 없이 명령을 내려 저수지를 수축하도록 지주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지주가 수축하지 않으면 농민 협회에서는 매우 부드러운 말씨로 《좋소! 싫으면 그 대신 쌀을 내오. 품 한 자루에 한 말이요!》라고 말한다. 지주들은 품 한 자루에 쌀 한 말씩 내어서는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즉시 자기가 나서서 수축하게 된다. 이리 하여 좋지 못 하던 많은 저수지가 좋은 저수지로 되었다.

이상에서 말한 열 네 가지 사업은 모두가 농민들이 농민 협회의 지도 밑에서 성취한 것들이다. 독자들이여,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일들은 그 기본적 정신을 놓고 말하든가 또 그 혁명적 의의를 놓고 말하든가 어느 하나 나쁜 것이 있는가!

이러한 일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는 아마 토호 멸신들 뿐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남창 방면^[25]으로부터 전하여 온 소식에 의하면 장 개석, 장 정강^[26] 등 제씨는 호남성 농민의 행동을 딱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성의 우파의 두목 류 악치^[27] 따위들도 장 개석, 장 정강 등 제씨와 견해를 같이 하여 《이야 말로 적화다!》라고들 하고 있다. 요만한 적화도 없다면 그게 무슨 국민 혁명이겠는가! 입으로는 매일과 같이 《민중을 불러 일으키자》고 웨치면서도 정작 민중이 일어 서면 죽을듯이 겁을 내고 있으니 이것이 겁공이 통을 좋아 한 것^[28]과 무엇이 다른가!

주 해

[1] 호남성은 당시 전국 농민 운동의 중심지였다.

[2] 조 항적은 당시 북양 군벌의 대리인으로서 호남성을 통치하고 있었다. 1926년에 북벌군이 그의 통치를 전복하였다.

[3] 신해 혁명이란 1911년에 청조의 전체 조정을 전복한 혁명이다. 그 해 10월 10일 일부분의 신군이 당시의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 혁명 단체들의 계세 하에 무장에서 봉기한 후 각 성에서도 계속적으로 뒤를 이어 봉기하였기 때문에 청조 통치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1912년 1월 1일 남경에 중화 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고 손 중산이 임시 대총통으로 선거되었다. 이 혁명은 부르주아지와 농민, 노동자,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동맹에 의하여 승리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은 혁명의 지도층의 타협성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진정한 이익을 주지 않고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의 압력을 견수하였기 때문에 정권이 북양 군벌 현 세계의 수중에 떨어지고 혁명이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4] 《잘못을 고치는 데 너무 지나친다(교왕 파정—矯枉過正)》는 말은 성구로서 그 원래의 뜻은 잘못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 한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람은 흔히 이 어'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활동을 구속하여 사

람들에게 낡은 규칙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하고 이것을 완전히 타파하는 것은 용허하지 않았다. 낡은 규칙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正)》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낡은 규칙을 완전히 타파하면 《과정(過正)》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또한 개량파와 혁명 대열 내의 기회주의자들의 이론이다.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이러한 개량파의 이론을 반박하였다. 《잘못을 고치는 데는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지나치게 하지 않고서는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은 낡은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려면 수정적——개량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중적 혁명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5] 1926년 겨울과 1927년 봄에 북벌군이 장강 유역에 진격하였을 때까지는 장 개석의 반혁명적 정체가 채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농민 대중은 그를 혁명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주와 부농들은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벌군이 패전하였다는니, 장 개석이 다리틀 다쳤다느니 하는 요언을 만들어 냈다. 장 개석의 반혁명적 정체가 충분히 폭로된 것은 1927년 4월 12일 그가 상해 등지에서 반혁명적 정변을 일으켜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농민들을 탄압하고 공산당을 타격한 후부터였다. 이 때부터 지주, 부농들은 그에 대하여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6] 팡둥은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의 최초의 혁명 근거지였다.

[7] 오 폐부는 복양 군벌의 유명한 대표자의 하나였다. 그는 1923년에 유명한 배수 선거에 의하여 총통이 된 조 곤과 더불어 복양 군벌의 적예제(즉 적예성파)에 속한 동시에 조 곤을 두목으로 삼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조오》라고 불렀다. 오 폐부는 1920년에 안휘계 군벌인 단 기서를 격파한 후부터 복양 군벌 정부의 정국을 좌우하게 되었고 영,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되었으며 1923년 2월 7일에는 경한선의 파업 노동자를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1924년에 장 작림파의 권쟁(일반 사람들은 《봉적 전쟁》이라고 부른다)에서 실패한 후 오 폐부는 복경 정권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1926년에 일, 영 제국주의의 흥제에 의하여 그는 다시 장 작림파 연합하여 제기하였다. 1926년에 북벌군이 팡둥성에서 출발하여 제일 먼저 직접 타도한 적은 오 폐부였다.

[8] 삼민주의란 손 중산이 중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대하여 제기한 민족, 민권, 민생 세 문제의 원칙과 강령을 말하는 것이다. 1924년에 손 중산은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삼민주의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민족주의를 반제국주의라고 해석하였고 동시에 모농 운동을 적극 지지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리 하여 구삼민주의는 모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동을 부조하는 3대 정책의 신삼민주의로 발전되었다. 이 3대 정책의 신삼민주의는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합작의 정치적 기초로 되었다. 본 선집 제 2 권의 《신민주주의론》 제 10 절을 참조하라.

[9] 농업을 농민 협회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1927년 당시에 농민 대중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10] 모택동 동지가 여기서 말하는 《적민》이란 고농(농촌 프로레타리아)과 농촌의 품꾼 프로레타리아를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다.

[11] 농촌의 반프로레타리아트를 가리켜 말한다.

[12] 당시의 국민당 현 당부를 가리켜 말한다.

[13] 현 조정은 당시 호남성 서부 지방에 반거하고 있던 귀주 군벌이다.

[14] 호남성의 도회 단은 구와 향에 해당된다. 구식도, 단의 농촌 정권 기관은 지주가 농민을 통치하는 도구였다. 도, 단의 책임자물 《도통》, 《단통》이라고 하였다.

[15] 당시 토호 멸신의 정권에서 본래부터 정수하여 오던 지세 외에 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토지 부가세물 징수한 것을 가리켜 말한다.

[16] 독군이란 북양 군벌 통치 당시에 각 성에 두었던 군사 수뇌의 칭호이다. 독군은 실제 상 권 성의 군사 정치 대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성내에서의 독재자였다. 독군들은 제국주의자와 결탁하여 지방적인 봉건적 군사 할거를 실시하고 있었다.

[17] 애호단 상비대란 당시 농촌 무장 조직의 일종이다. 《애호》라는 것은 거의 집집마다 참가한다는 뜻이다. 1927년 혁명이 실패된 후 많은 지방의 《애호단》은 지주에게 탈취되어 반혁명적 무장 조직으로 되고 말았다.

[18] 당시 무한의 국민당 중앙의 명도 하에 있던 각지의 많은 국민당 현 당부는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동을 부조하는 손 중산의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조직이었으며 공산주의자, 국민당 좌익 및 기타 혁명자들의 혁명적 동맹체였다.

[19] 이 말은 《맹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 대의는 활 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줄 아는 사람은 시위를 힘껏 당기고서 쓰지는 않고 금시 쓸듯 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은 공산당이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충분히 각성하도록 지도한 후에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미신과 기타 좋지 못한 풍속 습관을 타파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공산당이 명멸을 내리며 농민을 대신하여 그런 것을 타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20] 당 생지는 당시 혁명 측에 서서 북벌 전쟁에 참가한 장군이다. 업 개훈은 당시 북양 군벌 측에 서서 혁명을 반대한 장군이다.

[21] 손 전방은 당시 장강 이남의 다섯 개 성을 통치하고 있던 군벌이며 상해 노동자들의 봉기를 탄압한 교형리이다. 그 군대의 주력은 1926년 겨울에 강서성 남창, 구강에서 북벌군에게 격파 당하였다.

[22] 동방 문화주의란 동방의 탁후한 농업 생산과 봉건적 문화문 보존하는 데 만족하고 근대의 과학 문명을 배척하는 반동적 사상이다.

[23]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의 주해 15를 참조하라.

[24] 산, 당, 향, 수란 원시적 비밀 결사 중의 종파들의 칭호이다.

[25] 1926년 11월에 북벌군이 남창을 점령하자 장 개석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의 총사령부를 남창에 설치하고 국민당 우파와 북양 군벌 내의 일부 정객들을 규합하여 가지고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반혁명적 음모를 꾸며 당시의 혁명적 무한에 대항하였다. 1927년 4월 12일 장 개석은 마침내 상해에서 혁명을 배반하는 대학살의 정변을 일으켰다.

[26] 장 정강은 당시 국민당 우파 두목의 한 사람이며 장 개석의 모사였다.

[27] 류 악치는 당시 호남성의 주요한 반공 단체 《좌사》의 두목이었다.

[28] 실공이 통을 좋아 하였다는 말은 한초의 류 향이 지은 《신서》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이다. 《실공 자고(庾公子高)》는 통을 좋아 하여 갈고리와 끌로써 통을 새길 수 있는 곳에는 모조리 통을 새기고 방안과 침실도 통을 그려 단청하였다. 하늘의 통이 이 소문을 듣고 내려 와 더러운 들창으로 비스듬히 들어 밀고 꼬리뿔 전당 우에 걸쳐 놓았다. 실공은 이것을 보고 도망 쳤으며 준비백산하여 전신이 새파랗게 걸렸다. 이로 보아 실공은 통을 좋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 좋아 한 것은 통과 비슷하나 통이 아닌 것이었다. 모 태동 동지는 여기에서 장 개석 도배들이 일으키는 혁명을 말하고 있으나 실지는 혁명을 두머워 하며 혁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

(1928년 10월 5일)

1. 국내의 정치 정세

현재의 국민당 신군벌의 통치는 여전히 도시의 매관 계급과 농촌의 토호 력신 계급의 통치이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에 굴종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군벌로 구군벌을 대체하여 로농 계급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박을 이전보다도 더 혹심히 하고 있다. 광둥성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중도에 매관 계급과 토호 력신 계급에게 령도권을 빼앗기어 즉시로 반혁명의 길로 돌아 서게 되었으며 전국에서 로동자, 농민, 평민은 물론, 부르조아지(1)까지도 정치 경제적으로 하등의 해방도 얻지 못 하고 여전히 반혁명의 통치 하에 있다.

국민당의 신군벌인 장파, 팡서파, 풍파, 엄파 등 4 파(2)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쓴 상공 연구 당 제 2 차 대표 대회 결정서의 일부분이다. 원 표제는 《정치 문제와 곁경 지대 당 조직의 과업》이다.

는 북경, 천진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장 작립[3]에 대항하여 일시적이거나 연합하고 있었다. 북경, 천진을 점령한 후에는 이 연합이 즉시 해체되어 4 파 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장파와 광서파 사이에는 전쟁까지 온양되고 있다. 중국 내부의 군벌들 간의 모순과 투쟁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한 군벌 각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으며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다 일시적인 것이다. 오늘 의 일시적인 타협은 래일의 더욱 큰 전쟁을 배태하고 있다.

중국에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혁명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여야만 완성될 수 있다. 광동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장강 류역으로 발전한 1926~1927년의 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령도권을 견결하게 행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매관 계급과 토호 령신 계급이 령도권을 탈취하여 반혁명으로 혁명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리 하여 일시적인 실패를 당하였다.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은 이 실패로 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중국의 부르조아지(매관 계급, 토호 령신 계급이 아닌)도 역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공산당의 령도 밑에 로농 계급의 조직적인 도시 파업과 농촌 폭동이 남북 각지에서 발전되고 있다. 군벌 군대의 병사들 속에서는 굶주림과 추위로 인하여 커다란 불안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부르조아지도 왕 정위, 진 공박 일파의 선동으로 연해 지역과 장강 류역들에서 규모가 상당

히 큰 개량주의 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다^[4]. 이 운동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태이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국제 공산당과 중앙의 지시에 의하면 중국에서 제국주의 및 그 도구인 군벌들의 통치를 전복하고 민족 혁명을 완성하며 토지 혁명을 수행하여 농민에 대한 토호 멸신 계급의 봉건적 착취를 청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 실천 운동은 1928년 5월의 제남 참살 사건^[5] 이후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

2. 중국에서 홍색 정권^[6]이 산생하고 존재하는 원인

한 나라에서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은 홍색 정권 지역이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그 독특한 원인이 있으며 그것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는 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조건이 있다. 첫째로, 이러한 것은 어떠한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또 제국주의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어떠한 식민지에서도 발생될 수 없고^[7] 오직 제국주의가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반식민지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왜냐 하면 이런 기이한 현상은 반드시 다른 하나의 기이한 현상, 즉 백색 정권들 사이의 전쟁에 동반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국내 매판 계급 및 토호 멸신 계급이 지지하는 신구 군벌 각파 사이에 민

국 원년부터 전쟁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식민지 중국의 특징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으며 제국주의가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산생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즉 지방적인 농업 경제(유일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가 아닌)와 그리고 세력권의 회복에 의하여 분열,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정책이 그것이다. 백색 정권 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열과 전쟁은 공산당이 령도하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은 홍색 지역이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서 산생될 수 있으며 견지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는 바로 이 여러 작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곤란하고 위급한 때이면 일부 동지들은 왕왕 이런 홍색 정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의심하면서 비판한다. 이것은 이런 홍색 정권이 산생하며 존재하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옳은 해답을 얻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백색 정권의 분열과 전쟁이 부단히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홍색 정권이 산생하며 존재하며 또 나날이 발전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에서 홍색 정권이 제일 먼저 산생하고 또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사천, 귀주, 운남 및 북방 각 성과 같이 민주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지 못한 그런 곳이 아니라 호남, 광둥, 호북, 강서 등 성과 같이 1926년과 1927년 두 해

동안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이 대대적으로 쫓겨났던 그런 곳이다. 이런 성들의 많은 지방에는 한때 공회와 농민 협회의 광범한 조직망이 건립되어 있었으며 지주 계급, 토호 멸신 계급 및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로농 계급의 경제적 및 정치적 투쟁도 광범히 전개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는 3일 간의 도시 민중 정권이 산생되었었고 해풍과 목풍, 호남성 동부, 호남성 남부, 호남-강서 접경 지대, 호북성의 황안 등지에는 농민의 할거 지역이 있었다(8). 그리고 현재의 홍군도 민주주의적인 정치 훈련과 로농 대중의 영향을 받은 국민 혁명군 가운데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다. 엄 석산, 장 작립의 군대와 같이 민주주의적인 정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군대로부터는 아직 홍군으로 될 수 있는 성분이 도저히 분화되어 나올 수 없다. 세째로, 작은 지역의 민중 정권이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국의 혁명 정세의 발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국의 혁명 정세가 계속 발전하는 경우에는 작은 홍색 지역은 틀림 없이 장기간 존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국각적 정권의 쟁취를 위한 허다한 역량 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만약 전국의 혁명 정세가 계속 발전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침체된다면 작은 홍색 지역은 장기간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중국의 혁명 정세는 국내 매관 계급, 토호 멸신 계급과 국제 부르조아지의 분렬과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홍색 지역들은 틀림 없이 장기

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정권의 쟁취에로 날로 접근하면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네째로, 상당한 력량을 가진 정규적 홍군의 존재는 홍색 정권의 존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만약 지방적 성격을 띤 적위대^[9] 뿐이고 정규적 홍군이 없다면 애호단이나 대처할 수 있을 뿐 정규적 백색 군대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훌륭한 로농 대중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한 력량을 가진 정규적 무장력이 없이는 할거 국면을 도저히 조성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할거 국면은 더구나 조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로농 무장 할거》의 사상은 공산당과 할거 지역의 로농 대중이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사상이다. 다섯째로, 홍색 정권이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상술한 조건들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즉 공산당의 조직이 강력하여야 하고 그 정책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3.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와 8월의 실패

군벌 간의 분렬과 전쟁은 백색 정권의 통치 세력을 약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역의 홍색 정권이 이 시기를 타서 산생될 수 있다. 그러나 군벌 간의 전쟁이 매일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개 성 또는 몇 개 성의 백색 정권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이면 그 한 개 성의 지배 계급 또는 몇 개 성의 지배 계급은 필연적으로 연합하여 이 홍색 정

권을 소멸하려고 전력을 다하게 된다. 홍색 정권을 수립하고 그것을 고수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못한 곳에서는 적에게 전복될 위험성이 있다. 금년 4월 이전에 시기를 타서 산생된 허다한 홍색 정권, 쩌를 들면 광주, 해풍과 룽풍, 호남-강서 접경 지대, 호남성 남부, 쩌룽, 황안 등지의 홍색 정권이 선후로 백색 정권에 의하여 파괴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4월 이후의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는 바로 남방 통치 세력의 일시적 안정기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토벌》에 파견한 병력이 언제나 8~9 개 탄 이상이였으며 많을 때에는 18 개 탄에까지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 개 탄도 못 되는 병력으로 4 개월 간이나 적과 싸우면서 할거 지구를 나날이 확장시키고 토지 혁명을 나날이 침투시키고 민중 정권의 조직을 나날이 확대시키고 홍군과 적위대를 나날이 장성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공산당(지방의 당 조직과 군대의 당 조직)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당의 특별 위원회와 군 위원회의 정책은 도망주의를 반대하고 적과 건걸히 투쟁하며 라소 산맥^[10] 중부에 정권을 창설하는 것, 할거 지구에서 토지 혁명을 침투시키는 것, 군대의 당 조직이 지방 당 조직의 발전을 방조하며 정규군이 지방 무장력의 발전을 방조하는 것, 홍군을 집중하여 기회를 보아 적면한 적에 대처하며 적에게 각개 격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 분산을 반대하는 것, 할거 지구를 확장함에 있어서 모험적 진격 정책을 반대하고 파상식 추진 정책을 취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전술들이 적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도 투쟁에 유리하고 호남성과 강서성의 적의 진공 부대가 잘 단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4월부터 7월까지의 4개월 동안 번번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되었으나 이 할거를 파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할거 지구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막지 못하였다. 이리 하여 이 할거가 호남성과 강서성에 주는 영향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8월의 실패는 전'적으로 일부 동지들이 그 당시가 바로 지배 계급의 일시적 안정기라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지배 계급의 정치적 분열기에 썩어야 할 전략을 썩서 병력을 분산하여 모험적 진격을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 하여 접경 지대와 호남성 남부에서 한꺼번에 실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남성 위원회 대표 두 수경 동지가 그 당시의 환경을 살피지 않고 특별 위원회, 군 위원회, 영신현 위원회 련석 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저 호남성 위원회의 명령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투쟁을 회피하여 고향으로 돌아 가려는 홍군 제 29 탄의 의견에 추종한 그 파오는 매우 크다. 이런 실패의 형세는 9월 이후에 특별 위원회와 군 위원회가 파오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만회되었다.

4.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 국면이 호남, 호북, 강서 세 성에서 차지하는 지위

녕강을 중심으로 한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로농 무장

할거는 결코 접경 지대의 몇 개 현에 한하여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할거는 호남, 호북, 강서 세 성의 로동자, 농민들이 폭동으로 이 세 성의 정권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접경 지대의 토지 혁명과 민중 정권의 영향을 멀리 호남, 강서 두 성의 하류 지방 지어는 호북성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 투쟁 과정에서 홍군을 낱알이 량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고하여 장차 세 성의 총폭동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각 현의 지방 무장력 즉 적위대와 로농 폭동대를 량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고하여 지금에 있어서는 애호단 및 소부대와 싸울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접경 지대 정권을 방위할 수 있게 하는 것, 지방의 일'군들을 점차 홍군 내 일'군들의 방조에 덜 의뢰하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하며 접경 지대 일'군들로 접경 지대의 사업을 담당하고 나아가서는 홍군과 확대된 할거 지역에 일'군을 수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접경 지대의 당 조직이 호남, 호북, 강서 세 성의 폭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수행하여야 할 극히 중요한 과업이다.

5. 경제 문제

백색 세력의 사면 포위 속에 들어 있어 군대와 인민의 일용 필수품과 현금 부족이 매우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접경 지대 정권의 할거 지구에서는 적들의 엄밀한

붕쇄로 인하여 언제나 소금, 피륙, 약재 등 일용 필수품이 몹시 부족되고 몹시 비쌌다. 이로 인하여 로동자, 농민, 소 부르조아지^[11] 및 홍군 병사 대중의 생활이 불안정하였으며 때로는 정말 극도에 달하였다. 홍군은 전쟁을 하는 한 편 군량도 마련하여야 한다. 량식을 제한 외 매일 5 전의 채소대 조차 잘 이어 대기 어렵고 영양이 부족되어 병자가 많이 나며 입원하고 있는 부상병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전국적인 총정권을 쟁취하기 전에는 물론 이런 곤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런 곤난을 다소라도 해결하여 생활을 좀 좋아지게 하며 특히 홍군의 급양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은 절박한 일이다. 만약 접경 지대의 당 조직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적당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 한다면 적들의 세력이 비교적 장기간 계속 안정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할거는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는 것은 실로 매개 당원이 관심하여야 할 바이다.

6. 군사 근거지 문제

접경 지대의 당 조직 앞에는 또 하나의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것은 대소 오정^[12]과 구룡의 두 군사 근거지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영신, 령현, 녕강, 수천 등 네 현의 경계에 있는 대소 오정 산지대와 영신, 녕강, 다몽, 련화 등 네 현의 경계에 있는 구룡 산지대——지형이 우월한 이 두 지방은, 그 중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을뿐더러 지형 또한 국

히 힘요한 대소 오정은 오늘 접경 지대에서 중요한 군사 근거지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호남, 호북, 강서 세성에서 폭동이 발전되는 때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군사 근거지로 될 것이다. 이 근거지를 공고화하는 방법은 첫째로, 완비한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것, 둘째로, 식량을 넉넉히 예비하는 것, 세째로, 비교적 좋은 홍군 병원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접경 지대의 강 조직은 이 세 가지 일을 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 해

[1] 모택동 동지는 여기에서 민족 부르조아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때만 대부르조아지와 민족 부르조아지의 차이성에 대하여 모택동 동지는 1935년 12월에 쓴 토착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술에 대하여》와 1939년 12월에 쓴 토착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2] 장파판 장 개척파를 가리키고 광서파판 광서 군벌 리 종인-백 승회파를 가리키고 풍피판 풍 육상파를 가리키고 엄파판 산서 군벌 엄 석산파를 가리킨다. 이들은 연합하여 장 작립과 싸워 1928년 6월에 북경과 천진을 점령하였다.

[3] 장 작립은 봉천계 군벌의 두목이었다. 1924년 오 패부가 제 2차 봉적 전쟁에서 패배한 후 장 작립은 북방에서 가장 세력이 큰 군벌로 되었다. 1926년에 그는 오 패부와 연합하여 북경을 점령하였다. 1928년 6월 북경에서 동북으로 돌아 가던 도중에 그 때까지 그를 앞잡이로 리용하던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목사 당하였다.

[4] 1928년 5월 3일 일본 침략자들이 제남을 점령하고 장 개척이 파멸치 하지도 공공인히 일본과 타협한 후에 1927년 당시의 반혁명 정변에 추종하였던 민족 부르조아지 내의 일부는 자기의 퇴임을 위하여 점차로 장 개척 정권에 대한 재야 반대파를 형성하였다. 그 당시 왕 정위, 진 공박 등과 같은 투기적인 반혁명적 정치 파벌은 이 운동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국민당 내의 소위 《재조직

파》를 형성하였다.

[5] 1928년에 장 개석은 영, 미 제국주의의 지지 하에 복상하여 장 작림을 공격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영, 미 세력이 북방으로 뻗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출병하여 산둥성 성 소제지 제남을 점령하고 진포선을 차단하였다. 5월 3일에 일본 침략군은 제남에서 수 많은 중국 사람을 학살하였다. 이 학살 사건을 《제남 참살 사진》이라고 한다.

[6] 중국 홍색 정권의 조직 형태는 쑨베트 정권과 근사하다. 쑨베트란 대표 회의로서 로씨야 노동계급이 1905년 혁명 때에 창조한 정치 제도이다. 백년과 쓰말린은 맑스주의 이론에 령감하여 쑨베트 공화국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회 정치적 조직 형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1917년의 로씨야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매닌-쓰말린적 불세위크당의 명도 하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쑨베트 공화국을 실현하였다. 중국에서는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후 모택동 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명도한 각지 민중의 혁명적 봉기들에서 대표 회의들 민중 정권의 형태로 삼았다. 그러나 중국의 이 혁명 단계에서 이러한 정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가 명도하는 반제 반봉건적 신민주주의 혁명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이다. 이것은 쑨연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정권과 성격 상 구별된다.

[7]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에 원래 영국, 미국, 프랑스, 화란 등 제국주의의 동치 하에 있던 동방의 많은 식민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자 이 나라들의 노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 대중 및 민족 부르조아 분자들은 공산당의 명도 하에 영국, 미국, 프랑스, 화란 등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간 모순을 리용하여 파쇼 침략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건설하고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고 간고한 항일 유격 전쟁을 진행하였다. 그리 하여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의 그런 정치 정세는 개변되기 시작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 나자 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 등 제국주의는 원래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하며 하였으나 일제물 반대하는 전쟁에서 상당히 강력한 무장력을 단련해 낸 각 식민지 인민들은 그런처럼 살아 나가며 하지 않았다. 게다가 쑨연이 강대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 과정에서 혹은 타도되고 혹은 약화되었기 때문에, 더우기 중국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중국에서 제국주의 전선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반 제국주의 제도가 크게 위흔들리게 되었다. 이리 하여 동방의 각 식민지, 적어도 일부 식민지의 인민들도 중국과 거의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혁명 근거지와 혁

명 정권들을 장기간 고수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며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혁명 전쟁을 장기간 견지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며 또 이로부터 점차 진출하여 도시를 탈취하며 그 식민지에서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제국주의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조건 하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모택동 동지의 1928년의 판찰은 이러한 새로운 정형으로 하여 이미 개편되었다.

[8] 이것은 1927년에 장 개석, 왕 정위가 전후하여 혁명을 배반한 후 각지 인민들이 공산당의 명도 하에 반혁명 세력에 대하여 처음으로 일으킨 반격 행동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1927년 12월 11일에 모동자와 혁명적 병사들이 연합으로 봉기하여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제국주의의 직접적 원조 하에 있는 반혁명 군대와 격렬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벽량의 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인민적 봉기는 실패하였다. 광둥성 동부 해안의 해풍, 북중 등지의 농민들은 1923~1925년에 공산당원 쑹 배 동지의 지도 하에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여 반혁명과 진 혁명을 치는 광주 국민 혁명군의 2 차에 걸친 동정(東征)의 승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27년 4월 12일 장 개석이 혁명을 배반한 후 이 지방의 농민들은 4월, 9월, 10월에 전후 3 차나 봉기하여 해풍, 북중 일대에 혁명 정권을 수립하고 1928년 4월까지 고수하였다. 호남성 동부에서는 봉기한 농민들이 1927년 9월에 류양, 평강, 예동, 주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호북성 동북부의 효강, 마성, 황안 등지에서도 수만 명의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며 황안현 현 소재지를 30여 일 간이나 점령하고 있었다. 호남성 남부에서는 1928년 1월에 의장, 침수, 퇴양, 영홍, 자홍 등 현의 봉기한 농민들이 혁명 정권을 수립하고 이틀 3 개월이나 고수하였다.

[9] 적위대만 혁명 근거지의 대중적 무장 조직이다. 그들은 생산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있었다.

[10] 타소 산맥은 강서성과 호남성의 접경 지대에 있는 큰 산맥이며 정강산은 타소 산맥의 중부에 있다.

[11] 모택동 동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소부르조아지한 농민 이외의 수공업자, 소상공인, 각종 자유 직업자 및 소부르조아 출신의 지식인들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 성분이 주로 도시에 있었지만 농촌에도 상당한 수량이 있었다.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을 참조하라.

[12] 대소 오정 산지대만 강서성 서부의 영신, 녕강, 수천과 호남성 동부의 명현 등 네 현의 경계에 있는 정강산을 가리켜 말한다. 정강산에 대정, 소정, 상정, 중정, 하정 등 지방이 있기 때문에 대소 오정이라고 한다.

정 강 산 투 쟁*

(1928년 11월 25일)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와 8월의 실패

한 나라에서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은 홍색 정권 지역이 산생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오직 중국에만 있는 일이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이 생긴 원인의 하나는 중국에서 매관 계급과 토호 멸신 계급 내부에 분렬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있다. 매관 계급과 토호 멸신 계급 내부에 분렬과 전쟁이 지속되는 한 로농 무장 할거도 계속 존재하며 발전할 수 있다. 이 밖에 로농 무장 할거의 존재와 발전에는 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1) 훌륭한 대중이 있을 것, (2) 훌륭한 당 조직이 있을 것, (3) 상당한 력량을 가진 홍군이 있을 것, (4) 작전에 유리한 지세가 있을 것, (5) 급양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을 것.

지배 계급의 정권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써 보낸 보고이다.

있어서와 분열되어 있는 시기에 있어서 할거 지구는 주변의 지배 계급에 대하여 각이한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남성과 호북성에서 리 종인과 당 생지가 싸우던 시기〔1〕나 광둥성에서 장 발규와 리 제십이 싸우던 시기〔2〕와 같이 지배 계급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는 비교적 모험적으로 진격하는 전략을 취하여도 좋으며 비교적 광대한 범위에서 군사적 방법으로 할거 지역을 발전시켜도 좋다. 그러나 백색 공포가 래습하여도 뒤가 든든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전히 중심 지구에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금년 4월 이후의 남방 각 성처럼 만약 지배 계급의 정권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기에 군사상에서는 병력을 분산시켜 모험적으로 진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삼가야 하고 지방 사업 면(토지 분여, 정권 수립, 당의 발전, 지방 무장력의 조직)에 있어서는 중심 지구에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주력하지 않고 인력을 분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삼가야 한다. 각지의 허다한 작은 홍색 지역들에서 실패한 것은 객관적으로 조건이 구비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 아니면 주관적으로 전술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에 오류가 생기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두 개의 상이한 시기——지배 계급의 정권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기와 분열되어 있는 시기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 데 있다. 일부 동지들은 적들이 애호단 외에 또 정규 부대를 집중하여 쳐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듯이 지배 계급의 정권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도 병력을 분산하여 모험적으로 진격할 것을 주장하며 심지어는 적위대만으로써 광대한 지역을 방위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방 사업 면에서는 중심 지구에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서 주관적 역량 of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만 한다. 만일 군사 면에서 점진적인 확장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지방 사업 면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중심 지구에 튼튼한 토대를 닦음으로써 불패의 기반에 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보수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놓는다.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견해가 바로 금년 8월에 호남-강서 접경 지대에서 실패한 것과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호남성 남부에서 홍군 제 4 군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으로 되었다.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느 현에나 당 조직이 전혀 남지 않았고 지방 무장력으로는 정강산 부근에서 원 문제, 왕 좌가 각각 변변치 못한 총 60 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영신, 련화, 다릉, 령현 등 네 현의 농민 자위군의 총은 전부 토호 멸신 계급에게 해 당하였으며 대중의 혁명열은 억눌려 있었다. 금년 2월에 와서 녕강, 영신, 다릉, 수천에 각각 현 당 위원회가 조직되고 령현에는 특별구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련화에서도 당 조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만안현 위원회와도 련계를 맺었다. 지방의 무장력은 령현을 제외하고는 어느 현에나 다 약간씩 있게 되었다. 녕강, 다릉, 수천, 영신 특히 수천과 영

신 두 현에서는 토호 멸신을 타도하며 대중을 발동하는 유격 폭동을 여러 차례 일으켰으며 성과가 비교적 좋았다. 이 시기에 토지 혁명은 아직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 기관은 로농병 정부라고 불렀다. 군대 내에는 병사 위원회[3]를 조직하였다. 부대가 갈라져서 제각기 행동할 때에는 이것을 지휘할 행동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당시 당의 고급 지도 기관은 추수 봉기 때 호남성 위원회에서 임명한 전적 위원회였다(모택동이 서기였다). 3월 상순에 전적 위원회는 호남성 남부 특별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해산되고 사 위원회(하 정영이 서기였다)로 재조직되어 지방의 당 조직은 관계하지 못하고 군대 내의 당 조직만 지도하는 기관으로 되었다. 동시에 모택동의 부대가 또 호남성 남부 특별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호남성 남부로 이동하여 간 결과 접경 지대는 1 개월 이상이나 적에게 점령 당하게 되었다. 3월 말에는 호남성 남부에서 실패 당하였고 4월에 주덕, 모택동의 두 부대와 호남성 남부의 농민군이 녕강으로 퇴각하여 접경 지대의 할거를 다시 시작하였다.

4월 이후의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할거는 바로 남방 통치 세력의 일시적 안정기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토벌》에 파견한 반동 군대가 적어서 8~9 개 탄이였으며 많을 때에는 18 개 탄에까지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 개 탄도 못 되는 병력으로 4 개월 간이나 적과 싸우면서 할거 지구를 나날이 확장시키고 토지 혁명을 나날이 침투시키고 민중 정권을 나날이 확대시키고 홍군과 적

위대를 나날이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접경 지대 당 조직(지방의 당 조직과 군대의 당 조직)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접경 지대 특별 위원회(모택동이 서기였다)와 군 위원회(진 의가 서기였다)의 정책은 도망주의를 반대하고 적과 견결히 투쟁하며 라소 산맥 중부에 정권을 세우는 것, 할거 지구에서 토지 혁명을 침투시키는 것, 군대의 당 조직이 지방 당 조직의 발전을 방조하며 군대의 무장력이 지방 무장력의 발전을 방조하는 것, 동치 세력이 비교적 강한 호남성에 대하여서는 수세를 취하고 동치 세력이 비교적 약한 강서성에 대하여서는 공세를 취하는 것, 영신에서의 공작을 강화하여 대중적 할거를 창설하며 장기적 투쟁의 태세를 갖추는 것, 홍군을 집중하여 기회를 보아 직면한 적을 격파하며 적에게 각개 격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 분산을 반대하는 것, 할거 지구를 확장함에 있어서 모험적 진격 정책을 반대하고 파상식 추진 정책을 취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전술들이 적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접경 지대의 지형도 투쟁에 유리하고 호남성과 강서성의 적의 진공 부대가 잘 단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4월부터 7월까지의 4 개월 동안 번번이 군사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고 대중적 할거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적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되었으나 이 할거를 파괴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할거의 발전도 막지 못 하였다. 이 할거가 호남성과 강서성에 주는 영향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8월의 실패는 전'적으로 일부 동지들이 그 당시가 바로 지배 계급의 일시적 안정기라

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지배 계급의 분열기에 싸야 할 정책을 써서 병력을 분산하여 호남성 남부로 모험적 진격을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 하여 접경 지대와 호남성 남부에서 한꺼번에 실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남성 위원회 대표 두 수 경과 성 위원회에서 접경 지대 특별 위원회의 서기로 파견한 양 개명은 이의를 극력 견지하는 모택동파 완 회선 등이 멀리 영신에 있는 기회를 타서 당시의 환경을 살피지 않고, 호남성 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군 위원회, 특별 위원회, 영신현 위원회 편석 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저 호남성 위원회의 호남성 남부로 가라는 명령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투쟁을 회피하여 고향으로 돌아 가려는 홍군 제 29 탄(그 성원은 의장의 농민들이다)의 의견에 추종하였다. 그리 하여 접경 지대에서와 호남성 남부에서의 실패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원래 7월 중순에 호남성의 적 제 8 군 오 상 부대는 녕강에 침입한 다음 다시 영신으로 진격하여 왔다가 싸움도 못하고(아군은 사이'길로 출격하였으나 만나지 못 하였다) 우리의 군중이 무서워서 황급히 련화를 거쳐 다릉으로 퇴각하여 비렸다. 그 때 홍군의 대부대는 녕강으로부터 령현, 다릉으로 진격하다가 령현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방향을 돌려 호남성 남부로 갔는데 강서성의 적 제 3 군 왕 군, 김 한정 부대의 5 개 탄, 제 6 군 호 문두 부대의 6 개 탄이 또 협력하여 영신을 진공하여 왔다. 이 때 아군은 영신에 1 개 탄 밖에 없었으나 광범한 대중의 엄호 하에 사면 유격의 방법으로 이 11 개 탄의 적군을 영신현 소재지 부근 30 리 내

에서 25 일 간이나 끈경에 빠져 있게 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들의 맹공격으로 인하여 영신을 잃고 또 뒤'이어 련화, 냉강을 잃게 되었다. 이 때 강서성의 적들 사이에서 갑자기 내부 분쟁이 일어나 호 문두의 제 6 군은 황급히 퇴각하여 장수에서 왕 군의 제 3 군과 싸웠다. 남아 있던 강서성 적군의 5 개 탄도 황급히 영신현 소재지로 퇴각하였다. 만일 우리의 대부대가 호남성 남부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 적을 격파하고 할거 지구를 길안, 안북, 평향까지 확장하여 평강 및 류양과 련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대부대는 가고 없었고 남아 있던 우리 1 개 탄은 또한 극도로 피로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을 거기에 남겨 원 문재, 왕 좌 두 부대와 함께 정강산을 지키게 하고 나는 일부 부대를 인솔하여 계동 방면으로 가서 대부대를 맞아 오기로 하였다. 이 때 대부대는 벌써 호남성 남부로부터 계동으로 퇴각하고 있었으므로 8월 23일에 우리는 계동에서 회합할 수 있었다.

홍군의 대부대는 7월 중순에 령현에 도착하자 제 29 탄 전체 군관과 병사들은 정치적으로 동요되어 고향인 호남성 남부로 돌아 가려 하고 지휘에 복종하지 않았으며 제 28 탄은 호남성 남부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강서성 남부로 가려 하면서 역시 영신으로는 돌아 가려 하지 않았다. 두 수경이 제 29 탄의 그릇된 의견에 부채질하였고 군 위원회 역시 이를 막지 못 하였으므로 대부대는 결국 7월 17일에 령현을 출발하여 침주로 전진하였다. 7월 24일에 침주에서 적 범 석생과 싸워 처음에는 승리하였으나 후에 패전하여 전투로부터

물러났다. 제 29 탄은 그 즉시 자유 행동을 취하여 고향인 의장으로 달아 나다가 결국 일부는 탁창에서 토비 호봉장에게 소멸 당하고 일부는 침주, 의장 각지에 분산되어 행방도 모르게 되었으며 그 날 수습한 인원은 100 명도 못 되었다. 다행히도 주력인 제 28 탄의 손실이 크지 않아 8월 18일에 계동을 점령할 수 있었다. 23일에는 정강산으로부터 온 부대와 회합하게 되어서 승의, 상유를 지나 다시 정강산으로 돌아 가기로 결정하였다. 승의에 도착하였을 때 영장원 승전이 보병 1 개 련과 포병 1 개 련을 거느리고 배반하였는데 이 두 개 련을 도로 찾아 오기는 하였으나 탄장왕 이탁이 희생되었다. 8월 30일 호남성과 강서성 적군의 각 한 부대가 아군이 미처 돌아 오지 못한 기회를 타서 정강산을 공격하였다. 우리 수비 부대는 1 개 영도 못 되었으나 요해에 의거하여 저항함으로써 적을 격파하고 이 근거지를 보전하였다.

이 번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1) 한 부대는 군관과 병사들이 동요하여 집 생각을 하면서 전투력을 상실하였으며 한 부대는 군관과 병사들이 호남성 남부로 가기를 싫어 하고 적극성이 부족하였던 것, (2) 무더운 여름의 원정에서 병사들이 기진 백진하여진 것, (3) 령현으로부터 수백 리를 모험적으로 진격하여 절경 지대와의 련계가 끊어지고 부대가 고립된 것, (4) 호남성 남부의 대중이 쫓기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적 모험으로 되고 만 것, (5) 적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것, (6) 준비가 불충분하여 군관

과 병사들이 작전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

할거 지구의 현 정세

금년 4월부터 홍색 지역은 점차 확장되었다. 6월 23일의 룡원구(영신과 녕강의 경계) 전투에서 강서성의 적을 네 번 깨로 격파한 후 우리 지구는 녕강, 영신, 련화 등 세 현 전체와 길안, 안북 두 현의 각 일소부분과 수천 북부, 평현 동남부를 차지하게 되어 접경 지대의 전성 시기를 이루었다. 홍색 지역에서 토지는 대부분이 분여되고 소부분은 분여 중에 있다. 구, 향 정권은 보편적으로 수립되었다. 녕강, 영신, 련화, 수천 등 현에는 현 정부가 서고 접경 지대 정부도 수립되었다. 향과 촌에는 어디나 다 로농 폭동대가 조직되었고 구와 현에는 적위대가 있다. 7월에 강서성의 적이 진공하여 왔고 8월에 호남성과 강서성의 적이 정강산을 협동 공격하였기 때문에 접경 지대 각 현의 현 소재지와 평지대는 모조리 적에게 점령 당하였다. 창귀 같은 보안대와 애호단이 미친듯이 싸다니고 백색 공포가 도시와 농촌을 휩쓸었다. 당 조직과 정권 조직들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부농과 당내의 투기 분자들은 련달아 배반하였다. 8월 30일의 정강산 전투를 거쳐 호남성의 적은 비로소 평현으로 퇴각하였으나 강서성의 적은 그냥 각 현의 현 소재지 및 대부분의 농촌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산지대는 적들이 종시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런 곳으로는 녕강현의 서구와 북구, 영신현 북부의 천

통구와 서부의 소서강구, 남부의 만년산구, 련화현의 상서구, 수천현의 정강산구, 령현의 청석강과 대원구가 있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홍군의 1 개 탄은 각 현의 적위대와 배합하여 대소 수십 차례의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총 30 정 밖에 잃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산지대로 후퇴하였다.

아군이 송의, 상유를 지나 정강산으로 돌아 올 때 강서성 남부의 적군 독립 제 7 사 류 사의 부대가 수천까지 추격하여 왔다. 9월 13일에 아군은 류 사의 부대를 격파하여 총 수백 정을 로획하고 수천을 점령하였다. 9월 26일에는 정강산에 돌아 왔다. 10월 1일에 녕강에서 적군 웅 식휘 부대의 주 혼원 련과 싸워 승리하고 녕강현 전체를 수복하였다. 이 때 계동에 주둔하고 있던 호남성의 적군 염 중유 부대로부터 126 명이 아군에 넘어 와 특무영으로 편성되고 필 점운이 영장으로 되었다. 11월 9일에 아군은 또 주 혼원 련의 1 개 탄을 녕강성과 통원구에서 격파하였다. 그 이튿날 영신에 진출하여 이 곳을 점령하였다가 즉시 녕강으로 돌아 왔다. 지금 우리 지구는 남으로 수천의 정강산 남쪽 기슭으로부터 북으로는 련화현 경계에 이르고 있으며 녕강현 전부와 수천, 령현, 영신 등 현의 각 일부분을 포괄한 남북이 좁고 기다란 한 덩어리로 이어졌다. 련화의 상서구와 영신의 천룡구, 만년산구는 이 한 덩어리로 이어진 지구와 잘 련결되어 있지 않다. 적들이 군사적 진공과 경제적 봉쇄로 우리의 근거지를 소멸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적들의 진공을 격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군 사 문 제

접경 지대에서의 투쟁은 완전히 군사적 투쟁이므로 당도 대중도 다 군사화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적에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일상 생활의 중심 과제로 되고 있다. 할거는 무장 할거가 아니면 안 된다. 무장력이 없거나 무장력이 불충분하거나 적에 대처하는 전술이 그릇된 곳은 곧 적에게 점령 당하고 만다. 이 투쟁은 날로 더 치열하며 따라서 문제도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

접경 지대의 홍군은 (1) 조주, 산두의 열 정, 하 룡의 구부대[4], (2) 전 무창 국민 정부의 경위탄[5], (3) 평강, 류양의 농민[6], (4) 호남성 남부의 농민[7]과 수구산의 로동자[8], (5) 허 극상, 당 생지, 백 승회, 주 배덕, 오 상, 웅 식취 등 부대의 포로병, (6) 접경 지대 각 현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열 정, 하 룡의 구부대와 경위탄 및 평강, 류양의 농민은 1 년 여의 전투를 거치는 동안에 3 분의 1 밖에 남지 않았다. 호남성 남부의 농민 가운데도 사상자가 많다. 그러므로 첫 4 항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홍군 제 4 군의 골간으로 되고 있기는 하나 그 수효로 보면 마지막 2 항에 속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적다. 또 마지막 2 항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적군의 포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에 의한 보충이 없다면 병력은 큰 문제로 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병사의 증가와 총의 증가와는 여전

히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총은 쉽게 손실 당하지 않으나 병사는 부상, 사망, 질병, 탈주 등으로 인하여 손실되기 매우 쉽다. 호남성 위원회에서 안원의 로동자(9)를 이 곳에 보내 주겠다고 하였는데 속히 보내 주기를 바란다.

홍군의 성분을 본다면 일부는 로동자, 농민이고 일부는 몹센 프로레타리아이다. 몹센 성분이 너무 많으면 물론 좋지 못하다. 그러나 매일 전투가 있고 사상자도 많이 나며 또 몹센 분자가 오히려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몹센을 찾아 보충할 수 있는 것만 하여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형편에서는 정치 훈련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홍군 병사의 대부분은 고용 군대에서 왔지만 일단 홍군에 들어 오면 질적으로 달라진다. 우선 홍군이 고용병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남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홍군은 아직까지 정규적 봉급제란 것이 없고 다만 식량과 기름, 소금, 신탄, 부식물대 및 약간의 용'돈을 내어 줄 따름이다. 홍군 장병 가운데서 접경 지대 본지방 출신은 모두 토지를 분여 받았으나 타지방 출신에 한하여서는 토지를 분여하기 매우 어렵다.

정치 교양을 통하여 홍군 병사들은 계급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토지 분여, 정권 수립 및 로동자, 농민을 무장시키는 것 등에 관한 상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과 로농계급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불평을 부리지 않는다. 련, 영,

단에는 병사 위원회가 있어서 병사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정치 사업과 민중 사업을 하고 있다.

당 대표 제도^[10]는 경험에 증명하다 싶이 폐지할 수 없다. 특히련급에 있어서는 당의 지부가 련에 조직되어 있으므로 당 대표가 더욱 중요하다. 당 대표는 정치 훈련을 진행하도록 병사 위원회를 독촉하며 민중 운동 사업을 지도하며 동시에 당 지부 서기를 담임하여야 한다. 사실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당 대표가 비교적 우수하면 그 련은 비교적 건전하다. 그러나 련장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늘기 어렵다. 하급 간부들의 사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왕왕 포로 되어 온 지 얼마 안 되는 적군 포로병이 련장, 패장으로 되고 있으며 금년 2~3월 경의 포로병으로서 지금 영장으로 된 사람도 있다. 일핏 보면 홍군이라고 부르는 이상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나 실상 이렇게 보는 것은 여간 잘못이 아니다. 제 28 단은 호남성 남부에 있을 때 당 대표제를 폐지하였었는데 후에 다시 회복하였다. 지도원으로 개칭하면 국민당의 지도원과 혼동되어 포로병들이 싫어 한다. 그리고 또 명칭을 변경하나 안 하나 제도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 대표 중 사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로 훈련반을 설치하여 양성, 보충하겠지만 중앙과 두 성 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시킬 동지들을 적어도 30 명은 파견하여 주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병사들은 한 반년이나 1 년 동안 훈련하여야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 병사들은 입대한 이튿날

부더 전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란 말할 여지도 없다. 군사 기술은 매우 낮고 전투는 오직 용감성에만 의지하고 있다. 장기간 휴식하면서 훈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일부 전투들을 피하고 시간을 쟁취하여 훈련할 수 밖에 없는데 가능 여부는 두고 보아야 알겠다. 지금 하급 군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150 명으로 되는 교도대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을 경상적으로 운영하여 나갈 예정이다. 중앙과 두 성 위원회에서 련장, 패장급 이상의 군관들을 많이 파견하여 주기 바란다.

호남성 위원회는 우리에게 병사들의 물질적 생활에 류의 하여 최저 한도로 일반 노동자, 농민의 생활보다 다소라도 낮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이와 반대이다. 량식 외에 매일 기름, 소금, 신탄, 부식물대로 매일 당 5 전 밖에 내주지 못 하고 있으며 그것조차 이어 대기 어렵다. 기름, 소금, 신탄, 부식물대를 내주는 데만 하여도 매일 현금 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적으로 토호를 쳐서[11] 해결하고 있다. 지금 전군 5,000 명의 동복 용 솜은 장만하였으나 천이 부족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병사들은 아직 홑옷을 겨 입고 있다. 다행히도 곤난에는 단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곤난을 겪고 있으며 군장으로부터 취사원에 이르기까지 량식 외에 일률로 5 전 어치의 식사를 하고 있다. 용'돈을 내출 때에도 20 전이면 일률로 20 전이고 40 전이면 일률로 40 전이다[12].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전투를 하고 나면 번번이 부상병이 생긴다. 영양 부족, 동상 및 기타 원인으로 앓는 군관과 병사들도 많다. 산중에 병원을 설치하고 중의와 서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의사도 약품도 다 부족하다. 지금 병원에는 도합 8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다. 호남성 위원회에서 약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았다. 중앙과 두 성 위원회에서 서의 몇 명과 옥도제를 좀 보내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홍군이 물질적 생활이 이와 같이 어렵고 전투가 이와 같이 빈번한데도 의연히 꺾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당의 역할 외에 군대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관이 병사를 때리지 않으며 군관과 병사의 대우가 평등하며 병사들이 집회, 언론의 자유를 가지며 번잡한 레질이 폐지되어 있으며 장부가 공개되어 있다. 병사들은 취사를 판리하면서 매일 5 전 밖에 안 되는 기름, 소금, 신탄, 부식물대 가운데서 또 좀 절약하여 용'돈으로 쓰고 있다. 이것을 《식사 코트러기》라고 부르는데 매일 당 매일 6~7 리 가량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병사들은 매우 좋아 하고 있다. 특히 새로 들어 온 포로병들은 국민당 군대와 우리 군대를 딴 세상으로 느끼고 있다. 그들은 비록 홍군의 물질적 생활이 백군보다 못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어 있다. 어제 적군 내에서 용감하지 못 하던 병사가 오늘 홍군 내에서 용감하여진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홍군은 도가니와도 같아서 포로병이 오기만 하

면 뜯겨 버린다.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군대에도 필요하다. 군대 내의 민주주의 제도는 봉건적인 고용 군대를 파괴하는 중요한 무기로 될 것이다[13].

당 조직은 지금 련 지부, 영 위원회, 탄 위원회, 군 위원회의 4 급으로 되어 있다. 련에는 지부가 있고 반에는 소조가 있다. 홍군이 간난 신고 속에서 싸우면서도 해체되지 않는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지부가 련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2년 전에 국민당 군대 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들은 병사들을 전혀 장악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엽 정 부대[14]에도 한 개 탄에 한 개 지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준엄한 시련을 이겨 내지 못 하였다. 지금 홍군 내에서 당원과 비당원의 비례는 대체로 1 대 3, 즉 평균 4명 중에 당원 1명이 있다. 최근에 전투원들 가운데서 당원을 더 받아 들이여 당원과 비당원을 각각 절반씩 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15]. 지금 련 지부에는 훌륭한 서기가 부족된다. 중앙에서 제 고장에 있을 수 없게 된 각지의 활동 분자들 가운데서 지부 서기를 시킬 사람들을 많이 보내 주기 바란다. 호남성 남부로부터 온 일'군들은 거의 전부가 군대 내에서 당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8월에 호남성 남부에서 일부가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뽑아낼 사람이 없다.

지방 무장력으로는 적위대와 로농 폭동대가 있다. 폭동대는 날창과 렫총을 무기로 삼고 있으며 향을 단위로 하여 한 개 향에 한 개 대씩 두되 인원 수는 향의 대소에 따라 다르

다. 그 임무는 반혁명을 진압하며 항 정권을 보위하며 적이 태습하면 홍군 또는 적위대를 도와 적들과 싸우는 것이다. 폭동대는 영신에서 처음 생겼다. 원래는 비밀 조직이었는데 현 전체를 탈취한 후에 공개하였다. 이 제도는 지금 접경 지대 각 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명칭은 고치지 않았다. 적위대의 무기는 주로 오련발이지만 구련발과 단발총도 있다. 각 현의 총 수는 녕강에 140 정, 영신에 220 정, 련화에 43 정, 다릉에 50 정, 령현에 90 정, 수천에 130 정, 만안에 10 정, 도합 683 정이 있다. 대부분은 홍군이 준 것이고 소부분은 그들 자신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각 현의 적위대는 대부분이 경상적으로 토호 열신의 보안대, 애호단과 싸우고 있으며 따라서 전투력이 날로 증강되고 있다. 마일 사변[16] 이전에는 각 현에 농민 자위군이 있었다. 총은 유현에 300 정, 다릉에 300 정, 령현에 60 정, 수천에 50 정, 영신에 80 정, 련화에 60 정, 녕강(원 문제 부대)에 60 정, 정강산(왕 좌 부대)에 60 정, 도합 970 정이 있었다. 마일 사변 후 원 문제 부대와 왕 좌 부대에 손실이 없는 외에 수천에서 총 6 정과 련화에서 1 정을 겨우 보존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토호 열신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농민 자위군이 이렇게도 무기를 확보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기회주의 로선 때문이었다. 지금 각 현의 적위대들은 여전히 무기가 매우 부족하며 토호 열신들보다 총이 적으므로 홍군은 적위대에 계속 무기 원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홍군 자체의 전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인민들을 무장하도록 힘껏 원조하여 주어

야 한다. 우리는 홍군 각 영을 4련제로 하고 각 련의 보총을 75 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특무련, 기관총련, 박격포련, 탄부 및 3 개 영부까지 하면 매개 단에 보총 1,075 정이 있게 된다. 전투에서 로획한 총은 되도록 지방을 무장하는 데 돌린다. 적위대의 지휘관은 각 현에서 홍군이 설치한 교도대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홍군에서 타지방 사람을 적위대에 대장으로 파견하는 일은 점차로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주 배덕도 자기의 보안대와 애호단을 무장시키고 있으며 접경 지대 각 현의 토호 열신들의 무장력도 그 수효와 전투력이 상당하다. 그러니 우리 홍색 지방 무장력의 확대는 더구나 한시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홍군은 집중을 원칙으로 하고 적위대는 분산을 원칙으로 한다. 반동 정권의 일시적 안정기에 처하여 적이 대량의 군사력을 집중하여 홍군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때 홍군이 분산하는 것은 불리하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병력을 분산하였을 때에는 실패하지 않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고 병력을 집중하여 우리보다 적거나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다소 많은 적을 공격하였을 때에는 보통 승리하였다. 중앙에서 우리에게 발전시키라고 지시한 유격 지역은 종횡 수천 리에 달하여 지나치게 넓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력량을 과대평가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적위대는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각 현의 적위대는 모두 분산 작전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적군에 대한 선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로를 석방하는 것과 부상병을 치료하여 주는 것이다. 적군의 병사와 영장, 련장, 패장을 포로하면 그들에게 선전 공작을 진행하고 남아 있기를 원하는 자와 돌아 가기를 원하는 자로 갈라서 돌아 가기를 원하는 자는 로비를 주어 석방한다. 이렇게 하면 소위 《공산 비적들은 사람만 보면 죽인다》는 적들의 기만 선전이 즉시 파탄된다. 양 지생의 《9사 순간》은 우리의 이런 방법에 대하여 《과연 지독하다》고 경탄하고 있다. 포로들에 대한 홍군 병사들의 위안과 환송이 아주 열렬하며 포로들도 《새로운 형제들을 환송하는 대회》에서 연설하게 되면 우리에게 열렬한 감격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적측 부상병을 치료하여 주는 것도 효과가 매우 크다. 적들도 리 문빈 같은 역은 자들은 근래에 와서 우리의 방법을 모방하여 포로를 살해하지 않으며 포로한 부상병을 치료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번 전투 때이면 그래도 총을 가지고 돌아 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이 벌써 두 번 있었다. 이 밖에 우리는 표어를 쓰는 등 문'자에 의한 선전도 힘껏 진행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벽에 구호를 가득 써 놓는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기술 인재가 없으니 중앙과 두 성 위원회에서 몇 명 보내 주기 바란다.

군사 근거지: 첫째 근거지는 녕강, 령현, 수천, 영신 네 현의 경계에 있는 정강산이다. 북쪽 기슭은 녕강의 모퉁이고 남쪽 기슭은 수천의 황요인데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90 리이다. 동쪽 기슭은 영신의 나산이고 서쪽 기슭은 령

현의 수구이며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80 리이다. 그 들레는 나산으로부터 통원구(이상은 영신), 신성, 모평, 대룡(이상은 녕강), 십도, 수구, 하촌(이상은 령현), 영반우, 대가포, 대분, 퇴자전, 황요, 오두강, 차요(이상은 수천)를 지나 나산에 이르기까지 도합 550 리나 된다. 산중의 대정, 소정, 상정, 중정, 하정, 자평, 하장, 행주, 초평, 백니호, 라부 등 각지는 논과 마을이 있어서 재래로 토비와 패잔병이 모여 드는 곳이였으나 지금은 우리의 근거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가 2,000도 못 되고 량곡 생산량이 100만 근도 못 되어 균량은 전'적으로 녕강, 영신, 수천 등 세 현으로부터의 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중의 모든 요해에는 방어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병원, 피복창, 병기처, 각 탄의 류수처가 모두 이 곳에 있다. 지금 녕강으로부터 량식을 산중으로 날라 오고 있다. 우리에게 급양만 넉넉하면 적이 쳐 들어 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근거지는 녕강, 영신, 련화, 다룽 네 현의 경계에 있는 구룡산이다. 이 곳은 그 중요성으로 보면 정강산만 못 하지만 네 현의 지방 무장력의 최후 근거지로 되어 있으며 역시 방어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 있는 홍색 할거는 산험을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 지 문 제

접경 지대의 토지 형편, 대체로 말하면 토지의 60% 이상이 지주의 수중에 있고 40% 이하가 농민의 수중에 있다. 강

서성 방면에 있어서 토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은 수천인 데 약 80%가 지주의 것이다. 영신이 그 다음인데 약 70%가 지주의 것이다. 만안, 녕강, 련화에는 자작농이 비교적 많지만 그래도 지주의 토지가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여 약 60%나 되고 농민은 40%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성 방면에 있어서 다릉, 령현 두 현은 토지의 약 70%가 지주의 수중에 있다.

중간 계급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은 토지 형편에서 일체 토지를 몰수하여 다시 분배하는 것(17)은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대체로 세 계급, 즉 대 중 지주 계급, 소지주와 부농의 중간 계급, 중농과 빈농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부농은 왕왕 소지주와 리해 관계가 없혀 있다. 토지의 총면적 중에서 부농의 토지는 소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지주의 토지와 합치면 그 면적이 펍 많다. 이러한 정형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아마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접경 지대에서는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철저히 분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색 지역에서는 토호 멸신 계급이나 중간 계급이나 다 타격을 받고 있다. 정책은 이렇지만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중간 계급 측으로부터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된다. 혁명 초기에 있어서 중간 계급은 표면 상으로 빈농 계급에게 투항하지만 실제 상으로는 그들의 종전의 사회적 지위와 종족주의를 리용하여 빈농을 위협하며 토지 부여의 시일을 지연시킨다. 더 지연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실적을 속이거나 자기가 기름진 땅을 차지

하고 메마른 땅을 남에게 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빈농은 장기간 유린 당하여 왔고 또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흔히 중간 계급의 의견을 접수하고 감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 한다. 혁명이 양양되어야, 폐를 들면 한 현 전체나 몇 개 현에서 정권을 탈취하고 반동 군대가 수차 패전하고 홍군의 위력이 여러 차례 과시된 후에야 비로소 농촌에서 중간 계급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게 된다. 폐컨대 영신현 남부는 중간 계급이 가장 많고 토지 분여의 시일을 지연시키거나 토지 실적을 속이는 일이 가장 심하였다. 그러다가 6월 23일 룡원구에서 홍군이 대승리를 한 후 그리고 구 정부가 토지 분여를 지연시키는 자 몇 명을 처단한 후에야 토지 분여가 제 대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어느 현을 막론하고 봉건적인 문중 조직이 매우 보편적이어서 한 마을이 다 일가이거나 몇 개 마을이 다 일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장구한 시일이 지나지 않고서는 마을의 계급 분화가 완성되지 않으며 종족주의도 타파되지 않는다.

백색 공포 하에서의 중간 계급의 배반, 혁명의 양양기에 타격을 받은 중간 계급은 백색 공포가 래습하면 곧 배반한다. 반동 군대를 인도하여 영신, 녕강의 혁명적 농민들의 가옥을 대대적으로 소각한 자들은 바로 이 두 현의 소지주와 부농들이었다. 그들은 반동파가 시키는 대로 미친듯이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불들었다. 홍군이 재차 녕강, 신성, 고성, 룡시 일대에 들어 갔을 때 수천 명의 농민들은 공산당이 농민을 죽인다는 반동파의 선전을 믿고 그들을 따라 영신으로

도망하였다. 우리가 《배반한 농민을 죽이지 않는다》, 《배반한 농민들이 돌아 와 가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선전을 한 후에야 일부 농민들이 슬금슬금 돌아 왔다.

전국적으로 혁명의 퇴조기에 처하였을 때 할거 지구의 가장 곤란한 문제는 중간 계급을 장악할 수 없는 그것이다. 중간 계급이 배반하게 되는 그 주요 원인은 혁명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 있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전국적으로 앙양되고 있으면 빈농 계급은 그로 하여 더욱 용기를 내게 되고 중간 계급도 두려워서 감히 준동하지 못 하게 된다. 리 종인과 당 생지 간의 전쟁이 호남성으로 발전될 때 다릉의 소지주는 농민에게 화의를 청하여 설에 농민에게 돼지고기를 보낸 자들이 있었다(이 때 홍군은 벌써 다릉에서 철퇴하여 수천에 갔다). 리 종인과 당 생지 간의 전쟁이 끝나자 이런 일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반혁명이 창궐한 지금에 있어서 타격을 받은 중간 계급은 백색 지역 내에서 거의 전부가 토호 열신 계급에게 붙어 버렸고 빈농 계급은 고립되어 있다. 이것은 실로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18].

생활난으로 인한 중간 계급의 배반: 홍색 지구와 백색 지구는 대립되어 서로 적국을 이루고 있다. 적들의 엄밀한 봉쇄와 소부르조아지에 대한 우리의 실책,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하여 두 지구 간에는 무역이 거의 완전히 단절되어 소금, 피륙, 약재 등 일용 필수품이 부족하고 비싸며 목재, 차, 기름 등 농산물이 반출될 수 없어 농민의 현금 수입이 두절되었다. 그리 하여 그 영향이 일반 인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빈농 계급은 그래도 비교적 이러한 고생을 참을 수 있으나 중류 계급은 더 참을 수 없게 되면 토호 멸신 계급에게 투항하고 만다. 중국의 토호 멸신, 군벌 내부에 분열과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국의 혁명 정세가 계속 발전되지 않는다면 작은 지역의 홍색 할거는 경제적으로 심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할거의 장기적 존재도 문제로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중류 계급이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이겨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로동자, 빈농 및 홍군도 이물 이겨 내지 못할 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신현과 녕강현에는 소금이 떨어지고 피륙과 약재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 밖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소금을 파는 것이 있으나 값이 대단히 비싸다. 피륙과 약재는 여전히 없다. 녕강과 영신 서부와 수천 북부(이상은 모두 현재의 할거지이다)에서 가장 많이 나는 목재와 차, 기름은 여전히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19].

토지 분여의 기준, 향을 토지 분여의 단위로 하고 있다. 영신의 소강구와 같이 산이 많고 농토가 적은 곳에서는 3~4개 향을 한 단위로 하여 분여하는 데도 있으나 이런 곳은 펍 드물다. 농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평균 분여하였다. 지금은 중앙의 규정에 의하여 로력에 기준하기로 개정하고 로동할 수 있는 자에게는 로동할 수 없는 자에 비하여 배를 더 분여하고 있다[20].

자작농에게 양보하는 문제, 이 문제는 아직 상세히 토의하지 않았다. 자작농 중에서 부농은 생산력에 기준할 것을, 즉 품과 자본(농기구 등)이 많은 자에게 토지를 더 분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농들은 평균 분여 방법이나 로력에 의한 분여 방법이나 모두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의사는 자기들이 로력 면에서 더욱 노력하고 그 우에 또 자본의 힘을 가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만일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여한다면 그들의 각별한 노력과 여분의 자본을 무시하는(목여 두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 한다. 이 곳에서는 여전히 중앙의 규정 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론을 얻은 후에 다시 보고하려 한다.

토지세, 녕강에서는 20%를 징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규정한 것보다 5% 더 많으나 지금 징수 중에 있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명년에 다시 감소하기로 한다. 이 밖에 수천, 령현, 영신 등 현내에서 할거 지역에 속하는 지방들은 모두 산지대여서 농민들이 너무 빈궁하여 토지세를 징수하기 어렵다. 정부와 적위대의 경비는 백색 지역의 토호들을 쳐서 해결하고 있다. 홍군의 급양은, 쌀은 당분간 녕강의 토지세로 해결할 수 있고 현금은 전부 토호들을 쳐서 해결하고 있다. 10월에 수천에서 유격전을 할 때 만여 원을 마련한 것으로 당분간은 쓸 수 있으니 다 쓴 후에 다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정 권 문 제

현, 구, 향 각급 민중 정권은 보편적으로 조직되어 있으

나 명실이 부합되지 않는다. 허다한 지방에는 로농병 대표회란 것이 없다. 향급, 구급 내지 현급 정부의 집행 위원회는 모두 군중 집회에서 선거된 것이다. 확장거리는 군중 집회에서는 문제를 토론할 수도 없고 군중에게 정치적 훈련을 줄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은 지식인이나 투기 분자들에게 조종되기 쉽다. 일부 지방에는 대표회가 있으나 역시 집행 위원회를 선거하기 위한 임시적인 선거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을 따름이고 선거가 끝 나면 모든 권력은 위원회에 장악되고 대표회에 대하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명실이 부합되는 로농병 대표회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적다. 이렇게 된 것은 대표회라는 이 새로운 정치 제도에 대한 선전과 교양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봉건 시대 독재 전단의 악습이 대중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머리 속에까지 깊이 박혀 일시 청산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일에서 그저 편리만 탐하고 시끄러운 민주주의 제도를 좋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반드시 혁명 투쟁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어 그것이 대중의 힘을 가장 잘 발휘시키며 투쟁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었을 때야 대중 조직들에 보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상세한 각급 대표회 조직법(중앙의 대강에 의거하여)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전의 파오를 점차 시정하고 있다. 지금 홍군 내의 각급 병사 대표 회의도 경상화하면서 병사 위원회만 있고 병사 대표 회의가 없던 종전의 파오를 시정하고 있다.

민중은 아직 대표회의 권력을 알지 못 하고 위원회만을

진정한 권력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로농병 정부》라는 것은 위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대표 대회에 의거하지 않는 집행 위원회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왕왕 대중의 의사를 어기며 토지의 몰수 및 분여에 대하여 유예, 타협하며 경비를 람용하고 탐오하며 백색 세력을 두려워 피하거나 그것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지 못 하는 등 현상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위원회도 전원 회의의를 여는 일이 매우 드물고 모든 일을 상무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만다. 구급, 향급 정부에서는 상무 위원회를 여는 일도 드물고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 늘 나가 있는 주식, 비서, 재무 위원과 적위대 대장(폭동대 대장) 등 네 사람이 각기 처리, 결정하고 만다. 그러므로 정부 사업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초기에 있어서 소지주와 부농들은 정부 위원회, 특히 향급 정부 위원회에 들어 가려고 서로 다투어 나선다. 그들은 붉은 천조각을 달고 아주 열정적인 척 하면서 기만적 술책으로 정부 위원회에 기여 들어 가서 일체를 좌우지하며 빈농 출신의 위원을 보조역 밖에 되지 못 하게 한다. 오직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가면을 폭로하고 빈농 계급이 꺾기란 후에야 그들을 몰아 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방들에서 볼 수 있다.

당은 대중 속에서 극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권위는 그보다 훨씬 못 하다. 이것은 많은 일에 있어서 간편을 도모해서 당이 직접 처리하고 정권 기관을 한 쪽으로 제

쳐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매우 많다. 정권 기관 내에 당조가 없는 지방도 있고 있는 지방이라 하여도 원만히 사업하지 못 하고 있다. 금후 당은 정부에 대한 령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의 주장이나 대책은 그것을 선전할 때에는 별문제이지만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당처럼 직접 정부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릇된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당 조직 문제

기회주의와 투쟁한 경과, 마일 사변 전후에 접경 지대 각 현의 당 조직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종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혁명이 태습하여도 그에 대한 완강한 투쟁이 매우 적었다. 작년 10월에 홍군(로농 혁명군 제 1군 제 1사 제 1탄)이 접경 지대 각 현에 이르렀을 때에는 당 조직은 모조리 적에게 파괴되고 피신하여 숨어 있던 당원 몇 명이 남았을 뿐이었다.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가 당의 재건 시기였고 5월 이후가 대발전 시기였다. 지난 1년 동안 당내에는 기회주의적 현상이 여전히 도처에서 나타났다. 일부 당원들은 투쟁할 결심이 없어 적이 오면 깊은 산 속에 피신하면서 이를 《매복》이라고 하였다. 일부 당원들은 열성은 높지만 맹목적인 폭동에 흘렀다. 이것은 다 소부르쵸아 사상의 표현이다. 이런 정형은 오랜 투쟁의 시련과 당내 교양을 통하여 점차 감소되었다. 동시에 홍군 가운데도 역시 이런 소부르쵸아 사상

이 존재하고 있다. 적이 오면 한 번 결전할 것을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 치려 한다. 작전 토론을 할 때 흔히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두 가지 사상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장기간의 당내 투쟁과 객관적 사실에 의한 교훈을 통하여서야, 꾀를 들면 한 번 결전하다가 손실을 보거나 도망 치다가 실패를 당하거나 하여야 비로소 점차 개변된다.

지방주의, 접경 지대의 경제는 농업 경제이며 어떤 지방은 아직까지 절구와 콩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산지대에서는 거의 모두가 절구로 쌀을 찧어 먹으며 평지대에는 디딜'방아가 많다). 사회 조직은 보편적으로 같은 성을 단위로 한 문중 조직이다. 촌락에서 당 조직은 거주 관계로 인하여 같은 성을 가진 당원이 한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많으며 지부 회의를 열면 그것은 그야 말로 지부 회의자 문중 회의이다. 이런 형편에서 《전투적인 불쉐위크당》의 건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산당은 나라와 성의 계선이 없다는 말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 하며 현과 구와 향의 계선이 없다는 말도 잘 이해하지 못 한다. 각 현 사이에는 지방주의가 심하며 같은 현내의 각 구 내지 각 향 사이에도 지방주의가 농후하다. 이런 지방주의를 개변시키는 데는 사리를 따져 이야기해 주어도 별로 큰 효과가 없고 태반의 경우에는 백색 세력의 비지방주의적인 억압이 효과를 내게 된다. 꾀를 들면 두 개 성의 반혁명 세력의 《협동 토벌》로 하여 인민들이 투쟁 과정에서 공동한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야 그들의 지방주의를 점차 타파할 수 있었다. 이런 교훈을 여러 번

받고 나서 지방주의는 확실히 적어졌다.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 문제: 접경 지대 각 현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간극이다. 원주민과 수백 년 전에 북방으로부터 이주하여 온 이주민 사이에는 간극이 크고 역사적으로 원한이 아주 깊으며 때로는 격렬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주민은 복진성과 광동성의 변경으로부터 호남, 강서 두 성의 접경 지대를 따라 호북성 남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 대략 수백만 명이 있다. 산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평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놀리며 재래로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 하고 있었다. 재작년과 작년의 국민 혁명에 대하여 이주민들은 활개를 치고 다닐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환영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혁명이 실패하여 이주민들은 종전과 같이 원주민들에게서 억압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도 Ningjiang, 수천, 령현, 다릉에 모두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도 Ningjiang이 문제가 가장 엄중하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Ningjiang의 원주민 혁명파와 이주민은 결합하여 공산당의 령도 밑에 토착 토호 령신의 정권을 전복하고 현 전체를 장악하였다. 작년 6월에 강서성의 주 배덕의 정부가 혁명을 반대하여 나서자 9월에 토호 령신들은 주 배덕의 군대를 안내하여 Ningjiang을 《토벌》하면서 또다시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투쟁을 도발하였다. 리치 상으로 말하면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이런 간극은 착취 당하는 로농 계급 내부에까지, 더우기 공산당 내부에까지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려나 사실은 다년간 전하여 내려 온 습관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그냥 남아 있다. 폐를 들면 접경 지대에서 8월의 실패가 있는 후 토착 토호 열신들은 반동 군대를 안내하여 념강으로 돌아 와 이주민이 원주민을 죽이려 한다고 선전하였기 때문에 원주 농민의 대부분이 배반하여 흰 천쪼각을 달고서 백군을 안내하여 집을 불 사르고 산을 수색하였다. 10월과 11월에 홍군이 백군을 격파하였을 때에 원주 농민들이 반동파를 따라 도주하자 이주 농민들은 또 원주 농민의 재물을 몰수하였다. 이런 정형이 당내에 반영되어 때때로 무의미한 투쟁이 일어난다. 우리의 대책은 《배반한 농민을 죽이지 않는다》, 《배반한 농민도 돌아 오면 꼭 같이 토지를 탄다》는 것을 선전하여 그들을 토호 열신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 오게 하는 한편 이주 농민들이 몰수한 재물을 임자에게 돌려 주도록 현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원주 농민들을 보호하는 포고를 내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 두 부류의 당원들이 일치 단결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투기 분자의 변질: 혁명의 양양기(6월)에 당원을 공개적으로 흡수하는 기회를 타서 수 많은 투기 분자들이 당내에 혼입하여 접경 지대의 당원 수는 한때 만 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지부와 구 위원회의 책임 일'군들은 대개 신입 당원이어서 당내 교양을 잘 하지 못 하였다. 백색 공포가 태습하자 투기 분자들이 변질하고 나서서 반동들을 안내하여 동지들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백색 지구의 당 조직은 태반이 파괴되었

다. 9월 이후 청당을 엄격히 실시하고 당원의 성분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였다. 영신, 녕강 두 현의 당 조직은 전부 해산시키고 재등록을 실시하였다. 이리 하여 당원 수는 많이 줄었으나 전투력은 오히려 강해졌다. 과거에는 당 조직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는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 반동파가 래습하여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다방으로 백색 지구에 들어 가 적 진영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부근 각 도시에는 아직 당의 기초가 없다. 그것은 첫째로, 도시에 있어서 적의 세력이 비교적 크고, 둘째로, 아군이 이런 도시들을 점령하였을 때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였으므로 당원들이 그 곳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파오를 시정하고 도시에 우리의 조직을 세우기에 힘 쓰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그다지 없다.

당의 지도 기관: 지부 간사회를 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지부 우에 구 위원회가 있고 구 위원회 우에 현 위원회가 있다. 특수한 정황으로 인하여 구 위원회와 현 위원회 사이에 특별구 위원회를 조직한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영신의 북향 특별구 및 동남 특별구가 그러하다. 번구에는 녕강, 영신, 련화, 수천, 령현 등 다섯 개 현 위원회가 있다. 다릉에도 원래 현 위원회가 있었으나 사업을 전개할 수 없고 작년 겨울 파 금년 봄에 세운 허다한 조직이 백색 세력에 의하여 대부분 파괴되어 반년 이래 녕강, 영신 일대의 산지대에서 밖에 사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현 위원회를 특별구 위원회로 고쳤다. 다릉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유현과 안인

에는 사람을 보내 봤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 왔다. 만안현 위원회는 1월에 우리와 함께 수천에서 련석 회의를 가진 일이 있었으나 반년 이상 백색 세력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다가 9월에 홍군이 유격전으로 만안까지 쳐 들어 갔을 때 비로소 또 한 번 련락을 가지게 되었다. 80 명의 혁명적인 농민이 정강산까지 따라 와 만안 적위대를 조직하였다. 안북에는 당 조직이 없다. 길안은 영신과 잇대어 있으나 길안현 위원회에서는 겨우 우리와 두 차례 련락을 가졌을 뿐이고 하등의 원조도 주지 않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계동의 사전 일대에서는 3월과 8월에 두 번 토지분여를 실시하였고 통계의 십이동을 중심으로 한, 호남성 남부 특별 위원회의 관할 하에 속하는 당 조직을 내어 왔다. 각 현 현 위원회 우에 호남-강서 접경 지대 특별 위원회가 있다. 5월 20일 녕강의 모평에서 열린 접경 지대 당 제 1 차 대표 대회에서 제 1 기 특별 위원회 위원 23 명을 선거하였으며 모택동을 서기로 하였다. 7월에 호남성 위원회로부터 양 개명이 파견되어 와서 서기를 대리하였다. 9월에 양 개명이 앓게 되어 담 진림이 서기를 대리하였다. 홍군 대부대가 호남성 남부로 가고 백색 세력이 접경 지대에 강한 압력을 가하던 8월에 우리는 영신에서 긴급 회의를 한 번 열었다. 홍군이 녕강으로 돌아 온 10월에는 모평에서 접경 지대 당 제 2 차 대표 대회를 열었다. 10월 14일부터 3 일 간 회의를 열었는데 《정치 문제와 접경 지대 당 조직의 과업》 등 결정을 채택하고 담 진림, 주덕, 진 의, 룡 초창, 주 창해, 류 천천, 원 반주, 담 사총,

담 병, 리 극비, 송 역악, 원 문재, 왕 좌농, 진 정인, 모택동, 완 회선, 왕 좌, 양 개명, 하 정영 등 19 명을 제 2 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5 명이 상무 위원으로 되고 담 진림(로동자)이 서기로 되었으며 진 정인(지식인)이 부서기로 되었다. 11월 14일 흥군 제 4 군 제 6 차 당 대표 대회에서 23 명을 선거하여 군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5 명이 상무 위원으로 되고 주 덕이 서기로 되었다. 특별 위원회와 군 위원회는 전적 위원회에서 통할한다. 전적 위원회는 11월 6일에 재조직되었다. 중앙의 지명에 의하여 모택동, 주 덕, 지방 당부 서기(담 진림), 1 명의 로동자 동지(송 교생)와 1 명의 농민 동지(모 파문) 등 5 명으로 구성하고 모택동을 서기로 하였다. 전적 위원회에는 당분간 비서처, 선전과, 조직과 및 로동 운동 위원회, 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적 위원회는 지방 당 조직도 지도한다. 전적 위원회가 때로는 부대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사상으로 지도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접경 지대 각 현의 당 조직들은 거의 전부가 농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프로레타리아 사상으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각 현 현 소재지와 소도시의 로동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는 외에 또 정권 기관 내에 로동자 대표를 증가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 지도 기관들에도 로동자 성분과 빈농 성분을 증가하여야 한다.

혁명의 성격 문제

우리는 중국 문제에 관한 국제 공산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확실히 오늘날 중국은 아직 부르조아 민권 혁명의 단계에 처하여 있다. 중국의 철저한 민권주의 혁명의 강령에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철저한 민족 해방을 쟁취하며, 대내적으로 도시에서의 매관 계급의 세력을 숙청하며 토지 혁명을 완수하고 농촌의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군벌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민권주의 혁명을 거침으로써만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진정한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각지로 전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전국 혁명 조류의 퇴조를 심심히 느꼈다. 한 편으로는 소수의 작은 지역에 홍색 정권이 존재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국 인민이 아직 보통 민권조차 가지고 있지 못 하며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부르조아 민권파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언론, 집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최대의 범죄로 되고 있다. 어느 곳이나 홍군이 들어 가면 군중은 쌀쌀히 대하다가 선전이 있은 후에야 점차 일어 선다. 적군과 전투할 때이면 그것이 어떠한 부대이든지 간에 그와 강다짐으로 싸워야 하며 적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 나거나 폭동이 일어 나는 일이 없다. 마일 사변 후 《폭도》를 가장 많이 모집한 제 6 군마저 이렇하다. 우리는 몹시 적막감을 느끼면서 이런 적막한 생활이 끝나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들끓는 전국적인 혁명의 앙양으로 전입하기 위하여는 도시의 소부르조아지를 망라하여 민권주의를 위한 정치 경제적 투쟁을 일으키는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부르조아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금년 2월까지만 하여도 그것을 비교적 훌륭히 집행하였던 것이다. 3월에 호남성 남부 특별 위원회 대표가 Ningang에 와서 소각, 총살이 너무 적으며 소위 《소자산자를 무산자로 전화시킨 후에 그들에게 혁명을 강요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너무 우적으로 흘렀다고 비판하였다. 이리 하여 전적 위원회의 지도 일'군이 바뀌고 정책이 일변하였다. 4월에 전군이 접경 지대에 온 후 소각이나 총살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도시의 중류 상인에 대한 물수와 농촌의 소지주 및 부농에 대한 부과금 징수는 몹시 심하였다. 호남성 남부 특별 위원회에서 제기한 《모든 공장을 노동자에게로》라는 구호도 광범히 선전되었다. 소부르조아지를 타격하는 이런 너무 좌적인 정책은 소부르조아지의 대부분을 토호 멸신 편으로 내몰았으며 이리 하여 그들은 흰 천 조각을 달고 우리를 반대하게 되었다. 요즘 이런 정책을 점차 개변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 수천에서는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두어 흰 소재지와 소도시의 상인들이 우리를 무서워서 도망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며 홍군을 좋다고 하는 자가 꽤 많아졌다. 초립장에 장이 설 때면(사흘에 한 번씩 낮장이 선다) 2만 명이나 모이는데 이런 일은 종래로 있어 본 적이 없다. 이 사실은 우리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인민에 대한 토호 멸신들의 파

세가 몹시 중하였는바 수천 정위단〔21〕은 황요에서 초립까지의 70 리'길에서 세금을 다섯 번이나 징수하였으며 어떤 농산물이든지 이런 세금을 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위단을 쳐 부시고 이런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농민과 중소 상인 전체의 지지를 받았다.

중양에서는 소부르조아지의 이익을 포함하는 정강을 공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노동자의 이익과 토지 혁명과 민족 해방을 망라한 전반 민권 혁명의 정강을 작성하여 각지에 준칙을 제공하여 줄 것을 중양에 제의한다.

농업 경제가 주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 있어서는 무력에 의하여 폭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의 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군사 운동에 큰 힘을 들일 것을 중양에 건의한다.

할거 지구 문제

광동성 북부로부터 호남, 강서 두 성의 접경 지대를 따라 호북성 남부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라소 산맥 지역에 속한다. 우리는 온 라소 산맥을 다 돌아 다녀 보았다. 이 산맥의 각 부분을 비교하면 녕강을 중심으로 한 라소 산맥 중부가 우리의 군사적 할거에 가장 유리하다. 북부는 지세가 공격에도 방어에도 유리한 중부만 못 하며 거기에는 또 큰 정치 도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장사나 무한을 속히 탈취할 계획이 없는 한, 대부분의 병력을 류양, 페릉, 평향, 동고 일대에 두는

것은 매우 위협하다. 남부는 지세는 북부보다 좋으나 군중 토대가 중부만 못 하며 정치 면에서도 호남, 강서 두 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일거 일동이 두 성의 하류 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부만 못 하다. 중부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1년 이상 닦은 군중 토대가 있다. (2) 당 조직이 상당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3) 1년 이상의 시일을 거쳐 투쟁 경험이 풍부한 지방 무장력을 창건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이 지방 무장력에다 홍군 제 4 군의 력량을 가하면 어떠한 적도 이를 소멸할 수 없다. (4) 훌륭한 군사 근거지——정강산이 있으며 지방 무장력의 근거지는 현마다 다 있다. (5) 두 성에 영향을 주며 또 두 성의 하류 지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한 성에만 영향을 주며 또 한 성의 상류 지방과 벽지에만 영향을 주는 호남성 남부나 강서성 남부 등지에 비하여 정치적 의의가 훨씬 크다. 중부의 결점은 오래 동안 할거하여 왔기 때문에 《포위 토벌》군이 많이 오며 경제 문제, 특히 현금 문제가 매우 곤란한 것이다.

호남성 위원회는 이 지구의 행동 계획에 대하여 6~7월의 몇 주일 간에 3 차나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처음에는 원덕생이 와서 라소 산맥 중부에다 정권을 수립하는 계획에 찬동하였다. 둘째 번에는 두 수경과 양 개명이 와서 홍군은 조금도 유예하지 말고 즉시로 호남성 남부로 진출하고 총 200정만 남겨 두어 적위대와 협동하여 접경 지대를 방위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옳은》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세째 번에는 불과 열흘도 못 되어 원 덕생이 또 왔다. 이 번에 가

지고 온 편지에서는 우리를 한바탕 욕한 외에 홍군은 호남성 동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절대로 옳은》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또 《조금도 유예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런 강경한 지시를 받고 나서 복종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복종하면 실패할 것은 번연하기 때문에 참으로 난처하였다. 둘째 번 편지가 왔을 때 군 위원회, 특별 위원회, 영신현 위원회는 편석 회의를 열고 호남성 남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인정하여 성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에 두 수경과 양 개명이 성 위원회의 의견을 견지하면서 제 29 탄의 향토 관념을 리용하여 홍군을 끌고 가서 침주를 공격하였으므로 결국 접경 지대와 홍군이 동시에 실패 당하게 되었다. 홍군은 수량 상으로 약 절반을 손실 당하였으며 접경 지대는 소각 당한 가옥과 살해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각 현이련'이어 함락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다 회복하지 못 하였다. 호남성 동부로 간다는 것도 호남, 호북, 강서 세 성의 토호 렬신들의 정권이 분렬되기 전에는 결코 홍군 주력을 파견할 것이 아니다. 만일 7월에 호남성 남부로 가지 않았더라면 접경 지대의 8월의 실패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강서성 장수에서 국민당 제 6 군과 왕균이 싸우던 기회를 타서 영신의 적군을 격파하고 길안, 안복을 휩쓸 수 있을 것이며 전위 부대는 평항에 진출하여 북부에 있는 홍군 제 5 군과 연락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때라 하더라도 역시녕강을 대본영으로 하고 호남성 동부에는 유격 부대나 보내

야 하는 것이다. 토호 멸신들 사이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호남성 변경의 평항, 다릉, 유현에 여전히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주력이 북부로 가면 틀림 없이 적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중앙은 우리에게 고려해 보아서 호남성 동부 또는 남부로 가라고 하나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일이다. 호남성 동부로 간다는 의견은 비록 실시되지 않았으나 호남성 남부로 가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여 준 바 있다. 이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토호 멸신 계급의 통치가 아직 분열되지 않고 있는 시기이며 접경 지대 주변에 적의 《토벌》군이 아직도 10여 개 탄이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천금 문제에서 계속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식량, 의복은 지금 큰 문제로 되지 않고 있다) 접경 지대의 토대에 의거하여 이만한 적은,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적이라도 대처할 수 있다. 접경 지대를 놓고 볼 때 홍군이 떠나 가면 즉시로 또다시 8월과 같이 유린 당하게 될 것이다. 비록 적위대가 몽땅 소멸될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8~9월과 마찬가지로 당과 군중 토대는 극히 심대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며 산중의 할거가 다소 보존되는 외에 평지대는 모두 비밀 상태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홍군이 떠나지 않으면 지금의 토대에서 그 주위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 그 전망은 매우 크다. 홍군을 놓고 볼 때 그것을 확대하자면 군중 토대가 있는 정강산 주변, 즉녕강, 영신, 령현, 수천 등 비현에서 호남, 강서 두성의 적이 리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면 방비를 하느라고

접결될 수 없는 형편을 리용하여 적들과 장기간의 투쟁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전술을 써서 싸우지 않으면 몰라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포로와 로획품을 얻도록 한다면 홍군을 점차 확대할 수 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접경 지대 군중의 준비 정도로 보아 홍군 대부대가 만일 호남성 남부로 가지 않았더라면 8월에 홍군이 확대되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한 번 오류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지형이 유리하고 민심을 얻은 이 접경 지대에 홍군이 다시 돌아 온 이상 전망은 의연히 그리 나쁘지 않다. 홍군은 접경 지대와 같은 이런 지방에서 투쟁할 결의를 다지고 꾸준히 싸워 나갈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래야만 무기들 증가하며 훌륭한 병사를 단련하여 낼 수 있다. 접경 지대의 붉은 기'발은 벌써 1년이나 휘날리며 호남, 호북, 강서 세 성 내지 전국의 토호 열신 계급의 증오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부근 각성의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희망을 점점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병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군벌들이 접경 지대에 대한 《비적 토벌》을 중대사로 간주하고 있고 또 《비적 토벌 1년에 100만 원을 소비하였다》(로 처평)느니, 《사람 2만 명에 총 5,000정이 있다》(왕 균)느니 하는 이러무한 말들이 적군의 병사와 출로를 잃어 버린 하급 군관들의 우리에게 대한 주의를 점차 환기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측으로 넘어 오는 사람이 날로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홍군을 확충하는 또 하나의 원천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접경 지대에 휘날리는 붉은 기'발이 시종 넘어지지 않는 것은 공산당의 위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지배 계급의 파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국의 정치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소 산맥 중부에 정권을 창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또 매우 정당하다고 시종 인정하고 있다.

주 해

[1] 이 전쟁은 1927년 10월에 있었다.

[2] 이 전쟁은 1927년 11~12월에 있었다.

[3] 홍군 병사 대표 회의와 병사 위원회 세도는 후에 폐지되었다. 1947년에 와서 다시 간부가 지도하는 군인 회의와 병사 위원회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4] 즉 1927년 8월 1일에 남창에서 봉기한 업 정, 하 통 두 동지의 구부 대이다(업 정 부대에 관하여서는 이 글의 주해 14를 보라). 이 부대들은 조주, 산두로 진군하다가 실패한 후 그 일부분은 주 덕, 텡 표, 진 의 등 동지들의 인솔 하에 광동성에서 철위한 후 강서성을 지나 호남성 남부에 들어 가서 유격 전쟁을 하였다. 1928년 4월에 정강산에 이르러 모택동 동지와 회합하였다.

[5] 1927년 혁명 시기의 무장 국민 정부 경위단은 그 간부가 대개 공산당원이었다. 왕 정위 등이 혁명을 떠난 후 이 경위단은 남창에 가서 봉기군에 가담하기 위하여 7월 말에 무장을 떠났다. 행군 도중 남창 봉기군이 남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수로 가서 평강, 류양의 농민군과 회합하였다.

[6] 호남성의 평강, 류양 일대에는 1927년 봄에 상당히 강력한 농민 무장력이 형성되었다. 5월 21일에 허 극상이 장사에서 반혁명 사변(즉 《마일 사변》)을 일으켜 혁명적 대중을 학살하였다. 5월 31일에 평강, 류양 일대의 농민군은 반혁명을 반격하기 위하여 장사로 건진하였다. 그러나 기회주의자인 권 독수에게 지지 당하여 다시 뒤로 철위하였다. 일부 농민 부대는 그 즉시 독립 단을 조직하여 유격 전쟁을 진행하였다. 8월 1일의 남창 봉기 후 평강, 류양의 농민군은 수수, 동고, 평강, 류양 일대에서 권 무장 국민 정부 경위단과 회합하고 평양의 완광 토동자들의 무장력과 연합하여 추수 봉기물 단행하였다. 봉기 부대는 10월에 모택동 동지의 인솔 하에 정강산으로 갔다.

[7] 1928년 초에 주 덕 동지가 호남성 남부에서 혁명적 유격 전쟁을 진행하자 원래 농민 운동의 토대가 있었던 의강, 칠수, 괴양, 영흥, 자흥 등 다섯 개

현에 모두 농민군이 조직되었다. 후에 이 농민군 부대들은 수덕 동지의 명솔 하에 경강산으로 가서 모태동 동지와 회합하였다.

[8] 호남성 상녕현 수구산은 중요한 연평석의 산지이다. 이곳 광산 노동자들은 1922년에 벌써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 공회를 조직하고 여러 해 동안 반혁명파 투쟁하여 왔다. 1927년 추수 봉기 후 많은 노동자들이 홍군에 참가하였다.

[9] 안원 탄광은 한야평 공사의 일부인데 강서성 평향현 경내에 있다. 그 당시 탄광 노동자 1만 2,000 명이 있었다. 1921년부터 중국 공산당 호남성 위원회는 안원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당 조직과 공회 조직을 세웠다.

[10] 홍군 내의 당 대표는 1929년부터 정치 위원으로 개칭되었고 연의 정치 위원은 1931년부터 정치 지도원으로 개칭되었다.

[11] 《토호를 처사》 벌금을 받는 방법으로 군사비를 조달하는 것은 임시적이며 부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군대가 장성되고 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징수의 방법으로 군사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12] 이런 방법은 홍군 내에서 장기간 실시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후에는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도록 고쳤다.

[13] 모태동 동지는 여기에서 혁명 군대 내부의 일정한 민주주의 생활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홍군 창건 초기인 당시에 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세력 입대한 농민과 괴로워 넘어 온 백군 병사의 혁명적 적극성을 고무하기 어렵고 반동 군대로부터 전염되어 오는, 간부 내의 군벌주의적 습성을 숙청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물론 부대 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생활은 군사 규율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규율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필요한 민주주의를 창도할 때 동시에 극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규율적 현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의 홍군 내부에 한때 엄중하게 존재하였다. 모태동 동지가 군대 내의 극단적 민주화를 반대하여 진행한 투쟁에 대하여서는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때 대하여》를 보라.

[14] 1926년 복벌 때에 엽정 동지의 부대는 공산당원을 물간으로 한 독립단으로서 복벌 중에서 이름을 날린 진주 부대였다. 혁명군이 무창을 점령한 후 이 부대는 제 24 사로 확대되었고 남창 봉기 후에는 제 11 군으로 확대되었다.

[15] 실제 상 홍군 내의 당원 수는 군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면 된다. 후에 홍군과 인민 해방군 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되었다.

[16] 1927년 5월 21일에 장 개석, 왕 경위 등은 호남성의 국민당 반혁명

군관 허극상, 하건 등을 사숙하여 장사에서 호남성 공회와 생농민 협회 및 일체 혁명 단체들을 포위 공격하고 공산당원과 혁명적 모용 대승을 체포, 학살하게 하였다. 한시(漢詩)의 운을 택절한 책에는 《말 마(馬)》자와, 《말 마》자와 동일한 운을 가진 글'자를 상성(上聲)의 제 21 운에 배열하고 《말 마》자를 그 장의 운을 표시하는 제목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21운을 《마일(馬11)》이라고 약칭하였다. 따라서 5월 21일에 일어난 호남 사변도 《마일 사변》이라고 약칭하였다. 이 사변은 왕정위를 두목으로 한 무한의 국민당 반혁명파와 장개석을 두목으로 한 남경의 반혁명파가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신호였다.

[17] 이것은 1928년에 상공 변구에서 규정한 토지법의 한 조목이다. 그 후에 모택동 등지는 지적하기불, 지주의 토지만 몰수한 것이 아니라 일체 토지를 몰수한 것은 잘못이며 이런 잘못은 그 당시 토지를 위한 투쟁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1929년 4월의 홍국현의 토지법은 《일체 토지를 몰수한다》를 《공공 소유의 토지 및 지주 계급의 토지를 몰수한다》로 고쳤다.

[18] 농촌의 중간 계급을 정취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모택동 등지는 중간 계급에게 과중한 타격을 주는 그릇된 정책을 즉시 시정하였다. 중간 계급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모택동 등지의 주장은 이 토착을 제한 외에도 1928년 11월 홍군 제 4 군 제 6 차 당 대표 대회 제안(그 가운데는 《명목적인 소작과 종살을 금지할 것》, 《소소 상인의 이익을 보호할 것》 등 조항이 있다), 1929년 1월 홍군 제 4 군의 포고(그 가운데는 《간신히 한 푼 두 푼 모은 도시 상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부종만 한다면 그 밖의 것은 일몰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이 있다), 1929년 4월의 홍국현의 토지법(이 글의 수책 17을 보라) 등등에서도 볼 수 있다.

[19] 이런 사태는 혁명 전쟁의 발전, 근거지의 확장 및 혁명 정부의 상공업 보호 정책에 의하여 개편될 수 있으며 또 그 후에 개편되었다. 이 문제의 판건은 민족 상공업을 건결히 보호하며 너무 좌익인 정책을 반대하는 데 있다.

[20] 로력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여하는 방법은 적당하지 못하다. 사실 상 홍색 지역에서는 장기간 인구에 의한 평균 분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21] 정위단이란 반혁명적인 지방 무장력이었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

(1929년 12월)

홍군 제 4 군의 공산당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당의 정확한 로선의 실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만일 이것을 철저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홍군 제 4 군은 필연코 중국의 위대한 혁명 투쟁이 자기에게 부과한 과업을 감당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제 4 군 당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사상의 근원은 물론 당의 조직적 기초의 최대 부분이 농민 및 기타 소부르조아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있다. 그러나 당의 지도 기관들이 이러한 옳지 못한 사상을 반대하여 한결같이 결정적인 투쟁을 진행하지 못 하였고 또 당원들에게 정확한 로선에 대한 교양을 주지 못 하였다는 사정도 이러한 옳지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홍군 제 4 군 제 9 차 당 대표대회를 위하여 쓴 결정서이다. 중국 인민 군대는 그 건설에 있어서 간난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국 홍군(항일 시기에는 팔로군, 신사군이었으며 현재는 인민 해방군이다)은 1927년 8월 1일 남창 봉기 시기에 왕진되어 1929년 12월에 이르기까지 2년 여의 시일을 경과하였다. 이 시기에 홍군 내의 공산당 조직은 여러 가지 그릇된 사상과의 투쟁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상당히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모택동 동지가 쓴

못 한 사상이 존재하며 발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대회는 중앙의 9월 서한의 정신에 립각하여 제 4 군 당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의 표현, 근원 및 그 시정 방법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퇴치할 것을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단순한 군사 관점에 대하여

단순한 군사 관점이 홍군 내의 일부 동지들 가운데서 대단히 발전되고 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와 정치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군사는 정치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군사가 잘 되면 정치는 자연히 잘 되고 군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정치도 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가 정치를 령도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2) 홍군의 과업도 백군처럼 단순히 전투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홍군은 혁명의 정치적 과업을 수행하는

이 결정서는 이러한 경험의 총화이다. 이 결정에 의하여 홍군은 완전히 맑스-레닌주의적 보대 우에 서게 되었으며 구식 군대의 온갖 영향을 숙청하였다. 이 결정은 홍군 제 4군에서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홍군의 다른 부대들에서도 선후하여 그대로 실시하였다. 그리 하여 중국 홍군 전체가 완전히 진정한 인민 군대로 되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중국 인민 군대 내의 당 사업과 정치 사업은 거대한 발전과 창조물 가져와 이미 그 면모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 로선은 여전히 이 결정서에 제시된 로선이다.

무장 집단이라는 것을 모른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홍군은 결코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홍군은 전투로 적의 군사력을 소멸하는 외에 또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혁명 정권을 수립하도록 대중을 도와 주며 나아가서는 공산당의 조직을 전립하는 등의 중대한 파업도 담당하고 있다. 홍군이 전투하는 것은 단순히 싸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또 대중을 도와 혁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선전, 조직, 무장 및 혁명 정권의 수립 등의 목표를 떠나면 싸움이 무의미하게 되며 홍군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하게 된다.

(3)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상에서 홍군의 정치 사업 기관을 군사 사업 기관에 예측시키며 《사령부의 권한을 외부에게 지》라는 구호를 제출한다. 만일 이러한 사상이 그냥 발전된다면 국민당 군대가 권고 있는 그런 군벌주의 길을 걷게 되어 대중을 리탈하며 군대가 정권을 통제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를 리탈할 위험이 있다.

(4) 동시에 선전 사업에 있어서 선전대의 중요성을 흘시한다. 대중을 조직하는 면에 있어서 군대의 병사 위원회에 대한 조직 사업을 흘시하며 지방의 로농 대중에 대한 조직 사업을 흘시한다. 그 결과 선전 사업이나 조직 사업이 모두 취소 상태에 빠진다.

(5) 전투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소침해진다.

(6) 본위주의가 있다. 모든 것을 제 4 군을 위하여 타산

할 줄만 알고 지방의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홍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확대된 소그루파주의이다.

(7) 소수의 동지들은 제 4 군의 좁은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서 그 밖에는 다른 혁명 세력이 없는듯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보존하며 투쟁을 기피하려는 사상이 비상히 농후하다. 이것은 기회주의의 잔재이다.

(8)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을 돌보지 않으며 혁명 조급증에 걸려 세소하고 엄밀한 군중 공작은 애써 하기 싫어하고 큰 일만 하려 하며 환상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맹동주의의 잔재이다[1].

단순한 군사 관점의 근원:

(1) 정치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대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도의 역할을 모르며 홍군과 백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

(2) 고용 군대의 사상이다. 전투 때마다 적군을 많이 포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자들이 홍군에 가입할 때 농후한 고용 군대의 사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 관점이 하부 기초를 가지게 된다.

(3) 이상의 두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원인이 생긴다. 그것은 즉 군사적 힘을 지나치게 믿고 인민 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것이다.

(4) 군사 사업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류의와 토론이 없는 것도 일부 동지들의 단순한 군사 관점을 형성시킨 원인으

로 된다.

시정 방법:

(1) 교양을 통하여 당내의 정치 수준을 높여 단순한 군사 관점의 리론적 근거를 일소하고 홍군과 백군과의 근본적 차이를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또 기회주의와 맹동주의의 잔재를 퇴치하며 제 4 군 본위주의를 타파하여야 한다.

(2) 군관과 병사들에 대한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포로되어 넘어 온 사람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정권 기관으로부터 투쟁 경험에 있는 로동자, 농민을 선발하여 홍군에 가입시킴으로써 조직 상으로부터 단순한 군사 관점의 근원을 약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제거하여야 한다.

(3) 홍군 당 조직에 대한 지방 당 조직의 비판과 홍군에 대한 대중 정권 기관의 비판을 발동하여 홍군 당 조직 및 홍군 장병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4) 당이 군사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류의하며 토의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은 당에서 토의, 결정한 후에 대중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홍군의 법규를 제정하여 홍군의 임무, 군사 사업 계통과 정치 사업 계통과의 관계, 홍군과 인민 대중과의 관계, 병사 위원회의 권한 및 그것과 군사, 정치 기관과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극단적 민주화에 대하여

홍군 제 4 군은 중앙의 지시를 받은 후로 극단적 민주화의 현상이 많이 감소되었다. 례를 들면 당의 결정이 비교적 잘 집행되어 나가며 홍군 내에서 소위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 집권제》를 실시하자, 《먼저 하급에서 토론한 다음 상급에서 결정하자》는 등 그릇된 주장도 더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상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아직 극단적 민주화의 사상이 숙청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민주화의 뿌리가 아직 많은 동지들의 사상 가운데 깊이 박혀 있다. 례를 들면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지 못 해 하는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시정 방법:

(1) 이론 상으로부터 극단적 민주화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극단적 민주화의 위험성은 당의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파괴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없애 버려 당으로 하여금 그 투쟁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혁명의 실패를 초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극단적 민주화의 근원은 소부르쵸아적 자유 산만성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 산만성이 당내에 들어와 정치 상 및 조직 상의 극단적 민주화의 사상으로 된다. 이러한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 파업에 전혀 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조직 상에서 중앙 집권의 지도 하에 민주주의적 생활을 엄격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그 로선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지도 기관은 옳은 지도 로선을 가지며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대책을 강구하여 넘으로써 지도 중추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의 정형과 대중의 생활 형편을 잘 알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한 지도를 위한 객관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3. 당의 각급 기관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되는 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일단 결정이 채택되면 그것을 건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견정으로서 좀 중요한 것은 급속히 하급 기관 및 당원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활동 분자 회의를 열거나 지부 내지 종대의 당원 대회를 열고(환경의 허락 여부를 보아야 한다) 이 회의에 사람을 파견하여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5. 당의 하급 기관과 당원 대중은 상급 기관의 지시를 상세히 토론하여 그 지시의 의의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집행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비조직적 관점에 대하여

제 4 군 당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조직적 관점은 다

음과 같은 점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7.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수인의 제의가 부결되었을 때 그들은 당의 결정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시정 방법:

(1) 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이 의견을 남김 없이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논쟁이 있는 문제는 타협하거나 어물어물하여 넘기지 말고 시비를 밝혀야 한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재차 토의하여(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명백한 결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은 당 규률의 하나이다. 소수인은 자기들의 의견이 부결되면 다수인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할 때에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제기하여 토의할 수는 있으나 행동 상에서는 추호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8. 비조직적 비판:

(1) 당내 비판은 당의 조직을 공고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홍군 당 조직 내에 있어서 일부의 비판은 이렇지 못 하고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당 조직까지 망친다. 이것은 소부르쵸아 개인주의의 표현이다. 그 시정 방법은 당원들에게 비판의 목적이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여 계급 투쟁의 승리를 전취하는 데 있다는 것과 비판을 개인 공격의 수단으로 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리해시키는 것이다.

(2) 많은 당원들은 당내에서 비판하지 않고 당외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당원들이 아직 당 조직(회의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비판하든 조직 외에서 비판하든 매일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정 방법은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당 조직의 중요성을 리해시키며 당 위원회나 동지들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 있으면 당 회의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리해시키는 것이다.

절대적 평균주의에 대하여

절대적 평균주의는 홍군 내에서 한때 엄중하게 발전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부상병에게 용'돈을 내어 주는 데도 경상과 중상을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똑 같이 내어 줄 것을 요구한다. 상관이 말을 타는 것도 사업 상 필요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등한 제도로 생각한다. 물품을 분배하는 데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좀더 분배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고 극단적인 평 균을 요구한다. 쌀을 지고 다니는 데도 어른과 아이, 몸이 튼튼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 같이 질 것을 주장한다. 숙소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똑 같이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사령부가 좀 큰 집에 들어도 욕을 한다. 근무를 하는 데도 끌고루 할 것을 요구하며 조금도 더 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담가 하나에 부상병이 들인 경우에 차라리 두 사람이 다 못 탈망정 한 사람만 태우는 것은 좋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홍군 장병들 가운데 절대적 평균

주의가 아직 엄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절대적 평균주의는 그 근원을 따져 볼 때 정치 상에서의 극단적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및 소농 경리의 산물로써 하나는 정치 생활 면에 표현된 것이고 하나는 물질 생활 면에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시정 방법, 절대적 평균주의는 비단 자본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농민-소소유자의 환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 시기에 있어서도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 노동에 따라》라는 원칙과 사업의 수요에 의하여 물질을 분배하게 되므로 소위 절대적 평균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홍군 인원에 대한 물질 분배는 대체로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배를 들면 급양 상에서 군관과 병사가 평등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시의 투쟁 환경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 리유를 도외시하는 절대적 평균주의는 투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투쟁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관주의에 대하여

주관주의가 일부 당원들 가운데 농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서나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나 다 극히 해로운 것이다. 왜냐 하면 정치 정세에 대한 주관주의적 분석과 사업에 대한 주관주의적 지도가 가져

오는 필연적 결과는 기회주의가 아니면 맹동주의이기 때문이다. 당내의 주관주의적 비판, 무근거한 공론 또는 호상 시의는 흔히 당내에서 무원칙한 분규를 일으키며 당 조직을 파괴하게 된다.

당내 비판 문제에 관하여 더 언급할 것은 일부 동지들이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면에 류의하지 않고 작은 면에만 류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치적 오류와 조직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비판의 주요한 임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개인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치적 오류나 조직적 오류와 련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많이 지적하여 동지들로 하여금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만들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이 일단 발전되면 당내의 주의력이 완전히 소소한 결함 면에만 쏠리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소심한 군자로 되어 당의 정치적 과업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시정 방법: 주로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당원들의 사상과 당내의 생활을 정치화하며 과학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1) 주관주의적으로 정치 정세를 분석하거나 계급 세력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분석하며 평가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2) 당원들로 하여금 사회 경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류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쟁 전술 및 사업 방법을 결정하게 하며 실제 정형에 대한 조사를 떠나면 공상과 맹동의 깊은 구렁렁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3) 당내 비판에

있어서 주관적인 독단과 비판의 비속화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언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판하는 데는 정치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개인주의에 대하여

홍군 당 조직 내의 개인주의적 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1) 보복주의. 당내에서 병사 동지의 비판을 받고서는 당외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게 보복한다. 때리거나 욕하는 것이 바로 보복 수단의 하나이다. 당내에서도 네가 이 번 회의에서 내 말을 하였으니 나도 다음 번 회의에서 너의 흠'집을 꼬집어 내어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보복의 기회를 찾는다. 이러한 보복주의는 전'적으로 개인적 견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계급의 이익과 당 전체의 이익을 모르는 것이다. 그 보복의 목표는 적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오 내의 다른 개인에게 있다. 이것은 조직을 약화시키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부식제로 된다.

(2) 소그루빠주의. 자기 소그루빠의 이익만 살피고 전체의 이익은 살피지 않으며 표면 상으로는 개인을 위하는 것 같지 않으나 실제 상으로는 극히 협애한 개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소그루빠주의도 역시 매우 큰 부식 작용과 원심 작용을 한다. 그전부터 홍군 내에 소그루빠주의의 기풍이 매우 성하였는데 비판을 통하여 지금에 와서는 좀 극복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용 사상. 당과 홍군은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며 자기는 그 중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이 혁명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며 자기는 혁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관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되어 혁명하는 듯이 생각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상도 역시 개인주의의 표현이다. 고용되어 혁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은 무조건적으로 노력하는 적극적인 활동 분자가 그다지 많지 못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고용 사상을 청산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활동 분자가 증가될 수 없으며 혁명의 무거운 짐이 언제나 소수인의 어깨에 지워질 것이다. 이것은 투쟁에 극히 불리하다.

(4) 향락주의. 개인주의를 향락 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도 홍군 내에 적지 않다. 그들은 부대가 대도시에 들어가기만 바라고 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향락을 위하여 대도시에 가려고 한다. 그들은 생활 조건이 어려운 홍색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제일 싫어 한다.

(5) 소극 태업.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소극적이 되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주로 교양을 잘 하지 못한 데 있지만 지도 일'군들이 문제의 처리나 사업의 배치나 또는 규률의 집행을 잘 하지 못 하는 데도 있다.

(6) 부대를 떠나려는 사상. 홍군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대를 떠나서 지방으로 나가 사업하려는 사람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부가 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첫째로, 홍군의 물질적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 둘째로, 장기적 투쟁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 셋째로, 지도 일'군들이 문제의 처리나 사업의 배치나 또는 규률의 집행을 잘 하지 못 하는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시정 방법: 주로 사상적으로 개인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처리, 사업의 배치, 규률의 집행을 옳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홍군의 물질적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부대를 휴식, 정비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의 사회적 근원은 당내에 반영된 소부르쥬아 및 부르쥬아 사상이라는 이 점을 교양 과정에서 똑똑히 말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류구 사상에 대하여

홍군 내에 뿔뿔 성분인 큰 수'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전국, 특히 남방 각 성에 광범한 뿔뿔 대중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홍군 내에 류구주의적 정치 사상이 산생되었다. 이 사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간고하게 사업하여 근거지를 창설하며 인민 대중의 정권을 수립하며 또 이에 의거하여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는 하지 않고 류동적인 유격의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만 한다. 둘

째, 홍군을 확대함에 있어서 지방 적위대, 지방 홍군의 확대를 거쳐 주력 홍군의 확대에로 나아가는 로선을 걸으려고는 하지 않고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 들이며》, 《투항병이나 반란병을 끌어 모으는》 로선을 걸으려 한다. 세째, 대중과 더불어 간고한 투쟁을 하기는 싫어 하고 대도시에 들어가 실컷 먹고 마시기만 바란다. 이러한 류구 사상의 모든 표현들은 홍군의 정확한 임무의 수행에 극히 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류구 사상을 숙청하는 것은 실로 홍군의 당내 사상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력사상의 황 소[2]나 리 침[3]식의 류구주의가 오늘의 환경에서는 용허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정 방법:

(1) 교양을 강화하고 옳지 못한 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류구주의를 숙청할 것.

(2) 지금 있는 홍군의 기본 부대 및 새로 들어 온 포로병에 대하여 뭉뚱 의식을 반대하는 교양을 강화할 것.

(3) 투쟁 경험이 있는 로농 적극 분자를 홍군 대렬에 가입시켜 홍군의 구성 요소를 개편할 것.

(4) 투쟁에 떨쳐 나신 로농 대중 속에서 새로운 홍군 부대를 창건할 것.

맹동주의의 잔재에 대하여

홍군 당 조직 내에서 이미 맹동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으나 아직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군 내에 아직도 맹동주의적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도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불충분하며 견결하지 못하다. 셋째, 군사 규율이 해이하다. 특히 패전하였을 때에 그러하다. 넷째, 일부 부대에는 아직도 가옥에 불을 지르는 행위가 있다. 다섯째, 탈주병을 총살하는 것과 체형을 가하는 것은 역시 맹동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다. 맹동주의는 그 사회적 근원으로 보아 뭉펜 프로레타리아 사상과 소부르조아 사상의 혼합체이다.

시정 방법:

- (1) 사상 상으로부터 맹동주의를 숙청할 것.
- (2) 제도 상 및 정책 상에서 맹동적 행위를 시정할 것.

주 해

[1]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한동안 공산당 내에는 중국 혁명의 성기를 소위 《부단 혁명》이라고, 중국 혁명의 정세를 소위 《부단한 양양》이라고 인정하면서 전서적인 퇴각을 조직하려 하지 않고 그릇되게도 맹동주의적인 방법으로 소수의 당원과 소수 군중에 의거하여 전혁 승리할 가망이 없는 처다한 지방적 봉기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려고 시도한 《좌》경 맹동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맹동주의적 행동은 1927년 말에 류행되다가 1928년 초에 와서 점차 멎어졌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맹동주의란 바로 모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2] 황 소는 조주 원구(지금의 산둥성 하택현) 사람으로 당조 말년의 농민 봉기의 수령이다. 기원 875년, 즉 당조 회종 전후 2년에 황 소는 대중을 규합하여 왕 선지가 명도하는 봉기에 호응하였다. 왕 선지가 피살된 후 황 소는 왕

선지의 잔존 부대를 수습하여 《중권 대장군》이라 칭하였다. 황 소가 명달하는 봉기 부대는 2 차나 산동으로부터 나와 이동적 작전을 하였다. 제 1 차에는 산동으로부터 하남에 이르고 거기서 안휘, 호북까지 들어 갔다가 호북에서 산동으로 돌아 갔다. 제 2 차에는 또 산동으로부터 하남에 이르고 거기서 강서로 들어 갔다가 절강 동부를 경유하여 복건 및 광둥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광서로 들어 갔다가 호남을 경유하여 호북에 이르렀고 호북에서 또 안휘, 절강 등지로 동진한 언후에 회하를 건너 하남으로 들어 가서 탁양을 침략하고 동관을 공격하고 장안을 점령하였다. 황 소는 장안에서 제 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되었다. 후에 내부의 분별(대장 주 은이 당조에 투항하였다)과 사타추의 주장인 리 극용의 군대의 진공으로 말미암아 장안을 잃고 하남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산동에 돌아 가 거기에서 결국 실패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10 년 간이나 계속된 황 소의 전쟁은 중국 역사에 유명한 농민 전쟁의 하나이다. 구 지배 계급의 역사책에는 당시 《백성 중에서 심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던 자들은 모두다 앞을 다투어 이에 투신하였다》고 써여 있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든든한 근거지를 창설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적인 전쟁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류구》라고 불린다.

[3] 리 심, 즉 리 자성은 섬서성 미지 사람으로 명조 말년의 농민 봉기의 수령이다. 기원 1628년, 즉 명조 사종 숭정 원년에 섬서성 북부의 농민들 사이에 봉기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리 자성은 고 임상의 봉기 부대에 참가하여 섬서로부터 하남에 들어가서 안휘에 이르렀다가 섬서로 돌아 간 일이 있다. 1636년에 고 영상이 죽자 리 자성은 침왕으로 추대되었다. 리 자성이 대중 앞에 제기한 주요한 구호는 《침왕을 맞이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부대를 단속한 구호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 아버를 죽이는 것파 같으며 너자를 간유하는 것은 내 어미를 간유하는 것파 같다》는 구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그의 부대는 당시 농민 봉기의 주류로 되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비교적 든든한 근거지를 창설하지 않고 언제나 이리저리 유동하였다. 침왕으로 추대된 후 그는 부대를 명철하고 사천으로 들어 갔다가 섬서성 남부로 돌아 왔고 다시 호북을 경유하여 하남으로 들어 갔다가 즉시 호북으로 되돌아 와서 양양을 점령하고 다시 하남을 경유하여 섬서를 공격하고 서안을 점령하였으며 1644년에는 산시를 경유하여 복경으로 쳐 들어 갔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명조의 장군 오 삼계가 침조의 군대를 만나 들어 연합으로 진공하였기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

(1930년 1월 5일)

시국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 문제에서 우리 당내의 일부 동지들은 아직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의 고조가 불가피적으로 닥쳐 오리라는 것은 믿으나 혁명의 고조가 속히 닥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서성 탈취 계획은 찬성하지 않고 다만 복진성, 팡동성, 강서성 사이의 세 개 접경 지대에서 류동적인 유격전을 할 것만 찬성한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유격 지역에 홍색 정권을 수립하려는 심각한 관념도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홍색 정권의 공고화와 확대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혁명의 양양을 촉진하려는 심각한 관념도 없다. 그들은 혁명의 양양기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시기에 정권 수립과 같은 이런 간고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쓸데 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비교적 경편한 류동적인 유격의 방법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당시 당내에 존재하는 비판적 사상을 비판하기 위하여 쓴 서한이다.

으로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다가 전국 각지에서 대중을 쟁취하는 사업이 성공되거나 어느 정도까지 된 다음에 가서 전국적으로 무장 봉기를 단행하고 그 때에 홍군의 력량을 첨가함으로써 그것이 전국적 범위의 대혁명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양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일체 지방을 포함하여, 먼저 대중을 쟁취하고 후에 정권을 수립한다는 그들의 이론은 중국 혁명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이론은 주로 중국이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쟁탈하는 반식민지라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지 못 하는 데 그 근원이 있다. 만일 중국이 여러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쟁탈하는 반식민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안다면 첫째로, 전 세계에서 어찌 하여 중국에만 지배 계급 내부에서 서로 장기적으로 혼전하는 이런 괴이한 현상이 있는가, 또 이 혼전이 어찌 하여 나날이 더 치렬하여지며 나날이 더 확대되어 가는가, 어찌 하여 통일적 정권이 종내 서지 못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농민 문제의 중대성을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농촌 봉기가 어찌해서 지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째로, 로농 민주정권이라는 이 구호의 정당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네째로, 전 세계에서 중국에만 지배 계급 내부에 장기적 혼전이 존재한다는 이 괴이한 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 하나의 괴이한 현상, 즉 홍군 및 유격대의 존재와 발전 그리고 홍군 및 유격대와 함께 산생되어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홍색 지역의 존재와 발전(중국 이외에는 이

러한 괴이한 현상이 없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홍군과 유격대와 홍색 지역의 창설, 발전은 반식민지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 진행되는 농민 투쟁의 최고 형태이며 반식민지 농민 투쟁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또한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혁명의 양양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여섯째로, 단순한 류동적 유격 정책으로는 전국적으로 혁명의 양양을 촉진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없고 주 덕-모 태동적, 방 지민(1)적 정책, 즉 근거지를 가지며 계획적으로 정권을 수립하며 토지 혁명을 침투시키며 그리고 향 적위대, 구 적위 대대, 현 적위 총대, 지방 홍군을 거쳐 정규적 홍군으로 발전시키는 로선을 통하여 인민의 무장력을 확대하며 파상식 확대를 통하여 정권을 발전시키는 등등의 정책이 의심할 바 없이 정당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쓰런이 전 세계에서 신뢰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도 전국적으로 혁명적 대중의 신뢰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반동적 지배 계급에게 심대한 곤란을 조성하여 주고 그 근거를 뒤흔들어 그 내부의 와해를 촉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앞날의 대혁명의 주요한 무기로 될 홍군을 진정으로 창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혁명의 양양을 촉진할 수 있다.

혁명 조급증에 걸린 동지들은 부당하게도 혁명의 주관적 역량(2)을 과대 평가하고 반혁명 력량을 과소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태반이 주관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은 틀

림 없이 맹동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타방으로 만약 혁명의 주관적力量的을 과소 평가하고 반혁명力量的을 과대 평가한다면 이것도 부당한 평가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정세를 판단할 때에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알 필요가 있다.

(1) 지금 중국 혁명의 주관적力量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낙후하고 취약한 사회 경제적 조직에 기초하고 있는 반동적 지배 계급의 일체 조직(정권, 무장력, 정당 등)도 역시 약하다. 이로 보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지금 서구라파 나라들의 혁명의 주관적力量이 비록 지금 중국의 혁명의 주관적力量보다 좀 강할지는 모르지만 서구라파 나라들의 반동적 지배 계급의力量이 중국의 반동적 지배 계급의力量보다 몇 배나 더 강대하기 때문에 서구라파 나라들에서는 의연히 혁명이 즉시 폭발될 수 없고 현재 중국 혁명의 주관적力量이 비록 약하지만 반혁명力量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중국 혁명은 틀림 없이 서구라파보다 더 빨리 고조어로 나아갈 것이다.

(2)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의 주관적力量은 확실히 많이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작은力量은 그것을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볼 것 같으면 물론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에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로부터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는 중국의 속

답이 들어 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 점은 5.30 운동 및 그 이후의 대혁명 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안에 들어 서면 곧 그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 방법이다.

(3) 반혁명 령량을 평가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코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아야 한다. 호남-강서 접경 지대에서의 할거 초기에 일부 동지들은 당시의 호남성 위원회의 부정확한 평가를 끝이 듣고 계급적 원수들을 한 문어치도 못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도 웃음'거리로 전하여지고 있는 소위 《심한 동요》니, 《극도의 공포》니 하는 말은 그 당시(1928년 5~6월) 호남성 위원회가 호남성의 통치자로 척평[3]을 평가한 형용사이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 상의 맹동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그 해 11월부터 작년 2월(장 개석과와 광서파 간의 전쟁[4]이 일어 나기 전)까지 약 4 개월 동안 적의 제 3 차 《협동 토벌》[5]이 정강산에 내리덮치자 일부 동지들은 또 《대체 붉은 기를 얼마 동안이나 휘날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실 당시는 중국에서의 영국, 미국, 일본 간의 투쟁이 아주 로골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장 개석과, 광서파, 풍 옥상과가 혼전할 형세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실질 상으로는 반혁명 조류가 저락되기 시작하고 혁명 조류가 다시 양양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홍군과 지방 당 조직 내에 비판적 사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앙에도 이러한 표면적 정세에 미혹되어 비판적 론조가 생겼다. 중앙의 2월 서한^[6]이 바로 당시 당내의 비판적 분석을 대표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4) 현시의 객관적 정세도 역시 눈앞의 표면적 현상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동지들을 미혹시키기 쉽다. 특히 홍군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은 일단 패전을 당하거나 사면 포위를 당하거나 또는 강한 적의 추격을 당하면 흔히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일시적인, 특수한, 국부적 환경을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마치 전국의 정세, 전 세계의 정세가 모두 락관을 허락하지 않으며 혁명 승리의 전도가 아주 아득한듯이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표면에 사로잡혀 본질을 포기하는 관찰은 그들이 일반적 정세의 본질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가하지 못 하는 데서 생긴다. 중국의 혁명 고조가 뜬 닥쳐 오겠느냐 어쩌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혁명의 고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순이 정말 발전하고 있느냐 어쩌냐를 상세하게 관찰한 뒤에야 확답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상호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제국주의와 자국의 프로레타리아트 간의 모순이 발전하고 있는 이상 제국주의는 중국을 쟁탈할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중국 쟁탈이 일단 절박하게 되면 제국주의와 전체 중국 간의 모순, 제국주의자들 상호간의 모순이 동시에 중국 경

내에서 발전하며 따라서 중국의 반동적 통치배 각파 간의 나날이 확대되고 격화되는 혼전을 조성하게 되고 중국의 반동적 통치배 각파 간의 모순이 나날이 더 발전하게 된다. 반동적 통치배 각파 간의 모순——군벌의 혼전에 따라 오는 것은 부세의 증가이고 부세의 증가는 광범한 납세자와 반동적 통치배 간의 모순을 나날이 발전시키게 된다. 제국주의와 중국 민족 공업 간의 모순에 따라 오는 것은 중국의 민족 공업이 제국주의의 양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은 중국 부르주아지와 중국 노동 계급 간의 모순을 발전시키게 된다. 즉 중국의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필사적인 억압과 착취에서 자기들의 출로를 찾게 되고 중국의 노동자는 이에 저항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상품에 의한 침략, 중국 상업 자본의 침식, 정부의 부세의 증가 등에 따라 오는 것은 지주 계급과 농민 간의 모순의 가일층의 심각화이다. 즉 소작료와 고리대에 의한 착취가 더욱 가혹하여지고 농민은 더욱더 지주를 증오하게 된다. 외국 상품의 압박, 광범한 로농 대중의 구매력의 고갈, 정부의 부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산품 상인과 독립적 생산자는 파산의 일로를 걷게 된다. 반동 정부가 군량과 비용이 부족한 조건 하에서도 무제한으로 군대를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 전쟁이 나날이 더 많아져서 병사 대중은 항상 곤경에 빠져 있게 된다. 국가의 부세의 증가, 지주의 소작료 및 리자의 인상, 전쟁 재난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해와 토비 단리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광범한 농민과 도시 빈민들은 아사 선상에서 신음하게 된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 많은 재학생들은 실학할 우려가 있고 생산이 타후하기 때문에 수 많은 졸업생들은 취직할 가망이 없다. 만약 이상의 모순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한심한 국면에 처하여 있으며 얼마나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제, 반군벌, 반지주의 혁명의 양양이 불가피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 닥쳐 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은 온 나라가 마른 나무로 뒤덮여 있으니 곧 세찬 불'길'이 타 오를 것이다.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는 말은 시국의 발전을 적절히 묘사한 것이다. 허다한 지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농민들의 폭동, 병사들의 반란, 학생들의 동맹 휴학 등이 발전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한 점의 불꽃》이 《료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 날이 틀림 없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것은 작년 4월 5일에 중앙에 보낸 전적 위원회의 서한에 이미 그 대의가 서술되어 있다. 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중앙은 이 서한(1929년 2월 9일 부의)에서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역량울 너무나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정강산에 대한 국민당의 3 차의 <토벌>은 반혁명의 최고조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때까지였고 그 후부터 반혁명의 조류는 점차 퇴조되고 혁명의 조류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당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중앙에서 지적한 그 정도까지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반혁명의 조류가 점차 퇴조되는 정세 하에서 그 회복이 반드시 빠를 것이며 당 간부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곧 없어질 것이다. 대중은 반드시 우리 편으로 쏠릴 것이다. 학살주의(7)는 두 말할 것

도 없이 고기물 깊은 못으로 쫓아 버리는 것과 같으며 개량주의도 더는 대중을 끌 수 없게 되었다. 국민당에 대한 대중의 환상은 반드시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장래의 정세 하에서는 어떠한 정당도 공산당과 균형을 쟁탈하지 못할 것이다. 당 제 6 차 대회〔8〕에서 제시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은 옳은 것이다. 즉 혁명의 천계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권주의이며 당의(주——〈큰 도시에서의〉)라는 몇 자를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 과업은 즉시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발전이 매우 빠를 것이므로 무장 폭동에 대한 선전 및 준비에 있어서 적극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혼란에 빠져 있는 정세 하에서는 적극적인 구조와 적극적인 태도로써만 대중을 영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당의 전투력의 회복도 반드시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만 가능하다.……프로메타리아트의 영도는 혁명 승리의 유일한 열'쇠이다. 당의 프로메타리아적 토대를 확립하며 중심 지역에 산업 지부를 창설하는 것은 조직 사업 면에서 당의 당면한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농촌에서의 투쟁을 발전시키며 작은 지식의 홍색 정권을 창설하며 홍군을 창건, 확대하는 것은 특히 도시에서의 투쟁을 원조하며 혁명 조류의 양양을 촉진하는 주요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농민의 세력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장차 로동자의 세력을 뒤흔기며 혁명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견해가 당원들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 하면 반식민지인 중국의 혁명은 오직 농민 투쟁이 로동자의 영도를 얻지 못 하여 실패할 수는 있어도 농민 투쟁이 로동자의 세력을 뒤흔기었다 하여 혁명 자체에 불리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서한은 홍군의 행동 전술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을 하였다.

《중앙에서는 우리들에게 홍군을 보전하며 대중을 발동시킬 목

적으로 부대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고 농촌에 분산하며 주먹, 모택동이 부대를 떠나고 큰 목표를 감추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쉼 또는 영을 단위로 하여 단독적으로 행동 하면서 농촌에 분산되어 유격 전술로써 대중을 발동시키며 목표로 되는 것을 피하는 등은 우리들이 1927년 겨울부터 계획도 하여 보았고 또 여러 차례 실시도 하여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주력 홍군은 지방 적위대와 그 매력에 달라 대부분이 당지 사람들이 아니다. (2) 작은 단위로 나누면 지도부가 불건전하고 악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실패 당하기 쉽다. (3) 적에게 각개 격과 당하기 쉽다. (4) 악렬한 환경일수록 부대를 더 집중하여야 하며 지도자가 더 견결히 분투하여야 한다. 그래야 내부들 단결시켜 적을 대처할 수 있다. 오직 좋은 환경에서라야 병력을 분산하여 유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도자도 악렬한 환경에서처럼 한 시도 떠날 수 없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단락의 결함은 병력을 분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모두 소극적인 데 있다. 이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병력을 집중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집중함으로써만 좀 큰 적을 소멸할 수 있으며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 좀 큰 적을 소멸하며 도시를 점령함으로써만 대중을 큰 범위에서 발동시키고 몇 개 현이 한데 연결된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원근 각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으며(이것이 정치적 영향의 확대라는 것이다) 혁명의 양양을 촉진함에 있어서 실제적 효력을 낼 수 있다. 쉼 들면 우리들이 재작년에 수립한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정권이나 작년에 수립한 복건성 서부의 정권^[9]은 모두 이러한 병력 집중 정책의 결과이다. 이것은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면 병력을 분산

할 경우는 없는가? 그런 경우도 있다. 전적 위원회에서 중앙에 보낸 서한에는 홍군의 유격 전술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근거리 병력 분산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의 투쟁에서 얻은 전술은 실로 동서고금의 전술과는 다 다르다. 우리의 전술을 사용하면 군중 투쟁이 날로 광범하게 발동되며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우리를 어찌 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전술이란 바로 유격 전술이다. 그것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병력을 분산하여 군중을 발동시키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대항한다>, <적이 진공하면 우리는 퇴각하고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고정 구역의 할거[10]에 있어서는 파상식 추진 정책을 쓰며 강한 적이 뒤를 따를 때에는 선회식 선환 정책을 쓴다>, <최단 기간 내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군중을 발동한다>. 이러한 전술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서 수시로 쳐야 하며 수시로 건어야 한다. 그물을 치고는 군중을 쟁취하고 건고는 적에 대항한다. 지난 3년 동안에 사용한 것은 모두 이러한 전술이었다》.

여기에서 《그물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근거리 병력 분산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남-강서 접경 지대에서 제 1차로 영신을 점령하였을 때 제 29 탄과 제 31 탄은 영신헌 경내에서 분산하였다. 또 제 3차로 영신을 점령하였을 때 제 28 탄은 안북현 변경으로, 제 29 탄은 련화로, 제 31 탄은 길안현 변경으로 각각 분산하였다. 또 작년 4~5월의 강서성 남부 각 현에서의 병력 분산이나 7월의 북진성 서부 각 현에서의 병력 분산과 같은 것도 그 실례이다. 그리고 원거리 병력 분산은 두 가지 조건, 즉 비교적 좋은 환경과 비교

적 진전한 지도 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병력 분산의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대중을 쟁취하며 더 효과적으로 토지 혁명을 침투시키고 정권을 수립하며 더 효과적으로 홍군과 지방 무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거나 병력 분산으로 인하여 도리어 실패를 당하고 홍군의 력량이 약화된다면, 췌컨대 제작년 8월에 호남-강서 접경 지대에서 병력을 분산하여 침주를 치던 때 처럼 된다면 차라리 분산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만약 우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었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병력을 분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 가지 조건 밑에서는 분산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앙의 2월 서한의 정신은 좋지 못 하다. 이 서한은 제 4 군 당 조직 내의 일부 동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 당시 중앙은 또 통고를 내여 장 개석파와 팽서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상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더의 중앙의 평가와 지시는 대체 상 옳았다. 부당한 평가를 한 그 통고에 대하여서는 중앙에서 이미 통고를 내여 시정하였다. 홍군에게 준 이 서한에 대하여서는 시정은 하지 않았으나 그 후의 지시에는 그런 비판적 론조가 없어졌고 홍군의 활동에 대한 주장도 우리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이 서한이 일부 동지들에게 준 좋지 못한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의연히 해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년 내로 강서성을 탈취한다는 계획도 작년 4월에 전적 위원회에서 중앙에 제출한 것이고 그 후 또 우도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지었다. 당시에 지적한 이유는 중앙에 보낸 서한에 서술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 개석파의 부대와 광서파의 부대가 구강 일대에서 서로 다
가 들고 있어 큰 전쟁의 폭발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군중 투쟁의
회복과 반동적 통치배의 내부 모순의 확대에 의하여 혁명의 고조
가 곧 닥쳐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 사업을 배치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 즉 남방의 몇 개 성 가
운데서 광동성과 호남성은 배판, 지주의 군사력이 너무 크고 더우
기 호남성은 당의 맹동주의적 오류로 말미암아 당내외의 군중을
거의 전부 잃고 말았다. 그러나 복건성과 강서성과 절강성은 정세
가 다르다. 첫째로, 이 세 성은 적의 군사력이 가장 약하다. 절
강성에는 장 백성[11]의 성 방위군이 좀 있을 뿐이다. 복건성에는
5개 부대에 14개 탄이 있지만 딱 봉명 려는 이미 격파 당하였고
진 국휘 부대와 로 홍방 부대[12]는 전투력이 매우 약한 토비 군대
이며 해안에 있는 특전대 두 려는 한 번도 싸워 보지 못한 군대이
므로 그 전투력이 들림 없이 강하지 못 할 것이다. 다만 장 정[13]
부대가 비교적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나 복건성 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도 전투력이 비교적 강한 부대는 두 개 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복건성은 지금 통일되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강서성에는 주 배덕[14]과 옹 식휘[15] 두 부대에 도
합 16개 탄이 있는데 복건성과 절강성의 군사력에 비하면 강한 편
이지만 호남성에 비하면 훨씬 못 하다. 둘째로, 이 세 성에는 맹
동주의적 오류가 비교적 적었다. 절강성의 형편은 잘 모르겠지만
강서성과 복건성의 당 및 대중의 토대는 호남성보다 나은 편이
다. 강서성을 놓고 말하면 강서성 북부는 덕안, 수수, 동교에 아
적도 상당한 토대가 있으며, 강서성 서부는 녕강, 영신, 련화, 수
천에 당 및 적위대의 세력이 그냥 존재하고 있으며, 강서성 남

부는 희망이 더 큰바 길안, 영풍, 홍국 등 현의 홍군 제 2, 제 4 탄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며, 밤 지민의 홍군도 소멸되지 않았다. 이리 하여 남창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국민당 군벌들 간의 장기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에 장 개석파와 팽서파의 손으로부터 강서성을 탈취하며 동시에 복건성 서부와 절강성 서부에까지 손을 뻗칠 것, 이 세 성에서 홍군을 확대하고 대중 할거를 조성하면서 1 년을 기한으로 이 계획을 완수할 것을 중앙에 제의한다》.

우에서 말한 강서성 탈취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기한을 1 년으로 규정한 점이다. 강서성을 탈취하려는 계획에는 강서성 자체의 조건 외에 또 전국적으로 혁명의 고조가 뜬 닥쳐 오리라는 조건도 고려되어 있다. 그것은 혁명의 고조가 뜬 닥쳐 오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1 년 내에 강서성을 탈취한다는 결론을 도저히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의의 결함은 기한을 1 년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1 년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로 인하여 혁명의 고조가 뜬 닥쳐 오리라는 이 《뜬》 자에도 약간의 조급성을 띠게끔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강서성의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주관적 조건은 중앙에 보낸 서한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거니와 객관적 조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명백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강서성의 경제는 주로 봉건적 경제이고 상업 부르주아지의 세력이 비교적 작으며 지주의 무장력은 또 남방 각 성 중에서 제일 약하다. 둘째, 강서성에는 자체의 군대가 없고 본래부터 다른 성의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다. 다른 성

에서 온 군대는 《공산당 토벌》, 《비적 토벌》에 있어서 당시 사정을 모르고 또 본성의 군대처럼 그렇게 리해 관계가 절실하지 않으므로 흔히 성의가 그다지 없다. 세째, 항항 곁에 있어 무슨 일이든지 거의 다 영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광동 성과는 달라서 제국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점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강서성의 농촌 봉기가 다른 어느 성보다도 보편화되고 있으며 홍군 유격대가 다른 어느 성보다도 많은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혁명의 고조가 곧 닥쳐 오리라는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동지들에게 있어서 공통한 문제로 되고 있다. 맑스주의자는 점쟁이가 아니므로 미래의 발전과 변화에 대하여 대체적 방향만을 말하여야 할 것이며 또 대체적 방향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날'자와 시간을 기계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안 되며 또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국 혁명의 고조가 곧 닥쳐 오리라고 한 나의 말은 결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닥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이 행동적 의의가 전혀 없는, 바라 보거나 할 수 있을 뿐인 그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안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 보면 저기 수평선에 이미 돛대가 보이는 배이며 높은 산 령마루에 서서 멀리 동녘 하늘을 바라 보면 사방을 흰히 비추면서 막 솟아 오르려는 아침 해이며 또 그것은 어머니 배'속에서 꿈틀거리며 미구에 태어나려는 어린아이이다.

주 해

[1] 방 지민 동지는 강서성 익양 사람으로서 중국 공산당 제 6 기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강서성 동북부의 홍색 지역 및 홍군 제 10 군의 창건자이다. 1934년에 그는 홍군 합일 선진대를 명솔하여 복상하였다. 1935년 1월 국민당 반혁명 군대와와의 작전 중에 체포되어 그 해 7월에 남창에서 영용히 회생되었다.

[2] 모택동 동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의 주관적 역량》이란 조직된 혁명 역량을 가리킨다.

[3] 로치평은 국민당 군벌로서 1928년 당시에 국민당의 호남성 정부 주석으로 있었다.

[4] 장 개석파와 팡서파 간의 전쟁이란 1929년 3~4월 경에 있었던 국민당의 남경 군벌 장 개석파와 팡서군벌 리 종인, 백 승희 사이의 전쟁을 가리킨다.

[5] 1928년 말부터 1929년 초에 걸쳐 호남성과 강서성의 국민당 군벌이 홍군 근거지인 정강산에 대하여 감행한 제 3 차 진공을 가리킨다.

[6] 《중앙의 2월 서한》이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1929년 2월 9일에 전적 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본문에 인용된 중앙에 보낸 전적 위원회의 1929년 4월 5일 부 서한 가운데 대략 발취되어 있다. 그것은 주로 당시의 정세에 대한 평가와 홍군의 행동 전술에 관한 문제이다. 중앙의 이 서한에 제기된 의견이 적절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전적 위원회는 중앙에 보내는 서한에서 그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였다.

[7] 반혁명 세력이 인민의 혁명적 역량에 대하여 피비린 학살 수단을 취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8] 《당 제 6 차 대회》란 1928년 7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는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후에도 중국 혁명의 성격은 여전히 반제 반봉건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또 혁명의 새로운 양상은 불가피적이지만 이 혁명의 새로운 양상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시의 혁명의 총로선은 대중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6 차 대회는 1927년의 진 독수의 우경적 투항주의를 침산하였으며 1927년 혁명이 실패된 후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에 걸쳐서 당내에 대두한 《좌》경적 행동주의도 비판하였다.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의 제 3 부분을 참조하라.

[9] 1929년에 홍군은 정강산으로부터 복건성으로 동정하여 새로운 혁명 근거지를 개척하고 복건성 서부의 통암, 영정, 상삼 등 현에 인민 혁명 정권을 수립하였다.

[10] 《고정 구역의 활거》란 모농 홍군이 비교적 풍요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11] 장 백성은 당시 국민당의 절강성 보안 사령으로 있었다.

[12] 진 국휘와 모 홍방은 복건성의 악명 높은 비적인데 그들의 부대는 국민당 군대에 편입되었다.

[13] 장 정은 국민당 군대의 사장이었다.

[14] 주 태덕은 국민당 군벌로서 당시 국민당의 강서성 정부 주석으로 있었다.

[15] 옹 식휘는 당시 강서성에 주둔하고 있는 국민당 군대의 사장이다.

경제 사업에 주의를 돌리자*

(1933년 8월 20일)

혁명 전쟁의 급격한 발전은 대중을 동원하여 즉시로 경제 전선에서 운동을 전개하며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건설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업은 혁명 전쟁의 승리, 무엇보다도 먼저 적의 제 5 차 《포위 토벌》^[1]을 격파하는 전쟁의 철저한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홍군의 급양과 공급을 보장할 물질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민 대중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혁명 전쟁에 있어서의 인민 대중의 열성을 가일층 동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 전선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교양하여 전쟁에 새로운 대중적 령량을 보태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 건설을 통하여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을 튼튼히 하고 로농 민주주의 독재를 튼튼히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는 경제 면에서 건설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1933년 8월에 강서성 남부 17 개 현 경제 건설 사업 회의에서 한 언설이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매개 혁명 일'군들은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과거 일부 동지들은 혁명 전쟁만 하여도 바쁜데 경제 건설 사업을 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경제 건설을 운운하는 사람만 보면 곧 《우경》이라고 욕하였다. 그들은 혁명 전쟁의 환경에서는 경제 건설을 할 가능성이 없고 전쟁이 종국적으로 승리하여 환경이 평화롭고 안정하여야만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동지들,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동지들은 경제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혁명 전쟁의 물질적 조건이 보장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전쟁에서 인민들이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적들이 경제적 봉쇄를 실시하고 있고 간상배와 반동들이 우리의 금융과 상업을 파괴하고 있어 우리 홍색 지역의 대외 무역이 막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지 못 한다면 혁명 전쟁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소금은 매우 비싸며 때로는 살 수도 없다. 쌀도 가을과 겨울에는 헐하나 봄과 여름이 되면 대단히 비싸다. 이러한 사태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에 당장 영향을 주어 그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없게 한다. 이러면 우리의 기본로선인 로농 동맹에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가? 로농 대중이 자신들의 생활에 불만을 가진다면 홍군을 확대하는 사업과 대중을 혁명 전쟁으로 동원하는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혁명 전쟁의 환경에서 경제 건설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런 견해는 대단히 옳지 못한 것이

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것은 전쟁에 복종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지만 만일 경제 건설을 포기한다면 결국 전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경제 전선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홍색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혁명 전쟁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할 수 있고 우리의 군사적 진공을 순조롭게 전개하여 적의 《포위 토벌》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홍군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선을 수천 리에까지 확장할 힘을 얻게 되며 우리의 홍군으로 하여금 장차 순조로운 조건 하에서 조금도 뒤'근심 없이 남창과 구강을 치게 하며 또 우리의 홍군으로 하여금 자체로 급양을 마련하는 일을 덜고 전심 전력으로 적과 싸우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광범한 대중이 생활 상에서 일정한 만족을 얻어 더욱 열성적으로 홍군에 참가하며 각종 혁명 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만 전쟁에 복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각지에는 혁명 일'군으로서 혁명 전쟁에 있어서의 경제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으며 허다한 지방 정부들에서는 아직 경제 건설 문제를 잘 토의하지 않고 있다. 각지 정부의 국민 경제부는 조직이 아직 건전하지 못 하고 어떤 데는 부장조차 없으며 혹은 사업 능력이 약한 사람으로써 자리나 채우고 있다. 합작사는 아직 발전 초기에 처하여 있으며 량곡 조절 사업도 겨우 일부 지방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각 지방에서 아직 경제 건설이라는 이 과업을 광범한 대중에게 선전(이것은 매

우 요긴한 일이다)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 속에서 경제 건설을 위한 투쟁의 들끓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데서 온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동지들의 토의와 돌아 가서의 전달을 통하여 전체 정부 일'군들과 광범한 로농 대중 속에서 경제 건설의 들끓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그리 하여 모두가 혁명 전쟁에서 가지는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건설 공채를 적극 팔며 합작사 운동을 발전시키며 보편적으로 목장을 설치하며 흉년에 대처하기 위한 량곡 저장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현마다 량곡 조절 분국을 설립하며 중요한 구와 중요한 장터에는 량곡 조절 지국을 설립하여야 하겠다. 그리 하여 어떤 지방은 량곡이 쌓여 있으나 어떤 지방은 살 수 없으며 어떤 지방은 값이 너무 헐하고 어떤 지방은 너무 비싼 등 현상이 없도록 우리의 량곡을 홍색 지역 내의 여유 있는 지방으로부터 부족한 지방으로 유통시키는 한편 우리 지역에서 남는 량곡을 계획적으로(무제한으로가 아니라) 간상배들의 중간 착취 없이 경외로 반출하여 백색 지구로부터 필수품을 사 들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모두가 농업 생산과 수공업 생산을 발전시키기에 힘 써 농기구를 많이 제작하고 석회를 많이 생산하여 명년도의 수확고를 높이며 탕그스텐 광석, 목재, 장뇌, 종이, 잎담배, 모시, 버섯, 박하유 등 특산물의 과거의 생산량을 회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특산물을 백색 지구에 대량적으로 반출하여야 하겠다.

반출 반입 무역의 수량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반출품은 량곡이다. 매년 약 3억 근의 량곡이 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 대중이 매년 평균 100 근을 반출하여 필수품을 바꾸어 오는 셈이다. 이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장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전부 상인들이 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중간에서 혹독한 착취를 하고 있다. 작년에 만안현과 태화현의 농민들은 상인에게 벼 100 근에 50 전씩 받고 팔았는데 상인은 그것을 공주로 싣고 가서 100 근에 4 원씩 받아 리익을 7 배나 내었다. 그리고 300만 대중이 해마다 거의 900만 원어치의 소금을 먹으며 거의 600만 원어치의 피륙을 소비한다. 과거 이 1,500만 원어치의 소금과 피륙의 반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상인들이 하여 온 것이며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여기에서 상인들은 정말 심한 착취를 하고 있다. 례를 들면 매현에 가서 소금을 1 원에 일곱 근씩 사 가지고 우리 지구에 싣고 와서는 일곱 냥 반에 1 원씩 받고 판다. 이 얼마나 지독한 착취인가? 우리는 이런 사태를 이 이상 놓아 둘 수 없다. 금후에는 이것을 반드시 틀어 잡아야 하겠다. 우리의 대외 무역국은 이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00만 원의 경제 건설 공채를 발행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그 중 100만 원을 홍군의 군사 비용으로 쓰고 200만 원은 합작사, 량곡 조절국, 대외 무역국의 자금으로 대어 하려 한다. 이 200만 원 중에서 또 소부분은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 대부분은 반출 반입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쓰려 한다. 우리의 목적은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반출하고 백색 지구로부터 험한 값으로 소금과 피륙을 사 들여 인민 대중에게 공급하여 줌으로써 적의 봉쇄를 분쇄하고 상인들의 착취를 막는 데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민의 경제를 나날이 발전시키며 대중의 생활을 현저히 개선하며 우리의 재정 수입을 대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혁명 전쟁과 경제 건설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과업이며 위대한 계급 투쟁이다. 그런데 가열한 전쟁 환경에서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나는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통암까지 철도를 부설하자는 것도 아니며 당장 공주까지 자동차'길을 닦아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량푸를 전부 전매하자는 것도 아니며 1,500만 원어치의 소금, 피륙 장사를 정부에서 도맡아 하고 상인은 손을 대지 못 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려는 것은 우선 200만 원의 자금에다가 군중들의 출자금을 합쳐 가지고 농업 생산과 수공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량푸와 탕그스텐 광석을 반출하고 소금과 피륙을 반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으며 해 내지도 못 할 일이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또 성과도 거두고 있다. 금년 추기 수확은 2 할 중수의 예전을 초과하여 작년 추기 수확보다 20~25% 증가되었다. 수공업 분야에서 농기구와 석회의 생산은 회복 중에 있으며 탕그스텐 광석의 생산도 회복되기 시

작하였다. 담배, 종이, 목재의 생산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랑콕 조절은 금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소금의 반입도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바로 우리들이 장차 이런 일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이다. 전쟁이 끝 나야 경제 건설을 할 수 있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견해는 분명히 그릇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 경제 건설은 우리의 중심 과업인 혁명 전쟁을 에워 싸고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당면의 중심 과업은 혁명 전쟁이고 경제 건설 사업은 그것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에워 싸고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 건설이 일체 과업의 중심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혁명 전쟁을 소홀히 하며 혁명 전쟁을 떠나서 경제 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릇된 견해이다. 오직 국내 전쟁이 끝 난 후에야 경제 건설이 일체 과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장래에는 해야 하나 지금은 해서는 안 되고 장래의 환경에서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의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적인 경제 건설 사업을 국내 전쟁 과정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면에 해야 할 일은 전쟁에 긴박히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은 전쟁을 떠난 평화적 사업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쟁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동지들 가운데 전쟁을 떠나서 경제 건설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고쳐야 할 것

이다.

옳은 지도 방법과 사업 방법이 없이는 경제 전선에서 운동을 급속히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이 번 회의에서 해결을 가져 와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돌아 가는 즉시로 동지들은 많은 일들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 많은 일'군들을 지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향이나 시에서 일하는 동지들과 합작사, 량식국, 무역국, 수매처 등 기관들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자신이 직접 대중을 동원하여 합작사를 조직하며 량곡을 조절, 운수하며 반출 반입 무역을 관리하는 등 실질 사업을 하는 일'군들인 만큼 만일 지도 방법이 부당하고 옳은 효과적인 사업 방법들을 취하지 못 한다면 곧 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우리의 제반 사업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전반 경제 건설 계획을 금년 가을과 겨울, 명년 봄과 여름내로 완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출하려 한다.

첫째로, 조직 상으로부터 대중을 동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각급 정부의 주석단, 국민 경제부 및 재정부의 동지들은 공채의 발행, 합작사의 발전, 량곡의 조절, 생산의 발전, 무역의 발전 등 사업들을 언제나 의사 일정에 올려 놓고 토의하며 독촉하며 검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 단체, 주로 공회와 빈농단을 발동시켜야 한다. 공회로 하여금 자기의 회원 대중을 모두다 경제 전선에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빈농단은 합작사를 발전시키며 공채를 구매하도록 대중을 동원하는 유력한 기초이므로 구 정부나 향 정부들에서는 이를 전력을 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마을이나 한 울안을 단위로 군중 대회를 열고 경제 건설을 선전하여야 한다. 이 선전에서 혁명 전쟁과 경제 건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설하며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여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관하여 아주 실제적으로 해설하여야 한다. 공채를 구매하며 합작사를 발전시키며 량곡을 조절하며 금융을 공고히 하며 무역을 발전시킬 것을 대중에게 호소하며 이러한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대중의 열정을 높여야 한다. 가령 이렇게 조직 상으로부터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대중에게 선전하지 않는다면, 즉 각급 정부의 주석단, 국민 경제부, 재정부에서 경제 건설 사업을 토의 집결하는 데 힘 쓰지 않거나 대중 단체를 발동하는 데 류의하지 않거나 군중 대회를 열어 선전하는 데 류의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이 관료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은 어떠한 혁명 사업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관료주의를 부려서는 안 된다. 관료주의적 방법이라는 이 극히 나쁜 물건 짝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려야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을 좋아 하는 동지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지들은 누구나 다 군중화한 방법, 즉 로동자, 농민이 누구나 다 즐기는 그런 방법을 좋아 해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의

표현의 하나는 본 체 만 체 하거나 어물어물해서 책임 모면이나 하려는 태업 현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반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표현은 명령주의이다. 명령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태업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명령주의적으로 합작사를 발전시키려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일시 형식적으로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신용을 잃어 버려 합작사의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명령주의적으로 공채를 판매하려 한다면, 대중이야 이해했든 말든 또 그만큼 살 수 있는 없든 그저 자기가 정한 수효 대로 마구 풍긴다면 그 결과는 대중이 좋아 하지 않게 되며 공채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명령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전에 힘 쓰며 대중을 설복하며 구체적 환경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대중의 열정에 따라 합작사를 발전시키며 공채를 팔며 모든 경제 동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째로, 경제 건설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간부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을 요하며 그들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경제 건설의 진지에 내보내야 한다. 그들은 경제 전선의 지휘원이고 광범한 대중은 전투원이다. 사람들은 흔히 간부가 없다고들 한탄한다. 동지들, 정말 간부가 없는가? 토지들을 위한 투쟁, 경제 투쟁, 혁명 전쟁의 시련을 거친 대중 속에서 수 많은 간부들이 배출되었는데 어찌 간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릇된 견해를 버리기만 한다면 간부는 눈앞에 보일 것이다.

네째로, 오늘 경제 건설은 전쟁이란 총임무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임무와도 분리될 수 없다. 오직 토지 조사 운동^[2]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만 봉건적,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철저히 폐절하고 농민들의 생산 열정을 북돋우어 광범한 농민들을 경제 건설 전선으로 하루 속히 끌어 들일 수 있다. 오직 로동 법령을 견결히 실시함으로써만 로동자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고 로동자 대중을 적극적으로 또 급속하게 경제 건설 사업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 하여 농민에 대한 그들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오직 선거 운동과 그리고 토지 조사 운동에 따라 전개되는 적발 운동^[3]을 옹기 지도함으로써만 우리의 정부 기관을 건전히 하고 우리의 정부로 하여금 혁명 전쟁과 각 분야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더 강력히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 수준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도 또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극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홍군 확대 사업을 단 하루라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홍군의 승리가 없으면 경제 봉쇄가 더욱 심하여지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타방으로는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중 생활을 개선하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홍군 확대 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인바 광범한 대중이 용약 전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경제 건설이란 이 극히 중요한 새로운 조건까지 포함한 상술한 모든 조건을 생취하고 그 모든 조건을 혁

명 전쟁에 복무시킨다면 혁명 전쟁의 승리는 틀림 없이 우리의 것으로 될 것이다.

주 해

[1] 1930년부터 1934년에 걸쳐 광 개척 군대는 강서성 서남을 중심으로 한 홍색 지역에 대하여 진후 5 차의 대규모적인 군사적 진공을 감행하였다. 이것을 5 차의 《포위 토벌》이라고 부른다. 제 5 차 《포위 토벌》은 1933년 10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1933년 여름부터 광 개척은 벌써 이 진공을 적극 포치하고 있었다.

[2] 토지 조사 운동이란 당시 홍색 지역에서 토지를 분여한 후에 토지 분여가 옮겨 되었는데 어떤가를 검열하는 데 목적을 둔 운동이었다.

[3] 적발 운동이란 민주 정부 일'군들의 부정 행위를 광범한 인민이 하부로부터 적발하는 일종의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농촌의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933년 10월)

1. 지 주

토지를 소유하고 자신은 로동을 하지 않거나 부대적 로동만 하면서 농민을 착취함으로써 생활하는 자를 지주라고 한다. 지주의 착취 방식은 주로 소작료를 받는 것이다. 이 밖에 겸하여 변을 놓기도 하고 머슴을 두기도 하고 상공업을 경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서 소작료를 착취하는 것이 지주의 주요한 착취 방식이다. 공동 재산을 관리하며 학전의 소작료를 받아 들이는 것^[1]도 소작료 착취의 범위에 속한다.

이미 파산된 지주라 하더라도 파산된 후에 여전히 로동하지 않고 사기와 약탈 혹은 친척, 친우들의 원조 등에 의거

* 이 문헌은 모택동 동지가 1933년 10월에 토지 개혁 사업 중에 발생한 전향을 시정하며 토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서 당시 중앙 로동 민주 정부에서 이를 채택하여 농촌의 계급 성분을 확분하는 표준으로 삼았다.

하여 생활하며 그 생활 형편이 일반 중농의 수준을 넘는 자는 역시 지주로 친다.

군벌, 관료, 토호, 혈신은 지주 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지주 가운데서 특히 흉악한 자들이다. 부농 가운데도 흔히 비교적 작은 토호, 혈신이 있다.

지주의 마음으로 소작료를 받아 들이고 살림을 관리하여 주면서 농민에 대한 지주의 착취에 의거하는 것을 자기의 주요한 생활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그 생활 형편이 일반 중농의 수준을 넘는 자는 지주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고리대에 의한 착취를 자기의 주요한 생활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그 생활 형편이 일반 중농의 수준을 넘는 자는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며 지주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2. 부 농

부농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외에 또 남의 토지를 일부 부치고 있는 자도 있다. 또 자기의 토지라고는 전연 없이 전'적으로 남의 토지를 부치는 자도 있다. 부농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산 도구와 류동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도 로동에 참가하나 자기 생활 원천의 일부분 혹은 대부분을 늘 착취에 의거하고 있다. 부농의 착취 방식은 주로 고용 로동을 착취하는 것(머슴을 두는 것)이다. 이 밖에 겸하여 일부의 토지를 소작 주어 소작료를 착취하기도 하며 변을 놓기도 하

며 상공업을 경영하기도 한다. 부농의 태반은 또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좋은 토지를 꽤 많이 소유하고 자신이 로동하는 외에 머슴은 두지 않으나 소작료, 번농이 등의 방식으로 농민을 착취하고 있는 자도 있다. 이러한 자도 부농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농의 착취는 경상적인 것이며 많은 부농들에게 있어서 착취에 의한 수입은 또한 그들의 전체 수입 중의 주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3. 중 농

허다한 중농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일부 중농은 자기 소유의 일부 토지 외에 또 남의 토지를 일부 부치고 있다. 또 일부 중농은 자기 토지라고는 전연 없이 전부 남의 토지를 부치고 있다. 중농은 모두 상당한 생산 도구를 소유하고 있다. 중농은 생활 원천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기 로동에 의거하고 있다. 중농은 일반적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으며 많은 중농은 도리어 남에게 소부분의 소작료나 리자 등에 의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농은 일반적으로 로동력을 팔지 않는다. 다른 일부분의 중농(부유 중농)은 남을 약간 착취하지만 그것이 경상적인 것도 아니며 주요한 것도 아니다.

4. 빈 농

빈농은 일부분의 토지와 불충분한 생산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있으며 토지는 전연 없이 불충분한 약간의 생산 도구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빈농은 토지를 소작하며 남에게 소작료, 리자 및 소부분의 고용 노동에 의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중농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빈농은 일반적으로 소부분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이 중농과 빈농을 구별하는 주요한 표준이다.

5. 로 동 자

로동자(고농을 포함함)는 일반적으로 토지도 생산 도구도 전연 없으며 일부의 로동자는 극소부분의 토지나 생산 도구를 소유하고 있다. 로동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다.

주 해

[1] 구중국 때 농촌에는 공동 토지가 많았다. 어떤 것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벼를 들면 일부 구 정부, 향 정부 소유의 토지가 그러하였다. 어떤 것은 종주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벼를 들면 각 성(姓)의 사당 소유의 토지가 그러하였다. 어떤 것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벼를 들면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사원 소유의 토지가 그러하였다. 어떤 것은 사회 구제 혹은 사회 공익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벼를 들면 의창의 토지나 교량 및 도로 수리를 위하여 내어 놓은 토지가 그러하였다. 어떤 것은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벼를 들면 학전이 그러하였다. 이 모든 토지는 그 대부분이 지주, 부농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으며 농민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부분 뿐이었다.

우리의 경제 정책*

(1934년 1월 23일)

가장 파렴치한 국민당 군벌만이 그들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거의 민중 재갈의 궁지에 빠뜨리고서는 도리어 홍색 지역이 여지 없이 파괴되었다느니 뭐니 하는 요언을 매일과 같이 날조한다.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목적은 홍색 지역을 파괴하며 바야흐로 전진하고 있는 홍색 지역의 경제 건설 사업을 파괴하며 해방된 천백만 로농 민중의 복리를 파괴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포위 토벌》을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잔혹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범한 대중과 홍군을 령도하여 적들의 《포위 토벌》을 무차 격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고도 필수적인 모든 경제 건설에 종사함으로써 적들의 경제 봉쇄의 흉계를 격파하고 있다. 우리의 이 대책도 지금 착착 승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정책의 원칙은 가능하고도 필수적인 모든 경제 건설을 진행하며 경제력을 집중하여 전쟁 수요를 충족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1934년 1월에 강서성 서급에서 열린 제 2 차 전국 모농 대표 대회에서 한 보고이다.

시키며 동시에 민중의 생활을 극력 개선하며 로동자와 농민과의 경제적 동맹을 공고히 하며 농민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명도를 담보하며 사'적 경제에 대한 국영 경제의 명도를 전취하며 그리 하여 장차 사회주의에로 발전할 전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건설의 중심은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공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며 합작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홍색 지역의 농업은 지금 확실히 발전되고 있다. 1933년의 농산물은 1932년에 비하여 강서성 남부와 복건성 서부 지역에서는 15%(1 할 5 부) 증산되었으며 민절공 변구에서는 20% 증산되었다. 천섬 변구의 농업 소출도 량호하다. 홍색 지역이 창설된 최초의 1~2년 동안은 농업 생산이 흔히 하강된다[1]. 그러나 토지 분여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또 우리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농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이 양양되면 생산은 회복의 길에 들어 서게 된다. 지금 어떤 지방에서는 수확고가 혁명 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뽕가하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혁명 붕괴 과정에 묵발으로 되었던 토지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개간지를 새로 개간하였다. 허다한 지방에서는 로동 호조사와 경전대[2]를 조직하여 농촌의 로력을 조절하고 있으며 부림소 합작사를 조직하여 발간이소의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한 녀성 대중이 생산에 참가하고 있다. 국민당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국

민당 시대에 있어서는 토지가 지주의 것이므로 농민들은 자기의 힘으로 토지를 개량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할 수도 없었다. 오직 우리가 토지를 농민에게 분여하고 농민들의 생산을 제창, 장려한 후에야 농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이 들끓게 되어 생산에서 위대한 승리가 달성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현 조건에서 농업 생산은 우리의 경제 건설 사업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 생산은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복, 사탕, 종이 등 일용품의 원료, 즉 목화, 삼, 사탕수수, 참대 등의 공급 문제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삼림의 육성, 가축의 증식도 역시 농촌 경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농 경리의 기초 위에서 일부의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적당한 생산 계획을 작성하고 이러한 계획의 실현으로 농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용허될 수 있는 일이며 또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면에 가일층 주의를 돌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력 문제, 밭갈이소 문제, 비료 문제, 종자 문제, 수리 문제 등 농업 생산의 필요 조건 면에서의 난관에 대하여서는 극력 농민들을 지도하여 그것을 타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로력을 조직적으로 조절하며 녀성들을 추동하여 생산에 참가시키는 것은 농업 생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다. 로동 호조사와 경전대를 조직하며 봄갈이나 여름갈이 같은 중요한 계절에 농촌의 전체 민중을 동원 독촉하는 것은 로력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방법이다. 적지 않은 부분의 농민들(약 25%)에게 밭갈이소가 부족한 것도

역시 큰 문제이다. 부림소 합작사를 조직하고 소 없는 모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소를 사서 공동으로 부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일이다. 수리는 농업의 생명선이다. 그러니 만큼 이 점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직은 물론 국영 농업이나 집단적 농업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나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지에 소 규모적인 농사 시험장을 설치하며 또 농업 연구 학교와 농산물 전람소를 설립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적들의 봉쇄로 하여 우리의 물품 반출에는 난관이 조성되었다. 그리 하여 홍색 지역의 많은 수공업 생산은 쇠퇴하였다. 그 중에서도 담배, 종이 등의 생산이 가장 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출난은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광범한 대중의 수요가 있는 만큼 우리 자신에게 광대한 시장이 있다. 우선 자급을 위하여, 다음으로 반출을 위하여 수공업 및 일부의 공업을 계획적으로 복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1933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였고 또 대중의 생산 합작사가 점차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공업 및 개별적인 공업은 지금 회복의 길에 들어 서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담배, 종이, 탕그스텐 광석, 장뇌, 농기구 및 비료(석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는 자체로 직포하며, 제약하며, 제당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질공변구에서는 본래 당지에 없었던 공업, 폐를 들면 제지, 직포, 제당업 등이 어느덧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 그들은 식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염을 만들고 있다. 공업을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산만한 수공업의 기초 우에서는 물론 전면적인 주밀한 계획은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주요한 산업,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합작사에서 경영하는 산업은 어느 정도 주밀한 생산 계획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원료의 생산을 정확히 타산하며 적구와 우리 지구에 있어서의 판로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모든 국영 공업과 합작사 공업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일이다.

인민의 대외 무역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또 국가에서 약간의 필요한 상품 류통, 폐를 들면 식염 및 피륙의 반입, 량곡 및 탕그스텐 광석의 반출, 량식의 내부적 조절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매우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은 민절공 변구에서 비교적 일찌기 실시되었고 중앙구에서는 1933년 봄에 시작되었다. 대외 무역국 등 기관의 설치에 의하여 이미 초보적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우리의 인민 경제는 국영 경제, 합작사 경제, 사'적 경제 등 세 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경제 사업은 오늘에 있어서는 가능하고도 필요한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국영 공업과 국영 상업은 이미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망은 무한히 양양하다.

사'적 경제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제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창하

며 장려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적 경제의 발전이 국가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적 경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장구한 기간에 걸쳐 필연코 우세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홍색 지역에 있어서 사'적 경제는 소규모적 경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합작사 사업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강서, 복건 두 성의 17 개 현의 통계에 의하면 1933년 9월 현재로 각종 합작사가 1,423 개이고 출자금이 30여만 원이다. 가장 발전한 것은 소비 합작사와 량곡 합작사이고 다음은 생산 합작사이다. 신용 합작사는 방금 활동을 개시하였다. 합작사 경제와 국영 경제는 배합하여 장기간 발전한다면 장차 경제 면에서 거대한 역량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사'적 경제에 대하여 점차 우세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도적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영 경제를 가급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경제를 대규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적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국영 경제를 발전시키며 합작사 경제를 방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중의 지지 하에 300만 원의 경제 건설 공채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 건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가능한 방법이다.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재정 수입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 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이 방침의 뚜렷한 효과

는 이미 민절공 변구에서 나타났으며 중앙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방침을 강력히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 기관과 경제 기관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국가 은행의 지폐 발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민 경제 발전의 수요에 의거하여야 하고 단순한 재정적 수요는 부차적 지위에만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절약 방침을 지켜야 한다. 모든 정부 일'군들에게 탐오와 낭비는 최대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탐오와 낭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후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과 혁명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경제 건설을 위하여 동전 한 잎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우리의 회계 제도의 원칙이다. 우리가 국가 수입을 사용하는 방법은 국민당의 방법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 중국이 경제적 대재난에 휩싸여 들어 가고 수억만 민중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이 곤난한 시기에 우리 인민의 정부는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혁명 전쟁을 위하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건설 사업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태는 아주 명백하다. 오직 제국주의와 국민당을 타승함으로써만, 오직 계획적, 조직적 경제 건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만 전국 인민을 미증유의 대재난으로부터 구하여 낼 수 있다.

주 해

[1] 홍색 지역이 창설된 최초의 1~2 년 동안은 농업 생산이 혼허 다소 하강되는데 그것은 주로 토지 분여 기간이어서 토지 소유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농민들의 생산열에 아직 약간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토동 호조사와 경전대는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홍색 지역의 농민들이 개인 경리의 기초 위에서 토력을 조절할 목적으로 세운 토동 호조 조직이다. 이런 토동 호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자원적이었으며 또 반드시 상호 이익의 원칙에 순하였다. 즉 품수물 엇셈하여 일을 적게 한 자는 많이 한 자에게 품'값을 갚아야 한다. 토동 호조사는 사원 간의 상호 협조 외에 또 홍군 가족을 원호하였고 의지할 곳 없는 모인들을 도와 주었다(의지할 곳 없는 모인을 도와 주기 위하여 일하는 때에는 그 집에서 밥만 먹고 품'값은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토동 호조 조직은 생산에서 큰 역할을 놀았으며 또 합리한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모택동 동지의 《장강항의 조사》와 《재계항의 조사》에 이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대중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사업 방법에 주의를 돌리자*

(1934년 1월 27일)

동지들이 토론 가운데서 그다지 주의를 돌리지 못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나는 그것을 제기하여 말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문제는 대중의 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의 중심 과업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 전쟁에 동원하며 혁명 전쟁으로써 제국주의와 국민당을 타도하며 혁명을 전국으로 발전시키며 제국주의를 중국에서 몰아 내는 것이다. 이 중심 과업을 경시하는 자는 훌륭한 혁명 일'군이 아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이 중심 과업을 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여서든지 혁명을 전국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광범한 대중의 절실한 리해 관계 문제, 대중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혁명 전쟁은 오직 대중을 동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1934년 1월에 강서성 서금에서 소집된 제 2 차 전국 노동 대표 대회에서 한 결론의 일부분이다.

원함으로써만, 오직 대중에 의거함으로써만 진행할 수 있는 대중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인민을 동원하여 전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써 능히 적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물론 타승할 수 없을 것이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다른 많은 일들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들의 토지를 위한 투쟁을 령도하여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여하며 농민들의 로동 열정을 제고시켜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며 로동자들의 리익을 보장하며 합작사를 세우며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며 대중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주택 문제, 땄나무, 쌀, 기름, 소금 등의 문제, 질병 및 보건 문제, 혼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중의 실제 생활 상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인 것이다. 가령 이런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 그것을 해결하고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대중 생활의 조직자로 될 것이며 대중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위에 집결하여 우리를 열렬히 옹호하게 될 것이다. 동지들, 그 때에 가서 우리가 대중에게 혁명 전쟁에 참가하라고 호소한다면 되겠는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될 수 있다.

우리의 일'군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정형들이 있었다. 즉 그들은 홍군의 확대, 운수대의 확충, 토지세의 징수, 공채의 판매 등만을 토의하고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관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일체를 도의시하였다. 폐를 들면 과거 한동안 정주(汀州)시 정부에서는

홍군을 확대하는 일과 운수대를 동원하는 일만 하고 대중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정주시의 대중의 문제란 뭘 나무가 없는 것, 자본가들이 소금을 감추어 버려 소금을 살 수 없는 것, 일부 사람에게 주택이 없는 것, 쌀이 부족하고 쌀 값이 비싼 것 등이다. 이런 문제는 정주시 인민 대중의 실제 문제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정주시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조금도 토의하지 않았다. 그리 하여 당시 정주시의 로농 대표 회의가 개선된 후 몇 차례의 회의가 모두 홍군의 확대와 운수대의 동원에 대하여서만 토의하고 대중의 생활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100여 명의 대표들은 회의에 출석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 낼 수도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홍군의 확대, 운수대의 동원도 성과가 극히 적었다. 이것이 한 가지 정형이다.

동지들, 여러 분에게 내어 준 두 모범향에 관한 소책자를 여러 분은 아마 보았을 것이다. 거기의 정황은 위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이다. 강서성의 장강향^[1]과 복건성의 재계향^[2]에서는 홍군을 그야말로 굉장히 확대시켰다. 장강향에서는 청장년 남녀 100 명 중에 80 명이 홍군에 참가하였으며 재계향에서는 100 명 중에 88 명이 홍군에 참가하였다. 공채도 매우 많이 팔려 장강향에서는 전 향민 1,500 명이 4,500 원의 공채를 소화하였다. 다른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어찌 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실패를

들면 알 수 있다. 장강항에서 어느 가난한 농민이 화재로 인하여 집 한 칸 반을 태워 버렸을 때 향 정부에서는 군중을 동원하여 의연금을 모아 그를 도와 주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진 세 사람이 있었는데 향 정부와 호제회에서는 즉시로 연조 쌀을 모아 그들을 구제하였다. 작년 여름 기근이 들었을 때에 향 정부에서는 200여 리나 되는 공락현^[3]에 가서 쌀을 구하여다가 군중들을 구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재계항에서도 대단히 잘 하고 있다. 이러한 향 정부들이야 말로 정말 모범적인 향 정부이다. 그들의 지도 방법은 정주시의 관료주의적 지도 방법과는 판판 다르다. 우리는 장강항과 재계항을 따라 배우고 정주시에서와 같은 그러한 관료주의적 지도자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나는 우리가 토지 문제, 노동 문제로부터 뿔나무, 쌀, 기름, 소금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전반 생활 문제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대회에 엄숙하게 제기한다. 여성 동무들이 발갈이를 배우려 하는데 누구더러 그들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소학교를 세웠는가? 저기 있는 나무다리가 너무 좁아 행인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수리할 필요가 없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스럼과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대중의 생활 상의 이 모든 문제들을 죄다 자기의 의사 일정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리 하여 토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검열하여야 한다. 광범한 대중에게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

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제기하는 보다 높은 임무, 즉 혁명 전쟁의 임무를 리해하고 혁명을 지지하며 혁명을 전국으로 추진시키며 우리의 정치적 호소를 접수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장강항의 군중은 《공산당은 참 좋다. 무슨 일이나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강항의 일'군들, 그들은 얼마나 모범적인가, 실로 존경할 만 한 일'군들이다! 그들은 광범한 대중에게서 충심으로 되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쟁으로 동원하라는 그들의 호소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생각하는가?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력을 전선에 투입하게 하려고 생각하는가? 생각한다면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며 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하며 대중의 아픔과 가려움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성심 성의로 대중의 리익을 도모하며 대중의 생산과 그들의 생활 문제, 즉 소금 문제, 쌀 문제, 주택 문제, 의복 문제, 해산 문제를 해결하여 주며 대중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광범한 대중은 반드시 우리를 지지할 것이며 혁명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생각할 것이며 혁명을 자기들의 더 없이 영예로운 기치로 생각할 것이다. 국민당이 홍색 지역에 진공하여 온다면 광범한 대중은 자기들의 생명으로써 국민당과 결투할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적들의 제 1, 제 2, 제 3, 제 4 차의 《포위 토벌》은 과연 우리들에 의하여 분쇄되지 않았던가?

국민당은 지금 그들의 토치가 정책(4)을 실시하여 두꺼비 집을 잔뜩 만들고 이것을 자기들의 금성 철벽으로 믿고 있다. 동지들, 이것이 과연 금성 철벽이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하여 보라, 수천 년 태의 저 봉건 황제들의 성지나 궁전은 견고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일단 대중이 일어 나면 날날이 무너지고 말았다. 로씨야의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통치자였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이 폭발된 후 황제가 그냥 남아 있었던가? 남아 있지 못 하였다. 금성 철벽은 어떻게 되었던가? 무너지고 말았다. 동지들, 진짜 금성 철벽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대중이다. 성심성의로 혁명을 지지하는 천백만의 대중이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격파할 수 없는, 아니, 절대 격파할 수 없는 진짜 금성 철벽이다. 반혁명은 우리를 격파할 수 없으나 우리는 반혁명을 격파할 것이다. 혁명 정부의 주위에 천백만의 대중을 묶어 세워 우리의 혁명 전쟁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일체 반혁명을 격멸할 수 있으며 전 중국을 탈취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사업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혁명 전쟁의 지도자이고 조직자이며 우리는 또 대중의 생활의 지도자이고 조직자이다. 혁명 전쟁을 조직하며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2대 임무이다. 여기에서 사업 방법이 중대한 문제로 우리 앞에 나서게 된다. 우리는 임무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완수하는 방법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임무가 강을 건느는 것이라고 하면 다리가 없거나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다리나 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너 간다는 것이 빈말이다. 방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무라는 것도 역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홍군을 확대함에 있어서 지도 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홍군을 확대한다고 천만 번 부르짖어 보았자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 조사 사업, 경제 건설 사업, 문화 교육 사업, 신 홍색 지구와 변연 지구 사업 등과 같은 기타 사업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나 만일 임무만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방법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관료주의적인 사업 방법을 반대하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명령주의적 사업 방법을 포기하고 참을성 있게 설복하는 사업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임무도 실현할 수 없다.

홍국현의 동지들은 가장 뛰여 나게 사업하였으니 우리들이 찬양할 만 한 모범 일'군들이다. 마찬가지로 강서성 동북부의 동지들도 훌륭하게 사업하였으니 역시 모범 일'군들이다. 홍국현이나 강서성 동북부의 동지들은 대중의 생활과 혁명 전쟁을 련결시켰으며 혁명의 사업 방법 문제와 혁명의 사업 임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그들은 진지하게 사업하고 있으며 문제를 세밀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혁명 전쟁의 훌륭한 조직자이고 지도자이며 그들은 또 대중의 생활의 훌륭한 조직자이고 지도자이다. 이 밖에 복건성의 상항, 장정, 영정 등 현의 일부 지방, 강서성 남부의 서강 등 지방, 상공

변구의 다릉, 영신, 길안 등 현의 일부 지방, 상악공 변구의 양신현의 일부 지방 및 강서성의 많은 현내의 구와 향 그리고 또 서금 적숙현 등의 동지들도 자기 사업에서 진보를 가져 왔으며 역시 찬양할 만 하다.

우리가 명도하는 모든 지방에는 의심할 바 없이 적지 않은 적극적인 간부들, 대중 속에서 나온 우수한 일'군들이 있다. 이 동지들은 사업이 잘 되지 못 하는 지방과 사업을 아직 잘 하지 못 하는 동지들을 사업을 잘 하도록 도와 줄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혁명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적들의 대규모적인 《포위 토벌》을 격파하여야 하며 혁명을 전국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전체 혁명 일'군들은 아주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대회 이후에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써 우리의 사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적인 지방에서는 한 걸음 더 전진하여야 할 것이며 뒤떨어진 지방에서는 선진적인 지방을 따라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천 개의 장강향, 수십 개의 홍국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곳들은 우리의 견고한 진지로 된다. 이러한 진지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지로부터 출발하여 적들의 《포위 토벌》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에서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통치를 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 해

- [1] 장강향은 강서성 홍국현에 있는 향이다.
- [2] 재계향은 복건성 상항현에 있는 향이다.

[3] 공탁현은 당시의 강서성 홍색 지역의 한 현으로서 길안현 동남쪽의 동고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홍군 제 3군 군장 황 공탁 동지가 1931년 10월에 여기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여 이 현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4] 1933년 7월에 장 개석은 강서성 려산 군사 회의에서 제 5차 《포위 토벌》의 새로운 군사적 전술로서 홍색 지역의 수위에 토치까를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34년 1월 말까지에 강서성에 구축한 토치까가 합계 2,900 개나 되었다. 후에 일본 침략자들도 중국에서 팔로군, 신사군과 싸울 때 장 개석의 이러한 토치까 정책을 취하였다. 인민 전쟁에 관한 모택동 동지의 전략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반혁명적 토치까 정책은 완전히 격파할 수 있으며 타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된 바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1935년 12월 27일)

현 정치 정세의 특성

동지들! 오늘의 정치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된 정세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이미 자기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현하의 정세는 어떠한가?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섬서성 북부 와오보에서 열린 당 활동 분자 회의에서 한 보고이다. 모택동 동지의 이 보고는 1935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와오보 회의 후에 한 것이다. 이 정치국 회의는 중국 민족 부르주아지는 중국의 노동자, 농민과 연합하여 항일할 수 없다고 하는 당내의 그릇된 견해를 비판하고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전술을 결정한 극히 중요한 중앙 회의였다. 모택동 동지는 중앙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보고 가운데서 항일의 조건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와 다시 통일 전선을 결성할 가능성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 통일 전선 내에서의 공산당과 홍군의 결정적인 행동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혁명의 장기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당내에 과거부터 오래 동안 존재하던 허애한 관문주의와 혁명에 대한 조급증——이러한 것들은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당과 홍군이 엄중한 좌절을 당하게

현 정세는 일제가 중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특성으로 되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근 100 년 동안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통치하여 온 반식민지 국가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 인민의 투쟁과 제국주의 국가들 호상간의 투쟁에 의하여 중국은 아직 반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 1 차 세계 대전은 한때 일본 제국주의에게 중국을 독차지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일제를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 및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매국 두목 원 세개^[1]가 조인했던, 일본에 굴종하는 21 개조의 조약^[2]은 무효로 돌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22년에 미국이 소집한 워싱턴 9 개국 회의에서 체결된 공약^[3]에 의하여 중국은 또다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된 기본 원인이다 — 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모택동 동지는 1927년에 진 독수우경 기회주의가 혁명을 실패어로 끌어 간 역사적 모순에 대하여 당내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장 개석이 필연적으로 혁명 세력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당은 그 후 새로운 환경에서도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 개석의 끝 없는 기민과 여러 차례의 무력 습격 앞에서 혁명 역량에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1935년 1월에 귀주성 준의에서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모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의 새로운 병도를 확립함으로써 과거의 《좌》경 기회주의적 병도를 개편시켰다. 그러나 이 회의는 홍군이 장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지 당시의 가장 절박한 군사 문제 및 중앙 서기처와 중앙 혁명 군사 위원회의 조직 문제에 대하여서만 결정을 채택할 수 있었다. 홍군이 장정하여 섬서성 북부에 도착한 후에야 당 중앙은 비토스 정치적 전술에 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모택동 동지의 이 보고는 이러한 정치적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완미한 분석을 주고 있다.

국면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이러한 정세에는 또 변화가 생겼다. 1931년 9월 18일에 일어난 사변^[4]은 중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단계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단지 일본의 침략 범위가 당분간 동북 4 성^[5]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일본 제국주의자가 그 이상 더 전진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사태가 달라졌다. 일본 제국주의자는 이미 중국 본부에게도 침입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 중국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는 전 중국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 몫씩 차지하고 있는 반식민지 상태로부터 일본이 독점하는 식민지 상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의 기동 사변^[6]과 외교 담판^[7]은 이 동향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전국 인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중국의 일체 계급과 일체 정치적 파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반항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투항할 것인가? 혹은 그 중간에서 방황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중국의 각 계급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국의 로동자와 농민은 모두가 반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혁명, 1927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혁명, 1931년 9. 18 사변 이래의 반일의 격류는 모두가 중국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이 중국 혁명의 가장 견결한 역량임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소부르쵸아지도 반항하려 한다. 청년 학생과 도

시 소부르쵸아지는 벌써 광범한 반일 운동^[8]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중국의 이러한 소부르쵸아층은 1924~1927년 혁명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농민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제국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소생산자적 경제 지위에 처하여 있다. 제국주의와 중국의 반혁명 세력은 소부르쵸아지에게 심대한 손해를 주어 그들 중 수 많은 사람들을 실업, 파산 혹은 반파산의 궁지에 몰아 넣었다. 지금 망국노로 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소부르쵸아지에게는 반항하는 것 밖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민족 부르쵸아지, 매관 계급, 지주 계급의 태도는 어떠하며 국민당의 태도는 또 어떠한가?

대토호, 대렬신, 대군벌, 대관료, 대매관들은 벌써부터 결심을 내리었다. 그들은 혁명은(어떠한 혁명임을 물론하고) 여하튼 제국주의보다 나쁘다고 과거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에도 말하고 있다. 그 자들은 매국 역적의 진영을 형성하였다. 그들에게는 망국노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민족적 계선을 없애 버렸다. 그들은 리해 관계에서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총두목은 바로 장 개석이다.^[9] 이 매국 역적들의 진영은 중국 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 만일 이 매국 도당들이 없다면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 몇 대로 횡행하는 못 할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주구이다.

민족 부르쵸아지 문제는 복잡하다. 이 계급은 지난 1924~1927년 혁명에 참가하였으나 그 말기에는 이 혁명의 불길

에 겁을 먹고 인민의 원수, 즉 장 개척 도당 편으로 넘어가 버렸다. 문제는 오늘의 정세 하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민족 부르주아지는 지주 계급, 매판 계급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봉건성도 지주 계급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매판성도 매판 계급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민족 부르주아지 내부에는 외국 자본 및 자국 토지와 비교적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 있는데 이들은 민족 부르주아지의 우익이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잠시 논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는 그런 관계가 없거나 비교적 적은 부분에 있다. 식민지로 될 위험에 직면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민족 부르주아지 내의 이 부분 사람들은 그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 변화의 특징은 즉 그들의 동요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 또 혁명의 철저성도 두려워 하면서 양자 사이에서 동요한다. 이것은 그들이 1924~1927년의 혁명 시기에 어찌서 혁명에 가담하였다가 이 시기의 말기에 가서는 또 장 개척 편으로 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현시기는 1927년에 장 개척이 혁명을 배반하던 시기와 어떠한 구별이 있는가? 그 당시는 중국이 아직 반식민지였으나 지금은 식민지에도 전락되어 가고 있다. 지난 9년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동맹자이던 로동 계급을 버리고 지주, 매판 계급을 벗으로 사귀었는데 결국 무

슨 리득을 보았던가? 아무런 리득도 보지 못 하였다. 얻은 것이라면 민족 상공업의 파산 또는 반파산 상태 뿐이었다. 사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정세 하에서 민족 부르조아지의 태도에는 변화가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어느 정도로 변화될 것인가? 총적 특징은 동요이다. 그러나 투쟁의 어느 단계에 가서 그들 중 일부분(좌익)은 투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일부분은 동요하던 데로부터 중립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채 정개 등이 지휘하는 19 로군[10]은 어느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는가? 그들은 민족 부르조아지, 상층 소부르조아지, 농촌의 부농 및 소지주를 대표하고 있다. 채 정개 등은 한때 홍군과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또 홍군과 항일 반장 동맹을 맺었다. 채 정개 등은 강서성에서는 홍군을 진공하였고 상해에 가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였고 복건성에 가서는 홍군과 타협하고 장 개석에게 불철하였다. 채 정개 등이 하려는 사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또 당시의 복건 인민 정부가 아주 보수적이어서 민중 투쟁을 발동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본래 홍군을 겨누고 있던 총'부리를 일본 제국주의와 장 개석에게로 돌린 것만은 혁명에 유익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당 진영의 파벌이다. 9. 18 사변 후의 환경에서 국민당 진영으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분렬되어 나올 수 있었는데 어찌서 오늘의 환경은 도리어 국민당 내부의 분렬을 조성할 수 없겠는가? 우리 당내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전체 지주, 부르

쵸아지의 진영은 통일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하한 환경에서도 그 내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그들은 현하의 엄중한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력사마저 잊어 버리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력사를 좀 이야기하여 보자. 1926년과 1927년에 혁명군이 무한으로 진격할 때, 무한을 점령하고 하남성에 쳐들어 갔을 때 당 생지, 풍 옥상^[11]이 혁명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풍 옥상은 1933년에 차할성에서도 한때 공산당과 합작하여 항일 동맹군을 조직한 적이 있었다.

또 하나의 뚜렷한 실례로는 19 로군과 함께 강서성 홍군을 공격하던 제 26 로군이 1931년 12월에 녕도에서 의거하여^[12] 홍군으로 되지 않았던가? 녕도 의거의 지도자였던 조 박생, 동 진당 등은 그 후 견결한 혁명 동지로 되었다.

동3성에서의 마 점산의 항일 행동^[13]도 통치자 진영 내부의 분렬인 것이다.

이 모든 실례는 일본 폭란의 위력권이 전 중국에 미칠 때에는, 투쟁이 일반적 형태를 벗어나 맹렬한 진세로 돌연히 전진할 때에는 적의 진영에 파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동지들, 이제부터 문제를 다른 점으로 옮겨 보기로 하자.

가령 어떤 사람이 중국의 민족 부르쵸아지가 정치 경제적으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견해를 반

대하면서 중국의 민족 부르조아지는 비록 새로운 환경에 처하여 있지만 여전히 그 태도를 개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옳은 것이겠는가? 역시 옳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태도를 개변하지 못하는 원인이 민족 부르조아지의 연약성에 있다고 한다면 1924~1927년에는 어찌서 그들이 자기의 평소의 태도를 개변하고 동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혁명에 참가하기까지 하였겠는가? 그때 민족 부르조아지의 연약성이 그들이 배'속에서 타고 난 고질이 아니라 후에 와서야 생긴 새 병'집이란 말인가? 그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약하지 않았단 말인가? 반식민지에 있어서 정치, 경제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민족 부르조아지의 연약성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그들을 감히 릉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또 그들에게 제국주의를 좋아 하지 않는 특징을 지어 주었다. 물론 또 이 점 때문에 제국주의와 지주, 매관 계급이 일시적인 약간의 퇴물을 미끼로 그들을 쉽사리 자기 편으로 낚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또 혁명에 대한 그들의 불철저성을 규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시인한다. 그러나 여하튼 현 정세 하에서 그들과 지주 계급, 매관 계급 간에 아무런 구별도 없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 위기의 엄중한 시각에 이르면 국민당 진영에서 파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이런 파열은 민족 부르조아지의 동요에서 표현되며 한때 명

성을 떨치던 풍 옥상, 채 정개, 마 점산 등 항일 인물에게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본 상 반혁명에 불리하고 혁명에 유리하다. 중국의 정치, 경제의 불균형성과 또 이로 인한 혁명 발전의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열의 가능성은 더하여진다.

동지들! 이 문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서는 이상으로 다 말하였다. 이제 이 문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그것은 즉 민족 부르조아지의 일부분자들은 흔히 민중을 잘 기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인민 혁명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동안 혁명적 혹은 반(半)혁명적 자세로 출현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민중을 기만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어 민중이 그들의 불철저성과 허위적인 가면을 용이하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동맹자를 비판하며 가짜 혁명을 폭로하며 령도권을 쟁취하여야 할 공산당의 책임이 가중된다. 만일 대동란의 과정에서 민족 부르조아지가 동요하며 혁명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또한 혁명의 령도권을 쟁취할 우리 당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경감시키는 것으로 된다. 왜냐 하면 민족 부르조아지가 만일 지주, 매관과 꼭 마찬가지로 흉악한 매국 역적의 면모로 출현한다면 령도권을 쟁취할 우리 당의 임무는 취소해도 무방하며 적어도 경감시킬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동란 과정에서의 중국의 지주 계급과 부르조아지의 태

도를 전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더 지적하여야 할 또 하나의 면이 있다. 그것은 즉 지주, 매관 계급의 진영 내부라 할 지라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반식민지적 환경, 즉 여러 제국주의가 중국을 쟁탈하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투쟁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하고 있을 때에 미국의, 나아가서는 영국의 주구들은 제각기 자기 주인들의 꾸짖는 정도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자 및 그 주구와 암암리에, 나아가서는 공개적으로 싸우게 된다. 과거에 이러한 개싸움은 대단히 많았다. 이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장 개석에게 감금 당하였던 국민당 정개 호 한민^[14]도 얼마 전에 우리가 제기한 항일 구국 6대 강령의 문헌^[15]에 서명하였다는 것만 말하려 한다. 호 한민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량팡파 군벌^[16]도 소위 《잃은 땅을 도로 찾자》, 《항일과 비적 토벌^[17]을 병행하자》(장 개석의 구호는 《비적 토벌을 먼저, 항일은 후에》)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장 개석과 대립하여 나섰다. 보라, 좀 이상하지 않은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이것은 다름 아닌 큰 개와 작은 개, 배 부른 개와 주린 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 있는 싸움이며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파멸구이며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모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 이러한 파멸구, 이러한 모순은 혁명적 인민에게 소용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적 진영 내부의 온갖 싸움, 파멸구, 모순을 죄다 모아 당면의 주요한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리용하여야 한다.

이 계급 관계 문제를 총괄하여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본부에까지 침입하여 온 이 기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 각 계급 간의 호상 관계가 변화되었으며 민족 혁명 진영의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민족 반혁명 진영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중국 민족 혁명 진영 내부의 정형에 대하여 말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홍군의 정형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동지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거의 1년 반 전부터 중국의 세 주력 홍군은 진지의 대이동을 하고 있다. 작년 8월에 임 필시 동지^[18] 등이 인솔하는 제 6 군단이 하 룡 동지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19] 후 그 뒤를 이어 10월에 우리의 이동이 시작되었다^[20]. 금년 3월에 천섬 번구의 홍군도 이동을 시작하였다^[21]. 이 세 홍군은 모두 본래의 진지들을 버리고 새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대이동에 의하여 원래의 지역은 유격구로 되었다. 이동 과정에서 홍군 자체도 크게 약화되었다. 만일 진반 국면에서 이 한 면만을 본다면 적은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승리를 하였고 우리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실패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체를 들면 장 국도^[22])은 중앙 홍군^[23]이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이 옳은가?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자는 문제를 관찰할 때에 부분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전체도 보아야 한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하늘이 우물 만큼 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왜냐 하면 하늘은 우물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하늘의 어느 한 부분이 우물 만큼 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홍군은 한 면(본래의 진지를 보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하였으나 다른 한 면(장정 계획을 완수한 면)에 있어서는 승리하였고 적들은 한 면(아군의 본래의 진지를 점령한 면)에 있어서는 승리하였으나 다른 한 면(《포위 토벌》, 《추격 토벌》의 계획을 실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여야만 적절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장정을 완수하였기 때문이다.

장정, 그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인정한다. 장정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되는 일이며 장정은 선언서이며 장정은 선전대이며 장정은 파종기이다.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때로부터 3황 5제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 상에 우리의 장정과 같은 이러한 것이 있었던가? 12 개월 동안이나 공중에서는 매일과 같이 수십 대의 적기가 정찰, 폭격하며 지상에서는 수십만의 적군이 포위, 추격, 차단, 저격하며 일로에 이투다 형언할 수 없는 간난과 위협에 봉착하였지만 우리는 두 발로 11 개 성을 종횡하면서 2만여 리의 머나 먼 험로를 답과하였다. 물론, 역사 상에 우리의 장정과 같은 이러한 것이 있었던가?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장정은 또 선언서이다. 장정은 전 세계에 향하여 홍군은 영웅 호한이고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주구인 장 개석 도배들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장정은 제국주의와 장 개석의 포

위, 추격, 차단, 저격의 파탄을 선언하였다. 장정은 또 선전 대이다. 장정은 11 개 성내의 약 2억 인민에게 오직 홍군이 걷는 길만이 그들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만일 이러한 장거가 없었더라면 광범한 민중이 어떻게 세상에 홍군과 같은 그러한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속히 알 수 있었겠는가? 장정은 또 파종기이다. 장정은 11 개 성에 수많은 종자를 뿌려 놓았다. 그 종자가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어 앞으로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장정은 우리의 승리로, 적의 패배로 끝마쳤다. 누가 장정을 승리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이러한 장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 지도 기관, 그 간부, 그 당원들은 어떠한 간난 신고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혁명 전쟁에 대한 우리의 령도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기회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장정이 끝 나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직라진 일전에서 중앙 홍군과 서북 홍군의 형제적 단결에 의하여 섬감 변구에 대한 매국 역적 장 개적의 《포위 토벌》을 분쇄함으로써〔24〕 당 중앙의 전국 혁명의大本영을 서북에 두기로 한 과업을 위하여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주력 홍군은 이러한데 남방 각 성의 유격 전쟁은 어떠한가? 남방의 유격 전쟁은 어느 정도 좌절 당하였으나 소멸되지는 않았다. 많은 부분들이 현재 회복되고 있으며 장성 발전되고 있다〔25〕.

국민당 통치구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공장 안으로

부더 공장 밖으로, 경제 투쟁으로부터 정치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제와 배국 역적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은 지금 심각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그것이 폭발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농민들의 투쟁은 중단된 적이 없다. 내우 외환과 천재의 박해 하에서 농민들은 유격 전쟁, 대중 폭동, 기근 소동 등과 같은 형태의 투쟁을 광범히 일으키고 있다. 동북과 기동의 항일 유격 전쟁〔26〕은 일본 제국주의의 진공에 대하여 바야흐로 대답을 주고 있다.

학생 운동은 이미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 반드시 더 큰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이 지구적이 되려면 또 배국 역적의 계엄령과 경찰, 밀정, 학교 내의 악당, 파시스트들의 파괴와 학살 정책을 격파하려면 오직 로동자, 농민, 병사들의 투쟁과 배합되어야만 한다.

민족 부르주아지, 농촌의 부농과 소지주들의 동요성 및 그들이 항일 투쟁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소수 민족은, 특히 내몽고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여 지금 투쟁에 일떠서고 있다. 이 투쟁은 앞으로 화북 인민의 투쟁 및 서북에서의 홍군의 활동과 합류될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혁명의 진세가 국부적인 것으로부터 전국적인 것으로 전변되어 가며 불균형 상태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균형 상태에로 점차 전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

여 준다. 지금은 대변동의 전야이다. 당의 과업은 홍군의 활동과 전국의 로동자, 농민, 학생, 소부르쵸아지, 민족 부르쵸아지의 일체 활동을 합류시켜 통일적인 민족 혁명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다.

민족 통일 전선

반혁명과 혁명 두 축의 형세를 이미 관찰하였으니 우리는 당의 전술적 과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당의 기본적인 전술적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범한 민족 혁명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이다.

혁명의 형세가 개변되었을 때에는 혁명의 전술, 혁명의 령도 방법도 그에 따라 개변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의 임무는 중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임무는 중국을 독립, 자유, 령토 완정의 국가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독립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위대한 과업이다. 이를 실현하자면 외국 제국주의 및 자국의 반혁명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납게 마구 들이칠 결심을 내렸다. 국내의 토호 멸신, 배관 계급의 반혁명 세력은 아직 인민의 혁명 세력보다 훨씬 더 크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반혁명 세력을 타도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장구한 시일을 들일 각오를 하여야 하며 또 이것은 조그마한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니 강대한 력량을 축적하여야 한다. 중국과 세계의 반혁명 력량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약화되었으며 중국과 세계의 혁명 력량은 과거에 비하여 더 장성되었다. 이것은 정확한 평가이며 또한 한 면으로부터의 평가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중국과 세계의 반혁명 력량이 당분간은 혁명 력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인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확한 평가이며 또한 다른 한 면으로부터의 평가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 발전의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혁명 발전의 불균형성이 산생되었다. 혁명은 언제나 반혁명 세력이 비교적 약한 지방에서 먼저 시작되고 먼저 발전되고 먼저 승리하게 되며 반혁명 세력이 강한 지방에서는 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발전이 매우 더디다. 이것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중국 혁명이 겪어 온 정형이다.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 혁명의 전반 형세는 더욱 발전되어도 불균형 상태는 의연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불균형 상태를 대체 상 균형된 상태로 전화시키려면 아직도 오랜 시일을 경과하여야 하며 아직도 큰 힘을 들여야 하며 또한 당의 전술적 로선이 옳아야 한다. 쑨원 공산당이 평도한 혁명 전쟁^[27]이 3 년만에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평도하는 혁명 전쟁은 이미 오랜 시일을 경과하였지만 국내외의 반혁명 세력을 종국적으로 철저히 타도하려면 아직도 일정한 시일을 더 들일 각오를 하여야 한다. 과거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조급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훌륭한 혁명적 전술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처럼 언제나 좁은 테

우리 안에서 돌기만 하여서는 큰 일을 하여 내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의 일은 천천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아니다. 중국의 일은 용왕매진의 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망국의 위협은 우리에게 일 분 동안의 태만도 용허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세계나 모두 전쟁과 혁명의 새로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금후 혁명의 발전 속도도 반드시 과거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비록 이렇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혁명 전쟁은 의연히 지구전이다. 제국주의의 역량과 혁명 발전의 불균형성이 이 지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 시국은 새로운 민족 혁명의 양상이 닥쳐 왔으며 중국이 새로운 전국적 대혁명의 전야에 처하여 있는 것으로 특정 지어진다 고 우리는 말한다. 이것은 현 계단의 혁명 형세의 특성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또한 한 면의 사실이다. 그리고 또 제국주의는 여전히 강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 역량은 불균형 상태에 처하여 있다는 엄중한 결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을 타도하려면 지구전을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것은 현하 혁명 형세의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것도 사실이며 또한 다른 한 면의 사실이다. 이 두 가지 특성과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가 우리에게 정세에 적응하여 전술을 개변하며 자기 대오를 전투에 동원하는 방식을 개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현하의 시국은 우리에게 판문주의를 용감히 버리고 광범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모험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전의 시기가 닥쳐 오기 전에 그리고 결전할 만 한 역량이 없을 때에 경솔히 결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판문주의와 모험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말하려 하지 않으며 또 앞으로 큰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모험주의의 위협성에 대하여서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금후에 다시 말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일 전선 전술과 판문주의 전술은 정반대되는 두 개의 판이한 전술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만 말하려 한다.

하나는 천군만마를 집결하여 적을 포위 소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필마 단창으로 강대한 적을 상대하여 강다짐으로 싸우려는 것이다.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중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행동에 의하여 중국의 혁명 진영 및 반혁명 진영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타산하지 못 한다면 광범한 민족 혁명 통일 전선을 결성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타산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반혁명 세력, 중국의 반혁명 세력, 중국의 혁명 세력——이 몇 개 세력의 장점과 약점에 대하여 충분히 타산하지 못 한다면 광범한 민족 혁명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타산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판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통일 전선이라는 이 무기로써 수천 수백만의 민중 및 혁명의 일체 가능한 우군을 조직하고 결속하여 가장 중심적 목표인 일제 및 그 주구인 중국 배국 역적을 진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자기의 전술적 무기으로써 당면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를 쓰지 못하고 도리어 목표를 분산시켜 주요한 적을 명중하지 못 하고 부차적인 적이거나 심지어는 동맹군에게 우리의 탄환을 발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적을 가릴 줄 모르며 탄약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적을 좁고도 고립된 진지로 몰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적의 진영 내에서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난날에는 우리의 적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의 우군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의 진영과 적의 전선으로부터 우리 편으로 끌어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상 적을 도와 주는 것으로 되며 혁명을 정체, 고립, 축소, 저락시키거나 심지어는 실패의 길에 몰아 넣게 된다.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런 비판들은 모두 옳지 못 하다. 혁명의 력량은 순수하고도 순수하여야 하며 혁명의 길은 끈고도 끈아야 한다. 성경에 쓰여진 것만이 옳은 것이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전부가 영세 반혁명이다. 부농에 대하여서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 황색 공회에 대하여서는 결사적으로 싸워야만 한다. 만일 채 정개와 악수를 하게 된다면 악수하는 순간에 이 반혁명 같으니 하고 욕 한 마디는 꼭 하여야 할 것이다. 고양이 치고 기름 안 먹는 고양이가 어디 있으며 군벌 치고 반혁명이 아닌 군벌이 어디 있겠는가? 기껏 해서 3 일 간의 혁명성 밖에 없는 지식인을 받아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판문

주의는 유일한 보배이고 통일 전선은 기회주의적 전술이라는 것이다.

동지들, 도대체 통일 전선론이 옳은가 관문주의론이 옳은가? 맑스-레닌주의는 대체 어느 것을 찬성하는가? 통일 전선을 찬성하고 관문주의를 반대한다고 나는 결정적으로 대답한다. 사람 가운데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옳은 생각이 많지만 아직 천하 대사를 알지 못 하는 그들에게 천하 대사를 말길 수는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 대렬 내에 있어서의 소아병을 반대한다. 관문주의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바로 소아병이다. 혁명의 길도 세상의 모든 사물이 활동하고 있는 길과 마찬가지로 끝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굴곡적이다. 혁명과 반혁명의 전선도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변동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동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 중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기로 결심한 사실과 중국 혁명의 현시의 력량이 아직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 기본적 사실은 바로 당의 새로운 전술, 즉 광범한 통일 전선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수천 수백만의 민중을 조직하며 천군만마의 혁명 대군을 동원하는 것은 오늘날 혁명이 반혁명을 진공하는 데서 필요한 일이다. 오직 이러한 력량으로써만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을 타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직 통일 전선의 전술만이 맑스-레닌주의적 전술이다. 관문주의 전술은 고립 무원의 전술이다. 관문주의는 《고기를

깊은 못으로 쫓아 버리고 새를 수풀 속으로 쫓아 버린다》는 격으로 《수천 수백만》과 《천군만마》를 적의 편에 쫓아 버리게 되어 적의 박수 갈채를 받을 뿐이다. 실제 상 관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의 충실한 노복이다. 관문주의의 소위 《순수하다》, 《곧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게 뺨을 맞을 소리이고 일본 제국주의에게서는 칭찬을 받을 소리이다. 우리에게서 절대로 관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의 목숨을 끊어 버릴 민족 혁명 통일 전선이다.

인민 공화국^[28]

가령 과거 우리 정부가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의 동맹의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 뿐만 아니라 기타 계급 중에서 민족 혁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도 망라하여야 한다.

오늘날 이 정부의 기본 과업은 일제의 중국 병탄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구성 요소는 광범한 범위로 확대될 것이다. 민족 혁명에 대하여서만 흥미를 가지고 토지 혁명에 대하여서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부에 참가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미 제국주의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미 제국주의는 반대하지 못 하지만 일제와 그 주구들은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역

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정부의 강령은 일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이 기본 과업에 적응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의 과거의 정책을 적당히 수정하여야 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혁명 측의 특징은 단련된 공산당과 또 단련된 홍군이 존재하는 점이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사실이다. 오늘날 단련된 공산당과 홍군이 없다면 매우 큰 난관들이 조성될 것이다. 어쩌서 그런가? 그것은 중국에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이 많으며 동시에 그들의 력량이 크므로 그들은 필연코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이 통일 전선을 파괴하려 할 것이며 협박, 유인, 유세의 수단을 써서 퇴간할 것이며 매국 역적을 버리고 우리와 연합하여 일본과 싸우려 하는, 자기들보다는 약한 그런 력량을 무력으로써 강압하고 각개 격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항일 정부와 항일 군대 내부에 공산당과 홍군이라는 이런 요소가 없다면 상술한 바와 같은 형편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주요한 원인은 공산당 내의 기회주의적 로선으로 말미암아 자기 대렬(로농 운동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군대)을 확대하기에 노력하지 않고 일시적 동맹자인 국민당에만 의존한 데 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제국주의가 자기의 주구인 토호 열신, 매관 계급을 시켜 천만 개의 손을 펼쳐 먼저 장 개석을 끌어 가고 다음에 또 왕 정위를 끌어 가서 혁명이 실패로 돌아 가게 되었다. 그 당시의 혁명 통일 전선에는 중심적인 기둥이 없었고 건강한 혁명적 무장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반란이 일어 나자 공산당은 고군 작전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제국주의와 중국 반혁명의 각개 격파의 건설을 막아 낼 힘이 없었다. 그 당시 비록 하 룡, 엽 정의 부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건강한 군대가 못 되었고 또 당에서도 이 군대를 잘 병도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혁명의 중심 력량이 결여한 탓으로 혁명의 실패를 초래한 피의 교훈이다. 오늘에 와서는 사태가 달라졌다. 건강한 공산당과 건강한 홍군이 있으며 또 홍군의 근거지가 있다. 공산당과 홍군은 지금에 있어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발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일 정부와 항일 군대 내에서도 필연코 건강한 기둥으로 되어 항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와 장 개석의 파괴 정책으로 하여금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게 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일본 제국주의자와 장 개석은 반드시 다방면으로 협박, 유인, 유세의 수단을 쓸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광범한 대렬에 대하여 그 매개 부분이 다 공산당이나 홍군처럼 그렇게 공고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들의 활동 과정에 일부의 나쁜 분자들이 적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 전선으로부터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탈퇴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쁜 분자들은 적의 영향을 받아 탈퇴하겠지만 한 편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 통일 전선에 들어 올 것이다. 오직 공산당과 홍군이 존재하

고 발전하는 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 통일 전선에 있어서의 공산당과 홍군의 령도적 역할이다. 공산당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처리할 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또 동맹자와의 관계도 잘 처리할 줄 알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와 장 개석이 유세의 수단으로 혁명 대렬에 대처한다면 공산당도 얼마든지 유세의 수단으로 반혁명 대렬에 대처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 대렬 내의 나쁜 분자를 끌어 간다면 우리도 물론 그들 대렬 내의 《나쁜 분자》(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를 끌어 올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대렬 내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온다면 적의 대렬은 축소되고 우리의 대렬은 확대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두 개의 기본 세력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중간 세력은 저 편에 속하지 않으면 이 편에 속한다. 이것은 정하여 놓은 리치이다.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자와 중국을 팔아 먹으려는 장 개석의 정책은 많은 력량을 우리 편에 넘어 오도록 내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과 홍군 대렬에 직접 참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 홍군과 련합 전선을 결성하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의 전술이 판문주의가 아니라면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어째서 로농 공화국을 인민 공화국으로 개변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정부는 로동자, 농민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동시에 민족을 대표하고 있다. 원래 로농 민주 공화국이란 구호 속에는 벌써 이 뜻이 들어 있다. 왜냐 하면 로동자, 농민이 전 민족 인구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제 6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규정한 10대 정강^[29]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족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는 우리에게 이 구호를 인민 공화국으로 개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일본의 침략이 중국의 계급 관계에 변동을 일으켜 소부르조아지 뿐만 아니라 민족 부르조아지까지도 항일 투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민 공화국이 적대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대로 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주구인 토호 멸신, 매관 계급과는 정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는바 이런 자들을 인민으로 치지 않는다. 이것은 장 개석의 《중화민국 국민 정부》가 백만 장자의 리익만 대표하고 백성의 리익은 대표하지 않으며 또 백성을 《국민》으로 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중국 인구의 80~90%가 로동자, 농민이기 때문에 인민 공화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압박을 물리치고 중국을 자유 독립의 나라로 되게 하며 지주의 억압을 물리치고 중국을 반봉건적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로동자, 농민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기타의 인민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로동자, 농민 및 기타 인민들의 리익 전체를 총합한 것이 바로 중화 민족의 리익이다. 매관 계

급과 지주 계급도 비록 중국 땅에 살고는 있으나 그들은 민족적 이익을 돌보지 않으며 그들의 이익은 다수인의 이익과 충돌된다. 우리는 단지 이런 소수인과 리탈되었고 단지 이런 소수인과 충돌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동 계급의 이익과 민족 부르조아지의 이익 간에도 역시 충돌이 있다. 민족 혁명의 전위대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권리를 주어 로동 계급이 충분한 역량으로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매국 역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민족 혁명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 부르조아지가 반제 통일 전선에 참가한다면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조아지는 공동한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된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있어서 인민 공화국은 비제국주의적, 비봉진주의적인 사유 재산을 폐지하지 않고 민족 부르조아지의 상공업을 몰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공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어떤 민족 자본가든지 그가 제국주의와 중국의 매국 역적을 찬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한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로자 간의 투쟁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인민 공화국의 로동 법령은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지만 결코 민족 자본가의 돈'벌이를 반대하거나 민족 상공업의 발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발전이 제국주의에 불리하고 중국 인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각 계층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인민 공화국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기타 계급들을 용납한다.

이런 사람들을 인민 공화국 정부에 참가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위험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은 이 공화국의 기본 균중이다. 도시 소부르조아지, 지식인 그리고 반제, 반봉건 강령을 지지하는 기타의 사람들에게 인민 공화국 정부 내에서 말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하여 기본 균중인 노동자, 농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강령은 기본 균중인 노동자,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 기본 균중인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인민 공화국 정부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 내에서의 공산당의 령도와 활동으로 하여 이런 사람들을 참가시켜도 위험하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다. 중국 혁명은 현 단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적 성격의 혁명이 아니라 의연히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성격의 혁명이다. 이 점은 아주 명백한 것이다. 반혁명적 트로츠키 분자들^[30]만이 중국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미 완성하였으므로 혁명을 더한다면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고 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혁명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성격의 혁명이었다. 그 혁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패 당하고 말았다. 192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령도하여 온 토지 혁명도 혁명의 임무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성격의 혁명이다. 금후 상당히 오래 동안 혁명은 여전히 이룰 것이다.

혁명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노동자, 농민과 도시 소부르조아지이며 지금에 와서는 민족 부르조아지가 하나 더 첨가될 가능성이 있다.

혁명의 전환은 장래의 일이다. 장차 민주주의 혁명은 필연코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될 것이다. 어느 때에 가서 전환될 것인가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상당히 긴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구비되기 전에, 전국의 절대 다수 인민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때가 오기 전에 경솔히 전환을 운운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면서 단시일 내에 전환되기를 희망한다면, 과거의 일부 동지들처럼 민주주의 혁명이 중요한 성들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혁명의 전환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그들이 중국이 어떠한 정치 경제적 형편에 처하여 있는 나라인가를 알지 못하며 또 중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는 로씨야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고 더 오랜 시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원조

끝으로 중국 혁명과 세계 혁명과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인급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라는 이 괴물이 세상에 나타난 후부터 세상'일들은 한데 얽히어 갈라 놓을래야 갈라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중화 민족은 자기의 원수들과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울 기개를 가지고 있으며 자력 갱생의 기초 위에서 과거의 잃은 것들을 다시 찾을 결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제 민족의 대렬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국제적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다, 국제적 원조는 오늘날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의 혁명 투쟁에든지 다 필요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춘추 시대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었다.》^[31]고 말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에게는 더구나 의로운 전쟁이 없으며 오직 피압박 민족과 피압박 계급에게만 의로운 전쟁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인민이 결기하여 압박자를 반대하는 일체 전쟁은 모두 의로운 전쟁이다.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은 의로운 전쟁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의 구라파 제국이 인민의 혁명은 의로운 전쟁이다. 중국의 반아편 전쟁^[32], 태평 천국 전쟁^[33], 의화단 전쟁^[34], 신해 혁명 전쟁^[35], 1926년부터 1927년까지의 북벌 전쟁, 1927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혁명 전쟁, 오늘의 항일 및 매국 역적 토벌 전쟁은 모두 의로운 전쟁이다. 현하 전 중국적 항일의 고조와 전 세계적 반파쇼의 고조 속에서 의로운 전쟁은 전 중국에, 전 세계에 파급될 것이다. 무릇 의로운 전쟁은 서로 원조하여야 하며 의롭지 못한 전쟁은 그것을 의로운 전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닌주의적 로선이다[36]. 우리의 항일 전쟁은 국제적으로 인민들의 원조, 우선 쓰련 인민의 원조가 필요하다. 우리와 그들은 절실한 리해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꼭 원조하여 줄 것이다. 지난 한동안 중국의 혁명력량은 장 개석 때문에 국제 혁명력량과 격리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고립되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정세는 변화되었으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 항일 전쟁과 중국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의 하나이다.

주 해

[1] 원 세계는 쟁조 말년의 북양 군벌의 두목이다. 1911년의 혁명이 쟁조를 전복한 후 원 세계는 반혁명 무장력과 제국주의의 지지에 의지하여, 그리고 당시에 혁명을 명도하고 있던 부르주아지의 타협성을 리용하여 송통의 직위를 찬탈하고 대지주, 대대관 계급을 대표하는 첫 북양 군벌 정부를 조직하였다. 1915년에 원 세계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지를 얻어 황제로 되기 위하여 권중국을 독점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일본의 21 개조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 해 12월에 운남성에서 원 세계가 황제로 되는 것을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으며 뒤따라 각지에서 이에 호응하였다. 원 세계는 1916년 6월에 북경에서 죽었다.

[2] 1915년 1월 18일에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원 세계 정부에 21 개조의 요구를 제출하였고 5월 7일에는 48 시간 내에 회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었다. 이 요구의 전문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첫 부분은 독일이 산둥성에서 탁탈한 권리를 일본에 양도하는 동시에 산둥성에서의 일본의 새로운 권리, 남만주와 동부 몽고에 있어서의 일본의 토지 조차권 혹은 소유권, 거류권, 상공업 경영권, 철도 부설 및 광산 채굴 독점권을 더 줄 것과 한야평 공사물중

일 공동 경영으로 변경할 것, 언해의 량만 도서를 제 3 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섯째 부분에는 중국에 대한 정치, 재정, 경찰, 군사적 통치 대권을 탈취하려는 요구와 호북, 감시, 광동 간의 중요 철도의 부설권을 탈취하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원 세계는 다섯째 부분에 대하여 《후일 다시 협의하자》고 한 외에 이 모든 조항들을 전부 승인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민의 일치한 반대로 하여 일본의 요구는 달성되지 못 하였다.

[3] 1921년 11월에 미국 정부는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지그, 화란, 브라주갈, 일본 등 8 개국 대표를 소집하고 거기에 미국 대표까지 하여 9 개국 회의의를 워싱턴에서 열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일본이 극동에서의 패권을 쟁탈하는 회의였다. 이듬해 2월 6일에 소위 《중국에서의 각국 간의 기회 균등》, 《중국의 문호 개방》이라는 미국의 의견에 근거하여 9 개국 공약을 체결하였다. 9 개국 공약의 작용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실제 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에게 중국 독점을 위한 준비를 하여 주는 국면을 조성하여 일본의 중국 독점 계획을 파탄시키려는 것이었다.

[4] 1931년 9월 18일 중국 동북 경내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소위 《관동군》이 심양을 진공하였다. 심양 및 동북의 기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군대(동북군)가 《결대로 저항하지 말라》는 장 개석의 명령을 집행하였으므로 일본군은 료닝, 길림, 흑룡강 등 심을 아주 빨리 점령하게 되었다. 중국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 침략적 행동을 습판 상 《9. 18 사변》이라고 한다.

[5] 동북 4 성이던 당시 중국 동북부의 료닝, 길림, 흑룡강, 일하 등 4 개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금의 료닝, 길림, 흑룡강 등 3 개 성 및 하북성 동북부 만리 장성 이북과 내몽고 자치구 동부 지역이다. 1931년에 9. 18 사변이 발생되자 일본 침략군은 료닝, 길림, 흑룡강 3 개 성을 점령하였으며 1933년에 또 열하성을 침점하였다.

[6] 1935년 11월 25일 일본은 국민당 내의 민족 반역자 은 여경을 사후하여 하북성 동부의 22 개 현에 《기동 방공 자치 정부》라는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것이 《기동 사변》이다.

[7] 외교 담판이란 당시 장 개석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진행된 소위 《히로다 3 원칙》에 관한 담판을 가리켜 말한다. 《히로다 3 원칙》은 당시의 일본 외무 대신 히로다 고가가 제기한 소위 《중국에 대한 3 원칙》이다. 그 내용은 첫째, 중국은 일체의 배일 운동을 취세할 것, 둘째, 중, 일, 《만》의 경제적 협조를 수월할 것, 셋째, 중, 일이 공동으로 방공(防共)할 것 등이다. 1936년 1월 21일

히로다는 일본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제국이 제기한 3 원칙을 이미 승인하였다.》고 하였다.

[8] 1935년에 전국 인민의 애국 운동은 세로이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북경의 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 제일 먼저 12월 9일에 애국적 시위를 단행하면서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하게 외적에 대항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국민당 정부와 일본 침략자가 연합하여 실시하여 온, 장기간에 걸친 공포 통치를 끊고 나선 이 운동은 즉시로 전국 인민의 호응을 받았다. 이 운동을 사람들은 《12.9 운동》이라고 한다. 전국 각 계급 간의 관계는 이로부터 극히 뚜렷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일체 애국자들이 다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국시로 되었으며 장 개석 정부의 배국 정책은 극도로 고립되었다.

[9] 모택동 동지가 이 보고를 할 당시에 장 개석은 동복을 팔아 먹던 그 본세 대로 화복을 팔아 먹고 있었으며 홍군에 대한 작전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장 개석이란 이 배국 역적의 정체를 극력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에는 아직 장 개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택동 동지는 이 보고에서 이미 각 제국주의 간의 모순에 의하여 중국의 지주, 패관 계급 진영 내에 분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후에 화북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진공이 영, 미 제국주의의 리익과 엄중한 충돌이 생기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영, 미 제국주의의 리익과 밀접한 면제를 가지고 있는 장 개석 도당이 자기 상전의 명령에 의하여 일본에 대한 태도를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장 개석을 꾀박하여 항일어로 전향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1936년 5월 홍군은 산서성으로부터 섬서성 북부로 돌아와 직접 남경의 국민당 정부에 향하여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해 8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또 량당이 공동으로 반일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할 것과 대표를 파견하여 담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민당 중앙에 보내었다. 그러나 장 개석은 여전히 공산당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에 서안에서 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할 것을 주장하는 국민당 내부의 군인에게 감금 당하게 되자 그 때에야 장 개석은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을 준비하자는 공산당의 요구를 하는 수 없이 께수하였다.

[10] 세 정개는 당시 국민당 제 19 로군의 한 군장으로서 19 로군의 부총지휘를 겸하였으며 진 명추, 장 광내와 함께 19 로군의 책임자로 있었다. 19

로군은 본래 강서성에서 홍군과 싸우다가 9.18 사변 후에 상해로 이동하였다. 당시 상해와 전국 인민의 항일의 고조는 19 로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932년 1월 28일 밤 일본 해군 특전대가 상해를 공격하자 19 로군은 상해 인민과 함께 항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장 개석과 왕 정위가 팔아 먹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 당하고 말았다. 그 후 19 로군은 또다시 장 개석의 명령에 의하여 복건성에 가서 홍군과 싸우게 되었다. 이 때 19 로군의 지도 인분들은 홍군과 싸우는 것은 아무런 쓸로도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1933년 11월에 19 로군의 장명준은 국민당 내의 리 제심 등의 일부 세력과 연합하여 장 개석과의 결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은 복건성에서 《중화 공화국 인민 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홍군과 항일 반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19 로군과 복건 인민 정부는 장 개석의 군사적 압력에 의하여 실패 당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세 정계 등은 공산당과 합작하는 입장에도 점차 돌아 서게 되었다.

[11] 1926년 9월 북벌 혁명군이 무한을 쳐 들어 갔을 때 풍 옥상은 자기의 부대를 명출하여 가지고 수원성(지금은 내몽고 자치구에 속하여 있다)에서 북양 군벌 계통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혁명에 참가하였다. 1927년 초에 풍 옥상 부대는 섬서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벌군과 함께 하남성을 진공하였다. 1927년에 장 개석과 왕 정위가 배반한 후 풍 옥상도 공산당을 반대하는 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장 개석 도당파는 리패 승들이 그냥 손주되었다. 9.18 사변 후 풍 옥상은 항일을 찬동하고 1933년 5월에 공산당과 합작하여 장가구에서 민중 항일 동맹군을 조직하였다. 장 개석 세력과 일본 침략군의 이중 압력으로 말미암아 이 항일 봉기는 8월에 이르러 실패되고 말았다. 풍 옥상은 그의 만년에 공산당과 합작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였다.

[12] 국민당 제 26 로군은 장 개석의 파전에 의하여 강서성에 가서 홍군을 진공하였다. 1931년 12월에 제 26 로군의 1만여 명은 조 박생, 동진당 등 동지들의 지도 하에서 중국 공산당의 항일 호소에 호응하여 강서성 영도에서 의거하여 홍군에 참가하였다.

[13] 마 점산은 본래 국민당 동북군의 군관이며 그의 부대는 흑룡강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9.18 사변 후 일본 침략군이 토녕성으로부터 흑룡강성으로 침입할 때에 마 점산 부대는 이에 저항하였었다.

[14] 호 한린은 국민당의 유명한 정계으로서 일찍이 손 중산의 중국 공산당과의 합작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는 1927년에 장 개석이 《4.12》 반혁명 정변을 일으킬 당시의 공모자이다. 그 후 장 개석과 권리 다툼을 하다가 장 개석에게 감금 당하였다. 9.18 사변 후 석방되어 남경으로부터 광수에 가서 량팡과 군

별 세력과 장 개석 남경 정부 간의 장기적 대립을 재동하였다.

[15] 《항일 구국 6대 강령》 즉 《중화 인민 대일 작전 기본 강령》은 1934년에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것으로서 송 경명 등의 서명을 거쳐 공포되었다. 이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전체 독해공군을 대일 작전에 총동원할 것, (2) 전체 인민을 총동원할 것, (3) 전체 인민을 중무장시킬 것, (4)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에 있는 재산과 제국 역적의 재산을 몰수하여 항일 전쟁의 비용으로 충당할 것, (5)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계, 실업계의 대표가 선거하는 전 중국 민족 무장 자위 위원회를 성립할 것, (6) 일본 제국주의의 일체 적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우군으로 삼으며 선의적 중립을 지키는 일체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맺을 것.

[16] 양광과 군벌이란 광둥성의 진 제당, 광서성의 리 종인, 백 승회 등을 가리켜 말한다.

[17] 장 개석 도당은 혁명 인민을 《비적》이라 불렀고 자기 자신들의 군대로서 혁명 인민을 진공하고 도살하는 행위들 《비적 도벌》이라고 불렀다.

[18] 임 필시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창건 초기부터의 당원이며 조직 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다. 1927년 중국 공산당 제 5 차 전국 대표 대회 후부터는 당 대회에서 번마다 중앙 위원으로 피선되었으며 1931년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에서는 중앙 정치국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33년에는 상공 변구 성당 위원회 서기 겸 홍군 제 6 군단 정치 위원으로 있었다. 홍군 제 6 군단과 홍군 제 2 군단이 회합한 후에는 제 2 군단과 제 6 군단으로 조직된 제 2 방면군의 정치 위원으로 있었다. 항일 전쟁 초기에는 팔로군 총정치부 주임으로 있었다. 1940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 서기처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1945년 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제 1 차 전원 회의에서 중앙 정치국 위원과 중앙 서기처 서기로 피선되었다. 1950년 10월 27일에 북경에서 서거하였다.

[19] 중국 로농 홍군 제 6 군단은 본래 상공 변구 근거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1934년 8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포위를 돌파하고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해 10월에 귀주성 동부에서 하 롱 동지가 병솔하는 홍군 제 2 군단과 회합하여 홍군 제 2 방면군으로 편성된 후 상악천금 혁명 근거지를 개척하였다.

[20] 1934년 10월 중국 로농 홍군 제 1, 제 3, 제 5 군단(즉 홍군 제 1 방면군이며 중앙 홍군이라고도 한다)은 복건성 서부의 장정, 녜화와 강서성 남부의 서금, 우도 등지로부터 출발하여 전략적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홍군은 복건, 강서, 광둥, 호남, 광서, 귀주, 사천, 운남, 서강(지금은 사천성과 서장 자

지구에 나뉘어 귀속되어 있다), 감숙, 섬서 등 11 개 성을 경유하는 도중에 사시 장철 눈이 쌓여 있는 고산을 넘고 인적이 드문 초원 지대를 지나며 적의 무수한 포위, 추격, 차단, 저격을 격퇴하고 갖은 간난 시고를 다 겪으면서 2만 5,000 리(1만 2,500 키로 메터)를 계속 행군하여 마침내 1935년 10월에 섬서성 북부의 혁명 근거지에 승리적으로 도착하였다.

[21] 천섬 변구의 홍군이던 추 중군 모농 홍군 제 4 방면군이다. 1935년 3월 제 4 방면군은 천섬 변구 근거지를 떠나 사천, 서강 두 성의 절경 지대로 이동하였다. 그 해 6월 사천성 서부의 무공 지방에서 홍군 제 1 방면군과 회합하여 좌로군과 우로군을 조직하여 가지고 복상하였다. 그 해 9월에 송반 부근의 모아개 일대 지구에 도달한 후 제 4 방면군에서 사임하고 있던 장 국도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고 좌로군을 맹솔하여 제 마음 대로 남하함으로써 홍군을 분열시켰다. 1936년 6월에 상악친금 변구에서 포위돌출파하고 호남, 귀주, 운남 등 성을 거쳐 서강성 잔전에 도달한 홍군 제 2 방면군은 제 4 방면군과 회합하였다. 이 때에 제 4 방면군의 동지들은 장 국도의 수장을 반대하고 제 2 방면군과 함께 북으로 이동하였다. 그 해 10월에 제 2 방면군 전부와 제 4 방면군의 일부는 섬서성 북부에 도달하여 홍군 제 1 방면군과 승리적으로 회사하였다.

[22] 장 국도는 중국 혁명의 반역자이다. 일찌기 투기적으로 혁명에 투신하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는 당내에서 아주 많은 오유를 범하였으며 그의 죄악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으로는 1935년에 홍군의 복상을 반대하고 홍군을 사천, 서강 간의 소수 민족 지역으로 퇴각시킬 것을 주장한 패배주의와 청산주의이며 또 공개적으로 반당, 반중앙적인 배반 활동을 진행하며 가짜 중앙을 조직하여 가지고 당과 홍군의 통일을 파괴하여 홍군 제 4 방면군에 증대한 손실을 준 점이다. 홍군 제 4 방면군과 그의 광범한 간부들은 모택동 동지와 당 중앙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당 중앙의 올바른 명도 하에로 신속히 돌아 오게 되었으며 또 그 후의 투쟁 과정에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장 국도 자신은 끝끝내 고치지 못하고 1938년 봄에 고향으로 섬감녕 변구에서 도망하여 국민당 특무 집단에 가담하고 말았다.

[23] 중앙 홍군이던 본래 강서, 복건 지역에서 발전하였고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직접 명도한 홍군 추 홍군 제 1 방면군을 가리켜 말한다.

[24] 1935년 7월 국민당군은 섬감 혁명 근거지에 대한 제 3 차 《포위 로벌》을 시작하였다. 섬서성 북부의 홍군 제 26 군은 먼저 동부 전선에서 적 2 개 여를 격파하고 적을 황하 동쪽으로 쫓아 버렸다. 그 해 9월에 본래 악예환

근거지에 있던 홍군 제 25 군이 심서성 남부와 감숙성 동부를 지나 심서성 북부에 도달하여 심서성 북부의 홍군과 회합한 후 홍군 제 15 군단을 편성하였다. 홍군 제 15 군단은 감천의 토산 권역에서 적군 제 110 사의 대부분을 소멸하고 사장을 격살하였으며 얼마 후에 또 적군 제 107 사의 4 개 영을 감천의 유령묘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적은 다시 진공을 조직하여 가지고 동 영빈(동북군의 한 군장)의 인솔 하에 5 개 사가 두 갈래 길로 진공하여 왔다. 동쪽의 1 개 사는 탁천, 부현의 큰길을 따라 북상하고 서쪽의 4 개 사는 감숙의 경양, 합수로부터 호도하를 따라 심서성 북부의 부현 방면으로 진진하였다. 그 해 10월에 중앙 홍군이 심서성 북부에 도달하였다. 11월에 중앙 홍군과 홍군 제 15 군단은 협동 작전으로 적군 제 109 사를 부현 서남부의 적라진에서 소멸하였고 또 수격전에서 적군 제 106 사의 1 개 탄을 흑수사에서 소멸하였다. 이리 하여 심감 근거지에 대한 적의 제 3 차 《포위 도벌》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25] 중국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군 주력이 1934~1935년 사이에 이동할 때 일부분의 유격 부대를 남겨 두었다. 이 유격 부대들은 8 개 성의 14 개 지구에서 유격 전쟁을 진지하였다. 그 지구들은 즉 절강성 남부 지구, 복건성 북부 지구, 복건성 동부 지구, 복건성 남부 지구, 복건성 서부 지구, 강서성 동북부 지구, 복건-강서 접경 지구, 광둥-강서 접경 지구, 호남성 남부 지구, 호남-강서 접경 지구, 호남-호북-강서 접경 지구, 호북-하남-안휘 접경 지구, 하남성 남부의 동태산 지구와 광둥성의 강에 지구이다.

[26] 1931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을 강점한 후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무장 항쟁을 호소하는 한편 항일 유격대와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였으며 각종 형태의 항일 의용군을 원조하였다. 1934년 후 일제 동북 항일 부대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 통일적인 동북 항일 연군으로 편성되어 저명한 공산당원 양 정우를 총지휘로 하고 동북의 항일 유격 전쟁을 장기간 진지하였다. 기동의 항일 유격 전쟁이던 1935년 5월에 하북성 동부에서 발생된 농민들의 항일 봉기를 가리켜 말한다.

[27] 쓰촨 공산당이 명도한 혁명 전쟁이던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쓰촨 인민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뽀스카 등 제국주의 국가의 무력 간섭을 반대하며 백위군의 반란을 평정한 전쟁을 가리켜 말한다.

[28] 모택동 동지가 여기에서 제기한 인민 공화국 정권의 성격 및 그 제반 정책은 항일 전쟁 기간에 공산당의 명도 하에 있는 인민 해방구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적후의 싸움터에서 인민을 명도하여 일본 침략자에 대한 승리적인 전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에 일어

난 제 3 차 국내 혁명 전쟁 과정에서 인민 해방구는 전쟁의 진전에 따라 권 중 국어로 점차 확장되어 마침내 통일적인 중화 인민 공화국이 실현되었다. 이 리 하여 인민 공화국에 관한 보 태동 동지의 리상은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 었다.

(29) 1928년 7월에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 6 차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정강을 규정하였다. 1.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할 것, 2. 외국 자본의 기 업소와 은행을 몰수할 것, 3. 중국을 통일하고 민족 자결권을 승인할 것, 4. 국민당 군벌 정부를 전복할 것, 5. 모농병 대표 회의 정부를 수립할 것, 6. 8 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임금 인상, 실업자의 구제, 사회 보험 등을 실시할 것, 7. 일제 지주 계급의 토지를 몰수하며 땅을 농민에게 돌릴 것, 8. 병사의 생 활을 개선하며 병사에게 토지와 직업을 줄 것, 9. 일제 가렴 잡세를 폐지하고 통일적인 부진세를 실시할 것, 10. 권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및 소련과 연합 할 것.

(30) 트로츠키 집단은 본래 로씨야 노동 운동 중에서 베틀주의를 반대하 는 분파였으나 그 후 완전한 반혁명적 도당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 반역자 집단의 변화 과정에 관하여 쓰달린 동지는 1937년에 열린 전 면공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거 7~ 8 년 간의 트로츠키주의는 노동 계급 내의 그러한 정치적 분파의 하나였다. 하 긴 그것이 반베틀주의적인, 따라서 극히 그릇된 정치적 분파이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정치적 분파였다.…… 지금의 트로츠키주의는 노동 계급 내의 정치적 분 파인 것이 아니라 해독 분자, 파피 분자, 탐정, 간첩, 암해 분자의 무원칙하며 무사상적인 도당이며 외국 첩보 기관에 고용되어 행동하는 노동 계급의 흉악 한 원수들의 도당이다》. 1927년에 중국 혁명이 실패를 당한 후 중국에도 소수 의 트로츠키 분자가 실현되었다. 그들은 진 독수 등 반역자와 야합하여 1929년 에 반혁명적인 소그루파를 형성하고, 국민당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미 완수하였다는 등의 반혁명적인 선전을 하면서 완전히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반 인민적인 비열한 도구로 되었다. 중국의 트로츠키 분자들은 공공연하게 국민당 의 특무 기관에 가담하였다. 9. 18 사변 후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점 령을 막지 말라》는 비적 트로츠키의 지령을 받고 일본 특무 기관과 합작하여 일본 침략자로부터 기밀비를 받아 먹으면서 일본 침략자에게 유리한 각종 활동 에 종사하였다.

(31) 《춘추 시대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었다》는 말은 《명자》에서 나온 말이다. 춘추 시대(기원 전 722년~기원 전 481년)에 중국의 많은 봉건 제후들이 권

리의 생탈을 목적으로 하는 호상간의 전쟁을 부단히 진행하였으므로 명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32] 18세기 말엽부터의 수십 년 간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날로 더 많이 수출하였다. 영국의 이 아편 수출은 중국 인민에게 엄청난 해독을 주었으며 중국의 은화를 대량적으로 막탈하여 갔다. 아편 무역은 중국의 반대를 받았다. 1840년에 영국 정부는 통상 보호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을 침략하였다. 중국 군대는 톈 쉰서의 지도 하에 이에 저항하는 전쟁을 진행하였다. 광주의 인민들은 자발적으로 《평영단》을 조직하여 영국 침략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842년에 부패한 청조 정부는 영국 침략자와 《남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배상금을 지불하며 항항을 할양하는 외에 또 상해, 복주, 하문, Ningpo, 광주를 통상항으로 개방하며 중국에 수입되는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중국과 영국 쌍방이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33] 태평 천국 전쟁은 19세기 중엽에 청조의 봉건적 통치와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여 결기한 농민의 혁명 전쟁이다. 1851년 1월에 이 혁명의 지도자인 홍 수전, 양 수청 등은 광서성 계평현 금전촌에서 봉기하여 《태평 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1852년에 광서를 떠나 호남, 호북을 점령하였다. 1853년에 강서, 안휘를 거쳐 남경을 함락하였다. 그 후 남경으로부터 일부의 병력을 북으로 파견하여 천진 부근까지 쳐 들어 갔다. 그러나 태평군은 자기가 점령한 지방에 공고한 근거지를 창설하지 않았고 또 남경에다 서울을 정한 후 그들의 지도층이 집치, 군사적으로 허다한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에 청조의 반혁명 군대와 영국, 미국, 프랑스 침략자들의 연합 진공에 저항하여 내지 못하고 1864년에 실패 당하고 말았다.

[34] 의화단 전쟁은 1900년에 중국 북부에서 일어 난, 제국주의들 반대한 무장 투쟁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광범한 농민, 수공업자 및 기타 대중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종교 미신 관계를 통하여 서로 연계를 지으면서 비밀 결사의 로대 우에서 조직되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지리 등 여덟 개 제국주의 국가의 연합 침략군과 영웅하게 투쟁하였다. 8개국의 연합 침략군은 천진과 북경을 점령한 후 이 운동을 극히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35]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의 주해 3을 보라.

[36] 베닌의 《프로에라리아 혁명의 전쟁 강행》과 《소련 공산당(불셰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6 장 제 3 절을 참조하라.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1936년 12월)

제 1 장 전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 1 절 전쟁의 법칙은 발전한다

전쟁의 법칙——이것은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혁명 전쟁의 법칙——이것은 혁명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중국 혁명 전쟁의 법칙——이것은 중국 혁명 전쟁을 지

* 모택동 동지의 이 저작은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의 경험을 총화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서 당시 심서성 복부에 실려져 있던 홍군 대학에서 이 제목으로 강연한 적이 있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저작은 5 장까지 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전략적 진공, 정치 사업 및 기타는 서안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쓸 시간이 없어서 각필하였다고 한다. 이 저작은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당내에서 벌어진 일대 논쟁의 결과로서 그것은 한 모선이 다른 한 모선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모선 상

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전쟁은 혁명 전쟁이다. 우리의 혁명 전쟁은 중국이라는 이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 전쟁의 법칙을 연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수한 혁명 전쟁의 법칙도 연구하여야 하며 또한 더욱 특수한 중국 혁명 전쟁의 법칙도 연구하여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정형, 그 일의 성격, 그 일과 다른 일과의 연관성을 모르면 그 일의 법칙을 알 수 없고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잘 할 수 없다.

전쟁——이것은 사유 재산과 계급이 산생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계급과 계급,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 사이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최고의 투쟁 형태이다. 전쟁의 정형, 그 성격, 그것과 다른 일과의 연관성을 모르면 전쟁의 법칙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전쟁을 지도할 것인가를 알 수 없으며 전쟁에서 승

의 논쟁에 대하여 1935년 1월 당 중앙의 회의는 모택동 동지의 건의를 긍정하고 그릇된 토션의 견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1935년 10월에 중앙이 섬서성 북부로 옮긴 후 얼마 안 되어 모택동 동지는 12월에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정치 모션과 관련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듬해 즉 1936년에는 또 이 논쟁을 씬으로써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에 관한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였다.

리할 수 없다.

혁명 전쟁——혁명적 계급 전쟁과 혁명적 민족 전쟁은 일반적 전쟁의 정형과 성격 이외에 또 그의 특수한 정형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전쟁의 법칙 이외에 또 그의 특수한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정형과 성격을 모르고 그의 특수한 법칙들을 모르면 혁명 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혁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중국 혁명 전쟁——국내 전쟁이거나 민족 전쟁이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은 중국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일반적 전쟁이나 일반적 혁명 전쟁에 비하여 또 그의 특수한 정형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전쟁 및 일반적 혁명 전쟁의 법칙 이외에 또 그의 특수한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면 중국 혁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 전쟁의 법칙을 연구하여야 하고 또 혁명 전쟁의 법칙도 연구하여야 하며 끝으로 중국 혁명 전쟁의 법칙도 연구하여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를 벌써 논박하였다. 그들은 일반적 전쟁의 법칙만 연구하면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동적 중국 정부나 반동적 중국 군사 학교에서 출판한 군사 교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범은 일반적 전쟁의 법칙에 지나지 않고 또 모두가 외국의 것을 베껴 온 것인 만큼 만일 그 형식과 내용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그 대로 베껴다가 쓴다면

발을 짚아 신에 맞추는 격으로 되어 패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의 론거는 과거에 피를 흘려 얻은 것을 어찌서 쓸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피를 흘려 얻은 경험을 존중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 얻은 경험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다른 일부 사람들도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도 벌써 문박하였다. 그들은 로씨야 혁명 전쟁의 경험만 연구하면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쓰련의 국내 전쟁의 지도 법칙과 쓰련의 군사 기관에서 반포한 군사 교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쓰련의 법칙이나 교범은 쓰련의 국내 전쟁과 쓰련 붉은 군대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만일 우리가 아무 변경도 없이 그 대로 베껴다가 쓴다면 그 역시 발을 짚아 신에 맞추는 격으로 되어 패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의 론거는 쓰련의 전쟁도 혁명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도 혁명 전쟁이며 뿐만 아니라 쓰련은 승리하였는데 거기에 또 무슨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쓰련의 전쟁 경험은 가장 근대적인 혁명 전쟁의 경험이고 또 레닌, 스탈린의 지도 하에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존중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중국 혁명과 중국 홍군은 또 자기의 허다한 특수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혁명 전쟁의 경험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도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도 벌써 문박하였다. 그들은 1926~

1927년 간의 북벌 전쟁의 경험이 가장 좋은 것이니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벌 전쟁의 장구 적진 및 대도시 탈취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북벌 전쟁의 경험도 배워야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전쟁 정황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옮겨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북벌 전쟁의 경험 중에서 현 정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취하여야 하며 또 현 정세에 근거하여 우리들 자신의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정황이 다름에 따라 전쟁의 지도 법칙이 달라진다. 즉 시간, 지역, 성격이 다름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적 조건으로 본다면 전쟁 및 전쟁 지도 법칙은 발전하는바 매개의 역사적 단계에는 각각 그 역사적 단계의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전쟁 법칙도 역시 각각 그 특성이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다른 단계에 옮겨다 써서는 안 된다. 전쟁의 성격으로 본다면 혁명 전쟁과 반혁명 전쟁은 각각 그 상이한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전쟁 법칙도 각각 그 특성이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서로 옮겨다 써서는 안 된다. 지역적 조건으로 본다면 각 나라나 각 민족, 특히 큰 나라나 큰 민족은 다 그 자체의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전쟁 법칙도 각각 그 자체의 특성이 있으므로 역시 기계적으로 옮겨다 써서는 안 된다. 매개의 상이한 역사적 단계, 매개의 상이한 성격, 상이한 지역 및 민족의 전쟁의 지도 법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특성에 착안하고 그 발전에 착안하여야 하며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 뿐만도 아니다. 한 지휘원을 놓고 말하면 처음에 소병단을 지휘할 줄 알던 것이 후에 대병단도 지휘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진보하였고 발전한 것이다. 한 지방에서 작전하는 것과 여러 지방에서 작전하는 것도 역시 다르다. 처음에는 어떤 익숙한 지방에서 작전할 줄 알던 것이 후에는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작전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 지휘원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 진보하였고 발전한 것이다. 적아 쌍방의 기술, 전술, 전략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한 전쟁에 있어서도 각 단계마다 정형이 서로 다르다. 낮은 단계에서 지휘할 줄 알던 것이 높은 단계에 가서도 지휘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 지휘원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진보하였고 발전한 것이다. 일정한 병단, 일정한 지방 및 전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밖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장구나 바늘'구멍 만 한 소견에 만족하고 그 이상 더 진보하지 못 한다면 그는 혁명에 대하여 비록 한 지방에서나 한때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놀 수 있으나 큰 역할은 놀 수 없다. 우리에게서 큰 역할을 놀 전쟁 지도자가 요구된다. 모든 전쟁 지도 범칙은 력사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며 전쟁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고정 불변한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절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소멸하는 데 있다

전쟁——인류의 호상 참살을 의미하는 이 피물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결국 소멸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소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그것은 전쟁으로써 전쟁을 반대하며 혁명 전쟁으로써 반혁명 전쟁을 반대하며 민족 혁명 전쟁으로써 민족 반혁명 전쟁을 반대하며 계급적 혁명 전쟁으로써 계급적 반혁명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력사 상에는 오직 두 가지 전쟁, 즉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고 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한다. 모든 반혁명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며 모든 혁명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인류의 전쟁 생활의 시대는 우리의 손에 의하여 종결될 것이며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의심할 바 없이 최후의 전쟁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전쟁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가장 크고 가장 잔혹한 전쟁의 일부분일 것이다. 가장 크고 가장 잔혹한 부정의의 반혁명 전쟁이 우리의 머리 우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정의의 전쟁의 가치를 추켜 들지 않는다면 인류의 대다수가 참혹한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정의의 전쟁의 기치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치이며 중국의 정의의 전쟁의 기치는 중국을 구원하는 기치이다. 인류의 대다수와 중국 사람의 대다수가 진행하는 전쟁은 의심할 바 없이 정의의 전쟁이며 인류를 구원하며 중국을 구원하는 지고 지상의 영예로운 사업이며 세계 력사를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키는 교량이다. 인류 사회가 계급의 소멸, 국가의 소멸에까지 진보한다면 그 때에는 아무런 전쟁도 없을 것이다. 반혁명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혁명 전쟁도 없어질 것이며 부정의의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정의의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인류의 항구한 평화의 시대이다. 혁명 전쟁의 법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소멸하려는 우리의 지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와 일체 착취 계급을 갈라 놓는 분계선이다.

제 3 절 전략 문제란 전쟁의 전반 국면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의 전반 국면이 있다. 세계가 전쟁의 전반 국면으로 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전쟁의 전반 국면으로 될 수도 있으며 독립적 유격구, 큰 독립적 작전 방면도 전쟁의 전반 국면으로 될 수 있다. 무릇 각 방면과 각 단계를 고려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모두 전쟁의 전반 국면이다.

전반 국면성을 띤 전쟁 지도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전략학의 과제이다. 국부성을 띤 전쟁 지도 법칙을 연구하는 것은 전역학 및 전술학의 과제이다.

전역 지휘원 및 전술 지휘원에게 전략 상의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필요한가? 그것은 국부성을 띤 것이 전반 국면성을 띤 것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전반 국면성을 띤 것을 알면 국부성을 띤 것을 더욱 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승리가 전술적 승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견해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주요하고도 선차적인 문제가 전반 국면 및 각 단계를 잘 고려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반 국면이나 각 단계에 대한 고려에 중대한 결함 혹은 오류가 있다면 그 전쟁은 꼭 실패하게 된다. 《한 수만 잘못 두면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국부성을 띤 한 수, 즉 전반 국면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한 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국면성을 띤 한 수, 즉 전반 국면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한 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바둑을 두는 데 이러한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역시 이러하다.

그러나 전반 국면성을 띤 것은 국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전반 국면은 그 모든 국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때로는 어떤 국부들이 파괴되거나 실패되어도 전반 국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국부가 전반 국면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에 있어서 흔히 어떤 전술 상 혹은 전역 상의 실패 또는 불성공이 전쟁 전반 국면을 악화시키게까지 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실패가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전반 국면을 이루는 다수의 전역이 실패하거나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어느 한두 전역이 실패하면 곧 전반 국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전역 또는 어느 한두 전역은 모두 결정적인 것이다. 전쟁사에는 련전 련승하다가도 한 번 패전하여 모든 성과가 다 수포로 돌아 가게 된 일도 있고 또 여러 번 패전하다가도 한

번 승전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은 일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런전 련승》 또는 《여러 번 패전》은 모두 국부성을 면 것이고 전반 국면에 대하여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패전》 또는 《한 번 승전》은 모두 결정적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반 국면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전반 국면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긴요한 것은 자신의 주의력을 전쟁의 전반 국면을 고려하는 데 돌리는 것이다. 주요한 것은 정확에 근거하여 부대 및 병단의 편성 문제를 고려하며 두 전역 간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며 각 작전 단계 간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며 우리 편 전반 활동과 적편의 전반 활동 간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가장 힘을 들여야 할 점들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제쳐 놓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린다면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전반 국면과 국부와의 관계는 전략과 전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전역과 전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의 행동과 탄, 영의 행동과의 관계, 련의 행동과 패, 반의 행동과의 관계가 그 실례로 된다. 어떠한 급의 지휘원이든지 자기의 주의력의 중점을 자기가 지휘하는 전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나 행동에 두어야 하고 기타의 문제나 행동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며 어느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는 일반적 혹은 추상적 정확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확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작전할 때

돌격 방향과 돌격점은 당시의 적정, 지형 및 자기의 병력 정황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급양이 풍부한 곳에서는 전사들이 너무 먹지 않도록 류의하여야 하고 급양이 부족한 곳에서는 반대로 전사들이 배를 곯지 않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백색 지역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 정보의 루설로 인하여 그 후의 전투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나 홍색 지역에 있어서는 흔히 정보의 루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일부 전역에는 고급 지휘원이 직접 참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전역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군사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원을 선발하며 교육 방침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민중 대회에서는 주로 민중을 동원하여 대회에 참가시키며 적절한 구호를 제기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기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원칙은 하나이다. 그것은 즉 전반 국면에 련관되는 중요한 고리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전쟁의 전반 국면의 지도 법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꼼꼼히 잘 생각해 보아야만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전반 국면성을 띤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꼼꼼히 잘 생각해 보아야만 알 수 있고 꼼꼼히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 국면은 국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전역과 전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꼼꼼히 잘 생각해 보기만 하면 더 높은 정도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전략 문제, 련관대 소위 적아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각 전역 간 혹은 각 작전 단계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전반 국면에 련관되는(결정적 의의를 가지

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것, 전반적 정황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 전방과 후방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소모와 보충, 전투와 휴식, 집중과 분산, 공격과 방어, 전진과 후퇴, 은폐와 폭로, 주공 면과 조공 면, 돌격 면과 견제 면, 집중 지휘와 분산 지휘, 지구전과 속결전, 진지전과 운동전, 자기부대와 형제 부대, 이 병종과 저 병종, 상부와 하부, 간부와 병사, 로병과 신병, 고급 간부와 하급 간부, 로간부와 신간부, 홍색 지역과 백색 지역, 로 홍색 지역과 신 홍색 지역, 중심구와 변연구, 더운 날과 추운 날, 승전과 패전, 대병단과 소병단, 정규군과 유격대, 적의 소멸과 군중의 생취, 홍군의 확대와 홍군의 강화, 군사 사업과 정치 사업, 과거의 임무와 현재의 임무, 현재의 임무와 장래의 임무, 저런 정황 하에서의 임무와 이런 정황 하에서의 임무, 고정적 전선과 비고정적 전선, 국내 전쟁과 민족 전쟁, 이 력사적 단계와 저 력사적 단계 등등 문제들의 구별 및 련관을 고려하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꼼꼼히 잘 생각해보기만 하면 모두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으며 정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거나 작전의 일체 중요한 문제를 비교적 높은 원칙성에 끌어 올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전략 문제 연구의 임무이다.

제 4 절 중요한 문제는 학습을 잘 하는 데 있다

왜 홍군을 조직하여야 하는가? 그것으로써 적을 타승하

기 위하여서이다. 왜 전쟁 법칙을 학습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법칙들을 전쟁에 적용하기 위하여서이다.

학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서나 저작에서는 전쟁에 관한 도리를 모두 그럴듯 하게 말하고 있으나 정작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다. 전쟁사와 우리 자신의 전쟁 생활은 모두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판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사실 상의 상승 장군을 요구할 수 없다. 상승 장군이란 자고로 극히 드물다. 우리는 전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전을 하는 용감하고도 지혜 있는 장군——지용이 겸비한 장군을 요구한다. 지용 겸비가 되자면 한 가지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학습할 때에도 이 방법을 써야 하며 적용할 때에도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어떠한 방법인가? 그것은 즉 적아 쌍방의 각 방면의 정황을 잘 알며 그 행동의 법칙을 찾아 내며 또한 이런 법칙들을 자기 행동에 응용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반포한 군사 교범에는 《정황에 근거하여 원칙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 패전하였을 때의 조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원칙의 기계적 적용에 의하여 조성되는 지휘원의 주관적 과오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주관적 과오를 범하였을 때나 객관적 정황에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조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휘원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어째서 주관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가? 그것은 전쟁이나 전투의 배치와 지휘가 당시 당시의 정황에 맞지 않으며 주관적 지도가 객관적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관과 객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리를 비교적 잘 하거나 잘 하지 못 하는 차이는 있지만 상술한 정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일에서는 처리를 비교적 잘 할 것이 요구되고 군사 상에서는 승전을 비교적 많이 할 것이, 바꾸어 말한다면 패전을 비교적 적게 할 것이 요구된다. 이 점에 있어서 판전은 주관과 객관을 잘 부합시키는 데 있다.

전술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공격점으로 적진의 어느 일익을 선택하였을 때 그 곳이 바로 적의 약한 부분이어서 돌격에 성공하였다면 이것을 주관과 객관이 부합된 것이라고 한다. 즉 지휘원의 정찰, 판단과 결심이 적 및 그 배치의 실정에 부합된 것이다. 만약 공격점을 다른 일익이거나 중앙에 선택한 결과 거기가 바로 적의 강한 곳이어서 쳐 들어 갈 수 없었다면 이것은 부합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공격 시기가 적당하고 예비 부대의 사용이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며 각종 전투 조치와 전투 행동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다면 전반 전투에서 주관적 지휘와 객관적 정황이 전부 부합된 것이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렇게 전부 부합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것은 전쟁이나 전투의 쌍방은 무장한 산 사람들의 집단이고 또 호상 비밀을 지키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물체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정형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가 대체적으로 정황에 적응된다면, 즉 결정적 의의를 가진 부분이 정황에 적응된다면 그것은 승리의 기초로 된다.

지휘원의 정확한 군사 배치는 정확한 결심으로부터, 정확한 결심은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정확한 판단은 주밀하고도 필요한 정찰 및 각종 정찰 재료를 련관시켜 사색하는 데로부터 나온다. 지휘원은 가능하고도 필요한 모든 정찰 수단을 다 써서 정찰하여 온 적측 정황에 관한 각종 재료에서 쓸데 없는 것을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며 여기로부터 저기에로, 걸으로부터 속으로 사색한 연 후에 자기 측의 정황을 가하여 쌍방의 대비와 호상 관계를 연구하고 그것에 의하여 판단을 구성하며 결심을 내리며 계획을 세운다——이것이 군사가가 매번 전략, 전역 또는 전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거치는 정황 인식의 전체 과정이다. 세심하지 못한 군사가는 이렇게 할 대신에 군사 계획을 자기의 욕망에 기초하여 세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공상이다. 열정만 믿는 무모한 군사가가 적에게 기만 당하거나 적의 표면적인 또는 일면적인 정황에 유인되거나 정확하고 투철한 견해도 없이 제출하는 자기 부하의 무책임한 제의의 충동을 받아 실패를 면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군사 계획이든지 필요한 정찰과 적아의 정황 및 호상 관계에 대한 주밀한 사색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 하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황을 인식하는 과정은 군사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계획을 작성한 후에도 있다. 어떤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 집행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작전 국면이 종결될 때까지가 다른 하나의 정황 인식 과정 즉 실행 과정이다. 이 때에 첫 과정의 것이 실제 정황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시금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이 정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리 잘 부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판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내려 기정 계획을 새로운 정황에 적응되게 변경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어떠한 작전에서나 거의 다 있으며 전부 변경하는 일도 간혹 있다. 무모한 자는 변경할 줄 모르거나 변경하기를 싫어 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역시 실패를 면치 못 한다.

이상에 말한 것은 한 개의 전략 행동 또는 전역 및 전투 행동에 관한 것이다. 경험이 많은 군인으로서(가령 그가 허심히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대(지휘원, 전투원, 무기, 급양 등등 및 그 총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적의 부대(마찬가지로 지휘원, 전투원, 무기, 급양 등등 및 그 총체)의 특성도 충분히 파악하였고 정치, 경제, 지리, 기후 등등 전쟁과 련관되는 다른 모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군인은 비교적 자신 있게 전쟁이나 작전을 지도할 수 있으며 비교적 승전을 잘 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적아 쌍방의 정황을 알아 내고 행동의 법칙을 찾아 내어 주관과 객관과의 모순을 해결한 결과이다. 이 인식 과정

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험이 없이는 천 반 전쟁의 법칙을 이해하며 파악하기 어렵다. 참으로 유능한 고급 지휘원이란 뜻내기 군관이나 종이'장 우에서만 군사를 잘 논의하는 사람으로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쟁 중에서 배워야만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성을 띤 군사 법칙이나 군사 리론은 모두 이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 과거의 전쟁 경험을 총화한 것이다. 과거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 준 이런 피의 교훈을 열심히 학습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 가지 일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즉 자기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결론을 검증하여 쓸 데 있는 것은 취하고 쓸 데 없는 것은 버리며 자기에게 특유한 것으로 그것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이 후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지도할 수 없다.

책을 읽는 것도 학습이지만 적용하는 것도 학습이며 또한 더욱 중요한 학습이다. 전쟁에서 전쟁을 학습하는 것——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방법이다. 학교에 들어 갈 기회가 없는 사람도 전쟁을 학습할 수 있다. 즉 전쟁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혁명 전쟁은 민중의 일로서 흔히 먼저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운다. 하는 것이 곧 학습이다. 《백성》에서 군인으로 되는 데는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는 만리 장성이 아니라 속히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을 하며 전쟁을 하는 것이 이러한 거리를 없애는 방법이다. 학습과 적용이 쉽다라는 것은 철저히 학습하며 능숙

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백성이 쉬이 군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즉 이 길에 들어 서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이 량자를 한데 종합하면 여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중국의 속담이 적절하다. 이 길에 들어 서기가 어렵지 않은 만큼 마음만 먹고 학습을 잘 하 기만 하면 거기에 정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 상의 법칙도 기타 사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에 있어서의 객관적 실제^[1]의 반영이다. 우리의 두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객관적 실제이다. 그러므로 학습 및 인식의 대상에는 적아 쌍방이 다 포함되며 이 쌍방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의 두뇌(사유)만이 연구의 주체로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으나 상대편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상대편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기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 법칙의 학습과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 고대의 대군사학자 손 무자^[2]의 저서 가운데 있는 《상대편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은 학습과 적용의 두 단계를 포함시켜 말한 것이다. 즉 객관적 실제의 발전 법칙을 인식하고 이러한 법칙에 근거하여 당면의 적을 타승하기 위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 말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전쟁이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계급과 계급,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 간의 호상 투쟁의 최고 형태이며 전쟁에

관한 일체 법칙은 전쟁을 하고 있는 민족, 국가, 계급, 정치 집단이 자기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부가 주로 작전 쌍방의 군사, 정치, 경제, 자연 등 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작전하는 쌍방의 주관적 지도 능력에 의하여서도 결정된다. 군사가 물질적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 나서 전쟁의 승리를 기도할 수는 없으나 물질적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또한 쟁취하여야 한다. 군사가의 활동 무대는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 위에 설치되어 있지만 군사는 이 무대 위에서 다채롭고도 웅장한 수 많은 활극을 상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홍군의 지도자들은 제공된 객관적인 물질적 토대, 즉 군사, 정치, 경제, 자연 등 제 조건 위에서 우리의 위력을 발휘하며 전군을 거느리고 민족과 계급의 원수들을 타도하여 이 불합리한 세계를 개변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관적 지도 능력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운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군의 어떠한 지휘원이든지 되는 대로 부딪쳐 보는 무모한 자가 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우리는 홍군의 매개 지휘원이 모든 것을 압도할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반 전쟁의 변화 발전을 구사할 능력을 가진 용감하고도 지혜 있는 영웅이 될 것을 창도하여야 한다. 전쟁의 큰 바다 가운데서 헤엄 치고 있는 지휘원은 자신을 가라앉지 않고 결정적으로 절차 있게 대안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전쟁의 지도 법칙은 곧 전쟁의 유영술이다.

이상이 우리의 방법이다.

제 2 장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혁명 전쟁

1924년부터 시작된 중국 혁명 전쟁은 이미 두 단계, 즉 1924~1927년의 단계와 1927~1936년의 단계를 경과하였고 이제부터는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의 단계이다. 이 세 단계의 혁명 전쟁은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와 그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였으며 령도한다. 중국 혁명 전쟁에 있어서 주요한 적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이다. 중국 부르주아지는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는 혁명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그들의 사리 사욕성과 정치 경제적 자립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중국 혁명 전쟁을 철저한 승리의 길로 령도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령도할 수도 없다. 중국의 농민 대중과 도시 소부르주아 대중은 혁명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 하며 또 전쟁의 철저한 승리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들은 혁명 전쟁의 주력군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생산자적 특성이 그들의 정치적 시야에 국한성을 주고 있으므로(일부 실업자 대중은 무정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올바른 령도자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정치 무대에 진출한 오늘 중국 혁명 전쟁을 령도할 책임은 중국 공산당의 어깨에 지워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 어떤 혁명 전쟁이든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령도가 없거나 그 령도를 떠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

고 만다. 그것은 반식민지인 중국 사회의 각 계층과 각 정치 집단 중에서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만이 가장 협애성과 사리 사욕성이 없으며 가장 원대한 정치적 시야와 조직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계의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의 경험을 가장 허심하게 접수하여 그것을 자기의 사업에 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만이 농민과 도시 소부르쥬아지 및 부르쥬아지를 령도하여 농민과 소부르쥬아지의 협애성을 극복하고 실업자 대중의 파괴성을 극복하고 또 부르쥬아지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을 극복함으로써(공산당이 자기의 정책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는 한) 혁명과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다.

1924~1927년의 혁명 전쟁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민족 부르쥬아지 및 그 정당에 대한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의 정치적 영향과 정치적 합작하에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혁명과 전쟁의 긴요한 고비에 우선 대부르쥬아지가 배반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또 혁명 대열 내의 기회주의자들이 자진하여 혁명의 령도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혁명 전쟁은 실패하고 말았다.

192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토지 혁명 전쟁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전쟁에서는 제국주의 뿐만 아니라 대부르쥬아지와 대지주와의 동맹도 우리의 적으로 되고 있다. 민족 부르쥬아지는 대부르쥬아지의 뒤따라리를 따르고 있다. 이 혁명 전쟁을 령도할 자는 오직 공산당 뿐이

다. 공산당은 혁명 전쟁에 대한 절대적인 령도권을 이미 확립하였다. 공산당의 이러한 절대적인 령도권은 혁명 전쟁을 끝까지 전지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 공산당의 이러한 절대적인 령도가 없이는 혁명 전쟁의 그와 같은 전지성을 상상할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혁명 전쟁을 영웅적으로 완강하게 령도하였다. 그리 하여 15 년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3) 전국 인민 앞에 자기는 인민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항상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하여 혁명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간고 분투의 력사로써, 수십만의 영웅한 당원과 수만의 영웅한 간부의 류혈 희생으로써 전 민족 수억만의 대중 가운데서 위대한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는 오늘날 민족의 원수들이 침입하고 있는 긴급한 시각에 처한 중국에 멸망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 조건이란 즉 대다수 인민의 신뢰를 받는, 장구한 시련을 거쳐 인민들에 의하여 선발된 정치적 령도자가 있다는 그것이다. 지금 공산당이 하는 말은 다른 어떠한 정당이 하는 말보다 인민들에게 더 잘 접수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난 15 년 간의 간고 분투가 없었다면 이 새로운 망국의 위험을 만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혁명 전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진 독수(4) 우경 기회주의와 리 령삼 《좌》경 기회주의(5)의 두 가지 오류를 범한

외에 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였다. 즉 그 하나는 1931~1934년의 《좌》경 기회주의^[6]이다. 이 오류는 토지 혁명 전쟁에 극히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제 5 차 반 《포위 토벌》에서 적을 타승할 대신에 오히려 근거지를 상실하고 홍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오류는 1935년 1월 준의에서 열린 중앙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시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1935~1936년의 장 국도 우경 기회주의^[7]이다. 이 오류는 당과 홍군의 규율을 파괴하는 데까지 발전하여 일부분의 홍군 주력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다. 그러나 중앙의 올바른 정도와 홍군 내의 당원과 지휘원, 전투원들의 각성에 의하여 이 오류도 드디어 시정되었다. 이 모든 오류들은 우리의 당, 우리의 혁명과 전쟁에 물론 불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였으며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 당과 우리 홍군은 더욱 억세게 단련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기세 드높고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혁명 전쟁을 령도하였으며 또 계속 령도하고 있다. 이 전쟁은 중국을 해방하는 기치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혁명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쏠리고 있다. 새로운 항일 민족 혁명 전쟁의 단계에 우리는 중국 혁명을 완성에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리하여 동방 및 세계 혁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의 혁명 전쟁은 우리에게 올바른 맑스주의적 정치 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맑스주의적 군사 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5년 동안의 혁명과 전쟁은 이미 이러한 정치 로선과 군사 로선을 련마해 내었다. 금후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서 이러한 로선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고 충실히 하고 풍부히 함으로써 민족의 원수를 타승하는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력사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정치 로선 및 군사 로선은 저절로 순조롭게 산생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산생 발전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좌》경 기회주의와 투쟁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 우경 기회주의와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 및 혁명 전쟁을 해치는 이런 유해한 경향들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로선의 확립과 혁명 전쟁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이 소책자에서 자주 그릇된 견해에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이다.

제 3 장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

제 1 절 이 문제의 중요성

중국 혁명 전쟁은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당 군대에 대한 홍군의 작전을 일반적 전쟁과 같은 것으로 또는 쓰련의 국내 전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레닌, 스탈린이 령도한 쓰련의 국내 전쟁의 경험은 세계적 의

의를 가지고 있다. 모든 공산당은,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과 이 경험에 대한 레닌, 스탈린의 리론적 총화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 경험을 우리의 조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혁명 전쟁은 많은 면에서 소련의 국내 전쟁과 다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다. 이 점은 우리의 10년 간의 전쟁에서 완전히 증명된 바이다.

우리의 적들도 이와 비슷한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그들은 홍군과 싸우는 데는 다른 군대와 싸우는 것과는 다른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각 방면에서의 우세만 믿고 우리를 잘보며 낚은 전법을 고수하였다. 이것이 1933년 적들의 제 4차 《포위 토벌》 시기 및 그 이전의 정형이다. 그 결과 그들은 루차의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국민당 군대 내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출한 자는 국민당의 반동 장군 류유원이었고 다음에는 대 악이었다. 그들의 의견은 드디어 장개석에게 채택되었다. 이것이 곧 장개석의 러산 군관 훈련단^[8] 및 제 5차 《포위 토벌》에서 취한 그의 반동적 신 군사 원칙^[9]이 산생된 경과이다.

그런데 적이 자기들의 군사 원칙을 홍군과의 작전에 적용되게 고쳤을 때 우리의 대렬에는 도리어 낚은 방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 정형에서 하던 그대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특수 정형도 알려 하지 않고

홍군 혈전사의 경험을 거부하고 제국주의와 국민당의 력량을 경시하며 국민당 군대의 력량을 경시하며 적이 취하는 반동적 새 원칙을 도외시하였다. 그 결과 섬감 번구 이외의 모든 혁명 근거지가 상실되었고 홍군은 30만으로부터 몇 만으로 감소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그 당원 수가 30만 명으로부터 몇 만 명으로 감소되고 국민당 지역에 있던 당 조직은 거의 전부 상실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심대한 력사적 정벌을 받았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기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 레닌은 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맑스주의의 산 정신은 구체적 정세의 구체적 분석이라고 하였다^[10]. 우리의 이러한 동지들은 바로 이 점을 망각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중국 혁명 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중국 혁명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중국 혁명 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네 가지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특성은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이 불균형한 반식민지 대국이며 또 1924~1927년의 혁명을 경과하였다는 점이다.

이 특성은 중국의 혁명 전쟁이 발전하며 승리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1927년 겨울과 1928년 봄 중국 유격 전쟁이 시작된 얼마 후 호남성과 강서성의 접경 지대인 정강산의 동지들 가운데서 《대체 붉은 기를 얼마 동안이나 휘날릴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벌써 이 점을 지적하였다(호남-강서 접경 지대 당 제 1 차 대표 대회⁽¹¹⁾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중국 혁명 근거지와 중국 홍군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28년 중국 공산당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해답을 주었다. 이 때로부터 중국 혁명 운동은 정확한 이론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 문제를 갈라서 보기로 하자.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이 불균형하다——미약한 자본주의 경제와 뿌리 깊은 반봉건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며 약간의 근대적 상공업 도시와 정체되고 있는 광대한 농촌이 동시에 존재하며 수백만의 산업 노동자와 낡은 제도의 지배 하에 있는 수억의 농민 및 수공업 노동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중앙 정부를 관리하는 대군벌과 각 성을 관리하는 소군벌이 동시에 존재하며 반동 군대 중에 두 가지 군대, 즉 장 개석에게 속하여 있는 소위 중앙군과 각 성의 군벌에게 속하여 있는 소위 잡패군이 동시에 존재하며 얼마 되지 않는 철로, 항로, 자동차 '길과 어디나 다 있는 일륜차' 길, 걸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길, 걸어 다니기조차 어려운 길이 동시에 존

재하고 있다.

중국은 반식민지 국가이다——제국주의들 간의 불통일은 중국 통치 집단 간의 불통일을 초래하였다. 여러 나라가 지배하는 반식민지 국가는 한 나라가 지배하는 식민지와 다르다.

중국은 대국이다——《동쪽이 밝지 않으면 서쪽이 밝고 남쪽이 어두우면 북쪽이 있다》. 그러므로 선회할 여지가 없음을 넘려는 없다.

중국은 대혁명을 한 번 경과하였다——이것은 홍군의 씨앗을 준비하여 놓았으며 홍군의 명도자, 즉 공산당을 준비하여 놓았으며 또 혁명에 한 번 참가하였던 민중을 준비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중국은 혁명을 한 번 경과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이 불균형한 반식민지 대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혁명 전쟁의 첫째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은 우리의 정치적 전략 전술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사적 전략 전술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성은 적이 강대하다는 점이다.

홍군의 적인 국민당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국민당은 정권을 탈취하였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킨 당이다. 이 당은 전 세계의 주요한 반혁명 국가들의 원조를 받고 있다. 이 당은 이미 자기의 군대를 개조하였다. 즉 중국 역사 상 그 어느 시대의 군대와도 다르고 세계 현대 국가의 군대와는 대체로 같게 개조하였다. 무기 및 기타 군수 물자의 공급이 홍군에 비하여 대단히 풍부하며 또 군대의 수요가 중국 역사 상 그 어

는 시대의 군대보다도 많으며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상비군보다도 많다. 그의 군대와 홍군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있다. 이 당은 전 중국의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추 또는 명맥을 틀어 쥐고 있으며 그 정권은 전국적인 정권이다.

중국 홍군은 이처럼 강대한 적을 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중국 혁명 전쟁의 둘째 특성이다. 이 특성에 의하여 홍군의 작전은 일반적 전쟁, 나아가서는 소련의 국내 전쟁이나 북벌 전쟁과 다른 점이 많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째 특성은 홍군이 약소하다는 점이다.

중국 홍군은 제 1 차 대혁명이 실패한 후에 탄생되었으며 초기에는 유격대였다. 그는 중국의 반동 시기에 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반동적 자본주의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의 정권은 산지대나 벽지에 있는 분산되고 고립된 정권이며 외부로부터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 하였다. 혁명 근거지의 경제 조건과 문화 조건은 국민당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혁명 근거지에는 농촌과 소도시 밖에 없었다. 그 지역은 처음에 아주 작았으며 후에도 그다지 커지지 못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거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하였으며 홍군은 아주 풍요한 근거지를 가지지 못 하였다.

홍군은 그 수효가 적고 무기도 좋지 못 하며 식량, 피복 등 물자 공급도 대단히 곤란하였다.

이 특성은 둘째 특성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군의 전략 전술은 이 첨예한 대조에서 나온 것이다.

네째 특성은 공산당의 령도와 토지 혁명이다.

이 특성은 첫째 특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 특성에서 두 가지 정형이 생겼다. 한 편으로 중국 혁명 전쟁은 비록 중국 및 자본주의 세계의 반동 시기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공산당의 령도와 농민의 원조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지는 땅은 비록 작으나 커다란 정치적 위력을 가지고 있어 방대한 국민당 정권과 거연히 맞서고 있으면서 국민당의 진공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막대한 곤난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농민의 원조가 있기 때문이다. 홍군은 비록 수효가 적으나 강대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산당이 령도하는 홍군의 성원이 토지 혁명에서 나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며 또 지휘원과 전투원 사이가 정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당과 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민당은 토지 혁명을 반대하므로 농민의 원조가 없다. 그 군대는 비록 많으나 병사 대중 및 수 많은 소생산자 출신의 하급 간부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국민당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싸우게 할 수 없다. 군관과 병사 사이가 정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

제 3 절 여기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이 나온다

대혁명을 한 번 경과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균형한

반식민지 대국, 강대한 적, 약소한 홍군, 토지 혁명——이것이 중국 혁명 전쟁의 네 가지 주요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중국 혁명 전쟁의 지도 로선과 그 전략 전술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성과 둘째 특성은 중국 홍군이 발전할 가능성과 적을 타승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성과 셋째 특성은 중국 홍군이 급속히 발전할 수 없으며 적을 속히 타승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쟁이 지구적이라는 것, 또 실수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곧 중국 혁명 전쟁의 두 측면이다. 이 두 측면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순조로운 조건도 있고 곤난한 조건도 있다. 이것이 중국 혁명 전쟁의 근본 법칙이며 많은 법칙들은 모두 이 근본적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10년 간의 전쟁사는 이 법칙의 정확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법칙을 눈을 뜨고도 보지 못 하는 자는 중국의 혁명 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홍군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전략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여 진공할 때에는 모험주의를 반대하고 방어할 때에는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이동할 때에는 도망주의를 반대하며, 홍군의 유격주의는 반대하나 홍군의 유격성은 인정하며, 전역적 지구전과 전략적 속결전을 반대하고 전략적 지구전과 전역적 속결전을 인정하며, 고정적 작전선과 진지전을 반대하고 비고정적 작전선과 운동전을 인정하며, 격계전을 반대하고 섬멸전을 인정하며, 전략 방향에

서의 두주먹주의를 반대하고 한주먹주의를 인정하며, 대후방 제도를 반대하고 소후방 제도를 인정하며, 절대적 집중 지휘를 반대하고 상대적 집중 지휘를 인정하며, 단순한 군사 관점과 유구주의^[12]를 반대하고 홍군이 중국 혁명의 선전자이고 조직자임을 인정하며, 토비주의^[13]를 반대하고 엄격한 정치 규율을 인정하며, 군벌주의를 반대하고 한도 있는 민주주의 생활과 권위 있는 군사 규율을 인정하며, 종파주의적인 옳지 못한 간부 정책을 반대하고 정확한 간부 정책을 인정하며, 고립 정책을 반대하고 가능한 모든 동맹자의 생취를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홍군을 낳은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홍군을 새로운 단계로 극력 발전시키는 등——이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모두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우리가 이제 말하려는 전략 문제는 바로 중국 혁명 전쟁의 10년 간의 혈전사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것이다.

제 4 장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 ——중국 내전의 주요 형태

유격 전쟁이 시작된 그 날부터 지난 10년 동안 어느 독립적인 홍색 유격대 또는 홍군이나 어느 혁명 근거지나 그 주변에는 항상 적의 <포위 토벌>이 있었다. 적들은 홍군을 피물로 보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곧 잡으려 한다. 적들은 언제나 홍군을 쫓아 다니며 또 어떻게 하든지 홍군을 포위하려 한다. 이

러한 형태는 지난 10년 동안에 변함이 없었다. 국내 전쟁이 민족 전쟁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다면 적이 약자로 되고 홍군이 강자로 되기 전에는 이러한 형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홍군은 그 활동에 있어서 반 《포위 토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승리라는 것은 주로 반 《포위 토벌》의 승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전략적 및 전역적 승리이다. 매차의 반 《포위 토벌》은 하나의 전역으로서 흔히 그것은 수차 내지 수십 차의 크고 작은 전투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차 《포위 토벌》을 기본적으로 격파하기 전에는 가령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전략 상 또는 전반 전역 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의 홍군의 전쟁사는 곧 반 《포위 토벌》의 역사이다.

적의 《포위 토벌》과 홍군의 반 《포위 토벌》은 모두다 진공과 방어의 두 가지 전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전쟁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중국 내전의 특성은 량자의 장기적인 반복에 있다. 매차의 《포위 토벌》에서 적이 진공으로써 홍군의 방어를 반대하고 홍군이 방어로써 적의 진공을 반대하는 이것은 반 《포위 토벌》 전역의 첫째 단계이다. 적이 방어로써 홍군의 진공을 반대하고 홍군이 진공으로써 적의 방어를 반대하는 이것은 반 《포위 토벌》 전역의 둘째 단계이다. 어떠한 《포위 토벌》에나 모두 이 두 단계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장기적으로 반복된다.

장기적 반복이라는 것은 전쟁 형태와 전투 형태의 반복

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은 전쟁 형태의 반복이다. 적이 진공으로써 우리의 방어에 대처하고 우리가 방어로써 적의 진공에 대처하는 첫째 단계와 적이 방어로써 우리의 진공에 대처하고 우리가 진공으로써 적의 방어에 대처하는 둘째 단계는 매차의 《포위 토벌》에 있어서 전투 형태의 반복이다.

그런데 전쟁과 전투의 내용은 그 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번마다 달라진다. 이것도 또한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있어서는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의 규모가 번마다 더 커지며 정황이 번마다 더 복잡하여지며 전투가 번마다 더 치열하여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고 있다.

그렇다 하여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 5 차 《포위 토벌》 후에 있어서는 홍군이 몹시 약화되고 남방의 근거지가 전부 상실되고 홍군이 서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남방에 있을 때처럼 국내의 적을 위협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처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포위 토벌》의 규모, 정황, 전투가 비교적 작아지고 단순하여지고 완화되었다.

홍군의 실패란 무엇인가? 전략 상으로 말한다면 오직 반 《포위 토벌》에 근본적으로 성공하지 못 하였을 때에라야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실패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국내 전쟁에서의 근본적 실패는 전체 홍군의 복멸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다. 광대한 근거지의 상실이나 홍군의 이동은 영원한, 전면적인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이며 국부적인

실패이다——비록 이 국부에 당과 군대와 근거지의 90%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방어의 계속이라고 하며 적의 추격을 진공의 계속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 간의 투쟁에서 우리가 방어로부터 진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의 진공을 받아 우리의 방어가 격파됨으로써 우리의 방어가 퇴각으로 변하고 적의 진공이 추격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서성 등지로부터 섬서성에 이동하였을 때와 같이 홍군이 새로운 지구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포위 토벌》의 반복이 또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군의 전략적 퇴각(장정)은 홍군의 전략적 방어의 계속이며 적의 전략적 추격은 적의 전략적 진공의 계속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국내 전쟁은 동서 고금의 온갖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 전투 형태에는 진공과 방어의 두 가지 형태 밖에 없다. 중국 내전의 특성은 《포위 토벌》과 반 《포위 토벌》의 장기적 반복 및 진공과 방어의 두 가지 전투 형태의 장기적 반복이며 또 거기에는 1만여 키로 메터에 달하는 위대한 전략적 이동(장정)^[14]과 같은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적의 실패라는 것도 역시 이러하다. 그들의 전략적 실패는 그들의 《포위 토벌》이 우리에게 격파되고 우리의 방어가 진공으로 변하여 적이 방어의 지위에 놓이게 되며 자기의 령량을 다시 조직하여야 새로운 《포위 토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와는 달리 적에게는 1만여 키로 메터의 전략적 이동과 같은 일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전국적인 통

치자이며 우리보다 훨씬 강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동한 일이 있었다. 약간의 근거지에 있어서 홍군에게 포위 공격을 당한 백색 거점 내의 적이 포위를 돌파하고 백색 지구로 퇴각하여 다시금 진공을 조직한 그러한 일은 있었다. 만일 내전이 연장되어 홍군의 승리 범위가 더욱 확대될 때에는 이러한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민의 원조가 없고 군관과 병사 사이가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군과 같은 그러한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홍군의 원거리 이동을 본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 당하고 말 것이다.

1930년의 립삼 로선 시기에 리 립삼 동지는 중국 내전의 지구성을 이해하지 못 하였으므로 중국 내전의 발전에서 《포위 토벌》에 《포위 토벌》, 격파에 격파가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법칙(그 때 벌써 《포위 토벌》이 상공 변구에서는 세 번, 복건성에서는 두 번이나 있었다)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소한 홍군에게 무한을 공격하라 명령하고 전국에 무장 봉기를 단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전국 혁명의 조속한 승리를 시도하였다. 이리 하여 《좌》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하였다.

1931~1934년의 《좌》경 기회주의도 《포위 토벌》 반복의 법칙을 믿지 않았다. 악예환 변구 근거지에는 소위 《보조 부대》^[15]설이 있었다. 그 곳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제 3 차 《포위 토벌》에서 실패를 본 후의 국민당은 보조 부대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홍군을 진공하려면 제국주의가 직접

출마하여 주력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서 나온 전략 방침이 곧 홍군을 무한 공격으로 내몬 것이었다. 이것은 강서성의 일부 동지들이 홍군에게 남창을 공격하라고 호소하며 각 근거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반대하며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여다가 싸우는 것을 반대하며 성 소재지와 중심 도시를 탈취하는 것을 한 성에서의 승리의 기점으로 생각하며 또 《제 5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하는 것은 혁명의 길과 식민지화의 길 간의 결전이라고 인정한 것 등등과 원칙적으로 일치한 것이었다. 이 《좌》경 기회주의는 악예환 변구에서 제 4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하는 투쟁과 강서성 중앙구에서 제 5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그릇된 로선의 씨를 심어 놓아 적의 엄중한 《포위 토벌》 앞에서 홍군을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려 놓았으며 따라서 중국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포위 토벌》의 반복을 부인하는 《좌》경 기회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홍군은 방어 수단을 취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완전히 옳지 못한 것이다.

혁명과 혁명 전쟁은 진공이다——이러한 론단은 물론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혁명과 혁명 전쟁이 발생으로 부터 발전으로, 작은 데로부터 큰 데로, 정권이 없던 데로부터 정권의 탈취으로, 홍군이 없던 데로부터 홍군의 창건으로, 혁명 근거지가 없던 데로부터 혁명 근거지의 창설으로 나아가 감에 있어서는 언제나 진공을 요하며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 보수주의적 경향은 응당 반대하여야 한다.

혁명과 혁명 전쟁은 진공이지만 거기에는 방어와 후퇴도 있다——이러한 문단이라야 완전히 옳은 것이다. 진공을 위한 방어, 전진을 위한 후퇴, 정면으로의 전진을 위한 측면으로의 전진, 직진을 위한 우회는 허다한 사물이 자기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니와 군사 행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한 두 개 문단 중에서 첫 문단은 정치 면에서 말하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군사 면으로 옮겨 가면 옳지 못하다. 정치 면에서도 어떤 경우(혁명이 전진할 때)에는 옳으나 다른 경우(혁명이 퇴각할 때, 예를 들면 1906년의 로씨야에서나^[16] 1927년의 중국에서와 같이 전면적 퇴각을 할 때와 1918년 브레스트 조약^[17] 체결 당시의 로씨야처럼 국부적 퇴각을 할 때)에 가서는 역시 옳지 못하다. 오직 둘째 문단만이 완전히 옳은 진리이다. 1931~1934년의 《좌》경 기회주의가 기계적으로 군사적 방어 수단을 반대한 것은 매우 유치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포위 토벌》의 반복이란 이 형태는 어느 때에 끝 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본다. 만일 내전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적아 간의 강약 대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날 때에라야 끝 날 것이다. 홍군이 자기의 적보다 더 강대하여지는 때에는 이 반복이 끝 날 것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적을 포위 토벌하고 적이 반 포위 토벌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및 군사적 조건은 적들에게 홍군과 같은 반 《포위 토벌》의 지위에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는 《포위 토벌》의

반복이란 이 형태가 완전히 끝 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끝 난다고는 단언할 수 있다.

제 5 장 전략적 방어

이 제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설명하려 한다.

- (1) 적극적 방어와 소극적 방어, (2) 반《포위 토벌》의 준비, (3) 전략적 퇴각, (4) 전략적 반공, (5) 반공 개시 문제, (6) 병력 집중 문제, (7) 운동전, (8) 축결전, (9) 섬멸전.

제 1 절 적극적 방어와 소극적 방어

어째서 방어부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1924~1927년 기간의 중국의 제 1 차 민족 통일 전선이 실패한 후 혁명은 극히 심각하고도 잔혹한 계급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적들은 전국적 통치자이고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소부대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적의 《포위 토벌》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의 진공이 《포위 토벌》의 격과 밀접하게 련결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발전의 운명은 전'적으로 《포위 토벌》을 격파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포위 토벌》을 격파하는 과정은 순탄하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여 곡절이 많다. 선차적인 그리고 또 중대한 문제는 어떻게 력량을 보존하여 시기를 보아 적을 격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적 방어 문제는 홍군의 작

전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의 10 년 전쟁 기간에 전략적 방어 문제에 있어서 흔히 두 가지 편향이 발생하였다. 그 한 가지는 적을 경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적을 무서워 하는 것이었다.

적을 경시한 결과 많은 유격대가 실패하였으며 홍군도 적의 《포위 토벌》을 몇 차례는 격파하지 못 하였다.

혁명적 유격대가 조직된 초기에는 그 지도자들이 왕왕 적아의 정세를 바로 보지 못 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지방에서 돌연히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승리하였다든가 백군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넘어 왔다든가 하는 등의 일시적으로 순조로운 환경만 보거나 엄중한 환경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 관계로 왕왕 적을 경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자기의 약점(경험이 없는 것, 력량이 약한 것)도 알지 못 하였다.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은 원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진공만 하려 하면서 방어와 퇴각은 하려 하지 않은 탓으로 정신적으로 방어를 위한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허다한 유격대는 이 때문에 실패 당하였다.

홍군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포위 토벌》을 격파하지 못한 실책로는 1928년 광둥성 해풍-북풍 지역의 홍군이 실패한 사실^[18]과 1932년에 소위 국민당이 보조 부대로 되었다는 론조의 지도 하에 악예환 변구의 홍군이 제 4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함에 있어서 여유 있게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사

실을 들 수 있다.

적을 무서워 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실례는 많다.

적을 경시하는 자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을 과대 평가하고 자기를 과소 평가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퇴각 방침을 취하였다. 이것도 역시 정신적으로 방어를 위한 무장을 해제한 것이다. 그리 하여 결국 유격대를 실패되게 하였거나 홍군의 어떤 전역을 실패되게 하였거나 근거지를 상실되게 하였다.

근거지를 상실한 가장 뚜렷한 실례로는 제 5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할 때 강서성 중앙 근거지를 상실한 사실이다. 그 오유는 우경적인 견해로 하여 생긴 것이다. 적을 범처럼 두려워 한 지도자들은 도처에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방어에만 급급하면서 적의 후방을 치는, 우리에게 본래 유리한 진공을 발동하지 못 하였으며 또 대담하게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어서 병력을 집중하여 섬멸하지도 못 하였다. 그 결과 근거지를 전부 상실하고 홍군을 1만 2,000여 키로 메터의 장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오유에는 흔히 적을 경시하는 《좌》경적 오유가 선행한다. 1932년에 있는 중심 도시 공격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바로 그 후 적의 제 5 차 《포위 토벌》에 대처하여 소극적 방어 로선을 취하게 된 근원이었다.

적을 무서워 한 단적인 실례로는 퇴각주의적인 《장 국도로선》이다. 황하 이서에서의 홍군 제 4 방면군 서로군의 실패^[19]는 이 로선의 종국적인 파산이었다.

적극적 방어는 공세 방이라고도 하고 결전 방이라고도 한다. 소극적 방어는 수비 방이라고도 하고 단순 방이라고도 한다. 소극적 방어는 사실 상 가짜 방어이고 적극적 방어만이 진짜 방어이며 반공 및 진공을 위한 방어이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치 있는 어떤 군사 서적이나 비교적 총명한 어느 군사가나 할 것 없이 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전략에서나 전술에서나 소극적 방어를 반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제일 무모한 사람이나 가장 망녕된 사람만이 소극적 방어를 보배처럼 받든다. 그런데 세상에는 확실히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의 실책이며 군사 상에 있어서의 보수주의의 표현이므로 우리는 이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후진 국가로서 발전이 급속한 제국주의 국가들, 즉 독일과 일본에서는 군사가들이 전략적 진공의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으며 전략적 방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중국의 혁명 전쟁에 전연 맞지 않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가들은 방어의 중요한 약점이 인심을 분발시키지 못 하고 도리어 인심을 동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계급적 모순이 격렬하며 전쟁의 리익이 반동적인 지배층 내지 반동적인 집권 당파에만 속하는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피압박자이며 피침략자이기 때문에 혁명 근거지를 방위하자, 중국을 보위하자는 구호 하에 절대 다수의 인민을 단합하여 일심 동체로 싸울 수

있다. 쓰련의 국내 전쟁 시기에 붉은 군대도 방어의 형태로 적을 타승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백위군을 조직하여 진공하고 있을 때에 쓰베트를 보위하자는 구호 하에서 전쟁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봉기의 준비기에 있어서도 수도를 방위하자는 구호 하에서 군사적 동원을 하였다. 모든 정의의 전쟁의 방어전은 정치적 이색 분자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락후한 인민 대중까지 전쟁으로 동원시킬 수 있다.

무장 봉기를 일으킨 후에는 순식간이라도 진공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20]고 한 맑스의 말은 적의 불비한 틈을 타서 돌연히 봉기한 대중이 반동적 통치자에게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말고 이 순간을 타서 국내의 반동적 통치 세력을 미처 손 쓸 사이 없이 소탕하여야 하며 이미 얻은 승리에 만족하여 적을 경시하고 적에 대한 진공을 늦추거나 위축되어 적을 소멸할 시기를 놓치고 혁명의 실패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아 쌍방이 이미 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고 또 적이 우세한 형편에서 적의 압력을 받는 경우에도 혁명자들이 방어 수단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첫째로 가는 바보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전쟁은 국민당에 대한 진공이었으나 군사적으로는 《포위 토벌》을 격파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

군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전쟁은 방어와 진공을 번 갈

아 응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공이 방어의 뒤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진공이 방어의 앞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판전이 《포위 토벌》을 격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포위 토벌》을 격파하기 전까지는 방어이고 《포위 토벌》이 격파되면 곧 진공이 시작된다. 이것은 한 가지 일의 두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적의 한 《포위 토벌》과 다음 《포위 토벌》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것이다. 이 두 단계에서 방어의 단계는 진공의 단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하다. 이 단계에는 어떤 방법으로 《포위 토벌》을 격파할 것인가 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다. 기본적 원칙은 적극적 방어를 인정하고 소극적 방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내 전쟁으로 말한다면 가령 홍군의 력량이 적을 뵈가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략적 방어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 때의 방침은 전략적 진공 뿐일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적의 력량의 총적 변동에 의존한다. 이러한 때에 가면 방어 수단은 다만 국부적인 것으로 남는다.

제 2 절 반 《포위 토벌》의 준비

적의 계획적인 《포위 토벌》에 직면하여 만일 우리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피동적 지위에 빠지게 된다. 그 때 그 때 창졸하게 응전하여서는 승리할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적이 《포위 토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와 동시에 반 《포위 토벌》을 준비하는 것

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대렬 내에 한때 나타났던, 준비를 반대하는 견해는 유치하고도 가소로운 것이다.

여기에 론쟁이 일어 나기 쉬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즉 어느 때에 자기의 진공을 종결 짓고 반 《포위 토벌》의 준비 단계로 넘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승리적으로 진공하고 있고 적이 방어의 지위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적의 《포위 토벌》 준비가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그들이 어느 때 진공을 시작할지 알기 어렵다. 우리의 반 《포위 토벌》의 준비가 일찍 시작되면 진공의 전과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또 때로는 홍군과 인민에게 약간의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준비 단계의 주요한 절차는 군사 상의 퇴각 준비와 퇴각 준비를 위한 정치적 동원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준비가 너무 일러서 적을 기다리게 되거나 오래 동안 기다려도 적이 오지 않아 부득이 자기의 진공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도 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다시 진공을 시작하자 때마침 적의 진공 개시와 마주쳐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준비 개시기의 선정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와 같은 시기를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적의 쌍방의 정확 및 량자 간의 관계로부터 착안하여야 한다. 적의 정확을 알기 위하여서는 적측의 정치, 군사, 재정 및 사회 여론 등 각 방면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할 때 적의 과거의 실패 정도를 확대하지 말고 적의 전체 령량을 충분히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의 내부 모순, 재정난, 과거의 실패의 영향 등등을 타산하지

않아도 절대 안 된다. 자기 측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승리의 정도를 확대하여 보아서도 안 되지만 과거의 승리가 가져다 준 영향력을 충분히 타산하지 않아도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준비 개시기는 일반적으로 보아 늦은 것보다는 이른 것이 낫다. 그것은 후자로 하여 입는 손실이 전자보다 적으며 후자에는 준비가 다 되어 뒤'걱정이 없고 근본적으로 불패의 지반에 서게 되는 우점이 있기 때문이다.

준비 단계에서의 주요한 문제는 홍군의 퇴각 준비, 정치적 동원, 신병 모집, 재정 및 식량 준비, 정치적 이색 분자 처단 등이다.

홍군의 퇴각 준비라는 것은 홍군을 퇴각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너무 멀리 진격하지 않도록, 너무 피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의 대규모 모적 진공 전야에 있어서 주력 홍군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이다. 이 때 홍군의 주의력은 주로 전장을 개척하며 물자를 준비하며 자체를 확대하고 훈련하기 위한 계획에 돌려져야 한다.

정치적 동원은 반 《포위 토벌》투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있어서는 적의 진공의 필연성과 긴박성, 적의 진공이 인민에게 주는 엄중한 해독성 그리고 적의 약점, 홍군의 우월한 조건, 우리의 필승의 신념, 우리의 사업 방향 등을 홍군 및 근거지 인민들에게 명확히, 건결히 그리고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한다. 《포위 토벌》을 반대하며 근거지를 방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전체 홍군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

하여야 한다. 군사 비밀을 제한 외에 정치적 동원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 혁명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되도록 힘 써야 한다. 중요한 고리는 간부를 설복하는 데 있다.

신병 모집은 두 면으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한 면으로는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 정도와 인구 정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한 면으로는 당시의 홍군의 정황 및 전반 반《포위 토벌》전역에서 홍군이 소모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 및 식량 문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반《포위 토벌》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포위 토벌》의 시일이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 반《포위 토벌》투쟁에 있어서 주로는 홍군, 다음에는 혁명 근거지 인민들에게 필요한 최저 한도의 물자 수요를 예견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색 분자에 대하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배반을 너무 두려워 하여 지나친 경계 수단을 취하여도 안 된다. 지주와 상인과 부농들은 각각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주로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해설하여 주어 중립을 지키도록 하며 민중을 조직하여 그들을 감시하여야 한다. 극소수의 가장 위험한 분자에 한해서만 체포와 같은 엄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반《포위 토벌》투쟁의 승리의 정도는 준비 단계에서의 임무 완수의 정도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적을 경시하여 준비를 늦추거나 적의 진공에 걸겁하여 당황 망조하는 것은 모두 결정적으로 반대하여야 할 좋지 못한 경향이다.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열렬하고도 침착한 정신이며 긴장하고도 질서 정연한 사업이다.

제 3 절 전략적 퇴각

전략적 퇴각은 열세한 군대가 우세한 군대의 진공에 직면하여 그 진공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기 위하여 취하는 계획적인 전략적 조치이다. 그러나 군사적 모험주의자는 이러한 조치를 극력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소위 《적을 국경 밖에서 막자》는 것이다.

다 아는 바이지만 두 권투가가 대전할 때 평리한 권투가는 왕왕 한 걸음 물러 서지만 미련한 권투가는 기세가 흥흥하여 처음부터 있는 제수를 다 부린다. 그 결과 왕왕 한 걸음 물러 섰던 자에게 지고 만다.

《수호전》에 나오는 홍 교두는 시진의 집에서 립 층에게 달려 들면서 《덤벼라》, 《덤벼라》 하고 언거괴 소리 쳤다. 그러나 결국은 한 걸음 물러 섰던 립 층이 홍 교두의 약점을 타서 대번에 홍 교두를 차 엎어뜨렸다[21].

춘추 시대에 로 나라와 제 나라[22]가 싸울 때 로 나라 장공은 처음에 제 나라의 군대가 피로하여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곧 출전하려 하다가 조 궤에게 제지 당하고서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한다》는 방침을 취하여 제 나라 군대를 싸워 이겨 중국 전쟁사에 있어서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다승한 유명한 전제를 이루었다. 이제 력사가 좌 구명^[23]의 서술을 보기로 하자.

《봄에 제 나라 군사가 로 나라를 치거늘 로 나라 장공이 싸우려 하였다. 조 궤가 장공을 만나 보려 하였다.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고관 대작들이 국사를 도모하는데 무슨 참예를 하려는고?> 하였다. 조 궤는 말하기를 <고관 대작들은 식견이 좁아서 원대한 모사를 할 수 없느니라> 하였다. 마침내 장공을 만나 묻되 <무엇으로써 싸우려 하나니까?>고 하였다. 이에 장공이 말하기를 <좋은 의식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하였다. 조 궤가 말하기를 <그러한 작은 혜택은 만백성들에게 다 미칠 수 없으므로 백성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가 하옵나이다>고 하였다. 장공이 말하기를 <회생과 옥백은 반드시 적으면 적다, 나쁘면 나쁘다 하고 거짓 없이 신께 올렸노라>고 하니 조 궤가 말하기를 <그도 작은 신의이고 큰 신의가 못 되므로 신이 보살펴 주지 않을가 하옵나이다>고 하였다. 장공이 또 말하기를 <큰 송사나 작은 송사나 다 살필 수는 없었으되 반드시 공정하게 하였노라>고 하였다. 조 궤가 말하기를 <이는 중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니 한 번 싸울 만 하옵나이다. 싸운다면 나는 꼭 따라 갈 것을 원하옵나이다>고 하였다. 장공이 그와 함께 수혜를 타고 장작에서 싸우게 되어 장공이 복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조 궤는 <아직 이르오이다>고 만류 하더니 제 나라 군사가 세 번째 복을 올리자 조 궤는 <이제 되었나이다>고 하여 비로소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제 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이 때 장공이 곧 그를 추격하려 하니 조 궤가 <아직 이르오이다>고 만류하고 스스로 내려 가 적의 수혜바퀴 자국을 살피 보고 다시 수혜의 앞가로장 우에 올라 가 적의 형편을 바라 본 후 <이제 추격해도 좋겠나이다>고 하였다. 이리 하여 제 나라 군사들 추격하여 드디어 진승하였다. 후에 장공이 그 언고물 물으니 조 궤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저 싸움이란 용기로 하는바 첫 번째 복에는 용기가 나뉘 두 번째 복에는 용기가 쇠하

여지며 세 번째 복에는 용기가 없어지나이다. 이와 같이 적은 용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용기가 가득할 때 싸운 고로 이겼으며 또 적은 대국인지라 어떤 음모가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워 혹시나 도망하는 체 하고 군사물 계복하여 두지나 않았는가 두려워 제가 적의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워지고 또한 그 기'발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정말 적이 무서워 도망한 줄을 안 고로 그들 추격하시라 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정황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저항한 것이다. 이 글에는 싸우기 전의 정치적 준비——백성 가운데서 신뢰를 얻는 것이 지적되어 있으며, 반공으로 넘어 가는 데 유리한 진지——장작이 언급되어 있으며, 반공 개시에 유리한 시기——적은 용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용기가 가득할 때가 언급되어 있으며 또 추격 개시 시기——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워지고 기'발이 기울어진 때가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 큰 전역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전략적 방어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전쟁사에는 이 원칙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전취한 실례가 아주 많다. 초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성고의 싸움[24], 신 나라와 한 나라 간의 곤양의 싸움[25], 원 소와 조 조 간의 관도의 싸움[26], 오 나라와 위 나라 간의 적벽의 싸움[27], 오 나라와 촉 나라 간의 이릉의 싸움[28], 진 나라와 동진 간의 비수의 싸움[29] 등등의 유명한 대전은 모두 쌍방의 강약이 서로 같지 않았으나 약한 편에서 먼저 한 걸음 물러 섰다가 뒤에 손을 써서 적을 제압하였기 때문에 승전한 실례들이다.

우리의 전쟁은 1927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우리

에게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리 하여 남창 봉기^[30], 팡주 봉기^[31]는 실패로 돌아 갔고 추수 봉기^[32]에서도 호남-호북-강서 접경 지대에 있던 홍군이 몇 차례 패전하여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정강산 지구로 이동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남창 봉기 실패 후에 보존된 부대도 호남성 남부를 거쳐 역시 정강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928년 5월부터 당시의 정황에 적응되는 소박한 성격을 띤 유격 전쟁의 기본 원칙이 산생되었다. 그것은 곧 《적이 진공하면 우리는 퇴각하고(적진 아퇴),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하고(적주 아요),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하고(적피 아타),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적퇴 아추)》는 16 자의 요결이다. 이 16 자 요결의 군사 원칙을 립삼 로선 이전의 중앙은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우리의 작전 원칙은 가일층 발전되었다. 강서성 근거지에서서의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에 이르러서는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인다》는 방침이 제기되었으며 또 그것이 성과적으로 적용되었다. 적의 제 3 차 《포위 토벌》을 타승한 후에 와서는 홍군의 작전 원칙의 전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 때는 군사 원칙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여지고 형식도 많이 개편되었다. 주요한 것은 중전의 소박성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본 원칙은 여전히 16 자 요결이다. 16 자 요결에는 반 《포위 토벌》의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고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의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방어 시에 있어서의 전략적 퇴각과 전략적 반공의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나중의 것은 16 자 요결의 발전일 따름

이다.

그러나 1932년 1월부터 즉 《3 차의 〈포위 토벌〉이 분쇄된 후에 먼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엄중한 원칙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당 결정서가 발표된 후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옳은 원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나중에는 옳은 원칙을 취소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른바 《새 원칙》이니 《정규적인 원칙》이니 하는 것을 내세웠다. 이 때로부터 종전의 옳은 원칙은 정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정하여야 할 《유격주의》로 되었다. 반《유격주의》의 분위기는 옹근 3 년 동안이나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그 첫째 단계에는 군사적 모험주의였고 둘째 단계에는 군사적 보수주의로 넘어 갔고 마지막 세째 단계에는 도망주의로 되었다. 오직 당 중앙이 1935년 1월 귀주성 준의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연 때에 이르러서야 이 그릇된 로선이 과산을 고하고 과거의 로선의 정확성이 재차 인정되었다. 이것은 그 얼마나 큰 대'가를 들여서 얻어 온 것인가!

《유격주의》를 극력 반대하는 동지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은 옳지 못 하다, 그렇게 하면 광대한 지방을 포기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싸워 이겼지만 지금은 정세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명도 포기하지 않고 적도 타승하면 더 좋지 않은가? 적구에서나 우리 구와 적구와의 접경 지대에서 적을 타승하면 더 좋지 않은가? 과거의 것은 하등의 정규성도 없으며 극상 해서 유격대에서나 사용할 방법이다, 지금은 우리의 국가가 창건

되었고 우리의 홍군이 정규화되었다, 우리와 장 개석과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며 대군과 대군과의 싸움이다, 력사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유격주의》적인 것은 전부 포기하여야 한다, 새 원칙은 《완전히 맑스주의》적인 것이다, 과거의 것은 유격대가 산중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산중에는 맑스주의가 없다. 새 원칙은 이와 반대로 《하나로써 열을 당하고 열로써 백을 당하며 용맹 과감하게 승승장구하며》 《전전선에 걸쳐 출격하며》 《중심 도시를 탈취하며》 《두 주먹으로 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의 진공에 대처하는 방책은 《적을 국경 밖에서 막으며》 《선손을 쓰며》 《살림 도구를 파괴하지 못 하게 하며》 《한 치의 땅도 잃지 않으며》 《병력을 6 로로 나누는》 것이고 《혁명의 길과 식민지화의 길 간의 결전》을 하는 것이고 단축한 돌격, 포치까진, 소모전, 《지구전》을 하는 것이고 대후방주의를 쓰며 절대적 집중 지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규모적인 이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처단하며 아울러 기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러한 등등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 모든 리론과 실천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주관주의이다. 이것은 순조로운 환경에서의 소부르조아적 혁명 열광증 및 혁명 조급증의 표현이며 곤란한 환경에서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처음에는 결사주의로, 다음에는 보수주의로, 마지막에는 도망주의로 전화된다. 이것은 무모한 사람이나 문외한의 리론이고 실천이며 맑스주의의 냄새조차 없는 것이며 반맑스주의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략적 퇴각만을 말하기로 하자. 전략적 퇴각을 강서에서는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이라 하고 사천에서는 《진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군사 이론가나 실천가로서 전략적 퇴각을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대항하여 작전할 때 전쟁 개시 단계에 반드시 취할 방침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외국의 군사가는 《전략적으로 수세인 작전에 있어서는 대개 먼저 불리한 결전을 피하고 정황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결전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옳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가침할 것이 없다.

전략적 퇴각의 목적은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여 반공을 준비하는 데 있다. 퇴각이 필요한 이유는 강한 적의 진공에 직면하였을 때 만일 한 걸음 물러 서지 않는다면 틀림 없이 군사력을 보전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퇴각을 《기회주의적인 단순 방어로선》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전격히 반대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반대가 완전히 그릇되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다.

반공을 준비함에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약간의 조건을 선택, 조성함으로써 적과 우리와의 역량 대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후에 반공 단계로 들어 가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정형에 의하여 말한다면 퇴각 단계에서 대개 다음에 열거한 여러 조건들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로소 반공으로 넘어 갈 수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홍군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인민,
- (2) 작전에 유리한 진지,
- (3) 홍군 주력의 총집중,
- (4) 적의 박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
- (5) 적을 피로하게 하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
- (6) 적에게 실책이 생기게 하는 것.

인민이라는 이 조건은 홍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또한 근거지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의하여 제 4, 제 5, 제 6 등 조건도 쉽게 조성 또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이 홍군을 대거 진공할 때이면 홍군은 언제나 백색 지구로부터 근거지로 퇴각한다. 왜냐 하면 근거지의 인민은 가장 적극적으로 홍군을 원조하며 백군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근거지에서도 변연구와 중심구가 다르다. 즉 정보 루설의 방지, 경찰, 운수, 참전 등에 있어서 중심구의 인민은 변연구의 인민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서성에서 제 1, 제 2, 제 3 차의 반 《포위 토벌》 당시에 인민 조건이 가장 낮거나 비교적 나은 지구를 《퇴각의 종점》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근거지의 이 특성은 홍군의 작전으로 하여금 일반 작전보다 큰 차이를 가지게 하였으며 또 이것은 그 후 적들이 또치까주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

퇴각하는 군대가 자기에게 요구되는 유리한 진지를 선택하여 가지고 진공하는 군대로 하여금 자기 작전권 내에 들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이것은 내선 작전의 우월한 조건의 하나이다.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타승하려면 진지라는 이 조건을 잘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또 다른 조건이 배합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인민 조건이다. 다음으로는 지기 쉬운 적, 배물 들면 적이 피로하였거나 적에게 실책이 생겼거나 그 방면으로 전진하는 적군의 전투력이 비교적 약한 등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훌륭한 진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버리고 계속 퇴각하여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백색 지구라 하여 훌륭한 진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인민 조건은 없다. 만일 기타의 조건까지 아직 조성되지 못 하였거나 발견되지 못 하였을 때에는 홍군은 근거지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거지의 변연구와 중심구 사이에 있어서도 대체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지방 부대와 전제 병력을 제외하고 일체 돌격 병력은 총집중을 원칙으로 한다. 전략적으로 수세를 취하고 있는 적을 진공할 때에는 홍군은 왕왕 병력을 분산한다. 적이 우리를 대거 진공하면 홍군은 소위 《구심적 퇴각》을 실시한다. 퇴각의 종점은 흔히 근거지의 중부에다 선택한다. 그러나 정황 여하에 따라 때로는 전부에다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부에다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심적 퇴각은 홍군의 모든 주력을 총집중시킬 수 있다.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와 싸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필요한 조건은 약한 부분을 몰라서 치는 것이다. 그런데 적이 진공을 시작한 초기에는 흔히 몇 갈래로 전진하여 오는 적군 중에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하고 어느 부대가 그 다음으로 강하며 또 어느 부대가 가장 약하고 어느 부대가 그 다음으로 약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아 내려면 흔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 이것도 역시 전략적 퇴각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만일 진공하여 오는 적의 수량과 강한 정도가 아군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에 강약의 대비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이 근거지에 깊이 들어와 근거지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은 때, 예를 들면 제 3 차 《포위 토벌》 당시에 장 개석의 어느 려의 참모장이 《살진 자는 시달리어 여위고 여윈 자는 시달리어 죽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 되었을 때, 또 《포위 토벌》군 서로 총사령 진 명추가 《국군은 가는 곳마다 암흑이고 홍군은 가는 곳마다 광명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되었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때에 가면 적군은 비록 강하나 크게 약화되고 그 병사가 피로하게 되며 사기가 떨어져 허다한 약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홍군은 비록 약하나 이미 휴식하여 왕성한 정력과 드높은 사기로 피로한 적을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쌍방의 대비는 흔히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잡히어 혹은 적군의 절대적 우세가 상대적 우세로, 아군의 절대적 열세가 상대적 열세로 변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적군이 아군보다 열세하고 아군이 적군보다 오히려 우세하게 되는 수도 있

다. 강서성에서 제 3 차 《포위 토벌》을 반대할 때에 홍군은 극단적인 퇴각을 하였다(홍군은 근거지의 후부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당시 《포위 토벌》군이 홍군보다 10 배 이상이나 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적을 타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손자가 말한 《그 예기를 피하고 그가 지쳐서 물러 갈 때에 치라》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피로하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여 그 우세를 감쇄시키라는 것이다.

퇴각에 있어서 최후의 한 가지 요구는 적의 실책을 조성 또는 발견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적군의 지휘원이라 할 지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실책이 조금도 없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적의 틈을 탈 가능성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적들이 오유를 범하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들 자신도 때로는 잘못하며 때로는 적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위적으로 적군의 실책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자의 소위 《시형》 같은 것(동쪽에서 형체를 보이고 서쪽을 치는 것, 즉 소위 성동격서)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퇴각의 종점을 어느 한 지구에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 지구에까지 퇴각하여도 탈 수 있는 틈이 없는 경우에는 적에게 《틈》이 생길 때까지 부득이 얼마간 더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퇴각에서 얻으려는 유리한 조건은 대체로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 조건이 완전히 구비된 뒤에야 반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 조건이 동시에 구비되기는 불가능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적의 당면 정

세에 따라 약간의 필요한 조건을 쟁취하는 것은 약한 힘으로 강한 적에 대항하는 내선 작전의 군대로서 류의하지 않으면 안 될 바이다. 이 문제에서 반대되는 견해는 옳지 못 하다.

퇴각의 종점을 도대체 어디에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반 형세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부적 형세로 보아서는 우리가 반공으로 넘어 가는 데 유리하다 할지라도 전반적 형세로 보아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 할 때 국부적 형세에 근거하여 퇴각의 종점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 왜냐 하면 우리의 반공은 언제나 국부로부터 시작되는바 반공을 시작하는 데는 이후의 변화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퇴각의 종점을 근거지의 전부에다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서성에서의 제 2, 제 4 차 반《포위 토벌》, 섬감 번구에서의 제 3 차 반《포위 토벌》 때에 그러하였다. 때로는 근거지의 중부에다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서성에서의 제 1 차 반《포위 토벌》 때에 그러하였다. 때로는 근거지의 후부에다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서성에서의 제 3 차 반《포위 토벌》 때에 그러하였다. 이것은 모두 국부적 형세를 전반적 형세에 연결시켜 고려함으로써 결정한 것이다. 강서성에서의 제 5 차 반《포위 토벌》에서 아군이 전연 퇴각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국부적 형세에도, 전반적 형세에도 전혀 주의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것은 실로 되는 대로 막 하는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형세는 조건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이다. 국부적 형세와 전반적 형세와의 련관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당시 국부

와 전체에 나타난 적아 쌍방의 조건들이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반공 개시에 유리한가 어떤가로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지에 있어서는 퇴각의 종점을 대체로 전부, 중부, 후부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백색 지구에서의 작전은 근본적으로 거부하는가? 아니다. 우리가 백색 지구에서의 작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군의 대규모적 《포위 토벌》에 대처하는 경우만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적아의 강약의 차이가 현저할 때에만 우리는 군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는 원칙 하에서 근거지로 퇴각할 것을 주장하며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일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이렇게 하여야만 반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 또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세가 이렇게 엄중하지 않거나 혹은 홍군이 근거지에서조차 반공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형세가 엄중하거나 반공하는 것이 불리하여 다시 퇴각함으로써 국세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퇴각의 종점을 백색 지구에다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은 극히 적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백색 지구에서도 퇴각의 종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근거지의 전면이고 둘째는 근거지의 측면이고 세째는 근거지의 후면이다. 첫째 종류의 종점으로는 강서성에서의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때에 만약 홍군의 내부적 불통일과 지방 당 조직들의 분렬, 즉 립삼 로선과 AB단⁽³³⁾이란 이 두 가지 곤난이 없었더라면

길안, 난푹, 장수 등 세 지점 사이에 병력을 집중하여 반공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 공강파 무수 사이^[34]에서 전진하던 적의 병력이 홍군에 비하여 그리 크게 우세하지 않았고(10만 대 4만) 인민 조건은 근거지만 못 하였으나 진지 조건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적이 여러 길로 전진하는 때를 타서 그들을 각개 격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류의 종점으로는 강서성에서의 제 3 차 반《포위 토벌》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때에 가령 적의 진공이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또 복진성과 강서성 접경에 있는 건녕, 려천, 태녕으로부터 전진하여 오던 적의 력량이 우리가 치기에 적합하였다면 홍군은 천리'길을 돌아 서금을 거쳐 홍국으로 갈 필요 없이 복진성 서부의 백색 지구에서 집중하여 먼저 이 적을 격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종류의 종점으로는 역시 상술한 강서성에서의 제 3 차 반《포위 토벌》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때에 가령 적의 주력이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회창, 심오, 안원 지구(여기는 백색 지역이었다)로 퇴각하여 적을 더욱더 남진하도록 유인한 후 홍군이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근거지 내부를 향하여 쳐들어 갔을지도 모른다. 이 때에 북쪽 근거지 내에 있는 적의 병력은 틀림 없이 많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모두 가정이며 체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원칙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이 대규모로 《포위 토벌》할 때에는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며 근거지로 퇴각하여 작전하는 것이 우

리의 일반적 원칙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적의 진공을 가장 자신 있게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적을 국경 밖에서 막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략적 퇴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퇴각하면 땅을 잃게 되며 인민에게 해를 끼치게 되며(소위 《살림 도구를 파괴 당한다》는 것) 외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제 5 차 반《포위 토벌》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 서면 적의 포치가 한 걸음 나았게 되고 근거지는 날로 축소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설혹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이 이전에는 소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들이 포치까지의를 취한 제 5 차 《포위 토벌》에 대하여는 소용 없는 것으로 되었다, 제 5 차 《포위 토벌》에 대처함에는 병력을 분산하여 방어하는 방법과 단축한 돌격을 하는 방법 밖에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답변하기는 쉽다. 우리의 역사가 벌써 이에 답변하였다. 땅을 잃는다는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잃어야만 잃지 않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것은 《가지고 싶거든 먼저 주라》는 원칙이다. 만일 우리가 잃은 것이 땅이고 얻은 것이 적에 대한 승리이며 여기에서 땅의 회복, 땅의 확장까지 가한다면 이것은 남는 장사이다. 시장에서의 교역도 사는 사람이 돈을 잃지 않고서는 물건을 얻을 수 없으며 파는 사람이 물건을 잃지 않고서는 돈을 얻을 수 없다. 혁명 운동에 의하여 조성되는 상실은 파괴이며 그 대신 얻는 것은 진보적 건설이다. 수면과 휴식에서 시간을 잃어 버리기는 하

지만 래일의 사업을 위한 정력을 얻게 된다. 어떤 바보가 이 리치를 모르고 수면을 거절한다면 그는 다음 날 정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밀지는 장사이다. 우리가 적의 제 5 차 《포위 토벌》 시기에 밀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땅을 좀 잃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은 몽땅 잃고 말았다. 아비시니아도 강다짐으로 싸운 결과 온 나라를 잃고 말았다——비록 이 나라의 실패의 원인이 이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일부분 인민의 집에서 한때 살림 도구가 파괴 당하지 않으면 전체 인민의 집에서 장기간 살림 도구가 파괴 당하게 된다. 일시적인 좋지 못한 정치적 영향을 줄가 봐 두려워 하면 그 대신에 장기적인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10월 혁명 후 만약 로씨야의 불쉐위크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의견 대로 대독 강화 조약을 거부하였다면 신생 소비에트는 요질의 위협에 봉착하였을 것이다^[35].

보기에는 혁명적인듯 한 이러한 《좌》경적 견해는 혁명에 대한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혁명 조급증에서 온 것이며 동시에 또 농민-소생산자의 협애한 보수성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국부로부터 출발하고 전반 국면을 통찰할 능력이 없으며 오늘의 리익과 래일의 리익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부분적 리익과 전체적 리익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어떤 국부적, 일시적인 것을 들어 귀고는 죽어도 놓지 않는다. 물론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보아 전반 국면과 전반 시기에 유리한, 더우기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국부나 시기는 틀어 쥐고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주의 또는 방임주의로 되고 말 것이다. 퇴각에 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소생산자적 근시안에 의거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불쇄위크적 영명성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시력이 부족하므로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힘을 빌어야 한다. 맑스주의적 방법은 바로 정치 상, 군사 상의 망원경이며 현미경이다.

물론 전략적 퇴각에는 곤란이 있다. 퇴각 개시기의 선정, 퇴각 종점의 선택, 간부 및 인민에 대한 정치적 설복은 모두다 힘 든 일들이며 모두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다.

퇴각 개시기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강서성에서의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 만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기에 퇴각하지 않았더라면, 즉 늦게 퇴각하였더라면 우리의 승리는 적어도 그 규모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퇴각이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너무 늦으면 너무 이른 경우보다 손실이 더 크다. 적절한 시기에 퇴각하면 완전히 주동적 지위에 서게 되는바 그것은 퇴각의 종점에 도달한 후에 대오를 정비하고 잘 휴식하였다가 적의 피로를 기다려 반공으로 넘어 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강서성에서의 적의 제 1, 제 2, 제 4 차 《포위 토벌》을 분쇄하는 전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적에 대처하였다. 유독 제 3 차

전역만은 제 2 차 전역에서 그렇게 참패한 적들이 새로운 진공을 그처럼 빨리 시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31년 5월 29일에 제 2 차 반 《포위 토벌》 작전을 끝 내었는데 장 개석은 7월 1일에 제 3 차 《포위 토벌》을 시작하였다) 홍군은 창졸히 길을 돌아서 다시 집중하느라고 매우 피로하였다. 퇴각 개시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위에서 말한 준비 단계의 개시기를 선정할 때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오직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아 쌍방의 대세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간부와 인민에게 전략적 퇴각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또 군사 지도부의 권위가 아직 전략적 퇴각의 결정권을 극소수인 내지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하여도 간부들이 신복할 만 한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 하고 있을 때에는 간부와 인민을 설복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된다. 간부들이 경험이 없어 전략적 퇴각을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1 차 및 제 4 차 반 《포위 토벌》의 초기와 제 5 차 반 《포위 토벌》의 전반 기간에 걸쳐 이 문제에서 막대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럽삼 로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간부들의 의견은 설복되기 전까지는 퇴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공하자는 것이었다. 제 4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군사적 모험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간부들이 퇴각 준비를 반대하였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일부 간부들이 시초에는 여전히 군사적 모험주의로 나가서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자는 견해를 반대하다가 후에는 군사적 보수주의로 넘어가

고 말했다. 장 국도 로선은 장족과 회족[36] 지구에서는 우리의 근거지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다가 실패한 후에야 믿게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실책이다. 경험은 간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실패는 확실히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허심히 받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일일이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틀림 없는 《협애한 경험론》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로 인한 손실을 적지 않게 받았다.

경험 부족으로 하여 인민이 전략적 퇴각의 필요성을 믿지 않은 일은 강서성에서의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다. 당시 길안, 홍국, 영풍 등 현의 지방당 조직이나 인민 대중은 홍군의 퇴각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 때 경험을 얻은 후부터 그 후의 몇 차례의 반 《포위 토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어졌다. 근거지의 손실이나 인민의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믿게 되었으며 홍군이 《포위 토벌》을 격파할 수 있다는 신념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신임 여부는 간부의 신임 여부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으므로 주요한 그리고 선차적인 임무는 간부를 설복하는 데 있다.

전략적 퇴각의 모든 작용은 반공으로 넘어 가게 하는 데 있으며 전략적 퇴각은 전략적 방어 of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반 전략의 결정적 판건은 다음에 오는 반공 단계에서 승리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다.

제 4 절 전략적 반공

절대적으로 우세한 적의 진공을 격파하기 위하여서는 전략적 퇴각 단계에 조성된,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적이 진공을 시작하던 때에 비하여 변화된 형세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세는 각종 조건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이다. 이 점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조건과 형세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아직 적을 패배시킨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조건과 형세가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승패의 현실성은 아니며 량군의 승패가 실현된 것도 아니다. 승패는 량군의 결전에 의하여 실현된다. 오직 결전만이 량군 간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반공 단계의 모든 임무이다. 반공은 긴 과정이며 방어전의 가장 멋들어지고 제일 약동적인 단계이며 또한 방어전의 최후 단계이다. 소위 적극적 방이란 주로 결전성을 띤 이러한 전략적 반공을 가리켜 말한다.

조건과 형세는 전략적 퇴각 단계에서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공 단계에서도 계속 조성된다. 이 때의 조건과 형세는 전단계의 조건 및 형세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 때 적군이 가일층 피로하고 인원이 더 감소된 것

인데 이것은 전단계에 있어서의 피로와 인원 감소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조건과 형세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적군이 한 번 또는 몇 번 패전 당하였다고 한다면 이 때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조건에는 적군의 피로 등등 뿐만 아니라 적군의 패전이라는 이 새로운 조건이 첨가된다. 그리 하여 형세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적군이 병력을 이동하느라고 바삐 돌아 치면서 실책이 생기게 되며 양군의 우열의 대비도 이전과는 달라진다.

가령 한 번 내지 몇 번 패전한 것이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라면 조건과 형세의 유리 여부도 정반대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 적에게 불리한 점이 감소되고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는 확대된다. 이것도 역시 이전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어느 편이 실패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신속히 실패자 측의 새로운 노력, 다시 말하면 위급한 국세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 오게 된다. 실패자 측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불리하고 적에게 유리한, 새로 나타난 이러한 조건과 형세로부터 벗어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조건과 형세를 새로 조성하여 상대 측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게 된다.

승리자 측은 이와 반대로 노력한다. 즉 자기의 승리를 발전시켜 적에게 더욱 큰 손실을 주려고 애 쓰며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 및 형세를 증대 또는 발전시키려고 애 쓰며 상대 측이 그 불리한 지위로부터 벗어 나 위급한 국세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파탄시키려고 애 쓴다.

그러므로 어느 편을 막론하고 결전 단계의 투쟁은 전쟁의 전반 과정 또는 전역의 전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복잡 다단하고 가장 변화가 많은 그리고 또 가장 곤란하고 가장 간고한 투쟁이며 지휘 면에서 말한다면 가장 어려운 때이다.

반공 단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주요한 것으로는 반공 개시 문제, 병력 집중 문제, 운동전 문제, 속결전 문제, 섬멸전 문제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칙은 반공에 있어서나 진공에 있어서나 틀 물론하고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반공은 곧 진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이 진공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반공의 원칙은 적이 진공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고 진공의 원칙은 적이 방어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전의 많은 문제를 전부 전략적 방어의 반공 부문에서 말하고 전략적 진공 부문에 가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문제들만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적용할 때에는 그 동일한 점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그 상이한 점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절 반공 개시 문제

반공 개시 문제란 즉 소위 《첫 전투》 또는 《서전》 문제이다.

많은 부르주아 군사자들은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나 전략적 진공에 있어서나 첫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특히 방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도 과거에 이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였다. 강서성에서 적의 제 1 차로부터 제 5 차에 이르는 《포위 토벌》을 반대하여 싸운 작전들은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연구하여 보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 1 차 《포위 토벌》 때에 적들은 약 1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 북으로부터 남으로 길안, 전녕 일선에서 8 개 종대로 나뉘어 홍군 근거지로 진공하여 왔다. 당시 홍군은 약 4만 명이 강서성 녕도현의 황과, 소포 지구에 집결되어 있었다.

당시의 정형은 이러하였다. (1) 《토벌》군은 10만 명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장 개석의 직계가 아니었으며 전반 형세는 그다지 엄중하지 않았다. (2) 적군 라 립 사는 길안을 방위 하면서 공강 서쪽에 있었다. (3) 적군의 공 병반, 장 휘찬, 담 도원 등 세 개 사는 길안 동남, 녕도 서북의 부전, 동고, 룡강, 원두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장 휘찬 사의 주력은 룡강에 있었고 담 도원 사의 주력은 원두에 있었다. 부전, 동고 두 지방은 그 곳 인민들이 AB단에 기만 당하여 일시 홍

군을 믿지 않고 홍군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전장으로 선정하기 적당하지 못 하였다. (4) 적군의 류 화정 사는 멀리 복건성의 백색 지구인 진녕에 있었으므로 강서성으로 넘어 오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5) 적군의 모 병문 사, 허 극상 사는 광창과 녕도 사이에 있는 두과, 락구, 동소 일대까지 쳐 들어 왔다. 두과는 백색 지구였고 락구는 유격구였으며 동소에는 AB단이 있었으므로 정보가 무실되기 쉬웠다. 뿐만 아니라 모 병문과 허 극상의 부대를 치고 나서 다시 서쪽으로 쳐 나간다면 서쪽에 있는 장 휘찬, 담 도원, 공 병번 등의 세 사가 집중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결승하기 어려우며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었다. (6) 장 휘찬 사와 담 도원 사는 《포위 토벌》의 주력군이었고 《포위 토벌》군 총사령, 강서성 주석 로 척평의 직계 부대였으며 장 휘찬은 또 전선 총지휘였다. 이 두 사를 소멸하면 《포위 토벌》은 기본적으로 격파되는 것이었다. 두 사는 각각 약 1만 4,000 명이었으며 장 휘찬 사는 또 두 곳에 갈라져 있었으므로 한 번에 한 개 사를 치자면 우리가 절대 우세였다. (7) 장 휘찬 사와 담 도원 사의 주력이 있는 룡강, 원두 일대는 우리의 집결지에서 가까우며 또 인민 조건이 좋아서 은폐하여 적에 접근할 수 있었다. (8) 룡강에는 좋은 진지가 있었다. 원두는 치기 어려웠다. 만일 적이 우리를 치러 소포로 온다 하여도 진지는 역시 좋았다. (9) 우리는 룡강 쪽에 최대의 병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룡강 서남으로 수십 리 떨어져 있는 홍국에 1,000여 명을 가진 독립사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적의 배후

로 우회할 수 있었다. (10) 아군이 중간 돌파를 하여 적의 전선에 파렬구를 하나 내면 적의 동서의 제 종대를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무리로 갈라 놓을 수 있었다. 이상의 리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첫 전투에서 장 휘찬의 주력을 치기로 결정하였고 그 주력인 두 개 려와 한 개 사부를 치기에 성공하였으며 사장까지 포함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원 9,000 명을 몽땅 포로하였다. 첫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겁이 나서 담도원 사는 동소로 달아 나고 허 극상 사는 두파로 달아 났다. 아군은 또 담도원 사를 추격하여 그 절반을 소멸하였다. 5 일 동안(1930년 12월 27일부터 1931년 1월 1일까지)에 두 번 싸우자 부전, 동고, 두파에 있던 적들은 얻어 맞을가 봐 두려워서 분분히 철퇴하였다. 이리 하여 제 1 차 《포위 토벌》은 격파되었다.

제 2 차 《포위 토벌》 때의 정황은 이러하였다. (1) 《토벌》군은 20만이었고 하 응흠이 총사령으로 되어 남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2) 제 1 차 《포위 토벌》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가 장 개석의 비직계 부대였다. 채 정개의 제 19 로군, 손 런중의 제 26 로군, 주 소량의 제 8 로군이 가장 강하거나 비교적 강하고 그 나머지는 비교적 약하였다. (3) AB단이 숙청되고 근거지 인민은 모두 홍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4) 왕 금옥의 제 5 로군은 북방으로부터 방금 도착하여 집을 먹고 있었으며 그 좌익인 팍 화종사와 학 몽명사도 대체로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5) 아군이 부전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동쪽으로 진격하면 북진성과 강서성과의 접경에 있는 진

녕, 러천, 태녕 지구에서 근거지를 확대하며 물자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다음 번 《포위 토벌》을 격파하는 데 편리할 것이었다. 만약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쳐 나간다면 공강이 가로막혀 전투가 끝난 후에 더 발전할 여지가 없었으며 만약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진출한다면 군대가 피로하게 되며 시간이 허비될 것이었다. (6) 아군의 수효는 먼저 번 전역에 비하여 좀 감소되었으나(3만여 명으로) 4개월 동안이나 휴식하여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여 부진 지구의 왕 금옥, 공 병번(도합 11개 탄)의 부대를 상대로 첫 전투를 하기로 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어서 팍 화종을 치고, 손 턴중을 치고, 주 소량을 치고, 류 화정을 쳤다. 15일 동안(1931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에 700리를 달리면서 다섯 번 싸워 총 2만여 정을 로획하고 적의 《포위 토벌》을 통쾌하게 쳐 부렸다. 왕 금옥 부대를 칠 때에 적 채 정개 부대와 팍 화종 부대 사이에 처한 우리는 팍 화종과는 10여 리, 채 정개와는 40여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소빨 속을 뚫고 나가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뚫고 나가야 말았다. 이것은 주로 근거지 조건과 그 외에 또 적군의 각 부대의 불통일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었다. 팍 화종 사가 패배하자 학 몽령 사는 밤을 도와 영풍으로 도망 쳤으므로 봉번을 면하였다.

제 3차 《포위 토벌》 때의 정황은 이러하였다. (1) 장개석이 직접 총사령으로 출마하고 그 아래에 좌, 우, 중 3로

총사령을 두었다. 중로는 하 옹흥이었는데 장 개석과 함께 남창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우로는 진 명추였는데 길안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좌로는 주 소량이었는데 남풍에 주둔하고 있었다. (2) 《토벌》군은 30만 명이였다. 그 주력군은 장 개석의 직계인 진 성, 라 탁영, 조 판도, 위 럽황, 장 정문 등 다섯 개 사인데 1 개 사에 9 개 탄으로 도합 10만 명 가량이였다. 그 다음은 장 팡내, 채 정개, 한 덕근 등 세 개 사가 4만 명이였다. 또 그 다음은 손 련중 부대가 2만 명이였다. 나머지는 장 개석의 직계 부대가 아닌 비교적 약한 부대였다. (3) 《토벌》의 전략은 제 2 차 《포위 토벌》 때의 《걸음마다 진을 치는 것》과는 아주 달리 《장구 적진》하는 것이였으며 이로써 홍군을 공강까지 밀고 나가 소멸하려는 것이였다. (4) 제 2 차 《포위 토벌》이 끝 난 때로부터 제 3 차 《포위 토벌》이 시작되기까지는 겨우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홍군은 어려운 전투를 하고 나서 휴식도 못 하고 보충도 못한 채(3만 명 가량이였다) 퉁리'길을 돌아서 강서성 남부 근거지의 서부에 있는 홍국에 접결하였다. 그 때에 적은 벌써 여러 갈래로 나뉘여 눈앞에 박두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황 하에서 우리가 결정한 첫째 방침은 홍국으로부터 만안을 경유하여 부전을 돌파한 후에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적의 후방 연락선을 횡단함으로써 적의 주력을 강서성 남부 근거지에 깊이 들어가 횃물을 켜게 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작전의 첫 단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적이 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틀림 없이 매우 피로해졌을 것이므로 그 틈을 타서

철 만 한 것을 끌라 치는 것을 둘째 단계로 정하였다. 이 방침의 중심은 적의 주력을 피하고 그 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군이 부전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적에게 발각되어 진 성, 라 탁영 두 사의 추격을 받았다. 우리는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홍국 서부의 고흥우라는 장터로 돌아갔다. 이 때에 아군이 접결할 수 있는 지구로 남아 있는 것은 겨우 이 장터와 그 부근의 수십 평방리 뿐이었다. 거기에서 하루 동안 접결해 있다가 우리는 동쪽으로 향하여 홍국현 동부의 련당파 영풍현 남부의 량촌파 녕도현 북부의 황파 방향으로 돌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첫날은 밤을 타서 장 정문사와 장 광내, 채 정개, 한 덕근 부대 간의 40 리의 공극 지대를 통과하여 련당에 도착하였다. 이튿날에는 상관 운상(상관 운상은 자기의 한 개 사와 학 몽령 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부대의 전초와 접촉하였다. 사흘날 상관 운상 사를 친 것이 첫 전투였고 나흘날 학 몽령 사를 친 것이 제 2 차 전투였고 그 후 3 일 간 행군하여 황파에 이르러 모 병문 사를 친 것이 제 3 차 전투였다. 세 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여 총 만여 정을 로획하였다. 이 때에 서쪽과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적군의 모든 주력은 모두 동쪽으로 돌아 서서 시선을 황파에 집중하고 맹렬히 병진하면서 우리와 싸우려고 밀집한 대포위 태세를 취하여 아군에 접근하여 왔다. 이에 아군은 20 리의 간격을 두고 있는 장 광내, 채 정개, 한 덕근 부대와 진 성, 라 탁영 부대 사이의 큰 산을 물래 넘어서 동쪽으로 부터 서쪽의 홍국현 경내에 돌아 와 접결하였다. 적이 우리

를 발견하여 다시 서쪽으로 진격할 때 우리는 벌써 만달 동안이나 휴식하였지만 적은 굶주리고 피로하여 사기가 저락되었다. 그리 하여 적은 어찌 할 도리가 없어 퇴각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 그들이 퇴각하는 틈을 타서 장 광내, 채 정개, 장 정문, 한 덕근의 부대를 공격하여 장 정문의 한 개 려와 한 덕근의 한 개 사를 소멸하였다. 장 광내, 채 정개 두 사와의 싸움은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되어 그들을 도망 치게 내버려 두었다.

제 4 차 《포위 토벌》 때의 정형은 이러하였다. 적들은 3로로 광창을 향하여 진격하여 오고 있었다. 그 주력은 동로에 있었다. 서로의 두 개 사는 우리 앞에 드러났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접결지에 박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황 남부 지구에서 먼저 이 서로군을 공격하여 일거에 리 명사와 진 시기 사를 소멸할 수 있었다. 적들이 좌로로부터 두 개 사를 떼어 내다 중로와 배합하여 다시 진격하여 왔으므로 우리는 또 의황 남부 지구에서 그 한 개 사를 소멸할 수 있었다. 이 두 전역에서 총 만여 정을 로획하였으며 이 《포위 토벌》을 기본적으로 격파하였다.

제 5 차 《포위 토벌》에서 적들은 또치까주의라는 새 전략으로 전진하였으며 먼저 려천을 점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려천을 탈환하여 적을 근거지 밖에서 방어하려고 시도하면서 적의 공고한 진지이며 백색 지구인 려천 이북의 초석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 하자 또 그 동남에 있는 자계교를 공격하였는데 그 곳도 적의 공고한

진지이며 백색 지구여서 역시 승리하지 못 하였다. 그 후 전투 기회를 찾아서 적의 주력과 포치가 사이로 돌아 다니다 보니 완전히 피동적 지위에 빠지었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 전쟁이 끝 나기까지 1 년이나 되는 동안 자주적인 활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리 하여 마지막에는 강서 근거지에서 물러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술한 제 1 차로부터 제 5 차에 이르는 반 《포위 토벌》 시기의 아군의 작전 경험은, 방어적 지위에 처하여 있는 홍군이 강대한 《토벌》군을 격파하려면 반공의 첫 전투가 비상히 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첫 전투의 승패는 전반 국면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최후의 전투에 까지 그 영향이 계속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반드시 승전하여야 한다. 적정, 지형, 인민 등 조건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며 확실한 자신이 있는 다음에 손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 서서 신중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회는 조만간 올 것이므로 경솔히 응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 차 반 《포위 토벌》 때 처음은 담 도원 부대를 치려 하였으나 적이 지세가 높은 원두의 진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은 두 번이나 갔다가 두 번 다 꺾참고 돌아 와 며칠 후에 치기 쉬운 장 휘찬 부대를 발견하였다. 제 2 차 반 《포위 토벌》 때에 아군은 동고에까지 진군한 후 단지 왕 금옥 부대가 공고한 진지인 부전으로부터 떠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보가 무설될 위험까지 무릅

쓰며 또 조급하게 빨리 치자는 온갖 제의를 거절하면서 적에게 접근한 채 25 일 동안이나 기다려 끝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제 3 차 반 《포위 토벌》은 것처럼 악풍 폭우와 같은 국면이었고 부대가 천리'길을 돌아 왔으며 또 적의 측면과 후방을 우회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적에게 발각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참고 물러 나와 계획을 고쳐 중간 돌파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드디어 련당에서 승리적인 첫 전투를 하였다. 제 4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남풍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 하자 단연 퇴각하여 드디어 적의 우익으로 돌아가 동소 지구에 집결함으로써 의황 남부에서 대승리의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첫 전투의 관계가 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 하고 며칠 하나를 잃자 그만 놀라서 그것을 만회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하여 적을 치려 복상하다가 순구에서의 예기치 않은 조우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적 1 개 사를 소멸) 이 전투를 첫 전투로 간주하지 않고 이 전투가 일으킬 필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필승을 기할 수 없는 초석을 경솔하게 진공하였다. 첫 걸음을 내디디자마자 주동권을 상실하였으니 실로 무모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전법이였다.

둘째, 첫 전투의 계획은 전반 전역 계획의 유기적 서막이어야 한다. 전반 전역의 훌륭한 계획이 없이는 참으로 승리적인 첫 전투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즉 첫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이 전투가 전반 전역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면 이 전투는 승리하였다

하여도 패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제 5 차 《포위 토벌》 때의 순구 전투가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체적으로 제 2, 제 3, 제 4 내지 최후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매차 승전하면 적군의 전반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패한다면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결과가 예상한 그 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절대 꼭 그 대로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쌍방의 전반 형세에 의거하여 자세히, 실제적으로 고려하여 두어야 한다. 전반 국면을 넘두에 두지 않고서는 정말 훌륭한 바둑 수를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세째, 또 다음 전략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반공만 고려하고 반공 승리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반공이 실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연히 전략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략 지도자는 한 전략 단계에서 그 후의 여러 단계들, 적어도 그 다음 한 단계에 대하여서만은 예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변화들 추측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또 멀면 멀수록 더 막연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있으며 또 먼 앞날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한 걸음을 나가서 한 걸음을 보는 그러한 지도 방법은 정치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전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다. 한 걸음을 나가서는 그 한 걸음의 구체적 변화들 보고 거기에 근거하여 자기의 전략, 전역 계획을 수정 또는 발전시켜야 한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험적인 맹진의 오유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전략 단계 내지 몇 개 전략 단계를 관통하는, 대체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장기적인 방침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물어물하며 앉아 망설이는 오유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 상 적의 전략적 요구에 적응하여 자기를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는 것이다. 적의 통수부도 일정한 전략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적보다 한층 더 높이 시야만 전략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적의 제 5 차 《포위 토벌》 시기의 《좌》 경적 기회주의 로선과 그리고 장 국도 로선의 전략적 지도가 오유를 범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이렇게 하지 못한 데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퇴각 단계에 있어서는 반공 단계를 예견하여야 하며 반공 단계에 있어서는 진공 단계를 예견하여야 하며 진공 단계에 있어서는 또 퇴각 단계를 예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견이 없이 눈앞의 리해에 사로잡히는 것은 곧 실패의 길이다.

반드시 승전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반 전역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전략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반공을 시작할 때, 즉 첫 전투를 할 때에 있어서는 안 될 세 개 원칙이다.

제 6 절 병력 집중 문제

병력 집중은 보기에겐 쉬운듯 하나 실행하기는 자못 어

려운 일이다. 다수로써 소수들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와 반대로 번번이 병력을 분산시킨다. 그 원인은 지도자가 전략적 두뇌가 없어서 복잡한 환경에 미혹되고 따라서 환경에 지배되어 자주적 능력을 상실하고 두루 두루 때 맞추는 데 있다.

아무리 복잡하고 엄중하고 가혹한 환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군사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력량을 조직하며 사용하는 것이다. 적의 압력 하에서 하는 수 없이 피동적 지위에 처하게 되는 일도 흔히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급속히 주동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만일 주동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패배 뿐이다.

주동적 지위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물질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 있는 군대를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집결하는 것이다.

방어전은 본래 피동적 지위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진공전에서는 주동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나 방어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방어전은 피동적 형식 속에 주동적 내용을 가질 수 있으며 형식 상의 피동적 단계로부터 형식 상 및 내용 상의 주동적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완전히 계획적인 전략적 퇴각은 형식 상으로 보면 부득이한 것이지만 내용 상으로 보면 자기의 군사력을 보전하고 기회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려는 것이며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면서 반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퇴각을 거부하고 창졸히 응전하는 것(예를 들면 초석 전투)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동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동적인 것이다. 전략적 반공은 그 내용 상으로 주동적인 뿐만 아니라 그 형식 상으로도 퇴각 때의 피동적 자세를 포기한다. 적군에 대하여 말한다면 반공은 아군이 그들에게 주동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병력 집중, 운동전, 속결전, 섬멸전 같은 것이 모두 그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 중에서도 병력 집중이 가장 선차적이며 주요한 조건이다.

병력 집중이 필요한 것은 적아의 형세를 개변시키기 위하여서이다. 첫째로, 그것은 진퇴의 형세를 개변시키기 위하여서이다. 말하자면 적이 진공하고 우리가 퇴각하던 것을 우리가 진공하고 적이 퇴각하는 것으로 개변시키려는 것이다. 병력을 집중하여 가지고 한 번 싸워 이기면 그 전투에서 이 목적이 달성되며 또 전반 전역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로, 그것은 공격과 수비의 형세를 개변시키기 위하여서이다. 퇴각하여 퇴각의 종점에 이르기까지는 방어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극적 단계 즉 《수비》의 단계에 속한다. 반공은 적극적 단계 즉 《공격》의 단계에 속한다. 비록 전반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 방어의 성격을 벗어 나지는 못 하였지만 그러나 퇴각과 비한다면 반공은 그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공은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진공 사이의 과도적인 것이며 전략적 진공 전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병력 집중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내선과 외선의 형세를 개변시키기 위하여서이다. 전략 상으로 내선 작전을 하고 있는 군대, 특히 《포위 토벌》을 당하는 환경에 처하여 있는 홍군은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전역이나 전투에서 그것을 개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응당 개변시켜야 한다. 즉 아군에 대한 적군의 대《포위 토벌》을 적군에 대한 아군의 많은 개별적 소포위 토벌로 전환시키며, 아군에 대한 적군의 전략 상의 분진 합격(分進合擊)을 적군에 대한 아군의 전역 또는 전투 상의 분진 합격으로 전환시키며, 아군에 대한 적군의 전략 상의 우세를 적군에 대한 아군의 전역 또는 전투 상의 우세로 전환시키며, 전략 상으로 강자의 지위에 처하여 있는 적군을 전역 또는 전투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하며, 동시에 자기의 전략 상에서의 약자의 지위를 전역 또는 전투에서의 강자의 지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내선 작전 중의 외선 작전이며 《포위 토벌》 중의 포위 토벌이며 봉쇄 중의 봉쇄이며 방어 중의 진공이며 열세 중의 우세이며 약자 중의 강자이며 불리 중의 유리이며 피동 중의 주동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방어에서 승리하는가 못 하는가는 기본적으로 병력 집중이라는 이 한 수에 달려 있다.

중국 홍군의 전쟁사에 있어서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한 논쟁 문제로 되어 왔다. 1930년 10월 4일의 길안 전역에서 병

력이 완전히 집중되기 전에 전진과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동영사)이 스스로 도망쳤으니 다행이지 우리의 공격 자체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다.

1932년부터는 근거지의 동, 서, 남, 북 사면으로부터 출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전선에 걸쳐 출격하자》는 구호가 나타났다. 이것은 전략적 방어 때에 있어서 옹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진공 때에 있어서도 역시 옹지 못 한 것이다. 적의 대비의 전반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모두 방어와 진공, 견제와 돌격의 두 방면이 있으며 《전선에 걸쳐 출격하는》 일은 사실 상 극히 드물다. 전선에 걸쳐 출격하자는 구호는 군사적 모험주의에 따르는 군사적 평균주의이다.

군사적 평균주의자들은 1933년에 와서는 소위 《두 주먹으로 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홍군의 주력을 둘로 분할하여 두 전략 방향에서 동시에 승리를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 주먹은 놀게 되고 한 주먹만 몹시 피로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강대한 적군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자기에게 군대가 얼마 있든지 간에 동일한 시간에 있어서의 그 주요한 사용 방향은 하나 뿐이어야 하고 둘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작전 방향이 둘 또는 그 이상 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주요 방향이 동일한 시간 내에 있어서는 단 하나 뿐이어야 한다. 중국 홍군이 약소한 자로서 국내 전쟁의 전장에 나타나 강한 적을 루차 처 부

시고 세계를 진감시킨 전적을 쌓은 것은 병력의 집중적 사용에 의존한 보람이 아주 크다. 대승리를 거둔 싸움은 모두가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다. 《하나로써 열을 당하고 열로써 백을 당한다》는 것은 전략 상에서 하는 말이며 전반 전쟁 또는 적아의 전반 대비에서 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역이나 전술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공에서나 진공에서나 우리는 항상 큰 력량을 집결하여 적의 일부분을 공격하여야 한다. 1931년 1월에 강서성 녕도현 동소 지구에서 담 도원 부대를 친 작전, 1931년 8월에 강서성 흥국현 고흥우 지구에서 19 로군을 친 작전, 1932년 7월에 광둥성 남웅현 수구우 지구에서 진 제당 부대를 친 작전, 1934년 3월에 강서성 러천현 단촌 지구에서 진 성 부대를 친 작전은 모두 병력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원래 수구우와 단촌에서의 싸움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승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승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만(진자에서는 진 제당의 20 개 탄을 격파하였으며 후자에서는 진 성의 12 개 탄을 격파하였다) 우리는 종래로 이러한 승전을 환영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패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로획한 것이 없거나 로획한 것이 소모된 것보다 많지 못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의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로써 열을 당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술은 《열로써 하나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을 싸워 이기는 근

본 법칙의 하나이다.

군사적 평균주의는 1934년의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병력을 6 로로 나누고》 《전 전선에 걸쳐 저항》 하면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적에게 제압 당하였다. 그 원인은 땅을 잃는 것을 두려워 한 데 있다. 주력을 한 방향에 집중하고 기타의 방향에는 전체 역량만 남겨 둔다면 물론 땅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손실이며 그 대'가로서 돌격 방향에서의 승리를 얻게 된다. 돌격 방향에서 승리하면 전체 방향에서의 손실은 만회될 수 있다. 적의 제 1, 제 2, 제 3, 제 4 차 《포위 토벌》에서 우리는 땅을 잃었으며 특히 적의 제 3 차 《포위 토벌》 때에는 강서 홍군 근거지의 거의 전부를 잃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땅을 전부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기까지 하였다.

근거지 인민의 역량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홍군이 근거지를 멀리 떠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그릇된 심리가 흔히 생긴다. 이러한 그릇된 심리는 1932년에 강서성의 홍군이 멀리 복건성의 장주를 치러 나갔을 때에도 생겼고 1933년의 제 4 차 반 《포위 토벌》 전역에서 승리한 후 홍군이 복건성으로 진격할 때에도 생겼었다. 전자는 근거지의 전부가 점령되는 것이 두려워서, 후자는 근거지의 일부가 점령되는 것이 두려워서 병력의 집중을 반대하고 병력을 나누어 수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은 량자가 다 옳지 못 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적을 두고 말하면 한 편으로는 근거지에 들어 가기가

무섭고 다른 편으로는 백색 지구에 쳐들어 간 홍군이 주요한 위협물이다. 따라서 적군의 주의력은 언제나 주력 홍군이 있는 곳으로 쏠린다. 적이 주력 홍군은 내버려 두고 근거지에만 주의력을 돌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홍군이 방어할 때에도 적의 주의력은 여전히 홍군에게 집중된다. 근거지를 축소시키려는 계획은 적의 전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홍군이 주력을 집중하여 그 한 방면의 부대를 소멸한다면 적군의 통수부는 그 주의력과 군사력을 더욱더 홍군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지를 축소시키려는 적의 계획도 파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치까주의를 취한 제 5 차 <포위 토벌>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하여 작전할 수 없었고 병력을 분산하여 방어하면서 단축한 돌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말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한 번에 3~4 리씩, 8~9 리씩 진격하고는 또치까를 쌓는 적의 또치까주의 작전 방법은 전'적으로 홍군 자체가 걸음마다 저항한 데서 축성된 것이다. 만일 아군이 내선에 있어서 걸음마다 저항하는 전법을 포기하고 또 필요하고 가능한 때에 적의 내선으로 쳐들어 갔다면 국면은 필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병력 집중의 법칙은 바로 또치까주의를 타승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병력 집중에는 결코 인민의 유격 전쟁을 포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소규모의 유격 전쟁을 포기하고 《한 자루의 총이라도 홍군에 집중시키라》고 한 럽삼 로선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실증되었다. 전

반 혁명 전쟁의 견지에서 본다면 인민의 유격 전쟁과 주력 홍군은 서로 두 팔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력 홍군만 있고 인민의 유격 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외팔 장군과 마찬가지로 된다. 근거지의 인민이란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작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무장한 인민이다. 적이 근거지로 들어 오기 무서워 하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홍군의 지대를 부차적인 작전 방향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체를 모두 집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병력 집중이란 전장 작전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 립각한 것이다. 강한 적에 대하여서나 긴요한 전장 작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1930년 12월 30일에 제 1 차 반 《포위 토벌》의 첫 전투에서 4만 명을 집중하여 장 휘찬 부대의 9,000 명을 쳤다. 약한 적에 대하여서나 그다지 긴요하지 않은 전장 작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나서도 된다. 예를 들면 1931년 5월 29일 제 2 차 반 《포위 토벌》의 마지막 전투 때에 진녕에서 류 화정 사의 7,000 명을 치는 데 홍군은 만 명 남짓한 병력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번마다 다 우세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세하거나 절대적으로 열세한 병력을 가지고 전장에 나설 수도 있다. 상대적 열세의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홍군의 그리 크지 않은 한 부대가(병력이 있으면서도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우세한 적의 진공을 격파하는 경우이다. 그러기 위하여 인민, 지형 또는 천기 등의 조건이 큰 원조를 줄 수 있을 때에 유격대나 소지대로써 적의 정면 또는 일익을 견제하게 하고 홍군은 전력을 집중하여 다른 일익의 일부분을 돌연 습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적의 일익의 일부분을 습격할 때의 병력 대비에 있어서는 역시 우세로써 열세에 대처하며 다수로써 소수를 이기는 원칙이 적용된다. 절대적 열세의 계를 들면 유격대가 백군의 대부대를 습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그 일소부분만 습격하며 마찬가지로 상술한 원칙이 적용된다.

대부대를 한 전장에 집중하여 작전하는 데는 지형, 도로, 급양, 주둔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도 역시 정확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홍군은 백군에 비하여 더 큰 곤란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홍군과 백군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로써 다수를 이긴다——우리는 중국의 전체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또 다수로써 소수를 이긴다——우리는 전장에서 작전하는 각개 국부의 적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벌써 비밀이 아니다. 적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의 승리를 막을 수 없으며 또 자기들의 손실을 면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비밀을 지킨다. 홍군의 작전은 일반적으 기습이다.

제 7 절 운동전

운동전이나 진지전이나? 우리의 대답은 운동전이다. 큰 병력도 없고 탄약의 보충도 없고 매개 근거지에 단 하나의 홍군 부대가 전진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진지전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지전은 방어 때에 기본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공 때라 하더라도 역시 쓸 수 없다.

적이 강대하고 홍군이 기술적으로 빈약한 데서 생기는 홍군 작전의 현저한 특성의 하나는 고정된 작전선이 없는 것이다.

홍군의 작전선은 홍군의 작전 방향에 복종한다. 작전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작전선도 고정되지 못 하게 된다. 큰 방향은 비록 한 시기 내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하여도 큰 방향 내의 작은 방향들은 수시로 변경되며 한 방향이 제한을 받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시기가 지난 후 큰 방향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 이러한 큰 방향도 역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적 국내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작전선이 고정될 수 없다. 쓰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형이 있었다. 쓰련 군대가 우리 군대와 다른 점은 고정되지 못한 정도가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데 있다. 어떠한 전쟁이나 절대적으로 고정된 작전선은 있을 수 없다. 승부와 진퇴의 변화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정된 작전선은 일

반적 전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의 중국 홍군과 같은 적아 간의 강약의 차이가 현저한 군대는 예외이다.

작전선이 고정되지 않음에 따라 근거지의 경로도 고정되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작아지고 때로는 축소되고 때로는 확장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서 생기면 저기의 것이 없어지는 일도 흔히 발생된다. 경로의 이런 류동성은 전'적으로 전쟁의 류동성에서 오는 것이다.

전쟁과 경로가 류동성을 가짐에 따라 근거지의 제반 건설 사업에도 류동성이 생기게 된다. 몇 개년 건설 계획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상사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전쟁을 환상하지 말며 경로 및 군사적 후방의 일시적 류동에 놀라지 말며 장기간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일정을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사업을 형세에 적응시켜 머물러 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여야 하며 진량 주머니를 내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류동적 생활 가운데서 노력하여야만 장애의 비교적 비류동적인 생활을 쟁취할 수 있으며 종국적 안정도 쟁취할 수 있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 시기를 지배하고 있던 소위 《정규적 전쟁》이라는 전략적 방침은 이러한 류동성을 부인하였고 소위 《유격주의》를 반대하였다. 류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동지들이 큰 나라의 통치자인 것처럼 처사한 결과 얻은 것은 그야 말로 심상치 않은 대류동——2만 5천리 장정이었다.

우리의 로농 민주 공화국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국가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내전의 전략적 방어 시기에 처하여 있으며 우리의 정권은 완전한 국가 형태로 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거리가 매우 멀며 우리의 군대는 수효나 기술에 있어서 적에 비하여 아직도 꺾 못 하며 우리의 령토는 아직도 매우 작으며 우리의 적은 우리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시름을 놓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의 방침이 규정되는바 덮어 놓고 유격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홍군의 유격성을 솔직히 승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끄러워 하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유격성은 다름 아닌 우리의 특성이며 우리의 장점이며 적을 타승하는 우리의 수단이다. 우리는 유격성을 포기할 준비를 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유격성은 장래에 있어서는 틀림 없이 포기하여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되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견지하여야 할 귀중한 것이다.

《이길 수 있으면 치고 이길 수 없으면 간다》——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동전에 대한 통속적인 해석이다. 치는 것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군사가는 천하에 없다. 다만 우리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을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통 길 가는 시간이 싸우는 시간보다 많으며 한 달에 평균 큰 싸움을 한 번 하면 잘 하는 셈이다. 《간다》는 것은 모두 《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일체 전략, 전역

방침은 모두가 《친다》는 이 기본점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치기 어려운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당면한 적이 많으면 치기 어려우며, 둘째로, 당면한 적이 비록 많지는 않으나 그 적이 부근의 적과 매우 접근되어 있으면 때로는 치기 어려우며, 셋째로, 일반적으로 보아 고립되어 있지 않고 아주 견고한 진지를 차지하고 있는 적은 치기 어려우며, 넷째로, 더 쳐도 전투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계속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경우면 우리는 언제나 갈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은 때에는 가는 것이 허용되며 또 가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홍군의 운동전의 기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본적인 것이 운동전이라 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진지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방면의 어떤 지렛점들을 고수하거나 전략적 진공에 있어서 고립 무원한 적과 조우하였을 때에는 진지전으로써 적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이러한 진지전으로써 적을 타승한 경험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허다한 도시, 또치까, 성채가 우리에게 함락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적의 야전 진지도 우리에게 돌파되었다. 금후 이 방면에서 일층 노력을 가하여 이 방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약점을 퇴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요구하며 또 허락하는 그러한 진지 공격 및 진지 방어를 전'적으로 제창하여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진지전을

취하는 것 또는 진지전과 운동전을 동등시하는 것 뿐이며 이러한 것들만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홍군의 유격성, 고정된 작전선의 결여, 근거지의 류동성, 근거지 건설 사업의 류동성 등은 지난 10년 간의 전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었는가? 변화가 있었다. 정강산으로부터 강서성에서의 제 1 차 반《포위 토벌》전까지가 제 1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유격성과 류동성이 매우 컸으며 홍군은 아직 유년 시대에 처하여 있었고 근거지는 아직 유격구였다. 제 1 차 반《포위 토벌》로부터 제 3 차 반《포위 토벌》까지가 제 2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유격성과 류동성이 많이 감소되고 방면군이 이미 건립되었으며 수백만 인구를 가진 근거지도 이미 존재하게 되었다. 제 3 차 반《포위 토벌》후로부터 제 5 차 반《포위 토벌》까지가 제 3 단계이다. 이 때에는 유격성과 류동성이 더욱 감소되었고 중앙 정부와 혁명 군사 위원회가 이미 건립되었다. 장정이 제 4 단계이다. 소규모의 유격과 소규모의 류동을 그릇되게 부인하다가 대규모의 유격과 대규모의 류동을 하게 되었다. 지금이 제 5 단계이다. 제 5 차 《포위 토벌》을 타승하지 못한 것과 대류동으로 인하여 홍군도 근거지도 모두 대단히 축소되었으나 이미 서북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섬감녕 변구의 근거지를 공고 발전시켰다. 홍군 주력인 세 개 방면군을 이미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전략의 성격으로 말한다면 정강산 시기로부터 제 4 차 반《포위 토벌》 시기까지를 제 1 단계로, 제 5 차 반《포위

토벌》 시기를 제 2 단계로, 장정으로부터 현재까지를 제 3 단계로 칠 수도 있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에 사람들은 본래 정확한 이전의 방침을 그릇되게 부정하였으며 지금 우리는 또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의 사람들의 그릇된 방침을 옳게 부정하고 종전의 정확한 방침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의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한 종전의 일체를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다. 부활시키는 것은 종전의 좋은 것들이며 부정하는 것은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의 그릇된 것들이다.

유격주의에는 두 측면이 있다. 그 한 측면은 비정규성, 즉 중앙 집권이 결여하고 통일이 없고 규율이 엄격하지 못하고 사업 방법이 단순한 것 등이다. 이러한 것은 홍군의 유년 시대에 생겨 난 것이며 그 중의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정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홍군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점차 자각적으로 버리어 홍군으로 하여금 가일층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더욱 통일되고 보다 규률적이고 사업을 더 주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더 정규성을 띠게 하여야 한다. 작전 지휘에 있어서도 역시 높은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유격성을 점차 자각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면에서 전진을 거부하고 완고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로운 것이며 대규모의 작전에 불리한 것이다.

다른 한 측면은 운동전의 방침이며 지금에 있어서도 아직 필요한 전략 및 전역적 작전의 유격성이며 근거지의 불가

피적인 류동성이며 근거지 건설 계획의 명확한 변경성이며 홍군의 건설에 있어서 시기에 맞지 않는 정규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면에서 력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유용한 것들을 보존하는 것을 반대하고 경솔하게 현 단계를 떠나 그저 바라 볼 수나 있을 뿐 갈 수는 없는, 오늘날 현실적 의의가 없는 소위 《새 단계》로 맹목적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역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로운 것이며 목전의 작전에 불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홍군의 기술 및 조직에 있어서 새 단계의 전야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새 단계로 넘어 갈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며 장래의 전쟁에 불리한 것이다. 장차 홍군의 기술적 및 조직적 조건이 개선되고 홍군의 건설이 새 단계에 들어서는 그 날에는 홍군의 작전 방향 및 작전선이 비교적 고정될 것이며 진지전이 증가될 것이며 전쟁의 류동성과 령토 및 건설의 류동성이 크게 감소되고 나중에는 소멸될 것이며 지금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세한 적과 그들이 의거하고 있는 공고한 진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좌》경 기회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의 그릇된 방법을 반대하는 한편 홍군의 유년 시대에 있던, 오늘에 불필요한 허다한 비정규성을 부활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나 출몰 홍군을 승전할 수 있도록 한, 많은 귀중한 건군 원칙과 전략 전술 원칙은 전결히 회복시켜야 한다. 오늘날 적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동시에 장차 새 단계로 넘어 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의 모든 훌륭한 것들을 총화하여 가일층 발전되고 일층 더 풍부한 체계적인 군사 로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운동전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찰, 판단, 결심, 전투 배치, 지휘, 은폐, 집중, 전진, 전개, 공격, 추격, 습격, 진지 공격, 진지 방어, 조우전, 퇴각, 야간 전투, 특종 전투, 강자를 피하고 약자를 치는 것, 성을 포위하고 증원 부대를 치는 것, 허위 공격, 방공, 몇 개의 적들 사이에 처하는 경우, 적을 뛰어 넘는 작전, 런속 작전, 후방 없는 작전, 휴식과 역량 축적의 필요성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홍군의 전쟁사에 있어서 허다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전역학에서 조리 있게 서술하며 총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제 8 절 속결전

전략적 지구전과 전역 및 전투에서의 속결전——이것은 한 사물의 두 측면이다. 이것은 국내 전쟁에 있어서 다 같이 중요시하여야 할 두 원칙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반동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혁명 세력은 점차적으로 장성하게 된다는 이것이 전쟁의 지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급성은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이 점에서 《속결》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0년 동안이나 혁명 전쟁을 진행하여 왔다는 이 점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에는 놀랄 만한 일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팔고 문장에서 겨우 과제, 승제, 기강[37]을 지은 셈으로 많은 다채로운 대목은 아직 뒤에 있다. 금후의 발전은 일체의 내'적 및 외'적 조건의 영향 하에서 과거에 비하여 의심할 바 없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국내 정세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또 금후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서서히 발전하고 고군 작전하던 과거의 그러한 형편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래일 곧 성공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식전에 해 치우려는》 기개는 좋으나 《식전에 해 치우려는》 구체적 계획은 좋지 못하다. 중국의 반동 세력은 허다한 제국주의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국내 혁명 세력이 내외의 적의 주요 진지를 돌파할 만한 역량량을 축적하기 전에는, 국제 혁명 세력이 대부분의 국제 반동 세력을 분쇄 또는 견제하기 전에는 우리의 혁명 전쟁은 여전히 지구적인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장기 작전의 전략 방침을 규정하며 이것을 전략적 지도의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삼는다.

전역 및 전투의 원칙은 이와 반대로 지구가 아니라 속결이다. 전역 및 전투에서 속결을 기하려는 것은 동서 고금을 물론하고 다 그러하였다. 전쟁 문제에 있어서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속결을 요구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시일을 오래 끄는 것은 불리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유독 중국의 전쟁만은

최대의 인내성으로써 이에 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구전으로써 이에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럽삼 로선 당시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법을 《권투 전술》(이 말의 뜻은 싸우고 또 싸워야 비로소 대도시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조소하였으며 백발이 되어야 혁명의 승리를 볼 수 있으리라고 우리를 조소하였다. 조급증을 표현하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벌써 실증된 바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적 의견이 전략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역이나 전투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매우 옳은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첫째로, 홍군은 무기, 특히 탄약의 원천이 없으며 둘째로, 백군은 부대가 많으나 홍군은 부대가 하나 뿐이어서 한 차례의 《포위 토벌》을 격과하기 위하여서는 신속하고 연속적인 작전을 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세째로, 백군은 비록 제각기 분산되어 진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대개는 비교적 밀집하여 있으므로 그 중 하나를 칠 때에 만일 급속히 전투를 해결하지 못 하면 그 나머지 부대들이 모두 달려 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속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몇 시간이나 하루 또는 이틀 동안에 한 전투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성을 포위하고 증원 부대를 치는》 방침 하에서는 그 목적이 포위하여 놓은 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증원 부대를 치는 것이므로 포위하여 놓은 적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지구적으로 작전할 준비를 하지만 적의 증원 부대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속결한다. 전략적 방어 때에 견제 방면의 거점을 고수하거나 전략적 진공 때에

고립무원한 적을 치며 근거지 내의 백색 거점을 소멸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흔히 전역 또는 전투에서 지구적 방침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전은 주력 홍군의 속결전도와 줄 뿐 결코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속결전은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한 많은 구체적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그 주요한 조건으로는 준비가 충분할 것, 시기를 놓치지 말 것, 우세한 병력을 집중할 것, 포위 우회 전술을 취할 것, 좋은 진지가 있을 것, 운동 중에 있는 적을 치거나 또는 주둔하고 있으나 진지가 아직 견고하지 못한 적을 칠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 전역 또는 전투에서 속결을 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차례의 《포위 토벌》을 격파하는 것은 하나의 대전역이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것도 지구의 원칙이 아니라 여전히 속결의 원칙이다. 그것은 근거지의 인력, 재력, 군사력 등의 조건이 모두 지구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속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조급성을 반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한 혁명 근거지의 최고 군사 정치 지도 기관으로서 근거지의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적의 정황을 고려하여 적의 흉흉한 기세에 압도되지 않으며 아직 참을 수 있는 곤난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그 어떤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필요한 인내성과 지구성을 발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강서성에서 제 1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할 때에는 첫 전투가 시작되어서부터 마

지막 전투가 끝 날 때까지 1 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고 제 2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할 때에는 반달 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제 3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할 때에는 3 개월이 걸렸으며 제 4 차에는 3 주일이 걸렸으나 제 5 차에는 옹근 1 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제 5 차는 《포위 토벌》을 격파하지 못 하였고 할 수 없이 포위를 돌파할 때에는 또 부당한 황급성까지 나타내었다. 그 때의 정황을 보면 2~3 개월쯤은 더 견지하면서 부대를 휴식시키며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였더라면, 또 만일 포위 돌파 후의 지도가 좀 현명하였더라면 정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전반 전역의 기간을 단축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전역, 전투 계획에서 병력 집중과 운동전 등등의 조건을 생취하기에 노력함으로써 극력 내선에서(근거지에서) 적의 유생력을 소멸하고 《포위 토벌》을 급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외에 내선에서 《포위 토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홍군의 주력으로써 적의 포위 공격선을 돌파하고 우리의 외선, 즉 적의 내선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치까지의가 발달된 오늘에 있어서 이러한 수단은 정상적인 작전 수단으로 될 것이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이 시작되어 두 달 후 복건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홍군의 주력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절강-안휘-강서 지구로 돌진해 들어가 항주, 소주, 남경, 무호, 남창, 복주 사이를 종횡으로 질주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방어를

전략적 진공으로 전화시켜 적의 근본적인 중요 지대를 위협하며 또치까가 없는 광대한 지대에서 작전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면 강서성 남부와 복건성 서부 지구를 진공하던 적들을 자기의 근본적인 중요 지대를 원조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되돌아 가게 만들어 강서 근거지에 대한 그들의 진공을 분쇄할 수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복건 인민 정부도 원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확실히 이 정부를 원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5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할 수 없었으며 복건 인민 정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1년 동안이나 싸운 후 그 때는 벌써 절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불리한 것으로 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략적 진공을 할 수는 있었다. 즉 주력으로써 호남성으로 전진하되 호남성을 거쳐 귀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남성 중부로 전진하여 강서성의 적을 호남성으로 끌어 들여 이를 소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마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5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할 희망은 최후적으로 단절되고 장정이라는 한 길 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제 9 절 섬멸전

《소모를 겨루어 보자》는 주장은 중국 홍군에 대하여는 때에 맞지 않는 것이다. 《보물내기》를 통왕끼리 한다면 몰라도 거지가 통왕하고 한다면 그야 말로 어이 없는 일일 것이

다. 거의 모든 것을 다 적에게서 얻는 홍군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은 섬멸전이다. 오직 적의 유생 력량을 섬멸하여야만 《포위 토벌》을 격파할 수 있으며 혁명 근거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적을 살상하는 것은 적을 섬멸하는 수단으로서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다. 적을 살상하는 데서 우리의 력량이 소모되고 적을 섬멸하는 데서 우리의 력량이 보충된다. 이리 하여 아군의 소모가 보상될 뿐만 아니라 아군의 력량이 증가된다. 격궤전은 강대한 적에 대하여서는 승부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지 못한다. 섬멸전은 어떠한 적에 대해서나 그 즉시로 중대한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에게 대하여 말한다면 그의 열 손'가락을 부상시키는 것은 그의 한 손'가락을 끊어 버리는 것보다 못하며 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의 10 개 사를 격궤하는 것은 그의 한 개 사를 섬멸하는 것보다 못하다.

제 1, 제 2, 제 3, 제 4 차 《포위 토벌》에 대하여 우리가 취한 방침은 모두다 섬멸전이었다. 섬멸한 적은 번마다 전체 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포위 토벌》은 격파되었다. 제 5 차 반 《포위 토벌》 때에는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상 자기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을 원조한 것으로 되었다.

섬멸전은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고 포위 우회 전술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후자가 없이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인민의 원조, 좋은 진지, 치기 쉬운 적, 불의의 습격 등 조건은 섬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들이다.

격개하는 것이 의의를 가진다거나 적을 도주하게 하는 것이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전반 전투 또는 전반 전역에 있어서 아군의 주력이 확정적인 적에 대하여 섬멸적인 작전을 할 때에 한하여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잃는 것이 얻는 데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경우인 것이다.

우리는 군수 공업을 건설하여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존성을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본 방침은 제국주의 및 국내의 적들의 군수 공업에 의존하는 것이다. 런던이나 한양에 있는 병기창에 대하여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또 적의 운수대를 통하여 그 무기가 수송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통담이 아니라 진리이다.

주 해

[1] 《실세》란 이 개념은 중국 글에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진실한 정황을 가리키며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즉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모택동 동지는 자기의 저작에서 이 개념을 응용할 때 흔히 두 가지 함의를 겸쳐 사용하고 있다.

[2] 손 무자 즉 손 무는 손자라고도 하는데 기원 전 5세기 중국의 유명한 군사가이며 군사학자이다. 저서로 《손자》 13 편이 있다. 이 글에 인용된 것은 《손자·모공》에 있다.

[3]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어서부터 1936년 모택동 동지가 이 글을 쓸 때까지가 바로 15 주년이였다.

[4] 진 독수는 본래 북경 대학 교수로서 잡지 《신청년》을 편집하여 이름이 난 사람이다. 진 독수는 중국 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다. 5.4 운동 시기

에 있어서의 그의 명성과 당의 창건 초기에 있어서의 미숙성으로 인하여 그는 당의 총서기로 되었다. 1924~1927년 혁명의 마지막 시기에 진 독수물 대표자로 하는 당내의 우경적 사상은 투항주의 로선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투항주의 분자들은 농민 대중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 중부르조아지에 대한 명도권을 가진하여 포기하였으며 더우기 무장력에 대한 명도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때의 혁명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였다》(본 선집 제 4 권의 《현 정세와 우리의 과업》을 보라).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후 진 독수 및 기타의 일부 투항주의자들은 혁명의 권도에 비판 실망하여 청산주의자로 전락되고 트로츠키주의적인 반동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트로츠키 분자들과 야합하여 반당적인 분파를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진 독수는 1929년 11월에 출당 당하였다. 진 독수는 1942년에 죽었다. 진 독수의 우경 기회주의에 관하여서는 《중국 사회 각 계급의 분석》,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의 두 저작의 해제와 본 선집 제 2 권의 《〈공산당인〉 발간사》를 참조하라.

[5] 리 립삼 《좌》경 기회주의단 1930년 6월 이후 약 4 개월 간 존재하였던,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주요한 지도자 리 립삼 동지를 대표자로 하는 《좌》경 기회주의의 로선을 말하며 그것을 보통 《립삼 로선》이라고 한다. 립삼 로선의 특징은 당의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의 방침을 위반하고 혁명은 대중적 역량의 준비가 요구되며 혁명의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주요한 주의력을 농촌 근거지의 창설에 돌리며 농촌으로써 도시를 포위하며 근거지에 의거하여 전국 혁명의 양상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모택동 동지의 사상을 소위 《극히 그릇된》 《농민 의식의 지방적 편협 및 보수적 편협》이라고 인정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즉시 봉기한 준비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리 립삼 동지는 이러한 그릇된 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즉시로 전국의 각 중심적 도시에서 무장 봉기를 조직하려는 모험적 계획을 작성하였다. 동시에 또 립삼 로선은 세계 혁명의 불균형성을 부인하고 중국 혁명의 총폭발은 필연코 세계 혁명의 총폭발을 일으키게 되며 또 중국 혁명은 반드시 세계 혁명의 총폭발 중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립삼 로선은 또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장기성을 부인하고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의 시작으로 되리라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때에 맞지 않는 약간의 《좌》경적인 모험적 정책을 규정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이 그릇된 로선을 반대하였으며 전 당의 광범한 간부 및 당원들도 이 로선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리 립삼 동지 자신도 1930년 9월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에서 당시에 지적된 오류를 승인하였으며 뒤'이어 당 중앙의 지

도적 지위로부터 풀려났다. 그 후 뫼삼 동지가 장기간에 걸쳐 자기의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당의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또 그를 중앙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6] 1930년 9월에 열린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및 그 후 한 시기에 있어서의 당 중앙은 뫼삼 로선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많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이후 진 소우(왕 명), 진 방현(박고) 두 동지들 비롯한, 혁명 투쟁의 실제 경험 이 없는 당내의 일부 동지들은 중앙의 조치에 반항하여 나섰다. 그들은 당시에 발표한 《두 갈래 로선》 또는 《중국 공산당을 더욱 불세워키워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당시 당내의 주요한 위협은 《좌》경 기회주의가 아니라 소위 《우경 기회주의》라고 특히 강조하면서 뫼삼 로선을 《우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자기들의 활동의 밑천으로 삼았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 하에서 뫼삼 로선 및 기타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을 계속하며 회복 또는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치 강령을 제기하여 모택동 동지의 올바른 로선에 대립하였다. 당내에서 이 그릇된 새로운 《좌》경적 로선이 지배한 기간은 1931년 1월에 열린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로부터 1935년 1월에 귀수성 준의에서 열린 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이 그릇된 로선의 명도를 중지시키고 모택동 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의 새로운 명도가 시작된 때까지이다. 이 그릇된 《좌》경적 로선은 당내에서 지배한 기간이 특히 길었으며(4 년 동안이었다) 당과 혁명에 준 손실이 특히 컸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중국 홍군 및 홍군 근거지의 약 90%를 상실 하게 하였으며 혁명 근거지의 수천만 인민을 국민당에게 짓밟히게 하였으며 중국 혁명의 진전을 지연시킨 나쁜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좌》경적 로선의 오류를 범한 동지들 중 절대 다수는 장기간의 체험을 통하여 이미 자기의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하였으며 당과 인민에게 유익한 많은 사업들을 하였다. 이 동지들은 광범한 기타 동지들과 함께 공동한 정치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모택동 동지의 명도 하에 호상 단결되었다. 1945년 4월에 열린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이 그릇된 로선을 각 면으로 상세히 총화하였다. 이 결정은 본 선집 제 3 권에 수록되어 있다.

[7]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의 주해 21과 22를 참조하라.

[8] 여산 군관 훈련단은 장 개석이 공산당을 반대하기 위한 군사 간부들 훈련하기 위하여 1933년 7월에 강서성 구강현의 여산에 창설한 조직이다. 이

훈련단에서는 장 개석 군대의 군관을 문번적으로 소집하여다가 독일, 이탈리아 및 미국의 군사 교관에게서 파쇄적인 군사적 및 정치적 훈련을 받게 하였다.

[9] 여기서 말하는 제 5 차 《모위 토벌》의 신군사 원칙이란 주로 토치카를 구축하고 걸음마다 진을 치는 장 개석 도당의 《토치카 정책》을 가리켜 말한다.

[10] 베닌의 《공산주의》에 있다. 이 논문에서 베닌은 헝그리아 공산당 지도자 벨라 쿤을 비판하면서 《바로 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맑스주의의 산정신, 즉 구체적 정세의 구체적 분석을 피하고 있다.》고 썼다.

[11]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당 제 1 차 대표 대회란 1928년 5월 20일 Ning 강현 모퉁에서 소집한 상공 변구 공산당 제 1 차 대표 대회이다.

[12]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의 주해 2와 3을 보라.

[13] 《토비주의》란 규율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명확한 정치적 목표도 없는 막달적 행위를 가리켜 말한다.

[14] 홍군이 강서성으로부터 섬서성 북부에 이른 2만 5천리 장정을 가리켜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의 주해 20을 보라.

[15] 《보조 부대》란 주력군이 아니고 익측만을 담당하는 군대이다.

[16] 로씨야에서 1905년 12월 봉기가 실패된 후 혁명이 만조기로부터 점차 퇴조기로 들어 간 시기를 가리켜 말한다. 《쓰면 공산당(불쉐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3 장 제 5, 제 6 절을 참조하라.

[17] 브레스트 조약은 1918년 3월 쏘베트 로씨야가 독일과 체결한 강화 조약이다. 이것은 당시 격의 세력이 혁명 세력보다 원저히 우세한 조건 하에서 방금 창건되어 아직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 하는 쏘베트 공화국으로 하여금 독일 제국주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일시적 퇴각이었다. 이 강화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쏘베트 공화국은 프로메타리아트의 정권을 공고화하며 경제를 조절하며 붉은 군대를 창건할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메타리아트는 농민에 대한 명도물 확보하며 력량을 축적하여 1918~1920년에 백위군 및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폴스까 등 나라의 무력 간섭자들을 격퇴할 수 있었다.

[18] 1927년 10월 30일 평동성 해풍, 록풍의 농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도 하에 제 3 차 봉기를 일으켜 해풍, 록풍 및 그 부근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홍군을 조직하고 토농 민주 정권을 수립하였다. 후에 적을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실패하였다.

[19] 1936년 가을 홍군 제 4 방면군은 홍군 제 2 방면군과 회합한 후 서

강성 동북부에서 북상의 길에 올랐다. 장 국도는 이 때에도 여전히 반당적 행위를 계속하면서 그의 일관적인 퇴각주의와 청산주의를 고집하였다. 그 해 10월 홍군 제 2 방면군과 제 4 방면군이 감숙성에 도착된 후에 장 국도는 홍군 제 4 방면군의 전위 부대 2만여 명에게 서로군을 조직하여 광하를 건너 청태성으로 서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서로군은 1936년 12월에 전쟁에서 타격을 받아 기본적으로 실패하였고 1937년 3월에 와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20] 파리 품물에 관하여 쿠제르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을 보라.

[21] 《수호 권》은 농민 전쟁을 묘사한 중국의 유명한 소설이며 기원 14 세기 원조 말엽, 명조 초엽 사람인 시 내암의 저작이라 한다. 범 승, 시 진은 이 소설에 나오는 영웅 인물들이며 홍 교두는 시 진의 집에 있는 무술 선생이다.

[22] 로 나라와 제 나라는 중국 춘추 시대(기원 전 722년~기원 전 481년)의 부봉건 국가이다. 제 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중부에 있는 큰 나라였고 로 나라는 지금의 산둥성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였다. 장공은 기원 전 693년~기원 전 662년의 로 나라의 임금이었다.

[23] 좌 구명은 중국 주 나라의 유명한 편년사 《좌전》의 저자이다. 본문에 인용된 글은 《좌전》 장공 10년에 있다.

[24] 성고 옛성은 지금의 하남성 성고현 서북부에 있었으며 고대의 군사 요지였다. 기원 전 203년에 한 나라 왕 류 방과 초 나라 왕 항 우가 이 곳에서 서로 대치하였다. 당시 항 우는 형양, 성고돌 변'이여 점명하였으며 류 방의 군대는 형전 없이 격파되었다. 그러나 후에 류 방은 초 나라 군대를 범수돌 결반 가량 건너 온 때를 타서 초 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성고를 탈환하였다.

[25] 곤양 옛성은 지금의 하남성 엽현 경내에 있었다. 기원 23년에 유 수(동한의 평무제)가 여기에서 왕 망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쟁에 있어서 쌍방의 군사력의 강약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유 수의 군대는 8,000~9,000 명 밖에 안 되었고 왕 망의 군대는 40여만 명이었다. 그러나 유 수는 왕 망의 장군 왕 심, 왕 읍이 적을 경시하여 해태하여진 등을 타서 정예 3,000 명으로 왕 망 부대의 증진을 돌파하고 승승장구로 계속 진격하여 적군을 대파하였다.

[26] 판도는 지금의 하남성 증보현 동북부에 있다. 기원 200년에 초 조의 군대와 원 소의 군대가 이 곳에서 싸웠다. 당시 원 소는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 조는 군대도 적고 군량도 떨어졌다. 그러나 초 조는 원 소의 군대가 적을 경시하여 방비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적은 군대로 기습 작전을 단행하여 원 소의 군대의 치중을 소각하였다. 그리 하여 원 소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자 초 조의 군대는 슬격하여 그 주력을 섬멸하였다.

[27] 오 나라는 손 권 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위 나라는 조 조 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적벽은 호북성 가이현 동북장강 남안에 있다. 기원 208년에 조 조는 군대 50여만 명을 거느리고 80만 명이라 하면서 손 권을 진공하였다. 손 권은 조 조의 직인 류 비와 연합하고 3만 명의 군대를 출동시켜 조 조의 군대 내에 병이 돌고 또 그들이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리용하여 화공으로써 조 조의 군대의 선척을 소각하여 조 조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28] 이몽은 지금의 호북성 의창현 동부에 있다. 기원 222년에 오 나라의 장수 목 손은 여기에서 속 나라의 류 비를 대패시켰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류 비의 군대가 변전 편승하며 이몽에 도달하여 오 나라의 경내를 500~600 리나 들어 왔다. 목 손은 7~8 개월 간이나 싸우지 않고 수비하면서 류 비의 《병사가 피로하여지고 사기가 떨어지며 더 어찌 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순풍에 불을 놓아 속 나라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29] 기원 383년에 안휘성의 비수에서 동진의 장군 사 현은 진 나라 군주 부 건을 대패시켰다. 당시 부 건은 보병 60여만 명, 기병 27만 명, 친위대 기병 3만여 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진은 수, 목군을 합하여 8만 명 밖에 없었다. 양군이 비수들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동진군의 강령은 적군이 포로 자만하고 있는 틈을 리용하여 비수 이복의 진 나라 군대에게 그 쪽의 일부 싸움터를 양도하여 수면 강을 건너 가서 걸전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진 나라 군대는 과연 응낙하였다. 그러나 일단 퇴각하자 진 나라 군대는 걸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동진 군대는 이 기회를 타서 강을 건너 가 공격함으로써 진 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

[30] 1927년 8월 1일에 중국 공산당은 장 개석, 왕 정위의 반혁명을 반대하며 1924~1927년의 혁명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서성 성 소재지 남창에서 유명한 봉기를 명도하였다. 이 봉기에는 3만여 명의 무장 부대가 참가하였으며 그 명도자는 주 은래, 주 덕, 하 룡, 엄 정 등 동지들이었다. 봉기군은 8월 5일에 원 계획 대로 남창을 포기하고 팡동성의 조주, 산두에까지 진격하여 거기에서 좌결 당하였다. 봉기군의 일부분은 후에 주 덕, 진 의, 범 표 등 동지들의 명솔 하에 건전하면서 정강산에 이르러 모 태동 동지가 명도하는 로동 혁명군 제 1 군 제 1 사와 회합하였다.

[31]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의 주해 8을 보라.

[32] 1927년 9월에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수수, 평항, 평강, 류양 등 현의 인민 무력은 모 태동 동지의 명도 하에 유명한 추수 봉기를 일으키고 로동 혁명군 제 1 군 제 1 사를 성립하였다. 모 태동 동지는 이 부대를 명솔하고 정강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상공 연구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33] AB단이란 당시 홍색 지역에 잠부하여 있던 국민당의 반혁명적 특수 조직이었다. AB는 영문 Anti-Bolshevik(반볼셰위크)의 약어이다.

[34] 강서성 중부의 공강과 동부의 무수 사이의 지구를 가리켜 말한다.

[35] 매닌의 저작들인 《불행한 강화 문제의 역사에 대하여》, 《이상야릇하고도 기괴 망측한 것》, 《중대한 교훈과 중대한 책임》, 《전쟁과 평화에 관한 보고》 그리고 《쓰면 공산당(볼셰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7 장 제 7 절을 참조하라.

[36] 여기에서 말하는 장족이란 서강, 감숙, 칭해의 장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족이란 감숙, 칭해, 신강의 회족을 가리킨다.

[37] 팔고문이란 15~19 세기의 중국 봉건 왕조의 과거 제도에 규정된 특수한 문체이다. 팔고문은 편마다 파제, 승제, 기강, 입수, 기고, 증고, 후고, 속고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파제》는 2 구로 제목의 요의를 실파하는 것이며 《승제》는 3 구 내지 4 구로 파제의 의의를 받아 설명하는 것이며 《기강》은 전체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문의 시작이며 《입수》는 기강한 후에 본문에 들어 가는 곳이며 기고, 증고, 후고 및 속고 등 네 단락이 비로소 본문이다. 그 중에서 증고는 전 편의 중심이다. 이 네 단락은 단락마다 서로 대'구되는 두 구절이 있어 도합 팔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팔고문이라 하며 팔비라고도 한다. 모택동 동지는 여기에서 팔고문이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한 부분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써 혁명 운동의 각 단계의 발전을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모택동 동지는 팔고문이라는 것으로써 교조주의를 비유하며 또 이를 풍자하고 있다.

장 개석의 성명에 대한 성명

(1936년 12월 28일)

장 개석씨는 서안에서 장 학량, 양 호성 두 장군과 서북 인민의 항일 요구를 접수하고 우선 내전을 진행하고 있는 군대에게 섬서, 감숙 두 성에서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장 개석씨가 지난 10년 간의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개변하는 시작이다[1]. 이것은 내전을 지휘하여 왔고 분렬을 조작하여 왔으며 또한 이 번 사변에서 장 개석씨를 죽음의 길로 몰아 넣으려고 한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토벌파[2]의 음모에 타격을 준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토벌파의 실망은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장 개석씨의 이러한 각성의 표시는 국민당이 자기의 지난 10년 간의 그릇된 정책을 종결 지으려 한다는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장 개석씨는 12월 26일에 랑양에서 소위 《장 학량, 양 호성에 대한 훈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내용이 아주 애매하고 고불고불한 이 성명은 실로 중국 정치 문헌에서 흥미 있는 글이라 하겠다. 장 개석씨가 과연 이 번 사변에서 심각한 교훈을 받아 국민당의 신생을 위하여 힘 쓰려 한다면, 대외적으로 타협하고 대내적으로 무력을 쓰며 인민에 대하여

억압하는 자기의 전통적인 그릇된 정책을 종결 짓고 국민당을 인민의 념원과 배치되지 않는 지위로 인도하려 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과거를 뼈아프게 뒤우치고 장래를 개척하는 좀더 훌륭한 글로써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12월 26일의 성명은 중국 인민 대중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장 개석씨의 성명에는 찬양할 만 한 구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즉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 있다》는 구절이다. 이 말의 뜻인즉 자기가 서안에서 장 학량, 양 호성이 제기한 조건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나라와 민족에 리로운 그 요구들을 채납할 용의가 있으며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을 지키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씨가 철병한 후 정말 신의를 지키는가, 또 그가 승낙한 조건들을 실행하는가를 두고 볼 것이다. 그 조건들은 (1) 국민당과 국민 정부를 재조직하여 친일파를 구축하고 항일 분자를 용납할 것, (2) 상해의 애국적 지도자들^[3]을 석방하고 일체의 정치범을 석방하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 (3) 《공산당 토벌》 정책을 중지하고 홍군과 연합하여 항일할 것, (4) 각 당, 각과, 각계, 각군의 구국 회의를 열고 항일 구국 방침을 결정할 것, (5) 중국의 항일을 동정하는 나라들과 협조 관계를 설정할 것, (6) 기타의 구체적인 구국 방책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실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용기도 좀 필요하다. 우리는 장 개석씨의 금후 행동의 표현에서 이를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장 개석씨의 성명 가운데는 또 서안 사변은 《반동파》의 포위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장 개석씨는 그가 소위 《반동파》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인물들인가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 장 개석씨의 사전에는 《반동파》라는 세 글'자가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세력의 영향에 의하여 서안 사변을 일으킨 것만은 틀림 없다. (1) 장 학량, 양 호성 부대 및 서북의 혁명적 인민들의 항일 노도의 앙양, (2) 전국 인민의 항일 노도의 앙양, (3) 국민당 좌파 세력의 발전, (4) 각 성 실력파들의 항일 구국의 요구, (5) 공산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주장, (6) 세계 평화 진영의 발전. 이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 개석씨가 말하는 《반동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혁명파라고 부르지만 장 개석씨는 이를 《반동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장 개석씨는 서안에서 진정으로 항일하겠다고 말한 이상 서안을 벗어 났다고 하여 또다시 혁명 세력을 애써 공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신의 문제가 장 개석씨 및 그 일파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길에는 장 개석씨 및 그 일파의 앞에 이미 팽창되어 그들에게 불리한 세력, 즉 서안 사변에서 장 개석씨를 죽음의 길로 몰아 넣으려던 소위 토벌파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 개석씨에게 자기의 정치 사전을 수정하여 《반동파》라는 세 글'자를 혁명파라는

세 글'자로 고칠 것을 충고한다. 이렇게 명실이 부합되지 고쳐야만 비교적 타당할 것이다.

장 개석씨는 자기가 무사히 서안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서안 사변의 지도자인 장 학량, 양 호성 두 장군 이외에 공산당의 조정이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당이 서안 사변에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 것은 전'적으로 민족 생존의 견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만일 내전이 확대되고 장 학량, 양 호성이 장 개석씨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변의 진전은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토벌파에게만 유리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토벌파 왕 정위[4], 하 응흠[5] 등의 음모를 단호히 폭로하고 이 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건결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장 학량, 양 호성 두 장군 및 송 자문씨[6] 등 국민당원들의 주장과 의논 없이 합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곧 전국 인민의 주장이다. 왜냐 하면 지금의 내전은 인민이 통절히 증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 개석씨는 서안 조건을 접수함으로써 이미 자유를 회복하였다. 금후의 문제는 장 개석씨가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한 자기의 언약을 조금도 에누리 없이 실행하여 구국 조건 전부를 그대로 실현하느냐 않느냐 하는 데 있다. 전국 인민은 장 개석씨에게 다시는 어떠한 지체나 에누리를 할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장 개석씨가 만일 항일 문제에 있어서 배회하면서 자기의 언

약의 실천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전국 인민의 혁명 노도는 장 개석씨를 휩쓸어 가고야 말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쓸 데가 없다.》고 하였다. 장 개석씨와 그 일파는 이 말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장 개석씨가 국민당의 지난 10년 간의 반동 정책의 오점을 일소하고, 대외적으로 양보하고 대내적으로 무력을 쓰며 인민에 대하여 억압하여 오던 자기의 기본적인 오류를 철저히 시정하고 즉시 각 당, 각파와 연합하여 일치하게 항일하는 전선에 나서서 군사 상에서나 정치 상에서나 실제적으로 구국 대책을 취한다면 공산당은 의례 그를 찬조할 것이다. 공산당은 국민당에 보낸 8월 25일 부 서한에서 벌써 이러한 찬조에 관한 언약을 장 개석씨와 국민당에 주었다[7]. 공산당이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은 15년 래 전국 인민이 벌써 시인하고 있는 바이다. 전국 인민의 공산당의 언행에 대한 신임은 실로 국내의 그 어떤 당파의 언행에 대한 신임보다도 훨씬 더 두텁다.

주 해

[1] 장 학량을 위수로 한 국민당 동북군파 양 호성은 위수로 한 국민당 제 17 토군은 중국 홍군과 인민의 항일 운동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에 동의하고 장 개석에게 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 개석은 이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산당 토벌》을 위한 군사 배치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안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였다. 1936년 12월 12일에 장 학량과 양 호성은 서안 사변을

일으켜 장 개석을 세모하였다. 이 사변이 발생된 후 중국 공산당은 장 학당과 양 호성의 애국 행동을 건결히 지지하는 동시에 단결하여 합일하는 기조 우에서 이 사변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12월 25일에 장 개석은 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하자는 조건을 하는 수 없이 겸수하고 석방되어 남경으로 돌아 갔다.

[2] 이것은 장 개석과 권력 다름을 하면서 시안 사변 당시 장 학량, 양 호성을 《토벌》하자고 주장하던 남경 국민당 정부 내의 친일파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 자들은 왕 정위, 차 응홍을 두목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안 사변을 구실로 대규모의 내전을 도발함으로써 일본 침략자들의 진공에 리듬계 하며 이 기회에 장 개석의 통치적 지위를 탈취하려 하였다.

[3] 상해의 애국적 지도자들이란 상해 항일 애국 운동의 지도자들인 심 균유, 장 내기, 주 도분, 리 공박, 사 천리, 사 량, 왕 조시 등 7 명을 가리켜 말한다. 그들은 1936년 11월에 장 개석 정부에 세모되었다가 1937년 7월에야 석방되었다.

[4] 왕 정위는 당시 국민당 내의 친일파의 두목이었다. 1931년부터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타협을 주장하였다. 1938년 12월에 그는 상경을 떠나 공공연히 일본 침략자에게 투항하고 남경 괴뢰 정부를 조직하였다.

[5] 차 응홍은 국민당의 군벌이며 국민당 내의 친일파의 다른 한 두목이다. 시안 사변 당시 그는 내전을 일으키려고 적극 취재하였으며 통화 철도선을 마라 섬서성을 진공하도록 국민당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또 장 개석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시안을 목격함으로써 장 개석을 폭사시키려 하였다.

[6] 송 자문은 친미파이다. 당시 극동에서 패권을 쟁탈하고 있던 미, 일 제국주의 간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송 자문은 미국의 리익에 근거하여 역시 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7] 이 시한은 국민당의 반동적 통치와 당시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2 차 전원 회의에 대하여 정당하고도 준엄한 비판을 가한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에 관한 정책과 국공 합작을 재건하려 하는 정책을 천명하였다. 이 시한의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 발한 <중앙 집권과 통일>은 그야 말로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 년 동안의 내전과 불통일은 권'적으로 귀 당과 귀 당 정부의 제국주의에 의존하는 망국 정책, 특히 9. 18 이래의 일관적인 무저항 정책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귀 당과 귀 당 정부는 <외적을 물리치자면 먼저 국내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호 밑에서 해마다 끊임 없는 내전을 진행하여 왔으며 홍군에 대하여 무수한 포위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며 전국 인민의 애국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극력 탄압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그냥 동복과 화복을 돌보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잊어 버리고 일제 역량을 기울여 홍군을 반대하며 귀담 자기 진영의 내부 분쟁에 종사하며 권력을 다하여 홍군의 항일의 길을 가로막으며 홍군의 항일 후방을 교란하며 전국 인민의 항일 요구를 무시하며 전국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법칙으로 되어 국내의 감옥은 죄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라를 팔아 먹는 것은 상반는 일로 되어 민족 반역자들은 때를 만났다고 서로 축하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정책으로 중앙 집권과 통일을 기하려는 것은 그야 말로 나무에 올라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격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세에게 똑똑히 알려 준다. 만일 당신들이 자신의 그릇된 방침을 근본적으로 개변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들이 적개심을 일본 제국주의에게 돌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동모들에게 돌린다면 당신들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우기 중앙 집권이요, 통일이요, <현대적 국가>요 하는 말들은 순전한 공담으로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전국 인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외적에게 아첨하고 인민을 짓밟는 중앙 집권과 통일이 아니라 항일 구국을 위한 중앙 집권과 통일이다. 오늘날 전국 인민은 진정한 구국, 구민의 정부를 열렬히 요구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열렬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 인민은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주는 민주 공화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요한 강령은 첫째, 외적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의 생활고문을 덜어 주며 나아가서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현대적 국가>를 운운하려 한다면 이러한 강령이야 말로 현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인 중국이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인민은 지금 열렬한 넘친과 굳은 결의로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귀담과 귀담 정부의 정책은 전국 인민의 이러한 넘친과 배치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써 인민의 신임을 얻으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홍군은 지금 특히 다음과 같이 정중히 선언한다. 우리는 동일한 전 중국적 민주 공화국의 창건을 창조하며 일반 선거권에 의하여 선거된 국회의 소집을 창조하며 전국 인민과 항일 군대의 항일 구국 대표 대회를 지지하며 통일적인 전국적 국방 정부를 지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통일적인 전 중국적 민주 공화국이 창건된다면 홍색 지역은 즉시 동일한 전 중국적 민주 공화국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며 홍색 지역 인민의

대표는 전 중국적 국회에 참가할 것이며 홍색 지역에서는 전 중국과 일치한 민주주의 제도론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2 차 전원 회의가 조직하기로 결정한 국방 회의의 및 귀 당과 귀 당 정부가 지금 소집 중에 있는 국민 대회는 중앙 집권과 통일을 달성하여 항일 구국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국방 회의의 조메에 의하여 본다면 국방 회의의 구성 인원은 귀 당과 귀 당 정부의 소수 집권 집정 관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회의의 임무는 귀 당 정부의 자문 기관으로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러한 국방 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 하며 인민의 아무런 신임도 얻지 못 할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그리고 제씨가 소집하려고 하는 국민 대회도 귀 당 정부에서 채택한 <중화 민주 헌법 초안>과 <국민 대회 조직법 및 대표 선거법>에 의하여 본다면 마찬가지로 하등의 성과도 거두지 못 할 것이며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국민 대회는 기껏 해야 귀 당 및 귀 당 정부의 소수 관원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관원들의 부속물이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 회의나 국민 대회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권국 항일 구국 대표 대회(즉 국방 회의), 중화 민주 공화국 및 그 국회의와는 추호의 공통점도 없는 것이다. 항일 구국의 국방 회의는 반드시 각 당, 각파, 각계, 각 무장 부대의 대표를 망라하여 항일 구국의 대계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 기관으로 되어야 하며 또 이 회의에서 통일적인 권국적 국방 정부가 산생되어야 하고 국민 대회도 반드시 전국 인민의 일반 선거에 의하여 나온 국회로 되어야 하며 중화 민주 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오직 이러한 국방 회의와 전국 국회라야만 전국 인민이 환영하고 지지하고 참가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며 구국, 구민의 위업을 확고 부동한 기초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듣기 좋은 이름도 실제에 하등의 도움도 없을 것이며 전국 인민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귀 당과 귀 당 정부가 지금까지 소집한 각종 회의의 실패가 바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실증이다.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2 차 전원 회의 선언에는 또 <협박한 정세의 도래는 본래부터 예상되는 바이지만 결코 국사의 간난으로 하여 웅당 다하여야 할 적책을 스스로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흥망에 대하여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다하며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귀 당은 중국의 최대 부분의 명토를 통치하고 있는 정당이므로 과거에 실시한 것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귀 당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당 독재의 국민당 정부인 이상 국민당은 도저히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더우기 9.18 사변 이래 귀 당은 전체 인민의 의사를 어기고 전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고 절대적으로 그릇된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거의 절반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책임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 없다. 우리와 전국 인민이 볼 때에는 중국의 절반이 귀 당의 맛으로 상실된 것 만큼 여하한 명도와 주권을 회복할 책임을 귀 당에 부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귀 당 내의 허다한 량심적 분자들도 지금 망국의 두터움과 민의의 멸시할 수 없음을 확연히 깨닫고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오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당내의 당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는 분자들에 대하여 분노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새로운 전변에 대하여 진'적으로 동정하며 이러한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중국 국민당원들의 기개와 각성을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하며 하며 용감하게 혁신하려 하는 그들의 정신을 열렬히 환영한다. 귀 당의 중앙 및 각 성 당부 내에, 중앙 및 각 성 정부 내에, 교육계에, 과학계에, 예술계에, 신문계에, 실업계에, 부녀계에, 종교계에, 의약계에, 경찰계에, 각종 민중 단체에, 특히는 광범한 군대와 국민당의 신규 당원과 각급 지도자들 속에 각성한 애국적 인사들이 실로 많으며 또 이러한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안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기뻐할 현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국민당원들과 손을 잡고 든든한 민족 통일 전선을 건설하여 전 민족의 최대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당원들이 국민당 내에서 지배적 세력으로 신속히 형성되어 민족의 리익을 돌보지 않고 사실 상 인제의 대리인으로 된, 사실 상 친일 민족 반역자로 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몰렬치한 그런 국민당원들—손 중산 선생을 모욕하는 그런 국민당원들을 압도하고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인 삼민주의 정신을 회복시키며 로씨야와 연합하고 동산당과 연합하고 모농을 부조하는 손 중산 선생의 3대 정책을 다시 떨치며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혁명적 삼민주의와 3대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손 중산 선생의 혁명 유족을 <끝까지 관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전국의 각 당, 각파, 각계의 애국적 지도자들, 애국적 인민들과 함께 손 중산 선생의 혁명 사업을 계승할 책임을 건걸히 짊어 지며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중국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건걸히 투쟁하며 전국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들 위하여 건걸히 투쟁하며 중국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최대 다수 인민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걸히 투쟁하며 중화 민주 공화국 및 그의 민주 국회, 민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걸히 투쟁하기를 바란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중국 국민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가령 당성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진결히 찬조할 것이며 1924~1927년의 중국의 위대한 혁명 시기에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여 량당이 위대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과 돈뎌한 혁명적 통일 전선을 결성할 용의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오늘날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기 때문이다》。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

(1937년 5월 3일)

민족적 모순과 국내적 모순의 현 발전 단계

(1) 중국과 일본과의 모순이 주요한 모순으로 되고 국내의 모순이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위치로 내려 가고 이로 하여 국제 관계 및 국내 계급 관계에 변화가 일어 났기 때문에 현 정세의 새로운 발전 단계가 이루어졌다.

(2) 중국은 오래 전부터 두 가지의 격렬한 기본적 모순——제국주의와 중국과의 모순, 봉건 제도와 인민 대중과의 모순 가운데 처하여 있다. 국민당을 대표로 하는 부르주아지가 1927년에 혁명을 배반하고 민족의 리익을 제국주의에 팔아 먹은 까닭에 로농 정권과 국민당 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민족,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중국 공산당이 단독으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1937년 5월에 연안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에서 한 보고이다.

로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국면이 조성되었다.

(3) 1931년의 9. 18 사변 특히 1935년의 화북 사변^[1] 이래의 정세는 이러한 모순들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 나게 하였다.

7. 제국주의 일반과 중국과의 모순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과의 특히 돌출하고 특히 첨예한 모순으로 전환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타의 일부 제국주의와 중국과의 모순은 부차적 위치로 밀려 나가게 되었고 이들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사이에는 모순의 파열구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앞에는 중국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과 세계의 평화 진영을 결합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중국 인민의 시종 여일한 좋은 벗인 소련과 연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가능 여부를 보아 현시기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며 새로운 침략 전쟁을 반대하려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과도 일본 제국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는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 전선은 일체 제국주의를 동시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항일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8. 중국과 일본과의 모순은 국내의 계급 관계를 변동시켰다. 이리 하여 부르주아지 심지어는 군벌까지도 존망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그들 및 그들의 정당 내부에는 정치적 태도를 개변하는 과정이 점차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앞에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

성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우리의 통일 전선은 부르주아지 및 조국 보위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것이며 거국 일치로 외적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반드시 완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능히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ㄷ. 중국과 일본과의 모순은 전국의 인민 대중(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및 도시 소부르주아지)과 공산당의 형편과 정책을 변동시켰다. 인민은 더 큰 규모로 결기하여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공산당은 《9. 18》 이후 세 가지 조건(혁명 근거지에 대한 진공을 중지할 것,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 인민을 무장시킬 것) 하에서, 우리와 합작하여 항일하려는 국민당 내 사람들과 항일 협정을 체결하던 정책을 전 민족적 항일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이 곧 우리 당의 1935년 8월 선언[2], 12월 결정[3], 1936년 5월의 《반장》 구호의 포기[4], 국민당에 보낸 8월 서한[5], 민주 공화국에 관한 9월 결정[6], 12월의 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의 견지, 국민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보낸 1937년 2월의 전보[7] 등등의 대책이 나온 유래이다.

ㄹ. 제국주의의 세력권 획분 정책과 중국의 반식민지적 경제 상태로 인하여 발생된 중국 군벌들의 할거와 군벌 간의 내전도 중국과 일본과의 모순 앞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독점의 편리를 위하여 이러한 할거와 내전을 찬조하고 있다. 기타의 일부 제국주의는 자기를

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의 통일과 평화를 일시적으로 찬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내전과 분열을 반대하며 평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口. 중국과 일본과의 민족적 모순의 발전은 정치적 비중에 있어서 국내의 계급들 사이의 모순과 정치 집단들 사이의 모순의 지위를 저하시켜 그것들을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것으로 전화되게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계급들 사이의 모순과 정치 집단들 사이의 모순 자체는 결코 감소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이외의 기타 제국주의 국가와 중국과의 모순도 역시 그렇다. 이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앞에는 다음과 같은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즉 현시기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으며 또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국내, 국제적 모순을 적당히 조정함으로써 단결하여 항일하는 총임무에 적응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적 정치, 생활의 개선, 일본을 반대하는 외국과의 담판을 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방침이 나온 유래이다.

(4) 1935년 12월 9일부터 시작된 중국 혁명의 새로운 시기의 제 1 단계는 1937년 2월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이르러 일단락을 고하였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건들을 들면 학생계와 문화계와 어른계의 구국 운동, 홍군의 서북예로의 진출, 공산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의 선전 및 조직 사업, 상해와 청도에서의 반일

파업[8], 어느 정도 강경하여지고 있는 영국의 대일 정책[9], 량광 사변[10], 수원 전쟁 및 수원 원조 운동[11], 중일 담판에 있어서의 난경의 비교적 강경한 태도[12], 서안 사변, 마지막으로 남경에서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13]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가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이라는 이 기본적 모순을 에워 싸고 벌어진 것이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이라는 이 력사적 요구를 직접 에워 싸고 벌어진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혁명의 기본 과업은 일치 단결하여 공동으로 항일하기 위하여 국내의 평화를 쟁취하고 국내의 무장 충돌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공산당은 이 단계에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하자》는 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호소는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리 하여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실지 결성에 있어서 첫 필요 조건이 이루어졌다.

(5)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는 그 내부에 친일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책의 명확하고 철저한 전환을 보여 주지 못 하였으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지도 못 하였다. 그러나 인민의 압력과 국민당 내부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당은 지난 10 년 간의 그릇된 정책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즉 내전, 독재 및 대일 무저항 정책으로부터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일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초보적 전환은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서 표현되었다. 급후의 요구는 국민당 정책의

철저한 전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와 전국 인민은 항일 및 민주주의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국민당을 가일층 비판, 추동, 독촉하며 국민당 내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일을 주장하는 분자들과 단결하며 동요, 주저하는 분자들을 추동하며 친일 분자들을 배제하여야 한다.

(6) 현 단계는 새로운 시기의 제 2 단계이다. 전단계와 현 단계는 모두 전국적인 대일 무장 항전으로 나아가는 파도적 단계이다. 만일 전단계에서는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된다. 튼튼한, 진정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평화가 없어도 물론 안 되지만 국내의 민주주의가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은 현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혁명 과업의 중심적인 고리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 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킨다면 튼튼한, 진정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7)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중국 본부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서방에서 강도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히틀러, 무솔리니와 발'걸음을 맞추어 일본은 동방에서 일거에 중국을 멸망시킬 조건들——국내적으로는 군

사, 정치, 경제, 사상적 조건,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조건, 중국에서의 친일 세력의 부식——을 기정 계획에 따라 전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 소위 《중일 제휴》의 선전과 일부 외교적 조치의 완화는 바로 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일본의 침략 정책의 전술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금 자기의 존망을 결정하는 시각에 박근하고 있다. 중국의 구국 항전은 달리는 속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준비를 반대하지 않으나 장기 준비론은 반대하며 하는 일 없이 종일 포식만 하면서 태평 무사하게 지내는 망국적 현상도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상 적을 도와 주는 것이므로 급속히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정치 상, 군사 상, 경제 상, 교육 상에서 국방을 준비하는 것은 모두 구국 항전의 필수적 조건이며 일각도 지연시킬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항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심적인 고리이다. 항전에는 전국적인 평화와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이는 이미 쟁취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국내의 단결을 강화할 수 없다. 항전에는 인민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이는 인민을 동원할 수 없다. 공고한 평화와 단결이 없이는, 인민의 동원이 없이는 항전의 전도는 아비시니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아비시니아가 실패한 주요 원인은 봉건 제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없었으며 인민의 적극성을 발휘시킬 수 없은 데 있다. 튼튼한, 진정한 중국 항

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자면 민주주의가 없이는 안 된다.

(9) 중국은 즉시로 다음과 같은 두 방면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방면은 정치 제도 면에서 국민당의 일당, 일계급의 반동적인 독재 정체를 각 정당, 각 계급이 합작하는 민주주의 정체로 개변시켜야 한다. 이것은 국민 대회의 선거 및 소집에 있어서의 반민주주의적인 방법을 개변하고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며 대회의 자유로운 토의를 보장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헌법을 제정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회를 소집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선거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참으로 국내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내에서의 무력적 적대 행동을 중지하고 국내의 단결을 강화하여 거국 일치로 외적에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진공하여 오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일본의 진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그를 철저히 타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혁을 급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동시에 항전 과정에서 개혁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 인민과 각 정당의 애국 분자들은 국민 대회나 헌법 제정 문제에 대하여 취하던 과거의 그런 랭담한 태도를 버리고 구체적인, 국방적 의의를 띤 이 국민 대회 운동과 헌법 운동에 자기들의 력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정권을 잡고 있는 국민당을 엄격히 비판하면서 그

가 일당, 일계급의 독재를 버리고 인민의 의사를 실행하도록 추동, 독촉하여야 한다. 금년 수개월 내로 전국적으로 광범한 민주주의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 운동의 당면 목표는 국민 대회와 헌법의 민주주의화의 완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면은 인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가 없이는 정치 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없으며 조국을 보위하며 잃은 국토를 수복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항전으로 인민을 동원할 수 없다. 최근 수개월 내로 전국 인민의 민주주의 운동은 정치범의 석방, 당 활동의 해금 등등을 포함한 상술한 과업의 최저 한도를 기어이 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 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과 인민의 자유 권리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 강령의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튼튼한, 진정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10) 우리의 원수——일본 제국주의, 중국의 민족 반역자, 친일파, 트로츠키파는 중국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자유, 대일 항전의 모든 조치들을 전력을 다하여 파괴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을 때 그들은 내전과 분열을 극력 도발하고 있었다.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분투할 때에도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또 이를 파괴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총목표는 조국 보위를 위한 우리의 항전 임무를 성공할 수 없게 하고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금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국민당 내의 완고파와 인민 가운데의 탁후 부분에 대한 선전 선동 및 비판 사업을 힘써 전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음모와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친일파, 트로츠키파의 음모를 여지 없이 폭로하며 그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1)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전을 위하여 그리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보낸 자기의 전보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담보한 적이 있다. 1) 공산당이 명도하는 섬감녕 혁명 근거지의 정부를 중화민국 특구 정부로 개칭하며 홍군을 국민 혁명군으로 개칭하여 남경 중앙 정부 및 군사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2) 특구 정부 구역 내에서 철저한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한다. 3) 국민당을 무력으로 전복하는 방침을 중지한다. 4) 지주의 토지에 대한 몰수를 중지한다. 이러한 담보는 필요한 것이며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여야만 정치적 비중에 있어서의 민족적 모순과 국내적 모순의 변화에 근거하여 국내에 있어서의 두 정권의 적대적 상태를 개선시키고 일치 단결하여 공동으로 적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칙이 있는 조건부의 양보이다. 이러한 양보를 하는 것은 그 대신에 전 민족에 필요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전을 바꾸어 오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나 양보에는 한도가 있다. 특구와 홍군 내에 있어서 공산당의 명도를 보전하며 국공 량당의 관계에 있어서 공산당의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를 보전하는 이것

이 바로 양보의 한도이다. 이러한 한도를 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보는 량당의 호상 양보이다. 즉 국민당은 내전, 독재 및 외적에 대한 무저항 정책을 포기하고 공산당은 두 정권 간의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로서 전자를 바꾸어 오고 재차 국민당과 합작하여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분투하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 공산당의 투항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Q주의[14]에 지나지 않으며 악의적인 중상에 지나지 않는다.

(12) 공산당은 삼민주의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동의한다고 대답한다[15]. 삼민주의에는 그 자체의 역사적 변화가 있다.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는 손 선생이 공산당과 합작하여 이를 건결히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민의 신뢰를 받았으며 1924~1927년의 승리적인 혁명의 기치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7년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배척하고(청당 운동[16]과 반공산당 전쟁) 이와 상반되는 정책을 실시하여 혁명의 실패를 초래하고 민족을 위협한 지경에 밀어 넣자 삼민주의도 인민의 신임을 상실하고 말았다. 오늘날 민족의 위기는 극도로 엄중하여지고 국민당은 변함 없이 종전 대로 통치하여 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전국 인민과 국민당 내의 애국 분자들은 또다시 량당의 합작을 절박히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민주의의 정신을 다시 정돈하여 대외적으로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민족주의 하에서,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민권주의와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민생주의 하에서 량당이 다시 합작하고 인민을 령도

하여 삼민주의를 건결히 실행하는 것은 중국 혁명의 역사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개 공산당원이 다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바이다. 공산당원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리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정치 경제 강령을 가지고 있다. 그 최고 강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이다. 이 점은 삼민주의와 다르다.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그의 강령도 역시 국내의 어떠한 정당의 강령보다도 더 철저하다. 그러나 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의 강령은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선포한 삼민주의 강령과 기본 상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민주의를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삼민주의를 건결히 실행하려 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삼민주의를 실행할 것을 국민당에 요구하며 또한 삼민주의를 실행할 것을 전국 인민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공산당과 국민당과 전국 인민이 다 같이 민족 독립, 민권 자유, 민생 행복의 3대 목표를 위하여 일치하게 분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13) 로농 민주 공화국이라는 우리의 과거의 구호는 그릇된 것이었던가? 그릇된 것이 아니었다. 부르쥬아지 특히 대 부르쥬아지가 혁명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에 달라붙어 인민의 원수로 된 이상 혁명의 동력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 도시 소부르쥬아지 밖에 남지 않았으며 혁명적 당으로는 공산당 밖에 남지 않

있으며 혁명의 조직자적 책임은 유일한 혁명적 당인 공산당의 어깨에 지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직 공산당만이 혁명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혁명적 전통을 보전하였으며 로농 민주 공화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또 이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간고 분투하여 왔다. 로농 민주 공화국이라는 구호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견결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실제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은 이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주 토지의 몰수와 8 시간 노동제의 실시를 포함한 우리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범주인 사유 재산제의 한계를 벗어 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민주 공화국에 포괄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도시 소 부르조아지, 부르조아지 및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찬동하는 국내의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그것은 민족,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이러한 계급들의 동맹체이다. 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부르조아지를 포괄하는 점이다. 이것은 부르조아지가 오늘의 환경에서 또다시 항일에 참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당은 그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 들이며 그들과 공동으로 투쟁하기 위한 동맹을 회복하여 중국 혁명의 전진에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국내의 무장 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공산당은 폭력으로써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던 정책을 중지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건설 과정에서 립법의 방법과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중국의 토지가 일본 사람의 것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의 것으로 되느냐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을 보위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농민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 폭력으로 몰수하던 방법으로부터 새로운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로농 민주 공화국이라는 구호를 과거에 제기한 것도 옳았고 오늘에 와서 포기하는 것도 옳다.

(14)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일부 모순들을 적당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칙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약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강화, 확대에 유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국내의 계급 간, 당파 간, 정치 집단 간의 모순 및 투쟁은 불가피적인 것이다. 그러나 단결하여 항일함에 불리한 투쟁(국내 전쟁, 당파 간의 적대적 행동, 지방적 할거, 일방으로는 봉건적인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타방으로는 폭동 정책 및 항일에 불리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요구 등등)은 중지시킬 수 있고 또 중지시켜야 하며 단결하여 항일함에 유리한 투쟁(비판의 자유, 당파의 독립성, 인민의 정치적 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개선 등등)은 보전하여야 한다.

(15) 항일 민족 통일 전선과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을 위한 투쟁의 총임무 하에서 홍군과 항일 근거지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1) 홍군을 항일 전쟁의 정황에 적응시켜 즉시 국민

혁명군으로 재편성하며 동시에 군사, 정치, 문화적 교육을 일층 제고하여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모범 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근거지를 전국의 구성 부분의 하나로 고치고 새로운 조건 하의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며 보안 부대를 새로이 편성하며 민족 반역자 및 교란 분자를 숙청하여 항일과 민주주의의 모범 지구로 만들어야 한다. 3) 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경제 건설을 진행하며 인민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여야 한다. 4) 필요한 문화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령도 책임

(16) 그 어떤 역사적 환경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 수 있는 중국 부르조아지가 자기의 경제적, 정치적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는 동요하며 변절하게 되는 이 법칙은 중국 역사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반제 반봉건적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는 부르조아지가 령도하여서는 완수될 수 없고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가 령도하여야만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에 의하여 판정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견지성과 철저성이 충분히 발휘되어야만 부르조아지의 선천적인 동요성과 불철저성을 극복하고 혁명이 류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를 따라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르조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따라 오는가? 중국 혁명의 령도 책임에 관한 이 문제

야 말로 혁명 성패의 열쇠이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의 경험은 부르주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명도를 따라 온 때에는 혁명이 어떻게 전진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가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뒤꼬리를 따라 간 때(공산당에 책임이 있다)에는〔17〕 혁명이 어떻게 실패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력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현 정세에 비추어 말한다면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정당의 정치적 명도를 떠나서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 결성될 수 없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으며 조국이 보위될 수 없으며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이 수립될 수 없다. 오늘날 국민당을 대표로 하는 부르주아지는 아직도 많은 피동성과 보수성을 띠고 있다. 공산당이 발기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오래 동안 그들이 감히 접수하지 못 하는 이 점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러한 정형은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정당의 정치적 명도의 책임을 일층 더 무겁게 하여 준다. 공산당은 항일 구국의 총참모부로서의 직책을 아무에게도 밀 수 없으며 또 그것을 회피할 수도 없다.

(17) 프로레타리아트는 어떻게 자기의 정당을 통하여 전국의 혁명적 계급들에 대한 정치적 명도를 실현하는가? 첫째로, 력사 발전 행정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정치적 구호를 제기하며 또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개 발전 단계와 매개 중대한 사변과 관련한 동원 구호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과 《통일적인 민주 공화국》과 같은 기본적 구호를 제기하였고 전국 인민의 일치한 행동의

구체적 목표로 《내전을 중지하자》,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항전을 실현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가 없이는 정치적 정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둘째로, 이러한 구체적 목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행동하는 때에 프롤레타리아트는, 특히 그 선봉대인 공산당은 자기의 무한한 적극성과 충직성을 발휘하여 이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는 모범으로 되어야 한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 및 민주 공화국을 위한 모든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분투할 때 공산당원들은 앞을 가장 멀리 내다 보며 가장 희생적 정신이 풍부하며 가장 굳세며 또 가장 허심히 정황을 포착하며 대중의 다수에 의거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어야 한다. 셋째로, 확정된 정치적 목표를 잃어 버리지 않는 원칙 하에서 동맹자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고 이 동맹을 발전시키며 공고히 한다. 넷째로, 공산당 대렬의 발전, 사상의 통일성, 규율의 엄격성이다. 전국 인민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적 정도는 상술한 조건들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기의 정치적 정도를 보장하는 토대이며 또 혁명이 동맹자들의 동요성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고 철저한 승리를 얻도록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18) 평화가 실현되고 량당의 합작이 이룩된 후에는 과거의 두 정권 적대의 로선 하에 취하여 온 투쟁 방식, 조직 방식 및 사업 방식에 개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변은 주로 무력적 방식으로부터 평화적 방식으로, 비합법적 방식으로부터 합법적 방식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은 것이므로 새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간부를 재훈련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요한 고리로 된다.

(19) 민주 공화국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문제를 많은 동지들이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러하다. 즉 그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는 혁명적 계급들의 동맹체이며 그 전망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민주 공화국은 민족적 항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건되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 창건되는 것이며 새로운 국제적 환경(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세계 혁명의 새로운 시기의 전야)에서 창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격의 국가이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조건에 의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 부르주아 공화국과는 달리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지의 동맹의 국가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망은 비록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는 하나 한 편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이 후자의 전망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관문주의와 모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동시에 또 추미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 파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 조건으로 된다. 민중 운동에 있어서 우리 당은 엄중한 관문주의와 오만한 종파주의 및 모험주의의 전통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다수의 균중을 쟁취함에 있어서 당에 방해를 주는 악렬한 경

향이다. 매개의 구체적 사업에서 이러한 경향을 숙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다수에 의거하며 전반 국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진 독수 추미주의의 부활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내렬 내에 있어서의 부르췌아 개량주의의 반영이다. 당의 립장을 저하시키며 당의 면모를 모호하게 하며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희생시켜 부르췌아 개량주의의 요구에 적응한다면 필연코 혁명을 실패어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건결한 혁명 정책을 실시하며 부르췌아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상술한 좋지 못한 경향들을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전 당'적으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리론만이 중국 혁명을 승리로 인도하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주 해

[1] 《화북 사변》이란 1935년 일본 침략자의 화북 침략과 장 개석을 비롯한 국민당 정부가 화북에서 배국 배족적인 처행을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 해 5월에 일본 침략자가 국민당 정부에 화북에 대한 통치권을 요구하자 6월에 국민당 정부의 화북 대표 하 응훤은 일본 침략자의 화북 주둔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와 이 요구를 접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소위 《하 응훤-우메즈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중국은 하북성 및 차할성(지금은 산서성, 하북성 및 내몽고 자치구에 나뉘어 귀속되어 있다)에 대한 주권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10월에 일본 침략자는 또 하북성 함하에서 민족 반역자들을 시켜 폭동을 일으키고 현 소재지를 점령하였다. 11월에는 또 민족 반역자들을 주저 소위 《화북 5 성 자치 운동》을 진행한 동시에 민족 반역자들의 기동 《방공 자치 정부》를 수립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화북 정권 독수화》에 관한

일본 침략자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송 철원 등을 파견하여 《기찰 정무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 이것은 1935년 8월 1일에 발표한 중국 공산당의 선언을 가리켜 말한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망국 멸족의 대화가 눈앞에 닥친 이 때 공산당은 한 번도 한 번 전체 동포들에게 호소한다. 각 당, 각파 사이에 어떠한 정견과 리해 관계의 상이가 있었거나 또 있거나를 막론하고, 각계 동포 사이에 어떠한 견해 상 또는 리해 관계 상의 차이가 있거나를 막론하고, 각 군대 사이에 어떠한 적대적 행동이 있었거나 또 있거나를 막론하고 일체의 국력(인력, 물력, 재력, 무력 등)을 집중하여 항일 구국의 성스러운 사업을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하여 모두 〈형제간에 집안 싸움은 하지만 외적의 침입은 같이 방어한다〉는 진정한 각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선 내전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당은 특히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선언한다. 오직 국민당 군대가 홍군을 진공하는 행동을 중지하기만 한다면 또 오직 어떠한 부대든지 내일 항전을 실행하지만 한다면 그들과 홍군 사이에 어떠한 숙원이 있었거나 또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들과 홍군 사이에 국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 상이가 있거나를 막론하고 홍군은 즉시로 그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밀히 손을 잡고 공동으로 구국할 용의물 가지고 있다.》《공산당은 이러한 국방 정부를 수립하는 발기인으로 될 용의물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항일 구국 사업에 참가하려는 중국의 모든 정당, 모든 단체(공회, 농민 협회, 학생회, 상인 협회, 교육회, 신문 기자 연합회, 교직원 연합회, 동향회, 지공당, 민족 무장 자위회, 반일회, 구국회 등등), 모든 명류 학자, 모든 정치가 그리고 일체 지방 군정 기관과 국방 정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문제를 담판할 용의물 가지고 있다. 담판의 결과로 수립되는 국방 정부는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임시적인 지도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이 국방 정부는 항일 구국에 관한 제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하여 전체 동포들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로동자, 농민, 군인, 정치계, 실업계, 지식계 등과 항일 구국을 념원하는 모든 정당 및 단체와 해외 동포 그리고 중국 경내의 자 민족으로부터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 대표 기관을 내어 오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당은 이러한 전 인민적 대표 기관을 내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국력 산조할 것이며 이 기관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집행할 것이다.》《항일 연군은 항일하려는 모든 부대들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 정부의 명도 하에서 동일한 항일 연군 총사령부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 총사령부를 혹은 각군의 항일 지휘관 및 병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서 구성할 것인가 혹은 기타 형태에 의하여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각 방면의 대표 및 전체 인민의 공동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홍군은 항일 구국의 천적을 다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이 현군에 출신 가입하며 한다. 국방 정부로 하여금 진정으로 국방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항일 현군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항일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전체 동포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종이 있는 사람은 종을 내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내고, 로력이 있는 사람은 로력을 내고, 전문적 기능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 기능을 바침으로써 우리 전체 동포가 총동원하며 모든 신식 무기와 구식 무기로써 수천 수백만 민중을 무장시킬 것을 호소한다》.

[3] 이것은 1935년 12월 25일 심서성 북부 요오보에서 진행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현 정치 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한 결정》을 가리켜 말한다. 이 결정은 당시의 중국의 내외 정세와 계급 간의 변화 및 당의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분석과 규정을 내렸다. 다음의 것은 이 결정의 일부본이다. 《현 정세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을 삼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행동은 전 중국과 전 세계를 진동시켰다. 중국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각 계급, 계층, 정당 및 무장 세력은 자기들의 호상 관계를 다시금 개편시켰거나 개편시키고 있다. 민족 혁명 전선과 민족 반혁명 전선도 재조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전술적 로선은 전 중국, 전 민족의 모든 혁명력량을 동원, 결속, 조직하여 목전의 주요한 적——일제와 배국 역적의 두목 장개석을 반대하는 데 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파벌, 어떠한 무장 부대, 어떠한 계급을 물론하고 오직 일제와 배국 역적 장개석을 반대하기만 한다면 모두 다 연합하여 성스러운 민족 혁명 전쟁을 진행함으로써 일제를 중국으로부터 구속하며 중국에 있어서의 일제 주구들의 통치물 타도하고 중화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전취하며 중국의 독립과 명도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오직 가장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하층의 그리고 상층의)에 의하여서만 일제와 그 주구 장개석을 타승할 수 있다. 각이한 개인, 각이한 단체, 각이한 사회 계급과 계층, 각이한 무장 부대는 반일 민족 혁명에 참가함에 있어서 물론 자기 자기의 각이한 동기와 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유지하려고 나서는 자도 있을 것이고 운동의 명도권을 쟁취하여 그 운동을 자기들이 용취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벗어 나지 못 하도록 하려고 나서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중화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위하여 나서는 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들의 동기와 명장이 자기 다르기 때문에 투쟁의 시초부터 동요하여 변절할 자도 있을 것이고 중도에 소극적으로 되거나 전선으로부터 물러설 자도 있을 것이며 끝까지 분투하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업은

가능한 모든 기본적 반일 역량을 결속할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한 모든 반일 동맹자문 결속하는 데 있으며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로력이 있는 사람은 로력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종이 있는 사람은 종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게 하여 애국적인 중국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반일 전선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당의 가장 광범한 민족 통일 전선 건설의 총로선이다. 오직 이러한 로선으로써만 우리는 전국 인민의 역량을 동원하여 전국 인민의 공동의 원수들인 일제와 매국 역적 장 개석에 대항할 수 있다. 중국의 토동 계급과 농민은 여전히 중국 혁명의 기본 동력이다. 광범한 소부르조아 대중과 혁명적 지식인들은 민족 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노동자, 농민, 소부르조아지의 든든한 동맹은 일제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들을 타승하는 기본 역량이다. 일부 민족 부르조아지나 군벌도 그들이 아무리 토지 혁명과 홍색 정권을 작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제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거나 선의적 중립을 지키거나 적절 참가한다면 그것은 모두다 반일 전선의 전개에 유리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들을 전체 반혁명 역량으로부터 탈리시키며 전체 혁명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은 여러 가지 적당한 방법과 방식을 취하여 이러한 역량을 반일 전선에도 생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뿐만 아니라 지주 및 배판 계급 진영 내부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과거 허다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에서 서로 경쟁한 결과 중국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앞잡이가 되어 서로 경쟁하는 매국 역적 집단들이 산생되었으며 그들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산생되었다. 그러므로 당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일부의 반혁명 역량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반일 전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위치에 서게 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이외의 다른 제국주의에 대한 전술도 역시 이와 같다. 전 중국 인민의 역량을 동원, 결속, 조직하여 전 중국 인민의 공동의 원수를 반대함에 있어서 당은 반일 통일 전선 내부의 모든 동요, 타협, 투항 및 변절적 경향들과 동요 없이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의 반일 운동을 파괴하는 자는 모두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이므로 다 같이 쫓기하여 이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당은 일제와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을 반대하는 스탈린도 철저한 자기의 언론과 행동으로써 반일 전선 내에서의 자기의 명도권을 생취하여야 한다. 또 이 반일 운동은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만 철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반일 전쟁에 참가하는 광범한 민중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기본 이익의 요구(농민의 토지에 대한 요구, 노동자, 병사, 빈민, 지식인 등의 생활 형편 개선에 대한 요구)

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보다 더 광범한 군중을 반일 전진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반일 운동이 지구성을 띠게 할 수 있으며 반일 운동을 철저한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 또 이렇게 하여야만 반일 전쟁에 있어서의 당의 명도권을 권위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건설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4] 정전 강화하고 일치 합일할 것을 남경 정부에 요구한 홍군의 1936년 5월 5일 통전을 참고하라. 통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경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 전체 북해공군, 전국 각 당, 각파, 각 단체, 각 신문사 및 망국노도 퇴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동포들! 중국 홍군 혁명 군사 위원회가 중국 인민 홍군 항일 선봉군을 조직하여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진격한 이때 그 부대는 가는 곳마다에서 승리를 올린 온 나라가 이에 항응하고 있다. 그러나 합일 선봉군이 동포들을 점령하고 일제와 직접 작전하며 또 동으로 하북성에 진출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장 개석씨는 10 개 사 이상의 병력을 산서성에 투입하고 염 석산씨와 협동하여 홍군의 합일 진로를 가로막았고 또 장 랑량씨와 양 호성씨 및 섬서성 북부의 군대에게 설감 호색 지역으로 진군하여 우리의 항일 후방을 코란하라고 명령하였다. 중국 인민 홍군 합일 선봉군은 원래 합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 개석씨의 부대를 권력을 집중하여 소멸하고 대일 직접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홍군 혁명 군사 위원회는 제삼 고퇴한 끝에 국난을 앞에 두고 생망이 결전하면 그 승부가 어느 편에 속하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의 국방력이 손실되어 일제만 좋아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 개석씨와 염 석산씨의 부대 내에서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합일하려는 적지 않은 애국적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망씨의 명령을 받고 홍군의 합일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사실 망씨에 위반되는 거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군 혁명 군사 위원회는 국방 실력을 보전함으로써 항일 전쟁의 신속한 진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때면 전국 인민에게 선언한,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합일하자는 자기의 주장을 건결히 리행하기 위하여, 장 개석씨 및 그 수하 애국적 군인들의 최후의 각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서성에서 허다한 승리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 합일 선봉군을 광화서안으로 그냥 철거시켰다. 이러한 행동으로써 우리는 남경 정부와 전국 북해공군과 전국 인민에게 우리의 성의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정전과 합일의 목적을 위하여 합일 홍군을 진공하는 모든 무장 부대와 1 개월 이내로 정전 강화할 용의가 있다. 홍군 혁명 군사 위원회는 특히 신중히 남경 정부 제씨에게 의견을 드린다. 망국 멸족의 긴급한 시기에 처하여 자기의 잘못을 선뜻이 뉘우치고

〈혁명기간에 집안 싸움은 하지만 외적의 침입은 같이 방어한다〉는 정신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우선 섬서성과 감숙성과 산서성에서 내전을 중지하고 쌍방이 대표를 파견하여 항일 구국의 구체적 대책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씨에게 다행한 일로 될 뿐만 아니라 실로 민족과 나라에 대하여도 다행한 일로 된다. 만일 그냥 쉬우치지 않고 즐겨 민족 반역자-매국 역적으로 된다면 제씨의 통치는 반드시 중국적으로 와해될 것이며 또 전국 인민의 버림을 받아 전복되고야 말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뜻사람의 손'가탁질을 받으면 병 들지 않아도 죽는다.〉고 하였고 또 〈걱정도 칼만 놓으면 당장 부러가 된다.〉고 하였다. 제씨의 심사 숙려를 바란다. 홍군 혁명 군사 위원회는 망국노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 진국의 모든 단체, 정당, 인민에게 정권 강화하고 일치하게 한 일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참조하며 내전 중지 추진회를 조직하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정화를 달성하며 이 주장의 완전한 실현을 촉속하며 감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5] 《장 개석의 성명에 대한 성명》의 주해 7을 보라.

[6] 1935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현 정치 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한 결정》과 모택동 동지의 보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에는 인민 공화국이라는 구호가 제기되었다. 그 후에 정세의 요구에 근거하여 당은 항일하도록 장 개석에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 구호가 장 개석 도당에게 접수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고려하여 1936년 8월에 국민당에 보낸 서한에서 민주 공화국이라는 구호로 고치었다. 또 그 해 9월에 당 중앙에서 채택한 《항일 구국 운동의 새로운 정세와 민주 공화국에 관한 결정》에서 민주 공화국이라는 구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이 두 구호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같지 않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치하다. 다음의 것은 1936년 9월 당 중앙의 결정서에 있는 민주 공화국 문제에 관한 두 단락이다. 《중앙은 현 정세 하에서 민주 공화국 창건의 구호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모든 항일력량을 단합하여 중국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며 중국 인민이 망국 멸족의 참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광범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로부터 나온 가장 적절한 통일 전선의 구호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국은 일부분 명토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농 민주주의 독재 체도에 비하면 지역적으로 더 보급된 민주주의이며 전 중국의 주요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당의 일당 독재에 비하면 대단히 진보한 정치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일 전쟁의 보편적 발동과 그 철저한 승리를 더욱 잘 보장할 수 있

다. 동시에 민주 공화국은 전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정치 생활에 참가시켜 그들의 각성 정도를 제고하고 조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의 명도자인 공산당의 장래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자유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민주 공화국 운동을 적극적으로 산조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또한 민주 공화국이 전 중국적으로 창건되고 일반 선거에 의한 국회가 소집되는 때에는 홍색 지역은 그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며 홍색 지역의 인민은 국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 파견할 것이며 홍색 지역 내에서도 동일한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다.》《중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오직 전 중국 인민의 항일 구국 운동을 계속 전개하며 각 당, 각파, 각계, 각군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하며 민족 통일 전선 내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명도 역할을 강화하며 홍색 정권 및 홍군을 최대 한도로 공고화하며 모든 배국 배척적 언론과 행동, 민족 통일 전선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모든 언론과 행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만 국민당의 난경 정부를 항일어로 수동할 수 있으며 민주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적 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 지극적인 간고한 투쟁이 없이는, 전 중국 인민의 동원과 혁명의 양양이 없이는 민주 공화국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 공화국을 위한 투쟁 행정에 이 민주 공화국으로 하여금 우리 당이 제기한 항일 구국 10대 강령을 실행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기본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는 때까지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7] 이 전보는 1937년 2월 10일에 보낸 것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의 제서에, 서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온 나라가 기뻐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단결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방침을 실현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다행한 일이다. 일본 침략자가 상굴하고 중화 민족의 생사 존망이 위기 일발에 처하여 있는 이 때에 우리 당은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가 이 방침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조항들을 국책으로 결정하기를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1) 일체 내전을 중지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일치하게 외적에 대항할 것, (2)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3) 각 당, 각파, 각계, 각군 대표자 회의론 소집하고 전국의 인재를 집중하여 다 같이 구국할 것, (4) 대일 항전에 관한 만단의 준비 사업을 하루 속히 완수할 것, (5) 인민의 생활을 개선할 것. 만일 귀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가 과연 선뜻이 이를 국책으로 확정한다면 우리 당은 단결하여

의적에 대한 할성의물 표시하기 위하여 커 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다음과 같은 것을 담보하려 한다. (1) 국민 정부를 전복하는 무장 투쟁의 방침을 권국적 범위에서 중지한다. (2) 모능 민주 정부를 중화민국 특구 정부로 개칭하고 공군을 국민 혁명군으로 개칭하여 직접 남경 중앙 정부와 군사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3) 특구 정부의 구역 내에서 일반 선거에 기초한 철저한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한다. (4)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합일 민족 통일 건설의 공동 강령을 건결의 집행한다》.

[8] 1936년 11~12월 상해에 있는 일본 방적 공장 및 중국 방적 공장 합계 26 개소의 로동자 4만 5,000여 명은 대파업을 단행하였다. 12월에는 청도의 각 일본 방적 공장의 전체 로동자들도 상해 로동자들에 항응하여 종파업을 단행하였다. 상해 로동자들은 승리하여 11월부터 임금이 5% 인상되었으며 공장 당국에서는 퇴유 없이 로동자들을 해고하지 못 하며 로동자들을 구타하거나 욕하지 못 하게 되었다. 청도 로동자들은 일본 해군 복권대에게 단담 당하였다.

[9] 1933년 일본 침략자들이 산해관을 강점하고 화북으로 들어 온 후, 특히 1935년 《하 응흙-우메즈 협정》이 체결된 후에 화북, 화중에서의 영, 미 제국주의의 리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타격을 직접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태도를 개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장 개석 정부의 대일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1936년 서안 사변 당시에 영국은 중국에 있어서의 자기의 리익에 불리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일본의 침략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심지어 장 개석 정부가 중국 인민을 계속 동치할 수만 있다면 《공산당과의 모중 형태의 연합》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표시하였다.

[10] 광서 군벌 리 종인, 팽 승희와 광동 군벌 진 체담 등은 1936년 6월에 《합일 구국》이라는 구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연합하여 장 개석을 반대하였다. 그 해 8월에 이 사변은 장 개석의 분화, 유인 등 수단에 의하여 와해되고 말았다.

[11] 1936년 8월 일본군과 괴뢰군은 수원성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11월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군대는 이에 저항하였으며 전국 인민은 수원 원조 운동을 진행하였다.

[12] 1935년 《하 응흙-우메즈 협정》 체결 후 중국 인민의 합일 조류의 압력과 영, 미 제국주의의 비교적 강경한 대일 정책의 영향 하에서 남경 국민당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1936년 9월부터 12월 까지의 담판에서 국민당 정부는 지연하는 수단을 써서 담판으로 하여금 결과를 얻지 못 하고 중지되게 하였다.

[13] 서안 사변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후 1937년 2월 15일에 국민당 중앙이 남경에서 진행한 회의론 가리켜 말한다.

[14] 아Q란 중국의 위대한 작가 로신의 유명한 소설 《아Q 정전》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로신은 이 주인공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방법에 습관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자로, 즉 《정신적 승리》자로 자처하는 자의 전형울 그려 냈다.

[15] 여기서 말하는 손 중산의 삼민주의란 그의 세계관이나 리론 체계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기한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문제에 관한 원칙 및 강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산당원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손 중산의 강령의 기본적 면에 동의하고 그와 합작하였지만 그에 의하여 대표되는 부르조아 및 소부르조아 세계관이나 리론 체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계관 또는 리론 체계에 있어서나 민족 문제 또는 기타 문제의 리론적 견해에 있어서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봉대로서의 공산당원들은 손 중산과 견해 다르다. 모택동 동지의 저작 《신민주주의론》을 참조하라.

[16] 1924년에 손 중산에 의하여 재조직된 후의 국민당은 각 계급의 혁명적 동맹체로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원들은 당시 개인의 자격으로 국민당에 참가하였다. 국민당은 1927년에 혁명을 떠난 후 전국 각지에서 공산당원들과 국민당 내에서 손 중산의 3대 정책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허다한 좌파 분자들을 학살하였다. 국민당은 이것을 《청당 운동》이라고 하였다. 이 때로부터 국민당은 대지주, 대부르조아지의 반혁명적 당으로 되고 말았다.

[17] 여기에서는 1927년 상반기에 당 중앙의 기회주의적인 명도에 의하여 조성된 형편을 가리켜 말한다.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1937년 5월 7일)

동지들! 나의 보고——《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임무》에 대하여 이 며칠 동안의 토론에서 개별적 동지들이 다른 의견을 제출한 외에는 전체 동지들이 다 동의를 표하였다. 그들의 다른 의견은 퍼그나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나는 이 결론에서 먼저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고 다음에 다시 몇 가지 기타 문제에 언급하려 한다.

평화 문제

우리 당이 국내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여 온 지도 거의 2년이 되었다.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 이후에 우리는, 평화는 이미 쟁취되었으며 《평화를 쟁취하는》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1937년 5월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에서 한 결론이다.

단계는 이미 지나 갔고 새로운 임무는 《평화를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이것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평화를 공고화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몇몇 동지들의 말에 의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론은 꼭 이와 상반되는 것이거나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일본은 불러졌고〔1〕 남경은 더욱 동요하고 있고 민족적 모순은 하강되고 있고 국내 모순은 상승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다면 물론 새로운 단계라는 것도, 새로운 파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정세는 과거의 단계로 돌아 갔거나 그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화는 이미 쟁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평화가 공고화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평화가 아직 공고화되지 못 하였다고 말한다. 평화의 실현과 평화의 공고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력사는 일시적으로 뒤'걸음을 칠 수도 있으며 평화에는 파란 폭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 친일파가 존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서안 사변 이후에 평화가 실현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형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축성된 것이요(일본의 진공하려는 기본 방침, 평화에 대한 쓰련 및 영국, 미국, 프랑스의 찬조, 중국 인민의 압력, 서안 사변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평화 방침 및 두 정권 간의 적대적 행동의 중지를 위한 공산당

의 정책, 부르주아지의 분화, 국민당의 분화 등등), 장 개석 일 개인이 그것을 결정하거나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파괴하려면 장 개석은 여러 방면의 세력과 싸워야 하며 또 일제와 친일파의 편에 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제와 친일파가 그냥 중국의 내전을 존속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평화가 공고화되지 못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우리의 결론은 《내전을 중지하자》거나 《평화를 쟁취하자》는 이전의 구호에로 돌아 갈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는 새로운 구호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야만 평화를 공고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여야만 항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평화를 공고화하자》,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항전을 실현하자》라는 이 삼위 일체의 구호를 제기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혁명의 수레바퀴를 한 걸음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서이며 또 그것은 정세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과업을 부인하며 국민당의 《전환의 시작》을 부인하며 또 그 논리적인 귀결로서 1년 반 동안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각파 세력의 노력의 모든 성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어째서 이러한 동지들은 이와 같은 부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그 원인은 그들이 시국을 관찰함에 있어서 근본

적인 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많은 국부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사토 외교, 소주 재판[2], 과업에 대한 압제, 동북군의 동으로의 이동[3], 양 호성의 외유[4] 등등)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리 하여 그들의 눈앞에 어슴푸레한 화면이 나타난 데 있다. 우리는 국민당이 이미 전환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또 국민당이 아직 철저한 전환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인정한다. 10년 동안이나 실시하여 온 국민당의 반동 정책을 우리와 인민의 보다 크고 보다 많은 새로운 노력이 없이 철저히 전환시키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소에는 국민당을 몹시 비난하였고 서안 사변 당시에는 장 개석을 죽이자, 《동관을 쳐 나가자》[5]고 주장하던, 《좌》익이라고 자칭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가 방금 실현되자 또 소주 재판 등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놀란 어조로 《왜 장 개석은 또 이런 짓을 하는가?》고 묻고 있다. 공산당원과 장 개석은 신선도 아니고 또 고립된 개인도 아니며 어느 한 당파, 어느 한 계급에 속하고 있는 분자라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공산당은 혁명을 점차 추진시킬 재간은 있어도 전국의 나쁜 일을 하루 아침에 깨끗이 쓸어버릴 재간은 없다. 장 개석 또는 국민당이 자기들의 전환을 이미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국 인민의 가일층의 노력이 없이는 그들 역시 자기의 10년 오른 때를 결코 하루 아침에 다 씻어 버리지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의 방향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항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전, 독재 및 무저항의 낡은 독소들

깨끗이 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낡은 독소, 때, 혁명 행정에서의 이러저러한 파란 폭설, 있을 수 있는 뒤'걸음질은 오직 투쟁과 노력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장기적인 투쟁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사코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평가가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시인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잠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파괴 방식이 개변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있다. 나는 개변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쟁과 학살의 정책으로부터 개량과 기만의 정책으로 개변되었으며 강경한 정책으로부터 온화한 정책으로 개변되었으며 군사적 정책으로부터 정치적 정책으로 개변되었다. 어째서 이러한 개변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부르쥬아지로부터 동맹군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쥬아지와 국민당도 일본 제국주의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프로레타리아트로부터 동맹군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를 관찰함에 있어서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국제 상에서 프랑스 정부가 소련을 적대시하던 데로부터 소련과 연합하는 데로 전환한 것^[6]도 이와 동일한 리치이다. 국내에서의 우리의 임무도 군사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우리에게는 음모나 꾀계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부르쥬아지 및 국민당 내의 모든 항일 공명 분자들과 단결하여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문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며 항일만을 강조하여야 한다. 항일의 직접적 행동이 없이는 민주주의 운동이 있을 수 없다. 다수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요구하지 않고 항일만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12.9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우선 문제를 좀 제기하려 한다. 지난 단계(1935년 12.9 운동으로부터 1937년 2월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까지)에 있어서 다수 사람들이 평화는 요구하지 않고 항일만을 요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에 평화를 강조한 것은 잘못이었던가? 항일의 직접적 행동이 없이는 평화 운동이 있을 수 없는가(서안 사변과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는 바로 수원에서의 항전이 끝난 후에 있었으며 현재 역시 수원에서의 항전이나 12.9 운동 같은 것이 아직 없다)? 항일을 하려면 평화가 요구되고 평화가 없이는 항일이 불가능하며 평화는 항일의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직접적 및 간접적 항일 행동(12.9 운동으로부터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에 이르기까지의)은 모두 평화의 생취를 에워싸고 진행된 것이었고 평화는 전단계에서의 중심적인 고려였으며 전단계에 있어서의 항일 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항일 임무에 대하여 말하면 민주주의는 또한 새로운 단

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은 곧 항일을 위하는 것이다. 항일과 평화, 민주주의와 평화가 서로 조건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일과 민주주의도 역시 서로 조건으로 된다. 민주주의는 항일의 담보로 되며 항일은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준다.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도 허다한 직접적 및 간접적 반일 투쟁이 있기를 바라며 또 그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일 항전을 추동할 것이며 또 민주주의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력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혁명 임무의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이 잘못인가?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물러 섰고 영국과 일본은 균형되어 가고 남경은 더욱 중요하고 있다.》 이것은 력사의 발전 법칙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쓸 데 없는 걱정이다. 일본이 만일 국내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후퇴한다면 이것은 중국 혁명에 도움으로 되며 우리가 희망하는 바이며 세계 침략 전선의 붕괴의 시작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는가? 그러나 실상은 아직 그렇지 않다. 사토 외교는 대전의 준비이며 대전은 우리의 눈앞에 있다. 영국의 중요 정책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 오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일본과의 상이한 이해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남경이 만일 장기간 중요한다면 전국 인민의 적으로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남경의 리익으로 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물러 서는 현상

은 일반적 력사 법칙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임무의 제기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황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라는 구호는 언제나 타당한 것이며 민주주의는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남아 도는 것이 아니라 부족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더구나 실제 정황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단계를 지적하고 민주주의 임무를 제기하는 것은 항전으로 일보 접근하는 것이다. 시국은 이미 전진하였다. 그것을 뒤로 끌어 당겨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국민 대회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국민 대회가 전반 생활에 련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반동적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에로 넘어 가는 교량이기 때문이며 국방적 의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며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북성 동부 및 차할성 북부를 도로 찾으려 밀수를 반대하며 《경제적 제휴》를 반대하는 것 등은 동지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모두 옳은 일이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임무나 국민 대회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는 서로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적인 것은 국민 대회와 인민의 자유이다.

일상적인 반일 투쟁과 인민의 생활을 위한 투쟁이 민주주의 운동과 배합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하등의 론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중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이다.

혁명의 전망 문제

몇몇 동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겠다.

두 편의 글이 있는데 그것이 상편과 하편일 때 상편을 잘 써야 하편도 잘 쓸 수 있다. 민주주의 혁명을 건결히 령도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혁명적 삼민주의자와도 다른 점이다. 오늘의 노력은 장래의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큰 목표를 잃어 버리면 공산당원이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노력을 늦추어도 역시 공산당원이 아니다.

우리는 혁명 전환론〔7〕자로서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 혁명에는 민주 공화국이란 구호 밑에 수행될 몇 개 발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우세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우세로의 이행은 장구한 투쟁 과정이며 령도권 쟁취의 과정이다. 그것은 공산당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각성 정도와 조직 정도를 제고하며 농민 및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각성 정도와 조직 정도를 제고하는 데 의존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튼튼한 동맹자는 농민이며 그 다음은 도시 소부르주아지이다. 우리와 령도권을 다투는 것은 부르주아지이다.

부르조아지의 동요와 불철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역량과 올바른 정책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조아지가 도리어 프로레타리아트를 극복하고 말 것이다.

비류혈적인 전환은 우리들이 바라는 바이며 우리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대중의 역량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트로츠키주의적인 《부단 혁명》론자(8)가 아니라 혁명 전환론자이다. 우리는 민주 공화국의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추미주의를 반대하지만 모험주의와 조급증도 반대한다.

부르조아지가 혁명에 참가하는 것이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여 부르조아지를 배척하면서 부르조아지의 항일파와 연합하는 것(반식민지에 있어서)을 투항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로츠키주의적인 논법이므로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부르조아지의 항일파와의 오늘의 연합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교량이다.

간부 문제

위대한 혁명을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당이 있어야 하며 아주 훌륭한 간부가 많이 있어야 한다. 4억 5천만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역사에 류례 없는 대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도자가 협애한 소그루뻘아서도 안 되며 당내에 사소

한 것에 사로잡혀 큰 것을 보지 못 하며 멀리 내다 보지 못 하며 능력이 없는 지도자와 간부 밖에 없어도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은 일찍부터 대정당이였으며 반동 시기에 손실을 입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정당이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와 간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 당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수만 명의 간부를 양성하여 내야 하며 수백 명의 가장 훌륭한 대중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간부와 지도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알며 정치적으로 멀리 내다 보며 사업 능력이 강하며 희생적 정신이 풍부하며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곤난 앞에서 동요하지 않으며 민족과 계급과 당을 위하여 충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당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당원 및 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대중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강력한 지도에 의거하여 적을 타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리 사욕이 없으며 개인 영웅주의와 개인 돌출주의가 없으며 라태성과 소극성이 없으며 자고자대하는 종파주의가 없어야 한다. 그들은 공명 정대한 민족의 영웅들이며 계급의 영웅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원, 당 간부, 당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며 작풍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수만 명의 당원, 수천 명의 간부 및 수십 명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배워 자기를 보다 더 훌륭히 개조하며 자기를 보다 더 높은 혁명적 수준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

적 부족하다. 또 전 당'적으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간부와 지도자들을 많이 발견하여 내는 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쓰딸린이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9〕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은 간부에 의존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당내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당을 강력하게 만들자면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여 전 당의 적극성을 발동시켜야 한다. 반동 시기와 내전 시기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제가 다소 더 강하게 표현되었다.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 중앙 집권제는 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련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전 당의 적극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전 당의 적극성의 발휘를 통하여 많은 간부를 단련하여 내며 종파 관념의 잔재를 숙청하며 전 당을 강철 같이 단결시켜야 한다.

대회의 단결과 전 당의 단결

대회에서 정치 문제에서의 상이한 의견은 설명을 가함으로써 이미 일치를 보았으며 과거에 있는 중앙의 로선과 개별적 동지들이 지도한 퇴각 로선 사이의 의견 상이도 이미 해결되었다〔10〕. 이것은 우리 당이 매우 튼튼히 단결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단결은 당면한 민족, 민주주의 혁명의 가

장 중요한 토대로 된다. 왜냐 하면 오직 공산당의 단결에 의하여서만 전체 계급 및 전체 민족의 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오직 전체 계급 및 전체 민족의 단결에 의하여서만 적을 타승하고 민족,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우리의 올바른 정치 방침과 튼튼한 단결은 천백만 대중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입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도시 소부르조아지의 광범한 대중에 대하여 우리는 선전, 선동 및 조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르조아지의 항일파를 우리와 동맹을 맺게 하는 데도 우리가 가일층 공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의 방침을 대중 자신의 방침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장기간 꾸준하게, 굴함 없이, 아주 간고하게 그리고 모든 시끄러움을 꺼리지 않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 공고화 및 그 과업의 완수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의 민주 공화국의 실현은 대중을 쟁취하는 이 노력과 조금도 분리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천백만 대중을 우리의 령도 하에로 쟁취한다면 우리의 혁명의 과업은 조속히 완수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정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민

족 해방과 사회 해방을 전부 실현할 것이다.

주 해

[1] 서안 사변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당시에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중국의 국내 평화와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파괴하도록 국민당 당국을 추동하기 위하여 표면 상 일시적이거나 완화된 태도를 취하였다. 1936년 12월과 1937년 3월에 일본 침략자들은 두 번이나 내몽고 괴뢰 자치 정부를 사속하여 남경 국민당 정부를 지지한다는 전보를 내게 하였다. 일본 외상 사토는 직접 술마하여 장 개석을 통박하면서 과거의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변경하고 중국의 동일과 부흥을 원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타방으로 일본은 또 제벌 고다마 겐지 등으로써 소위 《경제 시찰단》을 조직하여 중국에 와서 중국의 《현대적 국가 조직의 완성》을 원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소위 《사토 외교》와 그리고 일제의 이러한 가상에 미혹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한 《일본은 물러 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침략적 음모를 가리켜 말한다.

[2] 1936년 11월에 국민당 정부는 당시 상해에서 항일 구국 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 심 균유 등 7 명을 체포하였고 1937년 4월에 소수의 국민당 고등 법원 검사는 심 균유 등을 《기소》하였다. 국민당 당국은 일제 야국 운동을 《민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던 그 원래의 반동적인 낡은 논조를 여전히 계속 하면서 심 균유 등에게도 《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죄상》을 들먹였다.

[3] 서안 사변 이전에 동북군은 본래 심시성과 감숙성의 절경 지대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심시성 북부의 홍군과 직접 접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동북군은 홍군의 영향을 심각히 받았으며 그리 하여 서안 사변을 일으켰다. 1937년 3월에 국민당 반동파는 홍군과 동북군의 관계를 벌이지게 하며 또 이 기회를 타서 동북군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동북군을 강제로 하남성과 안휘성에 이동시켰다.

[4] 양 호성은 서안 사변을 일으킨 서북의 군사 지도자로서 장 학량과 같이 이름이 날렸으며 당시 그들을 《장양》이라고 불렀다. 장 학량은 장 개석을 석방한 후 장 개석을 배웅하여 남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구금 당하였다. 1937년 4월에 양 호성도 국민당 반동파의 압력 하에 하는 수 없이 사적하고 퇴류하였다. 양 호성은 함전이 일어 난 후 귀국하여 항일 사업에 참가하며 하였

으나 역시 장 개석에게 체포되어 장기간 감금 당하였다가 1949년 9월에 인민 해방군이 중경에 박두하자 결국 수용소에서 국민당 반동파에게 살해 당하였다.

[5] 동관은 섬서성, 하남성, 산서성의 절경 지대에 있는 군사 요지이다. 서안 사변 당시 국민당 부대는 주로 동관 이동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좌》익이라고 자칭하던 일부 사람들(장 국도는 그 중의 한 사람이다)은 《동관을 쳐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민당 부대를 진공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더한 주장은 서안 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당 중앙의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6] 프랑스 제국주의는 러시아의 10월 혁명 후 쓰련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오래 동안 실시하였다. 10월 혁명 후 얼마 안 되어 프랑스 정부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의 쓰련에 대한 14 개 국가의 무력 간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또 이 간섭이 실패된 후에도 쓰련을 고립시키려는 반동적 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35년 5월에 이르러서야 프랑스 인민 내부에 준 쓰련의 평화에 초적 외교의 영향과 프랑스에 대한 파쇼 독일의 위협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쓰련과 호상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반동 정부는 그 후 이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7] 스탈스, 영겐스의 《공산당 선언》 제 4 장과 베닌의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 민주당의 두 가지 전술》 제 12 절, 제 13 절과 《쓰련 공산당(볼셰위크) 역사 간략 독본》 제 3 장 제 3 절을 참조하라.

[8] 쓰말린의 《베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제 3 부분과 《10월 혁명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제 2 부분과 《베닌주의 제 문제에 대하여》 제 3 부분을 참조하라.

[9] 1935년 5월 붉은 군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쓰말린의 연설에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책계에 있는 모든 값 있는 자본 가운데서 사람이, 인제가 가장 값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본이다……. 우리의 현시 조건에 있어서는 〈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10] 1935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있는 당 중앙의 로선과 장 국도의 회 각 로선 간의 의견 상이를 가리치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의 주해 22쪽 참조하라. 모 태동 동지가 여기서 《의견 상이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한 것은 홍군 제 4 방면군과 중앙 홍군과의 회합을 가리킨 것이다. 후에 장 국도가 공공연히 당을 배반하고 반혁명으로 전락된 것은 명도 로선 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반역적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실천론*

인식과 실천과의 관계——지와 행과의
관계에 대하여

(1937년 7월)

맑스 이전의 유물론은 인간의 사회성을 떠나서, 인간의 역사적 발전을 떠나서 인식 문제를 관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인식의 의존 관계, 즉 생산과 계급 투쟁에 대한 인식의 의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선 맑스주의자는 인류의 생산 활동을 가장 기본적인 실천 활동으로, 기타의 일체 활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간의 인식은 주로 물질적 생산 활동에 의존하는바, 인간은 물질적 생산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현상, 자연의 성질, 자연의 합법칙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차츰 이해하게 되

* 우리 당내에는 오래 동안 중국 혁명의 경험을 거부하고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라는 진리를 부인하고 단지 맑스주의 서적 중의 단편적 어'구를 동적으로 삼켜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우는 교조주의적인 동지들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오래 동안 자신의 단편적 경험에 사로잡혀 혁명적 실천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혁명의 전반적 국면을 보지 못하고 비록 수고는 하면서도 맹목적으로 사업하는 경험주의적인 동지들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동지들의 그릇된 사상, 특히 교조주의 사상은 1931

며 또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정도로 인간과 인간과의 일정한 호상 관계도 차츰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지식은 생산 활동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는 매개인이 사회의 한 성원의 자격으로 다른 사회 성원들과 협력하여 일정한 생산 관계를 맺고 생산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인류의 물질적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 각종 계급 사회에서는 각 계급의 사회 성원이 여러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일정한 생산 관계를 맺고 생산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인류의 물질적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인간의 인식 발전의 기본적 근원이다.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생산 활동이라는 한 가지 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계급 투쟁, 정치 생활, 과학 및 예술 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요컨대 사회의 실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사회적 인간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은 물질적 생활 이외에 또 정치 생활, 문화 생활(물질적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에서도 여러 가지 상이한 정도로 인간과 인간과의 각종 관계를 알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형태의 계급 투쟁이 인간의 인식 발

년부터 1934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교조주의자들은 맑스주의자로 가장하고 광범한 동지들을 미혹시켰다. 모택동 동지의 《실천론》은 맑스주의적 인식론의 견지에서 당내의 주관주의적 오류들인 교조주의와 경험주의, 특히 교조주의를 폭로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 중심이 실천을 경시하는 교조주의라는 주관주의를 폭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실천론》이라고 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이 본문의 견지에서 연안의 항일 군사 정치 대학에서 강연한 일이 있다.

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계급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일정한 계급적 지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각종 사상은 계급적 타인이 찍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맑스주의자는 인류 사회의 생산 활동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인식도 자연계에 대하여서나 사회에 대하여서나를 막론하고 역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즉 천박한 것으로부터 심오한 것으로, 일면적인 것으로부터 다면적인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극히 오랜 역사적 기간을 두고 사람들은 사회의 역사에 대하여 일면적인 이해밖에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착취 계급의 편견에 의하여 항상 사회 역사가 외면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편으로는 생산 규모가 협소하여 사람들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거대한 생산력——대공업에 수반하여 근대 프로레타리아트가 나타난 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사회 역사의 발전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과학으로 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과학이 곧 맑스주의 과학이다.

맑스주의자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만이 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진리성의 기준이라고 인정한다. 실제의 정형은 이렇다. 즉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물질적 생산 과정에서, 계급 투쟁 과정에서, 과학적 실험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상하였던 결과에 도달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인식이 실증된다. 사람들이 사업의 승리를 얻으려면, 즉 예상하였던 결

파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의 사상을 객관적 외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부합되지 않으면 실천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자기의 사상을 외계의 합법칙성에 맞도록 시정하게 되며 그렇게 한다면 실패를 승리로 전화시킬 수 있다. 소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며 《실패를 당하면 지혜도 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치를 말하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은 실천을 첫자리에 내세우며, 인간의 인식을 실천과 조금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부인하면서 인식을 실천과 분리시키는 모든 그릇된 리론을 배척한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실천은(리론적) 인식보다 높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의 우점뿐만 아니라 직접적 현실성의 우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맑스주의 철학——변증법적 유물론에는 두 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그 계급성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복무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실천성으로서 실천에 대한 리론의 의존 관계 즉 리론의 기초는 실천인 동시에 리론은 다시 또 실천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식 또는 리론의 진리 여부는 주관적 생각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실천의 결과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진리의 기준은 사회적 실천 밖에 없다. 실천의 전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첫째의 기본적인 전지이다[2].

그러면 인간의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실천으로부터 발생하며 또 어떻게 실천에 복무하는가? 이것은 인식의 발전 과정만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원래 사람은 실천 과정에서 처음에는 과정 중의 각개 사물의 현상 면, 각개 사물의 일면, 각개 사물 사이의 외부적 관계 밖에 보지 못한다. 케컨대 어떤 외부 사람들이 연안에 고찰하러 왔다면 그들은 처음 하루 이들 동안은 연안의 지형, 거리, 가옥을 보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연회, 야회 및 군중 대회에 참가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문건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은 사물의 현상이며 사물의 하나 하나의 면이며 이런 사물의 외부적 관계이다. 이것을 인식의 감성적 단계 즉 감각 및 인상의 단계라고 한다. 즉 연안의 이러한 개개의 사물들이 고찰단 선생들의 감각 기관에 작용하여 그들의 감각을 일으키고 그들의 두뇌 속에 많은 인상과 그 인상들 사이의 대략적인 외부적 관계를 이루는데 이것이 인식의 제 1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아직 심각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으며 논리에 맞는 결론을 지을 수 없다.

사회적 실천의 계속은 실천에서 사람들의 감각과 인상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 번 거듭되게 한다. 그리 하여 사람들의 두뇌 속에 인식 과정에서의 돌변(즉 비약)이 생기어 개념이 형성된다. 개념이라는 것은 벌써 사물의 현상이나 사물의 하나 하나의 면이나 그 외부적 관계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 사물의 전체, 사물의 내부적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개념은 감

각과 광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방향에 따라 계속 전진하면서 판단과 추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논리에 맞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삼국 연의》에 소위 《광미간을 찌프리면 피가 나온다》고 한 것이나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소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 두뇌 속에서 개념을 운용하여 판단과 추리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의 제 2 단계이다. 외부에서 온 고찰단 선생님들은 각종 재료를 모으고 또 《좀 생각해 본》 후이면 《공산당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책은 철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일 단결 구국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은 능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판단 및 추리의 단계는 한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과정 전체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단계 즉 이성적 인식의 단계이다. 인식의 진정한 임무는 감각을 거쳐 사유에 도달하며 점차 객관적 사물의 내부적 모순에 대한 이해, 그 합법칙성에 대한 이해, 이 과정과 저 과정 사이의 내부적 연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 즉 논리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나와 논리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과 다른 것은 감성적 인식은 사물의 일면, 현상, 외부적 연계에 대한 인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논리적 인식은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물의 전체, 본질, 내부적 연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것이며 주위 세계의 내재적 모순의 폭로에 도달한 것이며 따라서 주위 세계의

총체에서, 주위 세계의 일체 방면의 내부적 력계에서 주위 세계의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에 기초하여 천박한 데로부터 심오한 데로 들어가는 인식 발전 과정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 리론을 맑스주의 이전에는 이렇게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맑스주의적 유물론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유물론적으로 또 변증법적으로 인식의 심화 운동을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인간이 자기들의 생산과 계급 투쟁의 복잡하고도 항상 반복되는 실천 가운데서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논리적 인식으로 이행하는 운동을 설명하였다. 레닌은 《물질의 추상, 자연 법칙의 추상, 가치의 추상 등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과학적인(옳은, 신중한, 허망하지 않은) 추상은 자연을 더 심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반영한다.》^[3]고 말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인식 과정의 두 단계의 특성은 낮은 단계에서는 인식이 감성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높은 단계에서는 인식이 논리적인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를 물론하고 그것은 다 통일적인 인식 과정의 단계라고 인정한다. 감성과 리성은 그 성격은 같지 않으나 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천의 기초 위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감각한 사물을 곧 리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리해한 사물이여야 더욱 심각하게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실천은 증명하고 있다. 감각은 현상 문제를 해결할 따름이고 리론만이 본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누구를 물론하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면 그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는, 즉 그 사물의 환경 가운데서 생활(실천)하지 않고는 인식할 도리가 없다.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을 미리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한 실천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일 수 밖에 없다. 맑스는 자유 자본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특이한 법칙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라는 이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아직 그러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레닌과 쓰딸린만이 이 임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이 그들의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재라는 조건도 있지만 주로는 그들이 당시의 계급 투쟁과 과학적 실험의 실천에 직접 참가한 데 있다. 이 후자의 조건이 없이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재는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 만사를 다 안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에 있어서는 한갓 공담에 지나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된 현대에 있어서는 이 말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직접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천 가운데서 《지(知)》를 얻고 그것이 문'자와 기술의 전달을 통하여 《수재》의 손에 이르러야 수재는 간접적으로 《세상 만사를 알게 된다》. 이런 또는 저런 사물을 직접 인식하려면 현실을 변혁하는, 이런 또는 저런 사물을 변혁하는 실천적 투쟁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이런 또는 저런 사물의 현상에 접촉

할 수 있고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적 투쟁에 직접 참가하여야만 이런 또는 저런 사물의 본질을 구명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실지 견고 있는 인식 행정이다. 문제는 단지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고의로 외곡하여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데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것은 《박식가》인데 그들은 여기 저기에서 주어 들은 애매한 지식을 가지고 《천하 제일》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지식 문제는 과학 문제로서 조금이라도 허위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실하고도 겸손한 태도이다. 지식을 얻으려면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에 참가하여야 한다. 배의 맛을 알려면 배를 변혁시켜야 한다. 즉 직접 먹어 보아야 한다. 원자의 구조와 성질을 알려면 물리학적 및 화학적 실험을 하여 원자의 상태를 변혁시켜야 한다. 혁명의 이론과 방법을 알려면 혁명에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진정한 지식은 직접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일이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사실 상 많은 지식은 간접적 경험에서 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옛날부터 내려 온 지식과 타지방에서 온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옛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만일 옛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때 그것이 헤닝이 말한 조건 즉 《과학적인 추상》에 부합되는 것이었다면, 즉 객관적 사물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면 그 지식은 믿을 만 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지식은 직접적 경험에서 오는 것과 간접적 경험에서 오는 것과의 두 부분 밖에 없다. 또 나에게서는 간접적 경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직접적 경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총체를 두고 말한다면 어떠한 지식을 막론하고 직접적 경험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지식이든지 그 근원은 객관적 외계에 대한 인간의 육체적 감각 기관의 감각에 있다. 이 감각을 부인하며 직접적 경험을 부인하며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박식가》가 가소롭다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범의 굴에 들어 가야 범의 새끼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실천에 대하여서도 진리이며 인식론에 대하여서도 진리이다. 실천을 떠난 인식은 있을 수 없다.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에 기초하여 산생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적 인식 운동——인식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운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에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보자.

프로레타리아트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실천의 초기, 즉 기계를 파괴하며 자연 발생적 투쟁을 하던 시기에는 아직 감성적 인식의 단계에 처하여 있었을 뿐이며 자본주의의 제 현상의 일면 및 그 외부적 관계 밖에 인식하지 못 하였다. 이 때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아직 소위 《자재적 계급》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천의 제 2 시기, 즉 의식적 및 조직적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시기에

이르러 실천으로 하여, 장기간의 투쟁 경험으로 하여, 맑스, 엥겔스가 과학적 방법으로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총화한 데서 맑스주의의 이론이 산생되고 그것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가 교양된 결과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리해하게 되었고 사회의 계급적 착취 관계를 리해하게 되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임무를 리해하게 되었다. 이때에 그들은 《자위적 계급》으로 되었다.

중국 인민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였다. 제 1 단계는 표면적, 감성적 인식 단계로서 그것은 태평 천국 운동과 의화단 운동 등등의 막연한 배타주의적 투쟁에서 표현되었다. 제 2 단계에 이르러서야 리성적 인식 단계에 도달하여 제국주의의 내부 및 외부의 여러 가지 모순을 간파한 동시에 제국주의가 중국의 매관 계급 및 봉건 계급과 련합하여 중국 인민 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본질을 간파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1919년 5.4 운동 전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우리는 또 전쟁을 보기로 하자. 전쟁의 지도자들로써 만일 그들이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구체적 전쟁(때를 들면 우리의 과거 10년 간의 토지 혁명 전쟁)의 심오한 지도 법칙을 처음 단계에서는 모를 것이다. 그들은 처음 단계에서는 허다한 작전 경험을 얻을 뿐이며 매우 많은 패전을 맛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승전 특히 패전의 경험)에 의하여 그들은 전쟁 전체의 내부에 관통되어 있는 것, 즉 그 구체적 전쟁의 합법칙성을 리해할 수 있게 되며 전략과 전술을 알게 되며 따라서 자신 있게 전쟁을 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에 만일 경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지도하게 한다면 또 얼마간의 패전을 맛 본 뒤(경험을 얻은 뒤)에야 전쟁의 법칙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사업 임무를 용감하게 접수할 수 없을 때 흔히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왜 자신이 없는가? 그것은 그가 그런 사업의 내용과 환경에 대하여 그 합법칙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종래로 이런 사업에 접촉하여 본 일이 없거나 접촉이 많지 못 하므로 이런 사업의 합법칙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정황과 환경을 자세히 분석하여 주면 그는 비교적 자신을 가지게 되며 이 사업을 하려 한다. 만일 그가 이 사업을 한동안 하여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되고 또 그가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황을 허심하게 세밀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사업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그의 용기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의 정황 여하를 불문하고 일의 전체(일의 력사 및 그 현재의 전반 형편)를 돌보지 않고 일의 본질(일의 성질 및 이 일과 기타 일과의 내부적 련계)을 다쳐 보지도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호령하고 명령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식 과정의 제 1 보는 외계의 사물과 접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감각의 단계에

속하며 제 2 보는 감각한 재료를 종합하여 정리, 개조하는 것으로서 개념, 판단 및 추리의 단계에 속한다. 감각한 재료가 아주 풍부하며(단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맞는(착각이 아닌) 것이라야만 이와 같은 재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개념과 논리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 반드시 중요하게 지적하여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앞서서도 이미 말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할 것은 이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에 의존한다는 문제이다. 만일 감성적 인식을 거치지 않고도 이성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관념론자이다. 철학사에는 소위 《리성론》이라는 파가 있다. 그들은 경험의 실재성은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실재성만 인정하면서 감각적 경험은 믿을 수 없고 이성만이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 파의 오류는 사실을 전도한 데 있다. 이성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이 감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적인 것은 수원 없는 강, 뿌리 없는 나무로 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주관에서 스스로 생기는, 믿을 수 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인식 과정의 순서로 말하면 감각적 경험이 일차적인 것이다.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의 사회적 실천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 실천만이 인간의 인식을 발생시키며 객관적 외계로부터 감각적 경험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객관적 외계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사람에게는 인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인식은 경험에서 시작된다——이것이 인식론의 유물론이다.

늘썌는, 인식은 심화되여야 하며 인식의 감성적 단계는 리성적 단계로 발전되여야 한다——이것이 인식론의 변증법이 다〔4〕. 만일 인식은 낮은 감성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감성적 인식만이 믿을 수 있고 리성적 인식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력사 상의 《경험론》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리론의 오류는 감각한 재료도 물론 객관적 외계의 그 어떤 진실성의 반영이기는 하지만(나는 여기에서 경험은 소위 내성적 체험에 불과하다는 관념론적 경험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반영은 완전하지 못 하고 사물의 본질이 반영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 완전히 사물 전체를 반영하며 사물의 본질을 반영하며 사물의 내부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고 작용을 통하여, 감각한 풍부한 재료에서 쓸 데 없는 것을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며 여기로부터 저기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르는 개조, 제작에 품을 들여 개념 및 리론의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리성적 인식으로 비약하여야 한다. 개조를 거친 이러한 인식은 더 풍부하고 더 믿을 수 없는 인식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직 그것이 인식 과정에서 실천적 기초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개조된 것이라면 바로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객관적 사물을 더 심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다. 비속한 사무주의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을 중시하고 리론을 경시하며 따라서 객관적 과정의 전체

를 통찰하지 못 하며 명확한 방침이 없으며 원대한 전망이 없으며 자그마한 성공이나 바늘'구멍 만 한 소견을 가지고 아주 만족해 한다. 이런 사람이 만일 혁명을 지도한다면 혁명을 막다른 골목에로 몰아 넣고 말 것이다.

리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에 의존하며 감성적 인식은 리성적 인식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이것이 곧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이다. 철학 상의 《리성론》이나 《경험론》은 모두 인식의 역사적 성격 또는 변증법적 성격을 모른다. 비록 그것에도 각각 일면적인 진리는 있으나(판념론적 리성론과 경험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 리성론과 경험론을 말하는 것이다) 인식론 전체에서 보면 모두 그릇된 것이다. 감성으로부터 리성에 이르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 운동은 작은 인식 과정(예를 들면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리하며 큰 인식 과정(예를 들면 어떤 사회 또는 어떤 혁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리하다.

그러나 인식 운동은 여기에 이르러서도 아직 완결되지 않는다. 만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 운동을 리성적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문제의 절반 밖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 철학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절반 밖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맑스주의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는 객관적 세계의 합법칙성을 알고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법칙성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계를 개조하는 데 있다. 맑스주의적 견지

에서 보면 리론은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성은 레닌의 명제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다.》^[5]는 한 마디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 맑스주의가 리론을 중시하는 것도 바로 그리고 오직 그것이 행동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리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론할 따름이며 다락에 없어 두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리론은 아무리 좋아도 의의가 없는 것이다. 인식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며 실천을 통하여 리론적 인식에 도달한 다음 다시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식의 능동적 작용은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리성적 인식에 이르는 능동적 비약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리성적 인식으로부터 혁명적 실천에 이르는 이 비약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세계의 합법칙성을 파악한 인식은 반드시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생산의 실천에, 혁명적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실천에, 과학적 실험의 실천에 다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리론의 건설 및 발전의 과정이며 인식 과정 전체의 계속인 것이다. 리론적인 것이 객관적 진리성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앞에 말한 감성으로부터 리성에 이르는 인식 운동에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며 또 충분히 해결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려면 리성적 인식을 사회적 실천으로 다시 돌려 보내고 리론을 실천에 응용하여 그것이 예상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많은 자연 과학 리론들이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학설들이 자연 과학자들에 의하여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과학적 실천에 의하여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도 그 학설이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혁명적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실천에 의하여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보편적 진리로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실천이든지 모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인식의 력사가 우리에게 알려 주다 싶이 많은 이론의 진리성은 불완전하던 것이 실천의 검열을 통하여 그 불완전성이 시정된다. 많은 이론은 그릇되었던 것이 실천의 검열을 통하여 그 오류가 시정된다. 실천을 진리의 표준이라고 하며 《생활, 실천의 견지가 인식론의 첫째의 기본적인 견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6]고 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하였다. 《이론이 혁명적 실천과 련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 없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실천이 혁명적 이론으로써 자기의 길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7].

이로써 인식 운동은 완성된 셈인가? 우리는 완성되기도 하였고 완성되지 못 하기도 하였다고 대답한다. 어떤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 과정을 변혁하는 실천(어떤 자연 과정을 변혁하는 실천이거나 어떤 사회 과정을 변혁하는 실천이거나를 불문하고)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적 인간이 객관적 과정의 반영과 주관적 능동성의 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인식을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이성적인 것으로 이행시켜

대체로 그 객관적 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사상, 이론, 계획 또는 방안을 세운 후에 다시 이러한 사상, 이론, 계획 또는 방안을 그 동일한 객관적 과정의 실천에 적용하여 만일 예상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즉 예정한 사상, 이론, 계획, 방안이 그 동일한 과정의 실천에서 사실로 되거나 대체로 사실로 된다면 이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인식 운동은 완성된 셈이다. 예를 들면 자연을 변혁하는 과정에서의 어느 한 공사 계획의 실천, 어느 한 과학적 가설의 실증, 어느 한 기물의 제조, 어느 한 농산물의 수확, 사회를 변혁하는 과정에서의 어느 한 파업의 승리, 어느 한 전쟁의 승리, 어느 한 교육 계획의 실천 등은 모두 예상하였던 목적을 실현한 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을 변혁하는 실천에서나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에서나를 물론하고 사람들이 본래 예정하였던 사상, 이론, 계획, 방안이 조금도 변동 없이 그 대로 실현되는 일은 드물다. 이것은 현실의 변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항상 많은 제약을, 비단 과학적 조건과 기술적 조건의 제약 뿐만 아니라 객관적 과정의 발전과 그 표현 정도의 제약(객관적 과정의 제 측면과 그 본질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형 하에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실천 중에 나타남으로써 사상, 이론, 계획, 방안을 부분적으로 변동시키는 일이 흔히 있으며 전부를 변동시키는 일도 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예정한 사상, 이론, 계획, 방안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실제에 맞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

다. 많은 경우에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여야 비로소 그릇된 인식을 시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과정의 합법칙성에 부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전화시킬 수 있다. 즉 실천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때에 도달하면 어느 한 발전 단계에서의 어느 한 객관적 과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 운동은 완성된 셈이다.

그러나 과정의 주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간의 인식 운동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과정이든지 자연계에 속하는 것이거나 사회에 속하는 것이거나를 물론하고 그 내부적 모순과 투쟁에 의하여 앞으로 주이, 발전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인식 운동도 이에 따라서 주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운동을 말한다면 진정한 혁명 지도자는 자기의 사상, 이론, 계획, 방안에 오류가 있을 때에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 시정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객관적 과정이 어느 한 발전 단계로부터 다른 발전 단계로 주이, 전환하였을 때에도 자기와 혁명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주관적 인식을 거기에 따라 잘 주이, 전환시켜야 한다. 즉 새로운 정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혁명적 임무와 새로운 사업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혁명 시기에는 정황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다. 그러므로 혁명자들의 인식이 이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지 못 한다면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나 사상이 현실에 뒤떨어지는 일은 흔히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명 대열 내의 완고파를 반대한다. 그들의

사상은 변화하는 객관적 정세에 따라 전진하지 못 한다. 력사 상에서 그것은 우경 기회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모순의 투쟁이 이미 객관적 과정을 앞으로 추진시켰다는 것을 보지 못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계단에 머물러 있다. 모든 완고 분자의 사상은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은 사회의 수레바퀴의 앞에 서서 안내자의 역할을 노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뒤를 따라 가면서 수레가 너무 빨리 간다고 원망할 줄 밖에 모르며 수레를 뒤로 끌어 당겨 뒤'걸음질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또 《좌》의 공담주의도 반대한다. 그들의 사상은 객관적 과정의 일정한 발전 단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 중의 어떤 자들은 환상을 진리로 보며 어떤 자들은 장애에 가서야 겨우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게 될 리상을 억지로 현시에 실시하려고 한다. 그들의 사상은 현재의 대다수 사람들의 실천과 유리되어 있으며 현재의 현실성과 유리되어 있다. 그것은 행동 상에서 모험주의로 표현된다.

관념론과 기계적 유물론, 기회주의와 모험주의는 모두 주관과 객관의 호상 분열, 인식과 실천의 호상 리탈로써 특징 지어진다. 과학적인 사회적 실천을 특징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적 인식론은 이런 그릇된 사상을 견결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맑스주의자는 절대적인 총적인 우주 발전 과정에서의 각개의 구체적 과정의 발전은 모두 상대적이며 따라서 절대적 진리의 긴 강물에서 일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각개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 진리성 밖에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무수한 상대적 진리의 총화가 곧 절대적 진리인 것이다[8]. 객관적 과정의 발전은 모순과 투쟁에 가득 찬 발전이며 인간의 인식 운동의 발전도 모순과 투쟁에 가득 찬 발전이다. 일체 객관적 세계의 변증법적 운동은 조만간 인간의 인식에 반영된다. 사회적 실천에서의 발생, 발전 및 소멸의 과정은 무궁하며 인간의 인식의 발생, 발전 및 소멸의 과정도 역시 무궁하다. 일정한 사상, 이론, 계획, 방안에 근거하여 객관적 현실의 변혁에 종사하는 실천이 번마다 전진함에 따라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번마다 심화되어 간다. 객관적 현실 세계의 변화 운동이 영원히 완결되지 않음에 따라 실천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는 결코 진리를 종결시키지 않았으며 진리를 인식하는 길을 실천에서 부단히 개척하고 있다. 우리의 결론은 주관과 객관, 이론과 실천, 지(知)와 행(行)과의 구체적, 역사적 통일이며, 구체적 역사를 떠난 모든 《좌》적 또는 우적인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회 발전의 오늘의 시대에 이르러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할 책임은 이미 역사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정당의 어깨에 지워졌다.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세계 개조의 이러한 실천 과정은 전 세계에서나 중국에서나 하나의 역사적 시기——세계와 중국의 암흑 면을 전면적으로 전복하고 세계와 중국을 전에 없던 광명한 세계로 전

변시키는, 유사 이래 미증유의 중대한 시기에 다달았다.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 및 혁명적 인민의 투쟁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주관적 세계——자기의 인식 능력도 개조하며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와의 관계도 개조하는 임무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 상의 일부 분에서는 이미 이런 개조를 실행하였는바 그것은 즉 쓰련이다. 그들은 지금 이런 개조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인민 및 세계 인민들도 모두 이런 개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는 거치게 될 것이다. 소위 개조될 객관적 세계에는 개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개조는 강제적인 단계를 통한 연후에야 비로소 자각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모두 자각적으로 자신을 개조하며 세계를 개조하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시대인 것이다.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며 또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실증하고 진리를 발전시킨다.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이성적 인식으로 능동적으로 발전하며 또 이성적 인식으로부터 혁명의 실천을 능동적으로 지도하여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한다.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이러한 형식이 무한히 순환, 반복되며 매개 순환에서의 실천과 인식의 내용은 번마다 이전보다 한 급 높은 정도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전체이며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지행 통일판이다.

주 해

[1] 헤겔의 저서《논리학》 제 3 분책 제 3 장 《리념》에 대한 메닌의 평어에서 인용하였다. 메닌의 《헤겔의 저서〈논리학〉의 적요》에 있다.

[2] 맑스의 《포이에트바흐에 관한 비제》와 메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제 2 장 제 6 절을 참조하라.

[3] 헤겔의 저서《논리학》 제 3 분책 《주관적 논리학 혹은 개념론》에 대한 메닌의 평어에서 인용하였다. 메닌의 《헤겔의 저서〈논리학〉의 적요》에 있다.

[4] 헤겔의 저서《논리학》 제 3 분책 제 3 장 《리념》에 대한 메닌의 평어《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경험적으로 이해하며 연구하기 시작하여야 하며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를 참조하라. 메닌의 《헤겔의 저서〈논리학〉의 적요》에 있다.

[5] 메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 1 장 제 4 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6] 메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제 2 장 제 6 절에 있다.

[7] 쓰탈린의 《메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제 3 부분 《리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8] 메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제 2 장 제 5 절을 참조하라.

모 순 론*

(1937년 8월)

사물의 모순의 법칙 즉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변증법은 대상의 본질 자체 내에 있는 모순의 연구이다》(1). 레닌은 항상 이 법칙을 변증법의 정수 또는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2).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연구할 때 광범한 방면에 론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허다한 철학적 문제에 론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 잘 알았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물 변증법을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란 즉 두 가지 세계관, 모순의 보편성, 모순의 특수성,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모순의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모순에서 적대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또런 철학계에서는 최근 수년 간에 데보린 학파의 관념론

* 이 철학 논문은 모택동 동지가 《실천론》에 뒤이어 동일한 목적으로 즉 당내에 존재하는 엄중한 교조주의 사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서 일찍 연안 항일 군사 정치 대학에서 강연한 일이 있다. 본 선집에 수록할 때 저자는 부분적 보충, 삭제 및 수정을 가하였다.

을 비판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매우 큰 관심을 일으켰다. 데보린의 관념론은 중국 공산당 내에 극히 해로운 영향을 주었다. 우리 당내의 교조주의 사상이 이 학파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철학 연구 사업은 교조주의 사상을 숙청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1. 두 가지 세계관

인류의 인식사에는 일찍부터 세계의 발전 법칙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한 가지는 형이상학적 견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변증법적 견해이다. 이 두 견해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개의 기본적인(또는 두 개의 가능한? 또는 두 개의 역사 상에서 볼 수 있는?) 발전(진화)관은 (1) 감소와 증대로서의, 반복으로서의 발전과 (2) 대립물의 통일(호상 배제하는 대립물로의 통일체의 양분과 그러한 대립물 간의 호상 관계)로서의 발전이다»[3]. 레닌이 말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이다.

형이상학은 천학이라고도 한다. 이 사상은 중국에서나 구라파에서나를 막론하고 극히 오랜 역사적 기간을 통하여 관념론에 속하여 온 세계관으로서 사람들의 사상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라파에서의 부르주아지의 초기의 유물론도 역시 형이상학적이였다. 구라파의 많은 나

라들이 사회 경제적 면에서 자본주의의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서면서 생산력, 계급 투쟁 및 과학이 모두 역사 상 류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역사 발전의 가장 위대한 동력으로 된 결과 맑스주의적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이 산생되었다. 그러자 부르조아 진영에서는 공개적이고 극단적으로 로골적인 반동적 관념론 이외에 또 속류 진화론이 나타나 유물 변증법에 대항하게 되었다.

소위 형이상학적 또는 속류 진화론적 세계관이란 고립적, 정지적 및 일면적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이 세계관은 세계의 일체 사물, 일체 사물의 형태와 종류를 모두 영원히 서로 고립되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만일 변화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량적 증감과 장소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고 이 증감이나 이동의 원인은 사물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외부에 있다고, 즉 외'적인 힘의 충격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자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각종 사물과 사물의 특성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때부터 그러하였으며 그 후의 변화는 다만 량적인 확대 또는 축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 사물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같은 사물로만 산생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종류의 사물로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 자본주의적 경쟁,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적 사상 등은 고대의 노예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영원히 변함 없이 존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발

전의 원인을 말하게 되면 그들은 사회 밖에 있는 지리, 기후 등의 조건으로써 그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단순히 사물의 외부에서 발전의 원인을 찾으면서 사물은 내'적 모순으로 인하여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유물 변증법적 학설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의 질적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 하며 한 질이 다른 질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 한다. 이러한 사상은 구라파에서는 17 세기 및 18 세기의 기계적 유물론과 19 세기 말엽 및 20 세기 초엽의 속류 진화론에서 표현되었다. 중국에서는 소위 《천은 변하지 않으며 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⁴⁾는 형이상학적 사상이 있어서 오래 동안 부패한 봉건 통치 계급의 옹호를 받아 왔으며 또 최근 100 년 대로는 구라파의 기계적 유물론과 속류 진화론이 수입되어 부르조아지의 옹호를 받고 있다.

형이상학적 세계관과는 반대로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은 사물의 내부로부터, 한 사물의 다른 사물에 대한 관계로부터 사물의 발전을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 즉 사물의 발전을 사물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자기 운동으로 간주하며 또 매개 사물의 운동을 모두 그 주위의 다른 사물과 서로 련관되고 서로 영향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물 발전의 근본 원인은 사물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부에 있는 것이며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물에나 그 내부에는 모두 이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사물은 운동하며 발전하게 된다. 사물에 내재하는 이런 모순성은 사물 발전의 근본 원인이며, 한 사물의 다른 사물과의 호상 련관 및 호상

영향은 사물 발전의 이차적 원인이다. 이와 같이 유물 변증법은 형이상학적인 기계적 유물론 및 속류 진화론의 외인론 또는 피동론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단순한 외'적 원인은 다만 사물의 력학적 운동, 즉 범위의 대소, 량의 증감을 일으킬 뿐으로 그것으로써는 어찌 하여 사물에 성질 상의 천차만별과 그 호상 전화가 있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외'적 힘의 충격에 의하여 일어나는 력학적 운동도 역시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을 통해서야 실현된다. 식물 및 동물의 단순한 성장이나 량적 발전도 주로 내'적 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도 주로 외'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많은 국가가 거의 같은 지리적 조건과 기후적 조건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차이성과 불균형성은 비상히 크다. 한 나라에 있어서 지리와 기후에 변화가 없는 조건 하에서도 그 사회의 변화는 매우 크다. 제국주의적 로씨야는 사회주의적 쏘련으로 전변하였으며 쇠국하고 있던 봉건적 일본은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전변하였으나 이 나라들의 지리와 기후는 변하지 않았다. 오래 동안 봉건 제도가 지배하고 있던 중국도 최근 100년 동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자유 해방의 신중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나 중국의 지리와 기후에는 변화가 없다. 지구 전체 및 지구 각 부분의 지리와 기후도 변화하고는 있으나 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다. 전자는 몇 만 년을 단위로 하여 그 변화를 나타내지만 후자는 몇

천 년, 몇 백 년, 몇 십 년이나 심지어는 몇 해, 몇 달(혁명 시기에 있어서는) 내에도 그 변화를 나타낸다. 유물 변증법적 견지에 의하면 자연계의 변화는 주로 자연계에 내재하는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회의 변화는 주로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의 발전,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모순, 계급 간의 모순, 새것과 낡은 것 간의 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바 이러한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진이 추동되며 신규 사회의 교체가 추동된다. 유물 변증법은 외'적 원인을 배제하는가?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유물 변증법은 외'적 원인은 변화의 조건이고 내'적 원인은 변화의 근거이며 또 외'적 원인은 내'적 원인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계란은 적당한 온도를 받으면 병아리로 변하지만 온도가 돌맹이를 병아리로 변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양자의 근거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 인민 사이의 호상 영향은 항상 있다. 자본주의 시대 특히 제국주의 및 프로테타리아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호상 영향과 호상 작용이 극히 크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비단 로씨야 역사에 신기원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신기원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세계 각국 내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 내부의 변화에도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극히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각국 내부 및 중국 내부의 자체의 합법칙성을 통하여 일어난다. 두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면 한 쪽은 승리하고 한 쪽은 패배하는데 그 승패는 언제나 내'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승리는 그가 강하거나 또는 그 지휘에 잘못이 없는 결과이며 패배는 그가 약하거나 또는 그 지휘가 잘못된 결과로서 외'적 원인은 내'적 원인을 통해서 작용한다. 1927년에 중국에서 대부르쵸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를 패배시키게 된 것은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내부의(중국 공산당 내부의) 기회주의를 통하여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주의를 청산하였을 때 중국 혁명은 다시 발전하였다. 그 후 중국 혁명이 또다시 적들에게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 당내에 모험주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모험주의를 청산하였을 때 우리의 사업은 또다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한 정당이 혁명을 승리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정치 로선의 정확성과 조직적 공고성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증법적 세계관은 중국에서나 구라파에서나 고대에 이미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변증법은 자연 성장적인 소박한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및 역사적 조건으로 하여 아직 완비된 이론으로 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였다. 나중에 그것은 형이상학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18 세기 말엽 및 19 세기 초엽에 걸쳐 생존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그의 변증법은 관념론적 변증법이었다.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위대한 활동가 맑스와 엥겔스가 인류 인식사의 적극적 성과를 종합하고 특히 헤겔의 변증법의 합리적인 부분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변증법적 유물론

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위대한 이론을 창조한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인류 인식사 상에 전례 없는 대혁명이 일어 나게 되었다. 그 후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이 위대한 이론은 또 발전하였다. 이 이론이 중국에 들어 오자 중국 사상계에는 극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 났다.

이 변증법적 세계관은 주로 각종 사물의 모순의 운동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며 또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모순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모순의 보편성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나는 먼저 모순의 보편성을 말하고 다음에 모순의 특수성을 말하려 한다. 맑스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와 계승자들인 맑스, 엥겔스와 레닌, 쓰딸린이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을 발견하였으며 유물 변증법을 인류 역사의 분석과 자연 역사의 분석의 허다한 면에 응용하고 사회의 변혁과 자연의 변혁(예를 들면 쓰련에서)의 허다한 면에 응용하여 극히 거대한 성과를 획득하였으며 그리 하여 모순의 보편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승인하는 바로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특수성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동지들이, 특히 교조주의자들이 똑똑히 모르고 있다. 그들은 모순

의 보편성이 모순의 특수성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은 목전의 구체적 사물의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혁명적 실천을 지도하여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순의 특수성 문제는 착실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모순의 법칙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모순의 보편성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순의 특수성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모순의 보편성 문제로 돌아 오게 되는 것이다.

모순의 보편성 또는 절대성이라는 이 문제에는 두 측면의 의의가 있다. 하나는 모순이 일체 사물의 발전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매개 사물의 발전 과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순의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운동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다.》^[5]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대하여 그것은 《자연(정신도 사회도 포함한)의 모든 현상과 과정들에서 모순되는, 호상 배제하는, 대립적인 경향들을 인정(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6]라는 정의를 내리었다. 이런 견해들은 옳은가? 옳다. 일체 사물 가운데 있는 모순되는 측면의 호상 의존과 호상 투쟁은 일체 사물의 생명을 결정하며 일체 사물의 발전을 추동한다.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사물이라고는 없으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

모순은 단순한 운동 형태(례를 들면 력학적 운동)의 기

초이며 더·우기는 복잡한 운동 형태의 기초이다.

생겔스는 모순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미 단순한 리학적 장소 이동조차가 모순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면, 보다 높은 형식의 물질 운동, 특히 유기적 생명 및 그 발전은 더 발한 것도 없다.……생명은 무엇보다도 우선, 생물이 매개 순간마다 동일한 것이면서 역시 다른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도 역시, 사물 및 과정 자체 내에 존재하여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산생하며 또 자기 자신을 해결하는 모순이다. 이 모순이 정지되자 생명도 정지되어 죽음이 닥쳐 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유의 영역에서도 모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헤켄데 내'적으로는 무제한한 인간의 인식 능력과 외'적으로는 제한되어 국한적으로 인식하는 개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이 인식 능력이 실현된다는 것과 간의 모순은 무한한——적어도 우리들의 실천에 있어서는 무한한——일련의 계기적인 세대에 있어 해결되며 무한한 점진적인 운동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보았다.》

《고등 수학의 주요한 기초의 하나는 모순이다……》

《초등 수학에도 모순은 허다히 있다……》[7].

레닌도 모순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학에서는 +와 -, 미분과 적분.

리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에서는 양전기와 음전기.

화학에서는 원자의 결합과 분리.

사회 과학에서는 계급 투쟁」(8).

전쟁에서의 공수(攻守), 진퇴, 승패는 모두 모순되는 현상이다. 한 측면이 없으면 다른 한 측면도 없다. 이들 두 측면은 투쟁하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 전쟁의 총체를 이루며 전쟁의 발전을 추동하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개념에 있어서의 온갖 차이는 그것을 모두 객관적 모순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객관적 모순은 그것이 주관적인 사유에 반영되어 들어 오면 개념의 모순 운동을 조성하며 사유의 발전을 추동하며 인간의 사상 문제를 부단히 해결한다.

당내에 서로 다른 사상의 대립과 투쟁이 늘 발생한다. 이것은 사회의 계급적 모순 및 신구 사물의 모순이 당내에 반영된 것이다. 만일 당내에 모순과 모순을 해결하는 사상 투쟁이 없다면 당의 생명도 정지된다.

이로 보아 간단한 운동 형태에나 복잡한 운동 형태에나, 객관 현상에나 사유 현상에나 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순은 모든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은 명백하여졌다. 그런데 모순은 매개 과정의 최초의 단계에도 존재하는가? 매개 사물의 발전 과정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순의 운동이 있는가?

데보린 학파를 비뮌한 쏘련 철학계의 문문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보린 학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데보린 학파는 모순은 과정의 최초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나

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시간 이전에 있어서는 과정의 발전이 내'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 원인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데보린은 형이상학적 외인론과 기계론으로 돌아 가 버렸다. 그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구체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쓰련의 조건 하에서는 부농과 일반 농민 간에는 차이만 있고 모순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하린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분석할 때에도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과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혁명 전의 제 3 신분에는 차이만 있었고 모순은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데보린 학파의 이러한 견해는 반맑스주의적인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온갖 차이가 그 가운데 이미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이가 곧 모순이라는 것을 몰랐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는 이 두 계급이 발생한 그 때부터 모순이 발생하였다. 다만 그것이 격화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노동자와 농민 간에는 쓰련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곧 모순이다. 다만 그것이 로자 간의 모순과는 달라서 적대에게까지 격화되지 않으며 계급 투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튼튼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발전 과정에서 이 모순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것은 모순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모순의 차이성 문제이다. 모순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물 발전의 모든 과정에 존재하며 또 모든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다.

새로운 과정의 발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낡은 통일과 이 통일을 형성하는 대립적 구성 부분이 새로운 통일과 이 통일을 형성하는 대립적 구성 부분에 자리를 내주며 이리 하여 낡은 과정 대신에 새로운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낡은 과정이 끝 나고 새로운 과정이 발생한다. 새로운 과정은 또 새로운 모순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자체의 모순의 발전사를 개시하게 된다.

레닌은 맑스가 《자본론》에서 사물의 발전 과정을 시종 일관하고 있는 모순의 운동을 모범적으로 분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사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반드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레닌 자신도 이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였으며 그의 모든 저작은 이 방법으로 일관되어 있다.

《맑스의 〈자본론〉에서는 처음에 부르주아(상품) 사회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대량적이고, 수십억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관계 즉 상품 교환이 분석되고 있다. 그 분석은 이 가장 단순한 현상에서(부르주아 사회의 이 〈세포〉에서) 현대 사회의 일체 모순(또는 일체 모순의 맹아)을 폭로하고 있다. 그 이하의 서술은 이 모순과 이 사회의 발전(성장도 운동도)을 그 각개 부분의 총화에서 그 시초로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이 말에 뒤'이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변증법 일반의 서술(또는 연구) 방법은 바로 이러하여야 한다.》[9]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이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 때야만 중국 혁명의 력사와 그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또 혁명의 전망을 주단할 수가 있다.

3. 모순의 특수성

모순은 일체 사물의 발전 과정에 존재하며 매개 사물의 발전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다——이것이 모순의 보편성 또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이다. 이번에는 모순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보기로 하자.

이 문제는 몇 가지 정형으로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물질의 각종 운동 형태의 모순은 모두 특수성을 띠고 있다. 세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물질의 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취하는 것 만큼 사람이 물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물질의 운동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물질의 매개의 운동 형태를 취급할 때에는 그것과 다른 운동 형태와의 공통점에 류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더우기 중요한 것은, 즉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되는 것은 그 특수점에 류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다른 운동 형태와의 질적 구별에 류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류의하여야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 어떠한 운동 형태이든지 그 내부에는 모두 자체의 특수한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수한 모순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본질을 구성한다. 이것이 곧 세계의 제 사물에 천차만별이 있게 되는 내재적 원인 또는 근거이다. 자연계에는 허다한 운동 형태가 있다. 력학적 운동, 소리, 빛, 열, 전류, 분해, 화합 등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모든 물질의 운동 형태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또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된다. 매개 물질의 운동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본질은 그 자체의 특수한 모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및 사유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매개의 사회 형태 및 사유 형태는 각각 자기의 특수한 모순과 특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과학 연구 분야의 획분은 그 과학의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순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현상의 령역에 특유한 어느 한 가지 모순의 연구는 어느 한 과학 부문의 내상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 있어서의 정수와 부수, 력학에 있어서의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에 있어서의 음전기와 양전기, 화학에 있어서의 분해와 화합, 사회 과학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계급과 계급 간의 상호 투쟁, 군사학에 있어서의 공격과 방어, 철학에 있어서의 판념론과 유물론, 형이상학과 변증법 등등은 모두 특수한 모순과 특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과학의 연구 대상을 구성한다. 물론 모순의 보편성을 인식함이 없이는 사물의 운동 발전의 보편적 원인 또는 보편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함이 없이는 한 사물

의 다른 사물과 다른 특수한 본질을 확정할 수 없으며 사물의 운동 발전의 특수한 원인 또는 특수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 사물을 구별할 수도 없고 과학의 연구 분야를 획분할 수도 없다.

인류의 인식 운동의 순서로 본다면 그것은 항상 개별적인, 특수한 사물의 인식으로부터 점차로 일반적인 사물의 인식으로 확대된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허다한 상이한 사물의 특수한 본질을 인식한 뒤에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개괄하여 제 사물의 공통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공통한 본질을 인식한 뒤에 이런 공통한 본질에 대한 인식을 지침으로 하여 아직 연구되지 않았거나 아직 깊이 연구되지 않은 각종 구체적 사물을 계속 연구하여 그 특수한 본질을 발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이런 공통한 본질에 대한 인식을 보충하고 풍부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생기가 없는, 죽은 것으로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식의 두 과정이다. 즉 하나는 특수로부터 일반에 이르는 과정이며 하나는 일반으로부터 특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인류의 인식은 언제나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매차의 순환은(엄격히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였다면) 모두 인류의 인식을 한 걸음 제고할 수 있으며 인류의 인식을 부단히 심화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교조주의자들의 오류는 한 편으로는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하여 상이한 각 사물의 특수한 본질을 인식하여야만 모순의 보편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제 사물의 공통한 본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사물의 공통한 본질을 인식한 뒤에는 또 아직 깊이 연구되지 않았거나 새로 나타난 구체적 사물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 우리의 교조 주의자들은 태만 분자들이어서 구체적 사물에 대한 어떠한 면밀한 연구도 거절하며 일반적인 진리를 허공에서 떨어지는 어떤 것으로 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순전히 추상적인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며 인류가 진리를 인식하는 이 정상적인 순서를 완전히 부인하며 또 그것을 전도한다. 그들은 인류 인식의 두 과정의 호상 련관——특수로부터 일반에 이르고 일반으로부터 특수에 이르는——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맑스주의의 인식론을 전혀 모른다.

매개의 큰 계통의 물질의 운동 형태의 특수한 모순성과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본질을 연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발전 행정의 매개 과정에서의 물질의 매개의 운동 형태의 특수한 모순과 그 본질도 연구하여야 한다. 일체 운동 형태는 그 허구적이 아닌 실재적인 매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모두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연구 사업은 이 점에 치중하여야 하며 또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모순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베를 들면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와의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인민 대중과 봉건 제도와의 모순은 민주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식민지와 제국주의와의 모순은 민족 혁명 전쟁의 방법

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계급과 농민 계급과의 모순은 농업의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공산당 내의 모순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사회와 자연과의 모순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과정이 변화하여 낡은 과정과 낡은 모순이 소멸되고 새로운 과정과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도 따라서 다르게 된다. 로씨야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해결한 모순 및 그 모순의 해결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른 모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종 혁명의 수행 조건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 하며 따라서 또 서로 다른 모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자기들이 소위 철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어디에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억지로 틀어 맞추기만 한다. 이것은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또는 원래 잘 되어 오던 일을 망쳐 버릴 수 있을 뿐이다.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의 모순의 특수성을 그 총체에서, 그 호상 연관 속에서 구명하기 위해서는, 즉 사물의 발전 과정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순의 제 측면의 특수성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정의 본질을 구명할 수 없다. 이 점도 우리는 연구 사업에서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매개의 큰 사물은 그 발전 과정에 허다한 모순을 포함하

고 있다. 케를 들면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는 중국 사회의 각 피압박 계급과 제국주의와의 모순이 있으며, 인민 대중과 봉건 제도와의 모순이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와의 모순이 있으며, 농민 및 도시 소부르조아지와 부르조아지와의 모순이 있으며, 각개 반동적 통치 집단간의 모순 등이 있어서 정형이 자못 복잡하다. 이러한 모순은 각각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개 모순의 두 측면에도 또한 각각 그 특성이 있으므로 역시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중국 혁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이 매개 모순의 특수성을 그 모순의 총체에서, 즉 모순의 호상 편관 속에서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순의 개개의 측면으로부터 착수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 총체를 이해할 수 있다. 모순의 각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매개 측면이 각각 어떠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각각 어떠한 구체적 형식으로 상대 측과 서로 의존하면서 또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가, 서로 의존하면서 또 서로 모순되고 있을 때와 그 의존이 파열된 후에는 또 각각 어떠한 구체적 방법으로 상대 측과 투쟁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레닌이 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맑스주의의 산 정신은 구체적 정세의 구체적 분석^[10]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의 교조주의자들은 레닌의 이 교시를 위반하고 있다. 그들은 종래로 그 어떤 사물을 머리를 써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없으

며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게 되면 언제나 무내용한 팔고조로 늘어 놓아 우리 당내에다 극히 나쁜 작품을 조성하였다.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주관성, 일면성, 표면성을 피하여야 한다. 소위 주관성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줄 모르는, 즉, 유물론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이 점을 나는 《실천론》에서 이미 말하였다. 소위 일면성이란 것은 전면적으로 문제를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만을 알고 일본을 모르며, 공산당만을 알고 국민당을 모르며, 프롤레타리아트만을 알고 부르주아지를 모르며, 농민만을 알고 지주를 모르며, 순조로운 정형만을 알고 곤난한 정형을 모르며, 과거만을 알고 장래를 모르며, 개체만을 알고 총체를 모르며, 결합만을 알고 성과를 모르며, 원고 측만을 알고 피고 측을 모르며, 혁명의 비밀 공작만을 알고 혁명의 공개적 공작을 모르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순의 각 측면의 특성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일면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혹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 하며 나무만 보고 수풀을 보지 못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없으며,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며, 말은 바 사업을 잘 할 수 없으며, 당내의 사상 투쟁을 옹계 전개할 수 없다. 손자는 군사를 론하면서 《상대편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11]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작전하는 쌍방을 말한 것이다. 당조 때의 사람 위 정은 《겸청(兼聽)하면 밝고 편신(偏信)하면 어둡다.》^[12]고 말하였는데 그도 역시

일면성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동지들은 문제를 왕왕 일면적으로 본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실패한다. 《수호 전》의 송 강은 측가장을 세 번 쳤는데^[13] 두 번은 정황을 모르고 방법이 옳지 못 하여 패전하였다. 그 후 방법을 고쳐 정형을 조사하는 데로부터 착수하였다. 그리 하여 반타로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리가장, 호가장과 측가장과 의 련맹을 깨뜨렸으며 또 적의 진지 내에 복병을 배치하고 외국의 옛'이야기에 나오는 목마개와 비슷한 방법을 리용하였다. 그 결과 세 번째에는 승전하였다. 《수호 전》에는 유물 변증법의 실례가 많은데 세 번의 측가장 공격은 가장 좋은 실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레닌은 《대상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면, 모든 련관 및 <매개>를 파악,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면성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오유와 무감각을 면케 할 것이다.》^[14]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표면성이란 모순의 총체와 모순의 각 측면의 특성을 보지 않으며 사물 속에 깊이 들어가 모순의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한 필요성을 부인하고 다만 외부에서 멀리서 바라 보면서 모순의 형상만 대강 알고는 모순을 해결하려고(문제에 대답하며 분쟁을 해결하며 사업을 처리하며 전쟁을 지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교조주의적 및 경험주의적인 동지들이 오유를 범하는 리유는 그들의 사물관찰 방법이 주관적이고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데 있다. 일면

성, 표면성도 역시 주관성이다. 일체의 객관적 사물은 본래 서로 편편되어 있으며 내'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일면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만 보며 사물의 호상 련관을 인식하지 않으며 사물의 내'적 법칙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주관주의적 방법이다.

우리는 사물 발전의 전반적 과정에서의 모순의 운동에 대하여 그 호상 련관 속에서, 그 각 측면의 정황에서 그 특성에 주의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정 발전의 각 단계에도 그 특성이 있는 만큼 거기에도 역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물의 발전 과정의 근본 모순과 이 근본 모순에 의하여 규정되는 과정의 본질은 과정이 완결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 발전의 긴 과정의 각개 발전 단계에서의 정형은 또 흔히 서로 다르다. 왜냐 하면 사물 발전 과정의 근본 모순의 성격과 그 과정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으나 이 근본 모순은 그 긴 과정에 있어서의 각개 발전 단계에서 차츰 격화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 근본 모순에 의하여 규정되는, 또는 그 영향을 받는 허다한 대소 모순 가운데는 격화되는 것도 있고 잠시 또는 국부적으로 해결 또는 완화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과정에는 단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단계성에 류의하지 않는다면 사물의 모순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례를 들면 자유 경쟁 시대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

전한 때에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이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두 계급의 성격과 이 사회의 자본주의적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두 계급 간의 모순이 격화되었으며 독점 자본과 자유 자본 간의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모순이 격화되었으며 각 자본주의 국가 간의 모순 즉 각국의 발전의 불균형적 상태에 기인하는 모순이 특히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리 하여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 즉 제국주의 단계가 형성되었다. 레닌주의가 제국주의 및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스주의로 된 리유는 레닌과 쓰딸린 이 이 모순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며 이 모순들을 해결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을 정확하게 만들어 낸 데 있다.

신해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의 정형을 보더라도 역시 약간의 특수한 단계가 있다. 특히 부르주아지가 령도한 시기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한 시기의 혁명과는 크게 다른 두 력사적 단계로 구별된다.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는 혁명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켜 계급 관계의 재편성, 농민 혁명의 광범한 전개, 반 제국주의 및 반봉건주의 혁명의 철저성,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변할 가능성 등등을 조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령도하는 시기에는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전체 과정에서 근본 모순의 성격, 과정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그 반편은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적 성격이다)에는 변화가 없었으

나 이 장구한 시기에 실패 혁명의 실패와 북양 군벌의 통치, 제 1 차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과 1924~1927년 혁명, 통일 전선의 결렬과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에로의 전략, 새로운 군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 제 2 차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과 항일 전쟁 등의 대사변을 경과하면서 20여 년 간에 몇 개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각 단계에는 어떤 모순은 격화되고(예를 들면 토지 혁명 전쟁과 일본의 동북 4 성에의 침입) 어떤 모순은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해결되고(예를 들면 북양 군벌이 소멸된 것과 우리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것) 어떤 모순은 다시 발생한 것(예를 들면 새로운 군벌 사이의 투쟁, 남방의 각 혁명 근거지가 상실된 후 지주가 토지를 다시 빼앗아 간 것) 등등의 특수한 제 정형이 포함되어 있다.

사물의 발전 과정의 각개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 련관 속에서, 그 총체에 서 고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개 단계의 모순의 각 측면으로부터도 고찰하여야 한다.

국공 량당을 폐로 들어 보자. 국민당은 제 1 차 통일 전선 시기에는 로씨야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손 중산의 3대 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혁명적이고 생기가 있었으며 또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각 계급의 동맹체였다. 1927년 이후에는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주와 대부르주아지의 반동 집단으로 되고 말았다. 1936년 12월 서안 사변 이후에는 또 내전을 중지하고 공산당과 연합

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세 개 단계에서의 국민당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의 형성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제 1 차 통일 전선 시기에는 아직 청소년 당으로서 1924~1927년 혁명을 영용하게 령도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성격, 임무 및 방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 미숙성을 나타냈다. 이로 인하여 이 혁명의 후기에 발생한 진독수주의가 작용할 수 있게 되어 이 혁명은 실패를 보게 되었다. 1927년 이후에는 또 토지 혁명 전쟁을 영용하게 령도하였고 혁명 군대와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역시 모험주의의 오유를 범하여 군대와 근거지에 매우 큰 손실을 주었다. 1935년 이후에는 또 모험주의의 오유를 시정하고 새로운 항일 통일 전선을 령도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투쟁은 지금 바로 발전하고 있다. 이 단계에 와서는 공산당은 2 차의 혁명의 시련을 거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으로 되었다. 이러한 것이 세 개 단계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의 형성에도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연구하지 않고는 각개 발전 단계에서의 두 당의 특수한 호상 관계 즉 통일 전선의 결성, 통일 전선의 결렬, 통일 전선의 재건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당의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더욱 근본적인 것은 이 두 당의 계급적 기초 및 이로 인하여 각개 시기에 형성된, 이 두 당과 기타 방면과의 모순의 대립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당은 제 1 차로 공산당과 연합한 시기에 있어서는 한 편으로는 외국 제

국주의와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국내 인민 대중과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근로 인민에게 허다한 리익을 약속하였으나 실지로는 극히 적은 리익을 주었거나 또는 전혀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반공 전쟁을 진행한 시기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합작하여 인민 대중을 반대하며 인민 대중의 원래 혁명에서 쟁취한 일체 리익을 취소하고 자기와 인민 대중과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현재 항일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당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모순 때문에 한 편으로는 공산당과 연합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공산당 및 국내 인민에 대하여 그 투쟁과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공산당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과 한 길에 서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항일 시기에 있어서 국민당이 항일할 것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공산당은 국민당 및 국내 봉건 세력에 대하여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로 말미암아 량당 간에는 혹은 연합이 형성되었고 혹은 투쟁이 격화되었으며 또 량당이 연합하고 있는 시기에도 연합하면서도 투쟁하는 복잡한 정황이 있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모순의 제 측면의 이러한 특성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두 당이 각각 기타 방면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리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당의 호상 관계도 리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보아 어떠한 모순의 특성을 연구하든지——매개 물질 운동 형태의 모순, 매개의 운동 형태의 각개 발전

과정에서의 모순, 각개 발전 과정의 모순의 각 측면, 각개 발전 과정의 각개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 및 각개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의 각 측면 등 이러한 모든 모순의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관적 자의성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 분석을 떠나서는 어떠한 모순의 특성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구체적 사물에 대하여 구체적 분석을 가하라는 레닌의 말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 면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맑스와 엥겔스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 사물의 모순의 법칙을 사회 역사 과정의 연구에 적용하여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의 모순 및 이 모순들에 의하여 산생된 경제 토대와 정치 및 사상 등의 상부 구조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 모순들이 어떻게 불가피적으로 서로 다른 각종 계급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각종 사회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가를 발견하였다.

맑스는 이 법칙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의 연구에 적용하여 이 사회의 기본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과의 모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모순은 개개의 기업소에서의 생산의 조직성과 사회 전체에서의 생산의 무조직성 간의 모순으로서 나타난다. 이 모순의 계급적 표현은 부르주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 간의 모순이다.

사물의 범위가 극히 광범하며 그 발전이 무한함으로 하

여 일정한 경우에는 보편성이던 것이 다른 일정한 경우에는 특수성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일정한 경우에는 특수성이던 것이 다른 일정한 경우에는 보편성으로 된다. 자본주의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 수단의 사'적 점유간의 모순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은 일반 계급 사회 발전의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서의 현상으로서, 일반 계급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모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의 특수성이다. 그러나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이 모든 모순의 특수성을 해부하자 그와 동시에 일반 계급 사회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모순의 보편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충분하게 더욱 완전하게 천명되었다.

특수한 사물은 보편적인 사물과 련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개 사물 내부에는 모순의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의 보편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보편성이 특수성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사물을 연구할 때 이 두 개 측면과 그 호상 련관을 발견하며, 사물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두 측면과 그 호상 련관을 발견하며, 한 사물과 그 이외의 많은 사물과의 호상 련관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쓰딸린은 자기의 유명한 저작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에서 레닌주의의 역사적 근거를 설명할 때 레닌주의가 탄생된 국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제국주의의 조건 하에서 이미 최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의 제 모순과 이 모순들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직접적 실천의 문제로 되게 하였고 또 자본주의를 향해 직접 돌격하는 훌륭한 조건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왜 로씨야가 레닌주의의 발원지로 되었는가, 왜 짜리 로씨야가 당시 제국주의의 일체 모순의 결절점으로 되었는가, 또 왜 바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적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로 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리 하여 쓰딸린은 제국주의의 모순의 보편성을 분석함으로써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및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스주의라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또 이 일반적 모순에 있어서의 짜리 제국주의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로씨야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론 및 전술의 조국으로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특수성 가운데는 벌써 모순의 보편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쓰딸린의 이와 같은 분석은 우리에게 모순의 특수성과 보편성 및 그 호상 연관을 인식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맑스와 엥겔스 그리고 또 레닌과 쓰딸린은 변증법을 객관적 현상의 연구에 응용할 때에 어떠한 주관적 자의성도 가지지 말고 객관의 실제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현상 중의 구체적 모순과 모순의 각 측면의 구체적 지위 및 모순의 구체적 호상 관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제나 교시하였다. 우리의 교조주의자들은 이러한 연구 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교조주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이런 연구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연구

방법은 없다.

모순의 보편성과 모순의 특수성과의 관계는 모순의 일반성과 개별성과의 관계이다. 모순의 일반성이란 모순이 일체 과정에 존재하며 일체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으며 모순이 곧 운동이며, 사물이며, 과정이며 또 사상이라는 그것이다. 사물의 모순을 부인하는 것은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원리로서 고급 동서에 제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은 일반성이며 절대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성은 일체 개별성 가운데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성이 없으면 일반성도 없다. 만일 모든 개별성을 제거한다면 무슨 일반성이 있겠는가? 개별성은 매개의 모순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체의 개별성은 모두 조건적,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일반성과 개별성, 절대성과 상대성에 관한 명제는 사물의 모순에 관한 문제의 정수이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변증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4.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모순의 특수성 문제에는 또 특별히 제기하여 분석하여야 할 두 가지 정형이 있다. 즉 그것은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이다.

복잡한 사물의 발전 과정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반드시 그 중 한 가지가 주요한 모순이며 그것의 존재와 발전이

기타 모순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영향을 준다.

례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이 모순되는 두 력량이 주요 모순이다. 기타의 모순되는 력량, 페컨대 잔존하고 있는 봉건 계급과 부르주아지와 의 모순, 농민-소소유자와 부르주아지와의 모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소소유자와의 모순, 자유 부르주아지와 독점 부르주아지와의 모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파쇼주의와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 호상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와의 모순 및 기타의 제 모순은 모두 이 주요 모순의 력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영향을 받는다.

반식민지 국가 력을 들면 중국과 같은 데서는 그 주요 모순과 주요하지 않은 모순과의 관계가 복잡한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국주의가 이런 국가에 대하여 침략 전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국가 내부의 각 계급은 일부 반역자들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국주의와 이 국가 간의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되고 이 국가 내부의 각 계급 간의 일체 모순(봉건 제도와 인민 대중 간의 이 주요 모순도 포함한)은 잠시 이차적이며 종속적인 위치로 물러 선다. 중국의 1840년의 아편 전쟁, 1894년의 중일 전쟁, 1900년의 의화단 전쟁 및 현재의 중일 전쟁에는 모두 이러한 정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정형 하에서는 모순의 위치가 변한다. 제국

주의가 전쟁으로 압박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비교적 온화한 형식으로 압박하는 때에는 반식민지 국가의 통치 계급은 제국주의에 투항하여 랑자가 동맹을 맺고 인민 대중을 공동으로 압박하게 된다. 이런 때에는 인민 대중은 왕왕 국내 전쟁의 형식을 취하여 제국주의와 봉건 계급 간의 동맹을 반대하며, 제국주의는 흔히 직접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여 반식민지 국가의 반동파를 도와 인민을 압박한다. 그리 하여 내부적 모순의 특별한 참여성이 나타난다. 중국의 신해 혁명 전쟁, 1924~1927년의 혁명 전쟁, 1927년 이후의 10년 간의 토지 혁명 전쟁에는 모두 이러한 정형이 있었다. 그리고 반식민지 국가의 반동적 통치 집단들 사이의 내전,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군벌 전쟁과 같은 것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국내 혁명 전쟁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인 국내 반동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데까지 발전되었을 때에는 제국주의는 왕왕 상술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취하여 그 통치를 유지하려고 기도한다. 즉 혹은 혁명 전선의 내부를 분열시키며 혹은 직접 출병하여 국내 반동파를 원조한다. 이 때에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파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한 쪽 극단에 서고 인민 대중은 다른 쪽 극단에 섬으로써 주요 모순을 이루며 그리 하여 기타 모순의 발전 상태를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영향을 준다. 10월 혁명 후 여러 자본주의 국가가 로씨야 반동파를 원조한 것은 무력 간섭의 실례이다. 1927년의 장 개석의 배반은 혁명 전선을 분열시킨 실례이다.

그러나 어쨌든 과정 발전의 각개 단계에서 오직 한 가지 주요 모순이 주도적 역할을 논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바 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과정이든지 만일 거기에 허다한 모순이 있다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 모순은 주요한 것으로서 주도적, 결정적 역할을 놓고 기타의 모순은 부차적이며 종속적 위치에 처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연구하든지 그것이 만약 두 가지 이상의 모순이 존재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면 전력을 다하여 그 주요 모순을 찾아 내어야 한다. 이 주요 모순을 파악하면 일체 문제가 순순히 풀린다. 이것은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다. 레닌과 쓰딸린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진반적 위기를 연구할 때와 소련의 경제를 연구할 때에 역시 이 방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은 이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개 속에 싸인 것처럼 중심을 찾지 못 하며 따라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도 찾지 못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모순을 균등하게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반드시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의 두 부류로 구별하고 주요 모순을 파악하기에 치중하여야 한다. 그러면 각종 모순 가운데서, 그것이 주요 모순이건 부차적 모순이건, 모순되는 두 측면은 균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역시 그럴 수 없다. 어떠한 모순을 물론하고 모순의 제 측면의 발전은 불균형적이다. 때로는 세력이 같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정형일 뿐이며, 기본적인 형태는 불균형이다. 모순되는 두 측면 가운데서 반드시 한 측면은 주요한 것이고 다른 측면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 주요한 측면은 모순의 주도적 역할을 노는 측면이다. 사물의 성질은 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순의 주요 측면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은 서로 전화하며 사물의 성질도 이에 따라서 변화한다. 모순의 발전의 일정한 과정 또는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는 주요 측면이 갑측에 속하고 주요하지 않은 측면이 을측에 속하나 다른 발전 단계 또는 다른 발전 과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위치가 서로 바뀐다. 이것은 사물의 발전에서 모순의 두 측면의 투쟁 역량이 증감되는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는 종종 《신진 대사》라는 말을 쓴다. 신진 대사는 우주에서의 보편적이며 영원히 불가항력적인 법칙이다. 사물 자체의 성질 및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비약의 형식을 통하여 한 사물이 다른 사물로 전화하는 것이 신진 대사의 과정이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그 내부에는 신구의 두 측면의 모순이 있어서 그것이 일련의 복잡한 투쟁을 이룬다. 투쟁의 결과 새로운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변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상승하고 낡은 것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변하여 점차 멸망한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것이 낡은 것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낡은 사물의 성질이 새

로운 사물의 성질로 변한다. 이로부터 사물의 성질은 주로 지배적 지위를 얻은 모순의 주요 측면에 의하여 규정되며 지배적 지위를 얻은 모순의 주요 측면에 변화가 일어나면 사물의 성질도 이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낡은 봉건주의 사회 때의 종속적 지위로부터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역량으로 전화하고 사회의 성격도 봉건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서 봉건적 세력은 본래 지배적 지위에 처해 있던 역량으로부터 종속적인 역량으로 전화하며 그리 하여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제 국가에서 이러하였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부르주아지는 진보적 역할을 놀던 새로운 계급으로부터 반동적 역할을 노는 낡은 계급으로 전화하며 드디어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전복되어 사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을 수탈 당하고 권력을 상실한 계급으로 전화한다. 그리 하여 이 계급은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수효는 부르주아지보다 훨씬 많고 부르주아지와 동시에 성장한,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통치 하에 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새로운 역량이다. 그들은 부르주아지에게 예속되어 있던 초기의 지위로부터 차츰 크게 장성하여 역사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노는 독립적인 계급으로 되며 마침내 정권을 탈취하고 지배 계급으로 된다. 이 때에 사회의 성격이 낡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로 전화한다. 이것은 쓰련이 이미 걸어 왔고 기타 일체의 국가도 필연적으로 걷게 될 길이다.

중국의 정형을 두고 말한다면 제국주의는 반식민지라는 이런 모순의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지위에 처하여 중국 인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립국으로부터 반식민지로 되었다. 그러나 사태는 필연코 변화하고야 말 것이다. 쌍방의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 성장한 중국 인민의 력량은 필연적으로 중국을 반식민지로부터 독립국으로 전화시킬 것이고 제국주의는 타도될 것이며 낡은 중국은 반드시 새 중국으로 전화될 것이다.

낡은 중국의 새 중국으로의 전화는 또 국내의 낡은 봉건적 세력과 새로운 인민의 세력 간의 정황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낡은 봉건 지주 계급은 타도되어 통치자로부터 피통치자로 변할 것이며 따라서 이 계급은 점차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인민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 피통치자로부터 통치자로 전화될 것이다. 이 때에 중국 사회의 성격은 변화하여 낡은 반식민지 및 반봉건적 사회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될 것이다.

이러한 호상 전화는 이미 과거의 경험이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을 근 300 년이나 통치하고 있던 청 제국은 신태 혁명 시기에 타도되고 손 중산이 령도하는 혁명 동맹회가 한때 승리를 얻었다. 1924~1927년의 혁명 전쟁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합한 남방의 혁명 세력은 미약한 력량으로부터 강대한 력량으로 전화하여 북벌의 승리를 얻었고 한때 패권을 잡았던 북양 군벌은 타도되었다. 1927년에 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의 력량은 국민당 반동 세력의 타격을 받아 매우

약해졌었으나 자체 내부의 기회주의를 숙청함으로써 다시 점점 강화되었다. 공산당이 명도하는 혁명 근거지 내에서 농민은 피통치자로부터 통치자로 전화되고 지주는 그와 반대로 전화되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하며 언제나 이렇게 신진 대사가 진행되며 낡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퍼지며 또는 낡은 것이 밀려 나가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

혁명 투쟁의 어떤 시기에는 곤난한 조건이 순조로운 조건을 뒤흔들 수 있다. 이 때에 곤난은 도순의 주요 측면이며 순조로운 것은 부차적 측면이다. 그러나 혁명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곤난은 점차로 극복될 수 있으며 순조로운, 새로운 국면이 열려 곤난한 국면이 순조로운 국면에 자리를 내어 주게 된다. 1927년에 중국 혁명이 실패한 후의 정형과 중국 홍군의 장정 시기의 정형은 모두 이러하였다. 오늘의 중일 전쟁에서도 또한 중국은 곤난한 지위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황을 개변시켜 중일 쌍방의 정황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정황 하에서는, 만약 혁명자들이 파오를 범하는 때에는 순경이 역경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 1924~1927년의 혁명의 승리는 실패로 변하였다. 1927년 이후에 남방 각 성에서 발전한 혁명 근거지는 1934년에 이르러 모두 실패 당하였다.

학문 연구에서 미지로부터 지에 이르는 모순도 이러하다. 맑스주의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할 때에는 맑스주의를 모르거나 또는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와 맑스주의의 지식과

는 서로 모순된다. 그러나 학습에 노력하면 미지로부터 지어로 전화될 수 있으며 아는 것이 많지 않던 데로부터 아는 것이 아주 많은 데로 전화될 수 있으며 맑스주의에 대한 맹목성으로부터 맑스주의를 자유 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데로 개변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지 않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모순에서는 생산력이 주요한 것이며 리론과 실천과의 모순에서는 실천이 주요한 것이며 경제 토대와 상부 구조와의 모순에서는 경제 토대가 주요한 것으로서 그 위치는 결코 서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해가 아니라 기계적 유물론의 견해이다. 물론 생산력, 실천, 경제 토대가 일반적으로는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논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또 생산 관계, 리론, 상부 구조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반전하여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논는 것으로 된다. 이것도 역시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생산 관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이 발전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 관계의 변경이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케닌이 말한 바와 같이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는》^[15] 그런 때에는 혁명적 리론의 창조와 제창이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어느 일(어떠한 일이나 다 마찬가지이다)을 하려고 할 때 아적 방침, 방법, 계획 또는 정책이 없다면 방침, 방법, 계획 또는 정책을 내오는 것이 주요한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정치, 문화 등의 상부 구

조가 경제 토대의 발전을 저해할 때에는 정치적 및 문화적 혁신이 주요한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물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우리는 전체로서의 력사 발전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을 결정하며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승인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정신적인 것의 반작용, 사회적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반작용, 경제 토대에 대한 상부 구조의 반작용도 인정하며 또 반드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물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적 유물론을 피면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견지하는 것이다.

모순의 특수성 문제를 연구할 때 만일 과정에서의 주요 모순과 주요하지 않은 모순 및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의 이 두 정형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모순의 이 두 정형의 차이성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상적인 연구에 빠지게 되어 모순의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모순을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도 찾아 낼 수 없다. 모순의 이 두 정형의 차이성 또는 특수성은 모순의 력량의 불균형성이다. 세계에는 절대적으로 균형하게 발전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론 또는 평형론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모순의 이러한 구체적 정황 및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의 발전 과정에서의 변화는 곧 새로운 사물이 낡은 사물을 대체하는 힘을 표현한다. 모순의 각종 불균형 상태의 연구, 주요 모순과 주요하지 않

은 모순,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의 연구는 혁명적 당이 그 정치 상 및 군사 상의 전략 전술의 방침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류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모순의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모순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안 후 우리는 더 나아가서 모순의 제 측면의 동일성과 투쟁성 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동일성, 통일성, 일치성, 호상 침투, 호상 판통, 호상의존(또는 의뢰), 호상 련판 혹은 호상 작용——이 모든 상이한 술어는 모두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첫째,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의 매개 모순의 두 측면은 각각 자기와 대립되는 측면을 자기의 존재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쌍방은 하나의 동일체 내에 같이 존재한다. 둘째, 모순되는 쌍방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각 자기와 상반되는 측면으로 전화한다. 이러한 것이 소위 동일성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변증법이란 대립물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동일하며(어떻게 동일하게 되는가)——그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호상 전화하면서 동일하게 되는가——어째서 인간의 지성은 이 대립을 죽은 굳어진 것으로가 아니라 생동하며 조건적이며 가동적이

며 일자가 타자로 전화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학설이다》[16].

레닌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일체 과정에서의 모순되는 각 측면은 본래 서로 배치하며 서로 투쟁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세계의 일체 사물의 과정과 사람들의 사상에는 배외 없이 모두 이러한 모순성운면 측면들이 내포되어 있다. 단순한 과정에는 한 쌍의 모순이 있을 뿐이고 복잡한 과정에는 한 쌍 이상의 모순이 있다. 각 쌍의 모순도 또 서로 모순을 이루고 있다. 이리 하여 객관 세계의 일체 사물과 사람들의 사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들의 운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극히 동일하지 않으며 극히 동일되어 있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또 그것이 동일하다고 혹은 동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래 모순되는 각 측면은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기와 대립되는 모순의 일방이 없다면 그 타방인 자기 자신도 존재할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일체 모순되는 사물 또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있는 모순되는 개념을 생각하여 보라, 어느 측면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이 없이는 사가 없으며 사가 없이는 생도 없다. 상이 없이는 하가 없으며 하가 없이는 상도 없다. 화가 없이는 복이 없으며 복이 없이는 화도 없다. 순경이 없이는 역경이 없으며 역경이 없이는 순경도 없다. 지주가 없이는 소작농이 없으며 소작농이 없이는 지주도 없다. 부르조아지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없으며 프로레타리아트가 없이는 부르주아지도 없다. 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이 없이는 식민지와 반식민지가 없으며 식민지와 반식민지가 없이는 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도 없다. 일체의 대립적 구성 부분은 모두 이러하다. 일정한 조건으로 인하여 한 편으로는 호상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호상 련관, 호상 관동, 호상 침투, 호상 의존한다. 이러한 성질을 동일성이라고 한다. 일체 모순되는 측면은 모두 일정한 조건으로 인하여 부동일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또 동일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련관되어 있다. 레닌이 변증법이란 <대립물이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형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서로 존재의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일성의 첫째 의의이다.

그러나 모순의 두 측면이 서로 존재의 조건으로 되어 그것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체 내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하면 충분한가? 아직 부족하다. 사례는 모순의 두 측면이 서로 의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순되는 사물의 호상 전화이다. 이것은 즉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되는 두 측면이 일정한 조건으로 인하여 각각 자기와 상반되는 측면으로 전화하며 자기와 대립되는 측면이 처하고 있는 위치로 전화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순의 동일성의 둘째 의의이다.

어째서 여기에도 동일성이 있는가? 보는 바와 같이 피통치자였던 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에 의하여 통치자로 전화되고 통치자였던 부르주아지는 피통치자로 전화되어 상대방이 본래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로 전화된다. 쓰련에서 이미 이렇게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역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들 사이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련관과 동일성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중국 근대 력사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일정한 적극적 역할을 논 국민당이 자기의 고유한 계급성과 제국주의의 유인으로 인하여(이것이 조건이다) 1927년 이후에 반혁명으로 전화하였으며 또 중국과 일본 간의 모순의 첨예화와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정책으로 말미암아(이것이 조건이다) 항일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순되는 사물이 이것으로부터 저것으로 전화하는 거기에는 일정한 동일성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가 실시한 토지 혁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 계급이 토지를 잃은 계급으로 전화되고 토지를 잃었던 농민이 토지를 획득한 소소유자로 전화되는 과정이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한 과정일 것이다. 유, 무 사이와 득, 실 사이는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호상 련관되어 있으며 량자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농민의 사'적 소유가 또 사회주의적 농업의 공동 소유로 전화될 것이다. 쓰련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조차 이렇게 될 것이다. 사유 재산과 공유 재산 사이에는 이 쪽에서 저

쪽으로 가는 한 개의 다리가 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동일성 혹은 호상 전화, 호상 침투라고 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또는 인민 독재를 공고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독재를 폐절하며 일체의 국가 제도가 소멸되는 보다 높은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산당을 창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공산당과 일체의 정당 제도를 소멸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평도하는 혁명군을 건립하여 혁명 전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영원히 소멸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허다한 대립되는 사물은 동시에 또 서로 의존하고 있는 사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과 평화는 서로 전화한다. 전쟁은 평화로 전화한다. 예를 들면 제 1 차 세계 대전은 전후의 평화로 전화하였으며 중국의 내전도 지금은 역시 중지되어 국내의 평화가 나타났다. 또 평화는 전쟁으로 전화한다. 예를 들면 1927년에 국공 합작이 전쟁으로 전화하였으며 현재의 세계의 평화적 정세도 역시 제 2 차 세계 대전으로 전화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계급 사회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 두 모순되는 사물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동일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 모순되는 사물은 호상 연관되어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하나의 통일체 내에 같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호상 전화한다. 이것이 곧 모순의 동일성의 전체 의의이다. 레닌이 《어떻게 해서 동일하며(어

떻게 동일하게 되는가)——그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호상 전화하면서 동일하게 되는가》하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어째서 인간의 지성은 이 대립을 죽은 굳어진 것으로가 아니라 생동하며 조건적이며 가동적이며 일자가 타자로 전화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객관 사물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객관 사물 가운데 있는 모순되는 제 측면의 통일 또는 동일성은 본래 죽은 굳어진 것으로가 아니라 생동하고 조건적이고 가동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일체 모순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그 반대물로 전화한다. 이러한 정황이 사람들의 사유에 반영되어 맑스주의적 유물 변증법적 세계관으로 되었다. 오직 현재와 력사 상의 반동 통치 계급과 그들에게 복무하는 형이상학만이 대립되는 사물을 생동하며 조건적이며 가동적이며 일자가 타자로 전화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죽은 굳어진 것으로 보며 또 이런 그릇된 관점을 도처에서 선전하여 인민 대중을 미혹시킴으로써 그 통치를 지속하려 한다. 공산주의자의 임무는 반동파와 형이상학의 그릇된 사상을 폭로하며 사물에 고유한 변증법을 선전하며 사물의 전화를 촉진시켜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모순의 동일성이란 즉 우리들이 말하는 모순은 현실적 모순, 구체적 모순이며 모순의 호상 전화도 역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화에 나오는 허다한 변화, 예를 들면 《산해경》에 나오는 《과

보가 해를 쫓았다》[17]는 것이라든가, 《회남자》에 나오는 《예가 해를 아홉을 쫓았다》[18]는 것이라든가, 《서유기》에 나오는 손 오공의 72 변[19]이라든가, 《료재지이》[20]에 나오는 허다한 귀신과 여우들이 사람으로 변한 이야기 등등과 같은 이러한 신화에서 말하는 모순의 호상 변화는 결코 구체적 모순에서 표현된 구체적 변화가 아니라 무수하고 복잡한 현실적 모순의 호상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일으킨 유치하고 상상적이고 주관 환상적인 변화인 것이다. 맑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신화는 상상 가운데서 또 상상의 힘을 빌어서 자연력을 정복하며 복종시키며 또 그것에다 형상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러한 자연력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함께 소멸한다》[21]. 이러한 신화(또는 동화)에 나오는 변화 무상한 이야기는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자연력 정복 등등의 상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또 그 중의 훌륭한 신화는 《영원한 매력》(맑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화는 결코 구체적 모순의 일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결코 현실의 과학적 반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나 동화에서의 모순 구성의 측면은 결코 구체적 동일성이 아니라 환상적 동일성일 따름이다. 현실적 변화의 동일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맑스 주의적 변증법이다.

왜 계란은 병아리로 전화하는데 돌맹이는 병아리로 전화할 수 없는가? 왜 전쟁과 평화 간에는 동일성이 있는데 전쟁과 돌과의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는가? 왜 사람은 사람만 낳

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낳을 수 없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모순의 동일성은 필요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일정한 조건이 없이는 아무런 동일성도 있을 수 없다.

왜 로씨야의 1917년 2월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과 그 해 10월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는 직접 연결되었는데 프랑스 부르조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며 1871년의 파리 코뮌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 왜 몽골이나 중앙 아세아의 유목 제도는 직접 사회주의와 연결되고 있는가? 왜 중국의 혁명은 자본주의 전도를 피하고 사회주의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서방 국가가 걸은 낡은 역사적 길을 다시 걷지 않으며 부르조아 독재의 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당시의 구체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다. 필요한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모순이 발생하며 뿐만 아니라 이런 모순 혹은 이러한 모순들은 호상 의존하면서 또 호상 전화한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동일성 문제는 이상과 같다. 그러면 투쟁성이란 무엇인가? 동일성과 투쟁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합치, 동일성, 합성)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과도적이며 상대적이다. 호상 배제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다.》(22)라고 말하였다.

레닌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일체의 과정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으며 일체의 과정은 그 대립물로 전화한다. 일체 과정의 항구성은 상대적이거나 한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전화하는 가변성은 절대적이다.

어떠한 사물의 운동이나 그것은 모두 두 가지 상태, 즉 상대적 정지의 상태와 현저한 변동의 상태를 취한다. 이 두 가지 상태의 운동은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되는 두 요소의 호상 투쟁에 의하여 일어 나는 것이다. 사물의 운동이 첫째 상태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양적 변화가 있을 뿐이고 질적 변화는 없다. 그리 하여 정지하고 있는듯 한 모양을 나타낸다. 사물의 운동이 둘째 상태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미 첫째 상태에서의 양적 변화가 어떤 정점에 도달하여 통일물의 분해가 일어 나고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 하여 현저한 변화의 모양을 나타낸다. 우리가 일상 생활 중에서 보는 바의 통일, 단결, 연합, 조화, 균등, 대치, 침체, 정지, 불변, 균형, 응결, 흡인 등은 모두 사물이 양적 변화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통일물이 분해되고 단결, 연합, 조화, 균등, 대치, 침체, 정지, 불변, 균형, 응결, 흡인 등의 상태가 파괴되어 상반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은 사물이 질적 변화의 상태, 즉 한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넘어 가는 변화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물은 언제나 부단히 첫째 상태에서부터 둘째 상태로 전화하는데 모순의 투쟁은 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존재하며 또 둘째 상태를 거쳐 모순의 해결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물의 통일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상대적이지만 대립물의 호상

배제하는 투쟁은 절대적인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사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하나의 통일체 내에 같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호상 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건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모순되는 것이 통일될 수 있고 또 서로 전화할 수 있으나 이 일정한 조건이 없이는 모순으로 될 수도, 같이 존재할 수도, 또 전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모순의 동일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성은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모순의 투쟁은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고 한 과정을 다른 과정으로 전화시키며 모순의 투쟁이 없는 데는 없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의 투쟁성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동일성과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투쟁성이 서로 결합되어 일체 사물의 모순의 운동을 구성한다.

우리 중국 사람은 《상반 상성》^[23]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것은 대립되는 사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은 변증법적이며 반(反)형이상학적이다. 《상반》이란 모순되는 두 측면의 호상 배제 혹은 호상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상성》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모순의 두 측면이 서로 련결되어 동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쟁성은 동일성 안에 들어 있으며 투쟁성이 없이는 동일성도 없다.

동일성 가운데는 투쟁성이 존재하며 특수성 가운데는 보편성이 존재하며 개별성 가운데는 일반성이 존재한다. 레닌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상대적인 것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있다》[24].

6. 모순에서 적대가 차지하는 위치

모순의 투쟁성 문제에는 적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란 모순 투쟁의 일체의 형태가 아니라 모순 투쟁의 한 형태라고 대답한다.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계급적 적대, 이것은 모순의 투쟁의 특수한 한 표현이다.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사이의 모순으로 말하면 노예 사회에서나 봉건 사회에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나를 막론하고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계급은 장기간 한 사회 내에 같이 존재하며 서로 투쟁한다. 그러나 두 계급의 모순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외부적 적대의 형태를 취하며 혁명으로 발전한다. 계급 사회에서의 평화로부터 전쟁으로의 전화도 이와 같다.

폭탄이 폭발되기까지는 모순되는 것이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하나의 통일체 내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때이다. 새로운 조건(발화)이 나타나야 비로소 폭발하게 된다. 최후에 가서는 외부적 충돌의 형태를 취하여 낡은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물을 산생시키는 자연계의 일체 현상에는 다 이와 비슷한 정형이 있다.

이러한 정형을 인식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계급 사회에서 혁명과 혁명 전쟁은 불가피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 발전의 비약을 이룰 수 없으며, 반동적 통치 계급을 전복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정권을 획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혁명은 불필요하다느니 불가능하다느니 무엇이니 하는 반동파들의 기만적 선전을 폭로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사회 혁명론을 견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 혁명은 완전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과 인류의 전 력사와 쏘련의 승리가 이 과학적 진리를 증명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에서 말한 공식을 모든 사물에다 부당하게 틀어 맞출 것이 아니라 각종 모순의 투쟁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모순과 투쟁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즉 투쟁의 형태는 모순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어떤 모순은 공개적인 적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모순은 그렇지 않다. 사물의 구체적 발전에 의하여 어떤 모순은 본래 비적대적이던 것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며 또 어떤 모순은 본래 적대적이던 것이 비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공산당 내의 옳은 사상과 그릇된 사상 사이의 모순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급이 존재하는 때에는 계급적 모순이 당내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모순이 처음에는 또는 개별적인 문제에서는 즉시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계급 투쟁의 발전에 따라 이런 모순은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쓰런 공산당 력사는 우리에게 레닌, 스탈린의 옳바른 사상과 트로쯔끼, 부하린 등의 그릇된 사상과의 모순은 처음에는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력사에도 이러한 정형이 있었다. 우리 당대의 많은 동지들의 옳바른 사상과 진 독수, 장 국도 등의 그릇된 사상과의 모순은 처음에는 역시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현하 우리 당대의 옳바른 사상과 그릇된 사상과의 모순은 적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만일 오유를 범한 동지들이 자기들의 오유를 시정한다면 그것은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한 편으로 그릇된 사상에 대하여 엄숙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오유를 범한 동지에게 스스로 각성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과격하게 투쟁하는 것은 물론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오유를 범한 사람이 오유를 고집하고 그것을 확대시킨다면 이 모순은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거기에서는 부르주아지가 통치하는 도시가 농촌을 가혹하게 약탈한다)에서나 중국의 국민당 통치구(거기에서는 외국 제국주의와 자국의 매관 대부르주아지가 통치하는 도시가 농촌을 극히 야만적으로 약탈한다)에서는 극히 적대적인 모순이다. 그

러나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의 혁명 근거지에서는 이러한 적대적 모순이 비적대적 모순으로 변하였으며 공산주의 사회에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모순은 소멸하게 된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적대와 모순은 결코 같지 않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전자는 소멸하나 후자는 남는다>[25]. 이것은 적대는 모순 투쟁 형태의 하나일 뿐이고 그 일체의 형태는 아니므로 이 공식을 아무 데나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7. 결 론

이제 간단히 총괄하기로 하자. 사물의 모순의 법칙 즉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자연 및 사회의 근본 법칙이며 따라서 또 사유의 근본 법칙이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세계관과는 정반대되는 세계관이다. 그것은 인류의 인식사에서 대혁명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보면 모순은 일체의 객관적 사물 및 주관적 사유의 과정에 존재하며 모순은 일체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다. 이것은 모순의 보편성 또는 절대성이다. 모순되는 사물과 그 매개 측면에는 각각 그 특성이 있다. 이것은 모순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이다. 모순되는 사물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동일성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통일체 내에 같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 그 반대물로 호상 전화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모순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이다. 그러나 모순의 투쟁은 부단한 것으로서 그것들

이 같이 존재할 때나 또는 그것들이 서로 전화하는 때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투쟁이 있으며 더우기 그것들이 호상 전화하는 때에는 투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또 모순의 보편성 또는 절대성이다. 모순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연구할 때에는 주요 모순과 주요하지 않은 모순과의 구별 및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과의 구별에 유의하여야 하며 모순의 보편성 또는 투쟁성을 연구할 때에는 모순의 상이한 각종 투쟁 형태의 구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연구를 거쳐 상술한 제 요점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우리의 혁명 사업에 불리한 교조주의적 사상을 능히 격파할 수 있으며 또 경험이 있는 동지들로 하여금 자기의 경험을 정리하여 그것에 원칙성을 부여하게 하며 그리 하여 경험주의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모순의 법칙을 연구한 우리의 간단한 결론이다.

주 해

[1] 헤겔의 저서《철학사 강의》의 제 1 권《엔레아 학파》에 대한 헤겔의 평어에서 인용하였다. 헤겔의 저서《철학사 강의》의 적요》에 있다.

[2] 헤겔의《변증법에 관한 문제》에 있다——《동일체의 양분과 그 모순된 부분들의 인식은 변증법의 정수이다》. 또 헤겔의 저서《논리학》제 3 분책 제 3 장《리념》에 대한 헤겔의 평어에 있다——《변증법은 간단히 대립물의 동일성에 관한 학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써 변증법의 핵심이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명과 전개가 필요하다》. 헤겔의《헤겔의 저서《논리

학>의 적요》를 참조하라.

[3] 메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4] 한조 때의 공자 학파의 유명한 대표자 동 증서(기원 전 179년~기원 전 104년)는 한 무제에게 《도(道)는 근원이 천(天)에 있다. 천은 변하지 않으며 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도》라는 것은 중국 고대 철학자의 통용어로서 그 의의는 《긴》 또는 《도리》인데 《법칙》 또는 《합법칙성》으로 해석된다.

[5] 엥겔스의 《반두링론》 제 1 편 제 12 절 《변증법. 량과 질》에서 인용한 것이다.

[6] 메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 있다.

[7] 엥겔스의 《반두링론》 제 1 편 제 12 절 《변증법. 량과 질》에서 인용한 것이다.

[8] 메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9] 메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10] 메닌의 《공산주의》에 있다.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의 주해 10을 참조하라.

[11] 《손자·모공》에 있다.

[12] 위 정(기원 580~643년)은 당대(唐代) 초기의 정치 활동가이며 역사가이다. 이 글의 인용어는 《자치 통감》 192 권에 있다.

[13] 《수호 전》은 북송 말년의 농민 전쟁을 묘사한 소설이다. 송 강은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이다. 측가장은 농민 전쟁의 근거지인 양산박 부근에 있으며 이 장(莊)의 통치자는 측 조봉이라고 부르는 대약결 지주이다.

[14] 메닌의 《다시 한 번 적쟁, 시국 및 트로츠키, 부하린의 오류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15] 메닌의 《무엇은 할 것인가?》 제 1 장 제 4 절에 있다.

[16] 헤겔의 저서 《논리학》 제 1 분책 제 1 장 《규정성(질)》에 대한 메닌의 평어에서 인용하였다. 메닌의 《헤겔의 저서〈논리학〉의 적요》에 있다.

[17] 《산해경》은 중국 전국 시대(기원 전 403년~기원 전 221년)의 저작이다. 파보는 《산해경·해외복경》에 나오는 신인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파보는 해물 쫓아 달렸다. 해 결 무렵에 이르자 그는 목이 말라서 황하와 위하에서 물을 마셨으나 이 두 강의 물도 부족하여 북쪽으로 태백에 가서 마시며 하였다. 그러나 채 가지 못 하고 도중에서 목이 말라 죽었다. 그가 버린 지팡이가 복숭아나무 숲으로 되었다》.

[18] 예는 중국의 고대 권설에 나오는 영웅이다. 《해물 쓰았다》는 것은 그 가 활을 잘 쓰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조 때의 사람 류 안(기원 전 2세기 때의 귀족)이 편찬한 《회남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요의 시대에 해 열 개가 동시에 머서 목식이 말라 라고 초목이 말라 죽게 되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또 알유, 착치, 구영, 대풍, 봉희, 수사 등 동물이 나와서 백성을 해치었다. 요는 예물 시켜……우로는 열 개의 해물 쓰고 아래로는 알유를 죽이게 하였다.……백성이 모두 기뻐 하였다》. 굴원의 시 《천문》전에 관한 동한 사람 왕 일(기원 2세기 때의 저작가)의 주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회남자에 의하면 요의 시대에 해가 열이 동시에 머서 초목이 모두 말랐다. 요는 예에게 열 개의 해물 쓰게 하였는데 아홉을 맞히고……하나를 남겨 두었다》.

[19] 《서유기》는 기원 16세기 중국의 신화 소설이다. 손 오공은 《서유기》의 주인공이다. 그는 신원(神猿)으로서 72번의 법술을 가지고 있어서 새, 짐승, 벌레, 고기, 초목, 기물 또는 사람, 무엇으로든지 마음 대로 변할 수 있다.

[20] 《토제지이》는 기원 17세기 청조 사람 포 송령이 민간의 권설을 수집하여 쓴 소설집으로서 단편 소설 431편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은 신선, 여우, 귀신 이야기이다.

[21] 맑스의 경제학 원고 《서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22] 예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23] 이 말은 반고(기원 1세기 때의 중국의 저명한 역사가)가 지은 《전한서·예문지》에 처음 나온 것으로서 그 후에 많이 유행되었다. 반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자 10가 중에 불만 한 것은 9가 뿐이다. 그들은 모두 왕도(王道)가 이미 쇠약하고 제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각각 제 몇 대로 뭉치하고 있던 때에 발생하였다. 이리 하여 9가의 술(術)은 벌레처럼 나라나 각각 한 가지 학설씩 들고 나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제후에게 채용되기 위하여 유세하였다. 그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나 물과 불처럼 서로 멀하기도 하고 서로 생하기도 한다. 인(仁)과 의(義), 경(敬)과 화(和)는 상반되면서도 모두 상생한다》.

[24] 예닌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 있다.

[25] 예닌의 《부하린의 저서〈파도기 경제학〉에 대한 평주》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책은 본사에서 1965년 8월에 출판한 《모택동선집》 제 1 권 조선문판 제 2 판에 근거하여 재판한 것이다.

本書根據我社 1965年 8 月出版的《毛澤東選集》第一卷朝鮮文版第 2 版重印。

모택동선집

제 1 권

•

민족 출판사 출판
신화 서점 북경 발행소 발행
각지 신화 서점 판매

•

1967년 2월 북경 제 2 차 인쇄
보급판 정가 44원

毛泽东选集

第一卷

(朝鲜文)

民族出版社出版

(北京安定门外和平东路)

北京市书刊出版业营业许可证出字第047号

人民教育印刷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各地新华书店经售

787×1092毫米 1/32·印张, 15 3/8·插页, 3

根据1965年8月北京第2版重印

1967年2月北京第2次印刷

统一书号: M1049(6)121 普及本定价: 0.44元

毛泽东选集

第一卷

(朝鲜文)

民族出版社出版

(北京安定门外和平东路)

北京市书刊出版业营业许可证出字第047号

人民教育印刷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各地新华书店经售

787×1092毫米 1/32·印张, 15 3/8·插页, 3

根据1965年8月北京第2版重印

1967年2月北京第2次印刷

统一书号: M1049(6)121 普及本定价: 0.44元